

재외동포 문학의 창

제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 시 | 대상 - 난 만원 버스를 타고 싶다(손희숙 · 미국) 우수상 - 바다(리순옥 · 중국)
- 소설 | 대상 - 파티(임영록 · 미국) 우수상 - 이방인(양룡철 · 중국)
- 수필 | 대상 - 뉴욕 겨울 산의 단상(방인숙 · 미국) 우수상 - 거꾸로 가는 여행(장은아 · 미국)
- 생활수기 | 대상 - 꿈은 이루어진다(고동운 · 미국) 우수상 - 황무지에 피는 꽃(이인순 · 뉴질랜드)
- 청소년글짓기 | 대상 - 오! My 코리아(박동웅 · 필리핀) 우수상 - 사랑하는 나의 가족(김련순 · 중국)

제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화의 장



재외동포와 고국을 잇는 기교 - 재외동포재단

우리 재외동포재단은 조국을 향한 전 세계 600만 재외동포의 애ущ한 가슴을 채워 주기 위하여 1997년 10월 30일 특별법인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외동포와 고국을 이어 주는 기교로서 우리 재단은 교류, 교육, 문화, 경제, 정보화 사업 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세계 속의 자랑스런 한민족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TEL : 82-2-3463-6500 <http://www.korean.net>

재외동포문학의 창은

재외동포들의 문학을 향한 열정의 마당이며,

한민족 공동체의 꿈을 마음껏 펼칠 문학의 한마당입니다.

책을 펴내며

<재외동포문학상>이 올해로 벌써 다섯 돌이 되었습니다.

보다 넓은 세상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위하여 모국을 떠나 며 나면 이국 땅에서 또 다른 삶을 개척해 가는 동안에 생겨난 수많은 가슴 속의 사연과 드라마가 여러분의 작품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미국 이민 1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말과 우리글은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생생하게 새롭고 독특한 문학작품으로 거듭 나고 있음에 감사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을 통하여 거주국에서 경험한 우리 동포들의 다양한 삶에 녹아 있는 각기 다른 문화를 서로 이해하여 내외동포간의 문학세계와 민족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를 거듭하며 관심과 성원이 증대되고 있는 <재외동포문학상>이 동포사회에서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에 작지만 뜻깊은 역할을 해 내기를 기대하며, 또 다른 작품을 구상하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창작활동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품을 보내 주신 응모자 여러분, 심사위원님 그리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한국일보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 9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권병현

입상 작품집을 발간하는 이유

재외동포재단과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작품 공모에 해마다 출품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글과 말을 가지고 문학을 공부하려고 결심하셨기에 고국을 떠나 살면서도 한글과 우리 말을 잊지 않고 글을 쓰고 계십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까지 다섯 번째 실시되는 문학작품 공모에는 수많은 분들이 참가하시어 입상도 하였고, 또한 뜻을 이루어 내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글을 써 보내시는 것을 볼 때, 한국문학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란 생각을 가집니다.

문학은 삶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개인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큰 뜻과 어울려 작품 속에 승화된 것을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비단 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느낌만이 아닙니다. 입상작품이 책으로 묶여 발간되면 더욱 넓게 독자들에게 확산되리라고 믿습니다.

배달겨레의 끈질긴 민족성과 흥의인간의 큰 뜻이 글에 녹아 바탕을 이루고 일상적 삶에서 느낀 것들이 주제가 되어 한글로 글을 썼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쓰거나 한국문학을 일으켜 세우는 문학 작품이 됩니다. 때문에 문학을 삶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생생한 기록이 여러분의 참모습이고 역사가 될 때, 한국문학은 발전해 갑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한국문학의 전통만 지켜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입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원하면서 여러분은 한국문학의 장래를 짊어질 큰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 9.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장 성기조

■ 차례

발간사 · 6

심사평 · 13

A부문

대상 난 만원 버스를 타고 싶다	손희숙 · 미국	21
우수상 바다	리순옥 · 중국	23
가작 재봉틀	김선진 · 미국	24
가작 경침	김현진 · 중국	26
가작 어머니	배경옥 · 뉴질랜드	28
가작 가슴으로 오는 아침	김유경 · 캐나다	30
가작 지고개(酒峴) 전설	김필영 · 프랑스	32

소설부문

대상 파티	임영록 · 미국	37
우수상 이방인	양봉철 · 중국	76
가작 황구(黃狗)	최유혜 · 미국	92

기작 마스크	리동렬·중국	111
기작 도망	김희정·캐나다	127
기작 영주권 장사(Immigration Merchant)	임윤식·캐나다	148
기작 이렇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인생을	김영문·미국	177

수필부문

대상 뉴욕 겨울 산의 단상	방인숙·미국	203
우수상 거꾸로 가는 여행	장은아·미국	211
기작 새봄의 언덕에	이미옥·중국	224
기작 한복(韓服)	민영일·미국	228
기작 코리아, 마마의 멋진 고향	염혜숙·독일	236
기작 어머니의 성탄 카드	진경자·독일	245
기작 신뢰를 깨지 마세요	유한나·독일	253

생활수기부문

대상 꿈은 이루어진다	고동운·미국	261
---------------	--------	-----

우수상 황무지에 피는 꽃	이인순 · 뉴질랜드	275
기작 바나나 연가	이경난 · 미국	283
기작 언어(言語)와 문자(文字)의 벽(壁)을 넘어	강혜영 · 일본	299
기작 지난 10년 동안	정파로우 · 영국	309
기작 민족성과 문화가 담긴 언어	김해순 · 독일	320
기작 어머니의 기다림	홍이숙 · 중국	335

청소년 글짓기부문

대상 오! My 코리아	박동웅 · 필리핀	345
우수상 사랑하는 나의 가족	김현순 · 중국	350
기작 딜레마(진퇴양난)	변선우 · 미얀마	355
기작 조개 껍데기 하나	오하나 · 뉴질랜드	358
기작 나의 뿌리	신정아 · 영국	359
기작 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을 때	김수지 · 스페인	364
기작 나의 꿈, 나의 미래	이윤진 · 칠레	369

수상 소감 · 373

심사평

시부문 심사위원 : 성기조, 문효자, 이길원, 강민

모든 예술 장르 중에서도 문학은 언어를 매체로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정신지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장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는 감성과 직관의 소산으로 글쓴이의 정서적 상황을 표출하는 데 용이한 부문이다.

본 문학상의 성격상 응모작 대부분은 이질적 문화현장에서 한 민족으로서 갖는 갈등, 충돌, 화해의 정신적 경로에서 빛어지는 결과물로 모국의 문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예년에 비해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

대상으로 뽑힌 손희숙 님의 <난 만월 버스를 타고 싶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고국의 인정과 향수에서 안정과 평화를 느끼고 있는 작자의 정서가 담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리순옥 님의 <바다>는 ‘바다’라는 공간에 펼쳐지는 상상의 세계가 탁월하고 가작으로 뽑힌 김선진, 김현진, 배경옥, 김유경, 김필영 님의 작품들도 각각 소재의 은유적 형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다.

심사평

소설부문 심사위원 : 한필숙, 이상문, 이국자, 유금호

소설부문은 작년에 비해 월등하게 수준이 높아져 우열을 가리기 가 힘들었다. 모국의 소설문단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 태반이었다. 단편소설에 필요한 주제의 집중, 구성의 균형, 문체의 감수성 등이 잘 드러났고, 모국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읽음으로써 우리 소설의 지평을 그대로 받아 안은 작품이 많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민사회에 적응하는 삶의 고단함이 짙게 드러나 심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애틋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토양에 뿌리내리려는 모국산 수목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심사위원들은 대상을 뽑기 위해 양룡철 씨의 <이방인>과 임영록 씨의 <파티>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방인>은 우리 항일 운동사에서 거의 실종되어 버린 조선의용군 출신 인물을 다루었다. 그 인물이 한국전쟁에 출전해 훈장을 받았으나 귀환 직후 특무로 불리고 고난어린 삶을 살다가 죽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골을 강에 뿌리고 훈장을 버리는 서사구조를 갖고 있다. 주제가 곡진하고 전체의 밀도가 높은 테다가 감동의 깊이도 깊은 소설이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북방 모국어의 묘사도 주목할 만했다.

<파티>는 90년대의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담았다. 이민으로 인해 무능해진 화자와 그에 대한 아내의 경멸과 불륜을 중심 구조로 놓고, 두 살 때 입양 온 동포 출신 처녀의 삶을 염두에 두었다. 거기에 두 사람의 삶을 은유하는 도둑고양이를 객관적 상관물로 등장시켰다. 그리고 중반 이후 1인칭을 교차시켜 넣음으로써 구성의 정형성을 벗어났다.

심사위원들은 두 작품이 우열은 없으나 <파티>가 예술적 형상화와 완성도에 앞선다고 결론짓고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에게 축하인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정진을 기대한다.

심사평

수필부문

심사위원 : 김병권, 손광성, 유혜자, 맹난자

초복날 심사위원 네 사람이 여의도 팬클럽 사무실에 모였다. 예상보다 응모작이 많은데다, 원고지 분량이 15매 내외여야 하는데 응모작 중에는 A4 용지로 15매로 착각한 분도 많았다. 또 어떤 분은 작품 다섯 편씩 응모하는 바람에 심사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오랜 예선과 본선을 거치고 심사위원들 손에 남은 것은 방인숙 씨의 <뉴욕 겨울 산의 단상>과 장은아 씨의 <거꾸로 가는 여행>이 대상과 우수상을 놓고 겨루게 되었다. <거꾸로 가는 여행>은 유년기의 주인공의 사물을 보는 해맑은 눈이 참신해서 좋았지만, 수필로써의 형식이 문제 되었고, <뉴욕 겨울 산의 단상>은 내용과 형식이 두루 갖추어진 수작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 일치로 <뉴욕 겨울 산의 단상>을 대상으로 정하고 <거꾸로 가는 여행>은 아쉽지만 우수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 밖의 이미옥 씨의 <새봄의 언덕에>, 민영일 씨의 <한복>, 염혜숙 씨의 <코리아, 마마의 멋진 고향>, 진경자 씨의 <어머니의 성탄 카드>, 유한나 씨의 <신뢰를 깨지 마세요>를 각각 가작으로 정하였다.

모든 작품에 공통되는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였으며 해외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동포들의 마음이 심사하는 동안 내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심사평

생활수기 심사위원 : 김병관, 손광성, 유혜자, 맹난자

수필과 수기는 다 같이 진실의 기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필이 효과적인 구성이 필요한 문학적 장르라면 수기는 땀과 눈물의 기록으로, 읽는 이에게 공감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낯선 땅에서 고국과 다른 정서로 겪은 낭폐감, 소외감,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크고 작은 사례들이 눈물겹고 장하게 생각된다. 단지 자신들이 겪은 한가지 한가지가 다 소중해서 대담하게 추려내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고동운 씨의 <꿈은 이루어진다>를 대상으로, 이인순 씨의 <황무지에 피는 꽃>을 우수상으로 결정하는 데 심사위원의 의견이 모아졌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딛고 일어선 인간승리의 이야기로 문장도 무리가 없다. 독학 끝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편입하여 졸업 후 공무원으로 보험전문인 양성 교육 기관에 산재보험법 강의도 나가며 은퇴하면 귀국하여 사회복지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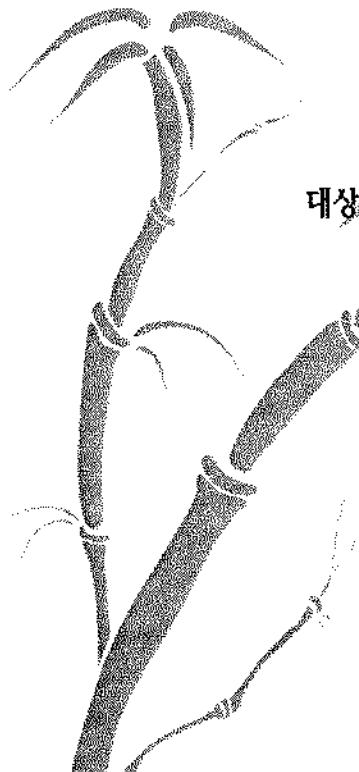
<황무지에 피는 꽃>은 뉴질랜드 황무지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농사짓는 이야기로 길지 않으면서도 밀도 있는 내용을 잘 담았다.

가작으로는 이경난 씨의 <바나나 연가>, 강혜영 씨의 <언어

와 문자의 벽을 넘어>, 홍이숙 씨의 <어머니의 기다림>, 김해순 씨의 <민족성과 문화가 담긴 언어>, 정파로우 씨의 <지난 10년 동안>을 뽑았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동포들의 성공을 비는 마음 간절하다.

시부문



대상 · 난 만원 버스를 타고싶다 | 손희숙

우수상 · 바다 | 리순옥

가작 · 재봉틀 | 김선진

가작 · 경첩 | 김현진

가작 · 어머니 | 배경옥

가작 · 가슴으로 오는 야침 | 김유경

가작 · 지고개[酒峴] 전설 | 김필영

난 만원 버스를 타고 싶다

손희숙 | 대상·미국

난 흔들리고 싶다
만원 버스에 몸을 맡기고
흔들흔들 부대끼며
정직된 삶의 근육을 느슨하게 풀고 싶다

우울한 휴일 오후
무심하게 버스가 떠난 자리
새 몇 마리가 내 빈 그림자를 쫓고
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저 버스를 타면
내 젊은 날의 친구
경산행 87번 시내 버스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장난기 짙은 기사 아저씨가
부—우—웅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리로 와— 저리로 와— 쏠리며
고르게 자리를 만들어 주던 만원 버스

어깨와 어깨의 부딪침 속에서
고단함과 휴식의 헷갈림 속에서
뽕짝과 짊음 속에서
구린내와 철학 속에서

고단한 몸 서로 어깨를 내주어도
아무렇지도 않던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땐
난 만원 버스를 타고 싶다

바다

리순록 | 우수상 · 중국

바다는

내 여린 자욱이 궤적 지어

넓어진 언어라는 걸 나는 안다

바다는

내 뾰은 사랑이 살을 쑤어

설레이는 아픔이라는 걸 나는 안다

바다는

내 삶바랜 혼이 갈앉아

하얘진 소금의 륙지라는 걸 나는 안다

바다는

내 옹근 생명과 넋과 그림자가

살 쑤어 피 흘리는

속울음인 줄 안다

오열과

아픔과

죽음의 꽃으로 피는 령흔의 우주인 줄 안다

재봉풀

김선진 | 가작 · 미국

아직도

바늘 구멍 같은 행복을 찾아
더듬거리며 때론 절망하지만

짜투리 세월 펼쳐놓고 다시 재단해야지
낡은 시간의 솔기도 뜯어 내고
느슨하게 올 풀린 사랑도 단단히 박고
기슴 속 벌어진 상처도 아무지게 시쳐야지
언젠가
눈물과 한숨의 조각천도
하루하루 이어가면
꽃밭 같은 원앙금침이 될 테니
그 때까지
마음 흩어지지 않게 꽉 묶고
부려진 바늘 같은 꿈이라도 버리지 말고
울컥 빠져나오는 슬픔은 꾹꾹 눌러 감춰야지
늘 짧았던 이해와 용서도
접힌 자국 펴고 나이 만큼 키를 늘려야지
낡은 마음과 원망의 자리엔 아무도 몰래

고운 기쁨을 살짝 덧대어 붙여야지

아직도

서투르고 어설픈 세상살이 속에

더듬거리며 때론 절망하지만

۲۷

김현진 | 가작 · 중국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30, No. 171, March, 1935.

지난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즈음 나는
깊고도 아득한 동굴을 찾아들어
또아리 틀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네
그리고 곧 꿈을 꾸었지
꿈은 혀기지지 않을 만큼 배를 채워 주고
갈증나지 않을 만큼 목을 적셔 주었네
나가 본 적 없는 푸른 초원에 앉아
가느다란 바람 소리 귓전에 걸어 두고
아름다운 시도 지었다네

2

꿈길을 지나 돌아오는 중
아름다운 시를 잃어버리고 말았네
이정표도 없는 꿈길
해매고 다녔지만 찾을 수도 없고
다시 써 보자니 기억할 수도 없었네
시도 소리도 잃은 정적 속
막연합에 지쳐 또 다른 잠으로 빠져들었네

3.

빛이 대지를 흔들며 오고 있다 하네
깨어나야지 깨어나야지
묵은 어둠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긴 시간 웅크리느라 진 골 사이에
숨을 채워 넣어야지

어 머 니

배경옥 | 가작 · 뉴질랜드

1.

열은 물 건널 때도
행여나 적시울까

돌다리 놓으시며
쌓아올린 탑신 위에

주름진 세월은 앓아
등불 켜는 그 지성

2.

세월의 터진 성을
버선처럼 받쳐 들면

자식들 걱정 한 땀
밤새 내쉰 숨소리에

낙엽도 정적을 안고
가비암개 놓이다.

3.

생각하는 골골마다
누벼 솟는 알뜰한 자애

가슴마다 아려오는
무색 바다 물결 속에

차라리 늙으신 망정
이대로만 계옵소서.

가슴으로 오는 아침

김유경 | 기작·캐나다

창 밖으로

이른 주말의 아침이

바람 한 점 없이 서 있다

풋과일처럼 단단한 마음도

지친 몸을 얼른 일으키지 못하는 아침

함께 누웠던 어떤 상념 하나

아직 제 시간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지붕 위로 등잔불 같은 해가 걸렸다

이런 날이면

저 먼 곳의 풍경은 시간에 가려 보이지 않고

눈앞의 얼굴은 가슴에 걸려 걸음을 멈추는

나의 희미한 하루는 눈을 닫는다

끊임없이 창을 두드리는 새 소리

가슴으로 안겨 오는 아침

이층 창보다 더 커 버린 그리움

사이를 날며 새 한 마리

온 세상을 다 흔들고 있다

지고개[酒峴]¹⁾ 전설

김필영 | 가작·프랑스

하무실 사람들은
막걸리 같은
샘물이 고인다던
술마루를 기억한다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던
그 고개를

철마다
술마루엔
느티나무에서 떨어지는
술한 소문들이
술잔 안에
수북하게 쌓이고
소문은
마을을 돌고 돌아
더디게
썩어 갔다

돈 많은 영감한테 어린 딸 시집 보낸 간난네 엄마
시집도 가기 전에 애를 배서 집에서 쫓겨난 영자네 언니
빌린 돈을 떼먹고 한밤중에 정선으로 달아난 수캐네 아버지
구호물자 얻으러 성당에 다니던 분도네 식구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과목집네 간 큰 욕쟁이 아들
눈먼 딸한테 못된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산밑집 무바우
잘못을 충고한다고 분개해 못으로 이웃의 눈을 찌른 구름이 아저씨
나붓들 밤길에 옆집 수연이를 강간한 고무신 때우던 사팔뜨기
밀주 단속한다고 돌아다니며 돈만 갈취한 등기소 직원
제 어머니를 팬 죄로 경찰서에 끌려간 철구란 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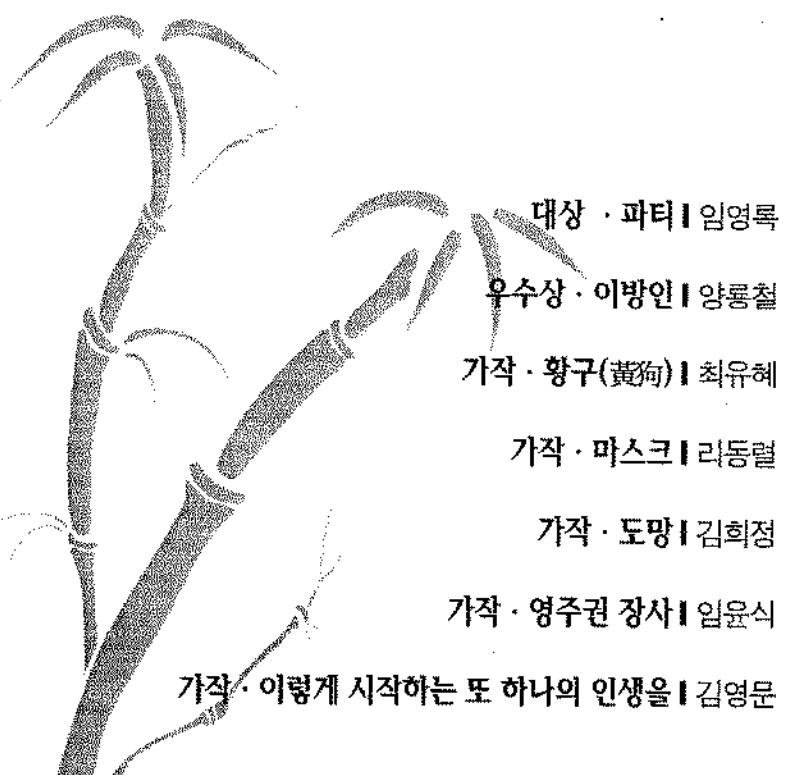
헐징개로 가는
큰 길이 나면 어느 날
술마루도
느티나무도
모두
흙더미 속에 파묻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지고개가
되고 말았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지고개서 온
소포에는
조카가 장가를 간다는
소식이 적혀 있고
파리에 있는
우리 집에는
태평양을 건너 온
새로 나왔다는
25도짜리 안동소주에
잊고 있었던
술마루 전설들이
다시금
황홀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다

1) 지고개는 경상북도 예천읍에 있는 한 마을 이름이다.

소설부문





파티

1

1714 University Ave. Honolulu

전화로 그가 불러 준 주소이다.

“일이 4시에 끝나니까 그 시각에 맞추면 보여 줄 수 있어요.”

그녀는 그의 영어가 약간 서툴게 느껴졌고 한국말의 억양은 웬지 강원도 사투리가 조금 섞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와이로 이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리를 잘 모른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UH(하와이 대학) 정문 근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라며 바쁘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아쿠아 색깔의 갑옷 치마를 걸친 반라의 청동상을 가게 앞에 내놓은 ‘타이의 추억’이라는 곳의 바로 옆 가게라는 그의 설명이,

그녀는 자신에게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맨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한국 사람 이에요?”라고 약간 당황한 듯 귀찮게 내뱉은 말 때문이었다.

하와이 대학 구내 게시판 광고에 Kim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 한국 사람일 것이라는 단정을 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녀는 전화를 하였지만 그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았다.

한가하던 거리가 스쿠버ダイ버가 참았던 숨을 뱉어 내듯 많은 학생들로 북적거리며 시끄럽게 주말의 거리를 메웠다.

스타벅스 커피숍, 세븐 일레븐 편의점, 스포츠 카페일 바, 극장과 음식점, 중고서점 및 음반점, 인터넷 카페, 은행…….

보이는 가게마다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

가끔씩 지나가는 차량에서 뿜어 내는 출력 높은 랩송의 베이스 음이 상가의 유리창을 흔들어 대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의 일에 열중이었다.

킹 스트릿과 유니버시티 애브뉴가 만나는 부분의 코너에 위치한 조그만 상가 한편에 위치한 ‘타이의 추억’은 그의 말대로 점포의 현판문 높이 만한 청동상이 밖에 놓여져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민망한 듯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린 부채춤을 추는 소녀처럼 가느다란 몸매의 청동상은 긴 손톱의 손가락을 부채처럼 펴고 얼굴 앞을 가리우고 있었다. 도톰한 가슴을 다 내어 놓고 눈은 요염하고도 날카로운 고양이 눈을 하고 있어 긴 손톱의 날카로운 끝이 남태평양 오후의 나른함을 톡톡 터뜨리고 있었다.

윈도에 비치는 가게 안에는 형형색색의 구슬이 주렁주렁 매달

린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와 어두컴컴한 내부에 빽빽하게 자리잡은 크고 작은 불상과 갖가지 모양의 청동상 때문에 그녀는 기분이 음산해졌다.

‘Aloha Tatoo’ 알로하 문신.

‘타이의 추억’ 옆에 위치한 그가 일하고 있다는 가게였다.

옆 가게와 음산함을 공유하며 입구에서부터 살갗이 타는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그녀는 그냥 돌아갈까 생각을 해 보았지만 ‘혼다 어코드 자동차 96년 \$2,500, 네온 자동차 98년형 \$2,000, 노트북 컴퓨터 \$300, 책상 \$50, 소니 평면 티브이 20' \$100, 셀리 침대 \$300 그 외 많이 있음’이라는 차를 비롯한 필요한 물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파는 광고가 마음에 걸리고 이런 곳에서 한국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야릇한 호기심이 생겨났다.

그녀가 문을 빠끔히 열고 들어서니, 손님으로 보이는 백인 학생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 카탈로그를 보고 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벽에 붙여져 있는 보드에는 크고 작은 원색의 그림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하고 그림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

작은 쌍 하트 \$40, 핏빛의 장미 \$70, 조금 큰 장미에 꽃잎 하나 \$95, 용이나 호랑이 \$150, 독거미와 거미줄이 크기에 따라 \$50, \$75, \$100 그리고 한화에서 보면 이상한 형상과 무늬 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글자에 스티커로 덕지덕지 가격을 매겨 놓고 있었다.

‘Cash Only’라는 낡은 사인이 붙은 카운터 너머로 정면 벽에는 문신 사진을 확대한 대형 포스터가 서너 장 붙어 있었다.

용의 그림이 엉덩이에서부터 올라와 가느다란 혀리를 넘어 등

허리까지 뒤엉켜 올라 불어 있고, 머리를 한 손으로 감아 올리며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기모노를 팔 한 쪽에 걸친 일본 여성의 에로틱한 뒷모습을 찍은 포스터에 자꾸 눈이 갔다.

푸른 비늘로 덮여 한기가 느껴지는 섬뜩한 용의 그림이 풍만한 여체의 곡선을 타고 흡착된 모습은 높지 않은 부드러운 등근 산에 천동 번개가 광음을 내며 번쩍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뱀의 혀가 날름거리며 자신의 손등을 핥는 것 같은, 바라볼수록 야릇한 매력과 거림칙한 불안감이 뒤틀어져 그녀의 어깨를 웁츠리게 만들었다.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 빨리 이 곳을 빠져 나가자. 징그럽고 더러운 곳에서 나가자.’라고 되뇌며 범행 현장에서 빨리 도망쳐 버리고 싶은 범법자 같은 심정이 되어 가게를 나가려다가 그녀는 청소를 하고 있는, 문신이 온 팔뚝에 그려진 프로 레슬링 선수처럼 거대한 덩치의 백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씽긋 웃으며 킵을 찾으러 왔느냐며 곧 나올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협상궂은 거대한 덩치인 그의 말에 약간의 주눅이 들어, 그녀는 알겠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여 주고는 등받이 의자에 슬며시 걸터앉았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덩치의 말에 손님 중의 한 사람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덩치가 내어 주는 의자에 앉는다. 티셔츠를 훌쩍 벗어 버린 백인 손님은 얇은 갈색의 텔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창가로 비춰지는 오후의 햇살에 부딪쳐서 하얀색의 솜털로 되

었다가 그림자에 따라 다시 갈색으로 변했다를 반복했다.

그녀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눈길을 둘 만한 곳을 찾기가 여의치 않았다.

진화되지 못한 인간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덩치는 자못 심각한 얼굴로 흰 고무 장갑을 끼면서 손님이 요구하는 거미줄의 독거미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한 손으로 샴푸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처럼 생긴 흰 용기를 거꾸로 잡고는 흔들어 대었다.

흰색의 크림이 플라스틱 용기에서 빠져 나와 손님의 어깨에 골고루 발라졌다.

독거미 그림의 원본을 복사기로 복사를 한 뒤 그림만 가위로 잘라 내고 투명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서 입을 넓적하게 벌리고 있는 코팅 기계처럼 생긴 흡착 테이프를 만드는 기계로 밀어 넣었다.

덩치가 종이 수건으로 손님의 어깨를 문지르니 솜털과 갈색이 한번에 씻겨져 나가며 손님의 어깨가 죽은 자의 피부처럼 하얗게 드러났다.

한 바퀴 들어갔다가 나온, 입이 넓은 기계의 끝에서 매달려 공회전하던 흡착 테이프를 손님의 어깨에 올려 놓고는 덩치는 참았던 가쁜 숨을 내쉬었다.

독거미와 거미줄 그림이 얇은 검은색으로 본이 새겨진 손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눌러 보며 바라보던 덩치는 흰 비닐 팩에 밀봉된 바늘을 꼬집어 내었다. 테이블 위에 일렬로 세워진 담뱃갑 크기 만한 문신 기계에 총알을 장전하듯 바늘을 양쪽 구멍에 맞추어 끼워서는 나사를 조였다.

덩치는 갑자기 예술가처럼 고상한 표정이 되어 작은 안약통 크기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색의 물감 중에 검은색을 골라 콘택트 렌즈 보관하는 통처럼 생긴 용기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바늘이 검은 물감을 한 모금 먹고, 상대방에게 강한 적의를 드러내며 어금니를 하얗게 드러내 보이는 핏불견처럼, 바늘은 파르르한 전기음을 내며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백을 쥐고 있는 손을 움켜쥐었다.

검은 선을 따라가는 바늘은 피가 튀어도 몸부림은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전에는.

흘러내리는 피를 덩치는 종이 수건으로 닦아 내며 바늘이 다시 피를 부르는 것을 반복하고 바늘을 통해 피하조직에 스며드는 검은 물감은 독거미를 만들어 간다.

손님은 고통에 약간 얼굴을 찡그리다가 고개를 돌려 자기 몸에 슬금슬금 기어 다닐 독거미를 바라볼 때면 사뭇 자랑스러운 듯 뿐 듯한 얼굴이 되었다.

독거미의 몸체와 긴 다리 하나가 그려질 때쯤, 대형 포스터가 걸린 쪽 벽의 문을 열고 독거미의 다리 하나가 비집고 나오듯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키 큰 남자가 나왔다.

“아까 전화하신 분이죠?”라고 묻는 그는 무표정하게 그녀의 행색을 찬찬히 살피며 덩치에게 ‘내일 보자구’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는 문을 나선다.

음침한 곳에서 거리로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뜨겁고 눈이 아릴 정도의 밝은 오후의 햇빛이 그녀의 움츠렸던 마음을 조금씩 편하게 만들었다.

한 발 앞서 걷던 나는 갑자기 생각난 듯 “어떤 물건을 사실 거죠?”라며 돌아보았다. “저…… 차하고 살림 도구도 보고 싶고…….”

그녀의 가름한 얼굴에 볼록한 눈매가 아내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림을 느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많은 열음 덩어리가 목젖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가슴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것같이 시작되는 이 증상은 아내와 살던 LA를 떠나면 멈출 줄 알았는데 원하지 않아도 갑자기 나오는 팔꾹질처럼 가끔 찾아오고 있었다.

“다른 차는 다 팔리고 혼다 차만 남았어요. 물건들은 창고에 있으니까 차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고양이 밥 줄 시간이 되어서…….” 하고는 앞장 섰다.

가제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H-1 고속도로를 지나치는 차량들이 핸드폰처럼 작게 내려다보이는, 내가 사는 고층 아파트 까지 그녀는 한 발 뒤쳐져서 잠자코 뒤를 따라왔다.

아파트 빌딩 옆에 붙은 4층으로 된 아파트 주차장의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몇 층으로 움직이는지 계기판만 바라보는 그녀를 훌끔 보다가 입구에 서 있는 몇 그루의 야자수 끝을 올려다보았다.

밀폐된 공간에 일상이 잠시 멈추는 곳.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의 닫힌 문을 쳐다보고 있는 그녀에게 물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예? 아, 예.”

수업시간에 졸고 있다가 선생님으로부터 갑자기 질문을 받은 학생처럼 단어의 어감을 되새기며 고개를갸우뚱하는 그녀의 모습이 약간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표정이 그녀를 얕잡아 보는 느낌을 주었는지 “저 미국에서 오래 살았었어요”라는 밑도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웃매무새를 고쳤다.

주차장 한켠에 세워 놓은 암청색의 혼다 차는 광고를 내기며 칠 전에 세차를 해 두었지만 엷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 있었다.

“일본에서 유학 온 학생이 타던 차인데 그런 대로 성능은 괜찮은 편이에요. 일이 년 정도는 고장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둘러 보세요”라고 말하고는 아파트에 잠시 올라가서 고양이에게 밤 좀 주고 열쇠를 갖고 오겠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꼬리를 깃발 세우듯 치켜들고는 ‘오—옹’ 하고 나타난다.

잠꾸러기 녀석 ‘레옹’이 나와 같이 지낸 것은 이제 4개월이 조금 지나 있었다.

문신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는 스티브가 키우는 ‘러시안 블루’ 종류의 고양이 한 쌍이 새끼를 낳아 한 마리를 나에게 선사하였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정이 가지 않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나름대로 묘한 정을 느끼게 하는 녀석이었다.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무료함을 달래 주는 장난꾸러기이기

도 하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맹수의 근성을 착하게 살려고 이를 악물며 참는 개구쟁이기도 했다.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발로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목욕재개하고 참빗으로 머리를 빗어 비녀를 꽂는 단아한 여인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주차장에 ‘레옹’을 안고 내려갔을 때, 그녀는 양 손으로 망원경을 만들어 머리를 자동차 차창에 바짝 대고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은회색의 ‘레옹’을 보자, 그녀는 약간 놀라는 것 같더니 하루 종일 혼자 두어서 불쌍해서 데리고 왔다는 내 말에 이내 미소를 지었다.

시운전을 해 보라며 그녀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자 낡은 열쇠 때문인지 그녀의 흰 손이 더욱 하얗게 보였다.

그녀는 본넷트를 열고 엔진과 라디에이터 그리고 연결된 호스들을 마치 자동차 정비공이 된 것처럼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만져 보았다.

많은 세월을 지낸 그들은 기름때와 적당한 부식이 피부의 주름 살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자동차에 대해서 뭘 알기나 할까’ 하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녀와 나와 고양이가 탄 96년도 혼다 어코드 자동차는 주차장을 빠져 나와 와이키키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카이무키 언덕 쪽으로 달렸다.

6월로 접어든 태양은 더욱 뜨겁게 섬 전체를 달구고 있었다.

에어컨의 찬 바람이 그녀에게 더 가도록 조정을 하는 동안 팔에 안긴 ‘레옹’이 앞발로 그녀의 오른쪽 손등을 몇 번 문질렀지만 그녀는 그리 싫지 않은지 미소를 지었다.

차를 일본 학생에게 구입할 때 조금 신경이 쓰였었지만, 오늘따라 달릴 때는 괜찮은데 정차를 하면 자동차의 몸체와 엔진이 엊박자로 만들어 내는 소음이 더욱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얼른 라디오를 켰다.

요즘 들어 라디오에 자주 나오는 ‘기억’이라는 노래 소리가 소음을 잠시 가로막는다.

그녀는 꼭 당신처럼 생겼어요

심지어 웃는 모습도 당신과 똑같아요

그녀는 순수하게 보였지만 전 바보였던 거예요

그대여, 당신을 볼 때면 그녀가 생각나요

당신은 한때 제가 알던 소녀를 생각나게 해요

당신을 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녀가 제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당신은 믿지 못할 거예요

이제 바로 제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죠

그녀의 속마음을 알게 될 때까지 그녀가 제 운명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저만 빼고 다른 모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이제 바로 우리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죠

오랜만에 여자와 같은 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아내와 비슷한 체구의 그녀가 만드는 풋풋한 살내음 때
위가 얇은 향기처럼 피어올라 얼른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달리는 고급차가 눈에 많이 뛴다. 은백색의 똑같은 그
차를 보았다.

이젠 LA에서 있었던 일은 잊어버릴만도 한데 아직도 기억이 생
생하다.

그 날 그 차를 끝까지 따라 간 것이 잘못이었다.

남자와 같은 차에 타고 있는 아내를 내가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봉제 공장으로 급히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천연덕스럽게 “그 분이 우리를 얼마나 도
와 주었는데…….” “사람 의심하는 버릇 또 발동했어요?”라고 헐
난하며 나에게 면박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바로 눈앞에서, 남자의 승용차 옆 좌석에 타고 남자의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 나오는 아내를 확인하고는 나는 시동이 걸려 있는
트럭의 시동키를 계속 돌리고 있었다.

다리가 떨려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가슴 속에서
치밀어올라오는 뜨거운 용암 같은 뎅어리가 심장 박동을 멈추어
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 속은 시리도록 차가워서
온 머리털이 쭈뼛거리며 얼어 붙는 것만 같았다.

맨 처음에는 그들은 내 차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차 뒷유리창으
로 보이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자는
오른팔을 옆 의자에 올려 놓은 것인지 아니면 아내의 어깨를 만지
는 것인지 펼어져 앉아 있는 두 의자를 연결시키고 있었다.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듯 그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그들의 뒷덜미가 서늘하도록 나는 그 차의 뒷범퍼에 닿을 만큼
비수로 변한 내 차의 범퍼를 바짝바짝 갖다 대었다.

할리우드를 지나 웨스턴으로 진입해서야 그들은 내 차를 보았
는지 갑자기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도 무시하고 질주하는 그 차의 뒤를 이대
로 받아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뒤로 받으면 그들은 아무렇
지도 않겠지. 사거리에서 회전을 할 때 옆구리를 들이받아야 황천
길로 보내 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웨스턴에서 올림픽을 만나서 멈칫대더니 갑자기 좌회전을 하고
다시 끝없는 운행은 계속되었다.

자바 시장에 거의 다 가서 신호대기에 걸린 그 차의 뒷부분에
바짝 붙여서 정차를 했을 때, 두 의자를 연결하던 남자의 팔은 어
느 새 내려져 있었다.

“정말 고장 없이 이삼 년은 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정비 공장에 가서 점검을 한번 꼽 했거든요.”

“그럼 이 차를 사겠어요.”

홍정을 하자고 들면 일이백 불은 깎아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
만, 아무 말 없이 사겠다는 그녀를 흘끔 보았다. 운전대를 잡고 있
는 세상 물정 모르는 하얀 손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웅’은 뒷좌석에서 실눈을 뜨고 잠이 들었다.

주차장을 빠져 나올 때는 “여기서 우회전, 이리 들어가야 해요,
지금 빠른 시각이라 저리 가면 교통 체증에 걸리거든요”라고 주
문을 하였지만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은 그녀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엔진과 자동차 몸체가 내는 엇박자에 가끔씩 끼여드는 설장구 가락처럼 들리는 새로운 소음에 신경이 곤두섰다.

이런, 이거 다 된 밥에……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장구 소리가 복 소리처럼 점점 더 커지고 가끔씩 징 소리도 들렸다.

“차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가 다급하게 물어 본다.

지나가는 차량이 울려 대는 경적 소리에 쳐다보니 타이어가 평크 났다는 제스처를 해 보였다.

길가에 급히 차를 대고 내려 보니 운전대 뒤쪽의 평크 난 타이어로 계속 운행을 한 탓에 타이어 옆 부분이 전부 찢어져서 거덜 거렸다.

“이걸 어찌죠…… 미안해요 라디오 소리 땜에 못 들었어요.”

미안한 표정을 짓는 그녀에게 두 손바닥을 펴 보이며 어깨를 풀썩 한 번 올렸다.

트렁크를 여니 이사를 나간 텅 빈 집처럼 아무것도 없다.

답답한 일본 녀석. 공구는 다 어디다 박아 놓은 거야. 카펫 밑에 감추어진 밀판을 뜯어 내니, 공구와 조그만 스패어 타이어가 발굴을 기다리던 유물처럼 놓여져 있다.

“제가 뭐 도울 일은 없어요?”

그녀의 말에 잠자코 보자기로 싸여져 있는 공구 세트를 펼쳤다.

타이어 림을 고정해 주는 볼트가 녹이 슬어 잘 열리지가 않는다. 볼트에 복스를 걸어 차체를 잡고 발을 딛고 올라서서 힘을 주

니 낡은 미닫이 문에서 나는 소음을 내며 볼트가 돌면서 복스대 끝이 땅에 닿는다.

단말마처럼 석양이 지기 전의 태양이 더 강렬하고 뜨겁다. 땀이 비오듯 했다.

햇볕에 서 있지 말고 그늘로 들어 가 있으라는 말에도 그녀는 잠자코 옆에 서서 “죄송해요……” 하며 어쩔 줄 모른다.

복스대 끝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볼트도 돌고 하늘도 한 바퀴 씩 돌았다.

아내의 부정을 알고 난 후에 섹스를 한 적이 있었다.

아내는 잠이 든 척했지만 한숨처럼 몰아쉬는 숨소리는 자기의 몸에 뱀처럼 기어드는 손길을 체념하듯 내버려 두고 있었다.

빈 속에 소주를 한 병이나 마신 탓에 속도 울렁거렸지만 트림 하듯 올라오는 증오심 따위가 만들어 내는 손가락의 전율이 아내에게도 전해지는지 가끔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내는 용서를 해 달라고 했었다.

결혼하기 전에 일 하던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올었다.

가슴을 만지며 젖꼭지를 살짝 건들던 뱀은 아내의 목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올랐다. 목을 살짝 감싸 쥐었다. 뱀처럼 등글게 목을 감고 조여 버릴까.

허벅지에 목을 끼우고 힘을 주어 누르는 것처럼 말야.

가스실에서 죽어 가던 유태인처럼 눈과 혀가 튀어 나오겠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장례식장의 열려 있는 관 속에서 많은 사람들들에게 라스트 신을 보여 주겠지.

목을 감싸던 뱀은 다시 머리를 돌려 다른 쪽의 가슴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가슴을 두 개씩 달고 태어났나. 살기서린 뱀은 두 번째 가슴에서 유풍을 느꼈다.

가슴이 바람에 창호지 펄듯이 움직이고 뱀은 배꼽으로 내려간다. 텃줄이 달리고, 세상에 나와 텃줄을 자르고, 과거를 잊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흔적을 남겼는가.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배꼽을 핥으며 살짝 눌러 본다.

숨이 더욱 불규칙해지는 아내는 몸을 비비 꾼았다.

흘린 침을 닦듯 뱀은 음모를 살짝 물어 뜯기도 하고 머리를 음모에 비벼 대었다.

그래. 용서해 줄게. 너의 밑에 물기가 고여 있지 않는다면.

깊은 산 속에서 뱀이 목욕했던 고여 있는 물을 마시고 죽은 사람의 원혼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를, 그런 물이 없다면.

그 물기를 타고 뱀이 긴 동굴로 깊이 깊이 들어가서 가슴을 통해 머리까지 올라갈지도 몰라. 그리고 너의 머리를 뚫고 뿔처럼 굳어져 버릴지도 몰라.

바지를 내리고 성이 난 뱀을 풀어서 동굴에 집어 넣는다.

쏟아지는 눈물과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하늘이 돌고 침대가 사람이 탄 놀이기구처럼 돌고 또 돌았다.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하고 볼트를 조이는 내게 그녀는 땀을 닦으라며 냅킨을 내밀었다. 스페어 타이어도 오래 된 탓인지 공기가 충분하지 않아 공기를 보충하든지 새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했다.

가까운 주유소나 타이어 가게로 곧 가야겠다며 운전대를 잡는

내게 그녀는 “제가 타이어 값은 치를게요.”라고 말하고는 옆 좌석에 앉는다.

이제 여자가 마음이 변해 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시각이면 아파트에서 샤워를 끝내고 반바지 차림에 베란다로 들어오는 마노아 계곡의 시원한 바람을 받아 가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을 시각이었다.

하기는 아내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그녀를 보는 순간부터 오늘이 무언가 뒤틀려 버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기도 하였다.

뒷좌석을 돌아보던 그녀는 “고양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자네요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었다.

국면을 적당히 전환해 보려는 그녀의 의도가 웬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옹녀.”

고양이 이름을 기막히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처한 표정에 입을 다물 그녀를 흘끔 쳐다보았다.

잠시 정지된 화면처럼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으며 묻는다.

“여자 고양이라는 뜻이지요?”

웃어야 하나. 아니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린지. 그녀가 정말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목젖에 구슬이 하나 걸려 있는 것처럼 발랄하고도 여운이 있는 웃음소리였다.

지나치는 거리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다시 탄성을 지른다.

“가로수가 하나도 같은 나무가 없어요. 모양과 피는 꽃의 색깔도 너무 이뻐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사람들처럼 말예요.”

삼 년 전에 LA를 떠나 하와이에 처음 왔을 때, 하와이는 참 이상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금방이라도 현기증에 쓰러질 것 같은 이글거리는 태양을 피해 그늘 밑에만 들어 가면 멀리 태평양에서부터 불어 오는 바람으로 가슴까지 서늘했다.

분재같이 오밀조밀하게 생긴 언덕과 길로 연결된 바다도 개울처럼 작고 얕아 보이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코올라우 산맥도 마루에 쳐 놓은 병풍처럼 손에 잡히는 듯했다.

그렇게 느꼈던 것은 캘리포니아 대지의 넓디넓은 땅 덩어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허한 가슴 때문이었을까.

LA에 온 지 서너 달 후 쯤이던가, 자바 시장에서 일하던 아내를 학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내는 차창 너머 길거리에 싸늘한 눈빛을 던지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때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한 나는 아침에 아내를 일하는 곳에 내려주고 집에 와서 한국 신문을 뒤지거나 차를 몰고 한인 타운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시간을 보내다가 아내의 일이 끝날 즈음 시각에 맞춰 자바 시장으로 가곤 했었다.

낯선 곳에서는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아내의 침묵은 나에게,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 전셋돈만 해도 억이 넘는데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겠다고 온 사람이 수중에 목돈 한 푼 없이, 더군다나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였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주변머리없이 일거리 하나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다니는지 하는 말이었다.

만난 지 일 주일 만에 약혼을 하고 서로가 기다렸다는 듯 두 달 만에 아내가 다시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치뤘을 때, 티브이에서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의 제목이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였다.

‘인테리어’ 회사에 며칠 있다가 취직을 했다.

말이 ‘인테리어’ 회사지 목수 일에서부터 페인트 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일을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일거리가 있다고 하루 전에 연락이 와야 새벽에 일을 하러 갈 수 있었다.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할 때, 어깨 너머로 본 신규 업소의 인테리어 공사가 밑천이 되어 일을 시작하였지만 나의 일은 재료를 공사장으로 나르는 일과 쓰레기 따위를 치우는 잡일이었다.

매트로 때운 짚 보드로 된 천장의 이음새를 페인트를 하기 위해 샌드 페이퍼로 갈아 낼 때면 떨어지는 먼지와 하얀 입자가 코로 들어가 쉰 냄새가 나오 눈과 입과 코만 내 놓고 얼굴에 하얗게 석고 팩을 하는 여자 같은 모습으로 뿐연 안개 속에 서 있는 낯선 내 모습을 보곤 하였다.

타이어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진주만 쪽의 하늘이 보랏빛 노을로 덮여 있었다.

밀린 작업이 많아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점원의 말에 가게 앞 벤치에 앉았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 여자는 “죄송해요” 하고는 못이기는 척 그 자리를 뜰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말에 그녀는 귀를 쫑긋 세운 토끼처럼 묘한 표정이 되었다.

“차는 언제 가져 가죠?”

“그럼 저 차를 살 거예요?”

차 윈도를 빼끔히 열어 놓은 공간으로 고양이가 빠죽 얼굴을 내밀었다.

“그럼요 제가 구입하기로 약속했고 타이어는 제가 실수를 한 것인걸요…….”

그녀가 주는 개인 수표를 받아서 얼핏 보니, 이름이 ‘안젤라 스텐포드’라고 되어 있었다.

미국에 살았었어요 하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는 미국의 관습에 따라 그녀도 스텐포드라는 성을 갖게 되었고 이혼하고 한국에 가서 쉬다가 하와이로 왔겠지 하고 상상을 하였다.

백수 건달하고 결혼을 했었나. 젊은 나이에 이혼한 여자가 궁색 맞게 중고차에다가 중고 살림 도구를 찾는 것이 안쓰럽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얼마나 못된 놈을 만나서 살다가 헤어졌으면 저렇게 생기가 철철 넘치고 눈망울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길 건너편으로 ‘서울 바베큐 식당’ 한글 간판이 보인다.

식당 주차장으로 관광 버스 한 대가 들어와 멈추고 수십 명의 한인 단체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차에서 내려 놓았다.

몇몇 남자들은 참았던 담배를 꺼내 물고 삼삼오오 둘러선 사람

들은 얘기를 하며 크게 웃기도 하다가 안내자를 따라 출지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도 한국 사람이 꽤 많이 오나 봐요”라고 그녀가 혼잣말처
럼 중얼거렸다.

가끔 국제전화 통화를 하는 친구가 전해 주는 한국의 친구들
소식을 떠올렸다. 부럽기도 하고 은근히 부아도 나는 일이었다.

“성근이 놈 말야. 자기 형제들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묻어 두었
던 땅이 이번에 풀리는 바람에 돈 벼락 맞았다.”

“경호 그 녀석 말야. 마누라 하나는 잘 만났어. 미스코리아 뽑
치는 데다가 처갓집이 용인의 땅 부잣집이래. 그 자식, 거. 원래
물건 하나는 죽였잖아.”

“너 김달수 알지. 아, 왜 거 꽁지 머리하고 다니던 녀석 말야.
너, 개가 대학 교수 된 거 아냐? 죽이지?”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해요?”

“예. 일 때문에 좀 미뤄 놓고 있다가 이번 학기에 등록했어요.”

“아. 전공이 뭔데요?”

“대학에서는 아트를 전공했는데 지금은 인류학을…….”

“그럼, 대학원?”

“예.”

그녀를 다시 흘끔 보았다. 그녀의 흰 운동화가 어쩐지 이흔 같
은 것과는 거리가 먼 여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미국에서는 오래 살았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살 때 혼자서 왔어요. 그러니까 20

년도 훨씬 넘게 살았죠” 말하고는 웃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아.’라고 이해하고 나자 ‘안젤라 스텐포드’라는 이름에 얹힌 상상에 대한 미안함도 겹쳐져서 문득 그녀에게 짙은 죄의식 같은 것이 느껴졌다.

“미안해요 난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는 그녀의 해맑은 표정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쑥스러워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혼자서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대학도 일부러 동양 사람들이 많은 캘리포니아로 갔고 친구도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한국 책도 많이 보구요.”

“한국말을 배우기 어렵다고들 하던데…….”

“글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오히려 잊혀졌던 수학 공식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요. 어찌면 나의 젊음은 한국을 가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준비했었던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내가 다니던 자바 시장의 일을 그만두고 조그만 봉제 공장을 인수했을 때, 아내는 인테리어 회사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 일을 도와 달라고 하였다.

자바 시장 사람들과 1년 반 동안 해 온 것돈 2만 불과 아는 사

람에게 융통한 돈 3만 불을 합해서 인수한 봉제 공장은 한인 부부가 운영하면 블라우스를 만드는 공장으로 멕시칸 종업원도 열다섯 명이나 되었다.

공장을 판 한인 부부는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쓰러져서 간호를 해야 하는 부인이 혼자 운영할 수가 없어 급하게 나온 매물이었다.

어느 날 아내를 따라 블라우스 샘플을 가지고 간 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화점에 수십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여성복 판매 회사였다.

시간 약속을 한 바이어를 기다리며 옷매무새를 고치는 내게 아내는 “내가 전부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얇잡아 볼 수도 있으니까.”라고 다짐을 했다.

미국인과 영어로 비즈니스 상담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장인 아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무시하듯 말하는 아내에게 야속한 생각이 은근히 들었다.

이태리 출신의 바이어와 유창한 영어로 웃으며 얘기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는 엉뚱하게도 아는 사람에게 융통하였다는 삼만 불의 돈을 혹시 그 남자가 빌려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회사에 다닐 때는 매년 회사에서 벌이는 ‘영어 회화’ 테스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해 왔는데 미국에 와서는 입이 더 안 떨어지고 귀에 물 들어간 것처럼 영어만 들으면 쿨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노래는 생각나는데 가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입에 맴도는 것처럼 매일 쓰는 한국말도 가끔씩 적절한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 말하는 도중에도 말문이 막히는 것이었다.

차가 다 되었는지 알아보고 오겠다며 그녀가 일어섰다.

타이어 가게 앞 대로변의 건널목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차량들이 멈춰 섰다.

대형 성조기를 차에 매달고 달리던 트럭이 멈춰진 차량 뒤쪽으로 다가와 섰다.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하고 난 후 부쩍 많아진 그런 모습을 한 차량들의 운전자는 거의 모두가 백인이었다.

운전하던 선글라스를 끈 턱수염을 기른 백인이 뺏뺏이 고개를 돌려 타이어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턱수염의 선글라스 안에 감춰진 눈은 ‘여기는 내 나라야. 너희들 나라가 아니라니까’ 하는 건방진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스티브가 한 말이 생각났다.

“미개국의 키 작고 까무잡잡한 인종을 보게 되면 너도 그들을 알잖아 보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거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백인들이 유색 인종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어.”

그녀가 갑자기 소리질렀다.

“어머, 어찌해! 고양이가 안 보여요.”

그녀는 타이어 가게 작업장을 두리번거리며 발을 굴렸다.

유리창 문을 조금 열어 놓은 공간으로 빠져 밖으로 나간 모양

이었다.

타이어가 쌓여져 있는 창고 안쪽으로 뛰어갔다.

“옹녀.”

그녀가 거의 올상이 되어 정비공들에게 물어 본다. 나는 다시 정비 공장 뒤쪽의 잔디밭 공원으로 뛰어갔다.

공원 구석 쪽을 한번에 둘러보아도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다.

“레옹. 레옹…….”

잔디밭 가장자리에 둘러진 키 낮은 나무 숲을 향해 소리 질렀다.

야구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물어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며 자기들의 게임에 다시 열중이다.

야자수가 몇 그루 서 있는 공원 가장자리의 벤치에 쇼핑 카트에 쓰레기 봉지와 때 묻은 옷을 가득 실은 노숙자가 앉아서 나를 보고 웃는다.

“뭘 찾고 있는 거지?” 머리를 감지 않아 기름기에 절어 마른 미역같이 변한 긴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숙자가 묻는다.

원래 흑인계통의 인종인지 아니면 씻지 않아서인지 피부가 거무죽죽하다.

“고양이를 찾고 있어요. 회색 고양이인데 혹시 보았소?”

그냥 그를 지나치려다가 대답해 주었다.

“물론 많이 보았지. 이 공원에 사는 야생 고양이만 해도 몇십 마리는 될걸…….”이라고 대답하고는 큰 소리를 내며 웃는다. 벌어진 그의 입에 이빨이 들험드성 빠져 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인데, 지금 방금 잃어버렸어요.”

내 말에 노숙자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 같은 심각한

얼굴이 되어 고개를 몇 번 흔들었다.

“산에 들에 놔두면 이렇게 자기를끼리 잘 사는데 그걸 잡아다가 욕심부리고 혼자 키우려니까 도망을 가는 거지.” 하고는 더 큰 소리로 웃어제낀다.

돌아서는 나에게 노숙자는 한 마디 덧붙인다.

“고양이는 이제 안 돌아올 거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거든.”

나는 다시 타이어 가게 뒤쪽으로 뛰어갔다.

멀리서 그녀가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옹녀. 옹녀.”

3

그가 타이어 가게 뒤쪽의 잔디 공원 근방에서 고양이를 찾고 있는 동안 나는 고양이가 목이 말라 물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서 타이어 가게 근처의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으러 다녔다.

타이어를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것이야 내가 그 차를 구입함으로써 배상이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은 타이어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기에 더욱 속상한 데다가, 돈으로도 변상을 하지 못할 일을 내가 만들었으니 정말 앞이 깜깜해지는 것이었다.

타이어 가게 옆에 붙어 있는 버거킹 햄버거 주방 뒷문 쪽에서부터 근방을 살살이 뒤졌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를 모아 놓는 컨테이너가 몇 개 있는 곳에서 옹녀보다 두 배쯤 덩치가 큰 때문은 밤색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는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며 경계하고 있었다.

총 소리를 기다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나의 행동에 따라 금방이라도 달아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너 회색 고양이 못 보았니? 너보다 덩치가 반밖에 안 되고 노란 눈을 가진 여자거든. 이름은 옹녀라고 하고 못 보았어? 답답해서 그렇게 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엄마를 찾으러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난 쉽게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양엄마가 서울의 가톨릭 복지원에서 나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가톨릭 복지원에만 가면 나는 엄마와 바로 연락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한국말 공부를 계획하지 않았던 것은 인터넷에서 보았던 가슴 아픈 기사 한 토막 때문이었다.

‘엄마와 나는 유리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멀겋게 눈만 뜨고 서로 바라보았어요’

천신만고 끝에 엄마를 찾아 18년 만에 만난 어느 입양아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자신과 엄마의 한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었다.

내가 엄마를 만나면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내야만 했던 말 못할 사연을 나는 듣고 싶었다. 엄마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을 엄마의 눈을 보면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보고 싶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린다면 나는 한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해 왔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며 어떻게 살아 왔는지 또 렷한 한국말로 또박또박 엄마에게 말해 주고 싶었다. 그리고 엄마가 내 눈물을 훔치며 나를 안아 주는 상상을 몇백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가톨릭 복지원’ 담당자의 얘기는, 버려진 나를 어떤 사람이 춘천 근방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하고 데려왔다는 얘기와 함께 나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말만 들었다.

한밤중에 아무도 살지 않는 로키 산맥 근처의 울창한 산림 한 쪽 낮선 땅에 하늘에서 떨어지듯 아니면 땅에서 솟은 듯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춘천 근방을 속절 없이 몇 주 동안 헤매면서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나를 버린 엄마를 원망도 해 보았었다.

하지만 어차피 남의 손 아니면 외국 가정에서 키 갈 내 자신의 존재를, 맡겨진 곳에서 새로 태어나기를 바래서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최근에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니 엄마가, 엄마가 더욱더 가슴 저리도록 보고 싶은 것이었다.

공원 뒤쪽에서 그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차에서 나간 지 20분도 채 안 됐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풀죽은 모습으로 말하는 그에게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다시 타이어 가게 앞쪽으로 걸어갔다.

하늘이 새벽 하늘처럼 파랗게 변했다.

이제 곧 어둠이 밀려 올 텐데. 그 전에 돌아와 제발. 야생 고양이가 득실거리는 거리로 나가 버린 고양이는 덩치들에게 얼굴을 찢기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들을 피해 그늘진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겠지.

어릴 적 자란 본리 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수도인 라레이 시에서 세 시간 이상 떨어진 대부분 백인들만 사는 작은 도시였다.

초등학교 신입생들 20여 명 중에 흑인 아버지가 매일 데려오고 데려가는 흑인 아이가 하나 있었고 검은 머리에 그들이 놀리는 ‘옐로’는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검은 까마귀 무리 중에 섞인 흰 까마귀처럼 나의 행동은 그들에게 관심과 장난의 대상이 되었다.

수업 시간 중에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미술 시간에는 코가 없는 문동병 환자처럼 나를 그려 놓고는 자기들끼리 키득대기도 하였다.

한때는 우유를 먹으면 피부가 하얗게 바뀔 것이라는 상상으로 하루에 우유를 몇 컵씩 들이킨 적도 있었다.

사냥을 좋아하던 양아버지지는 가끔 총포점에 가기 위해 한 시간이나 운전을 해서 샌포드 시를 가곤 했는데, 어릴 적에 양아버지 를 따라 간 그 곳에서 나처럼 머리가 검고 코는 풍특한 키 작은 사람들을 만났다.

리커와 간단한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파는 헬리숍이었는데 부부처럼 보이는 그들은 계속 무엇인가를 만드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후에 나는 우유 마시는 일을 그만두었다.

“옹녀. 옹녀.”

어둠이 깃들어진 작은 골목마다 소리를 질러 보았다.
어릴 적 나를 부르는 것처럼.
야생 고양이들에게 털을 물리고 문등병 환자처럼 취급 받을 그
가 안쓰러워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가 언제 와 있었는지 말했다.
“누가 집에 갔나 봐요”
반쯤 포기한 그의 말에 괜히 약이 오르고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뇨 좀더 찾아 보자구요 타이어 가게 근방에서부터 다시 한
번만요”
그는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알겠다
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 뒤쪽으로 급히 가려는 나를 그가 불러 세웠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
날카롭게 빛나던 그의 눈을 눈꺼풀이 반쯤 가리우고 고개는 나
의 흰 운동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실은 고양이 이름이 ‘레옹’이거든요 ‘옹녀’라고 한 것은
제가 장난을…….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찾기 위해 그 동안 엉뚱한 곳에서 혼매고 다녔던 것은
아니었을까. 엄마는 어디에선가 나를 보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
었는데 내가 다른 이름을 부르고 다닌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이 갑자기 들어 눈물이 활짝 쏟아졌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되어 고양이를 잃어버린 속상함보

다도 오히려 내게 더 큰 미안함을 갖는 듯했다.

4

그녀가 원하는 ‘레옹’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

그녀는 레옹을 찾는 포스터를 만들어 타이어 가게 인근에 포스터라도 붙여 보자는 얘기였다.

가게는 예약 손님도 없이 오전 내내 한가했다. 스티브는 병원 예약이 있다며 점심시간이 지나서 일찍 퇴근을 하였다.

세 시가 다 되어서 하와이언 계통의 여자와 자신을 해군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와서는 각자의 몸에 서로의 이름을 새겨 달라고 했다.

남태평양의 강렬한 태양에 그을린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통통한 여자는 남자의 팔에 ‘신의 가호’라는 글자와 십자가를 그려 달라고 하고 키가 크고 마른 편인 남자는 여자의 가슴 부근에 자신과 여자의 이름을 새겨 달라고 하였다.

진주만에 정박한 항공모함의 수병인 남자는 하와이에서 휴가 기간 동안 그녀를 만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며 서로 변치 않을 사랑을 새기고 싶다는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씩 아내의 왼쪽 가슴에 입술로 빨아서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배꼽 위에다가는 별 모양을 만들기도 하였다.

행위 중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내버려 두던 아내는 나를

내려 놓고 나서야 그 곳을 들여다보며 창피해서 사우나를 어떻게 가느냐고 역정을 내었다.

삼사 일 정도 지나면 십자가는 거무죽죽하게 피부에 녹아들고 십자가가 겹치는 부분만 맴든 자욱처럼 푸르게 둥근 구멍으로 남았다.

그 남자가 혹시 아내를 다시 만나면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를 보고 놀라 그것이 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 보기도 했다. 그러면 아내는 주술을 외는 나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두려움에 떨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문신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아내의 가슴에 영원히 자워지지 않는 십자가를 남기고 싶었다.

그 십자가는 아내의 양심과 도덕을 지켜 주고 나에게는 위안과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는 문신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남긴 십자가의 변화를 확인하기보다는 혹시 그 남자로부터 남겨진 흔적을 찾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의 부정에 대한 씻어지지 않는 감정은 때때로 그리고 일상에서 나를 찾아 과롭혔다.

같이 타고 가는 퇴근길에 옆에 앉아 있는 아내의 치마 끝으로 나온 허벅지를 바라보며 그 남자도 이렇게 바라보며 음흉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 때로는 웃을 같아 입는 아내의 모습에서도 그 남자 앞에서도 그랬겠지 하는 엉뚱한 생각들로 머리가 뒤죽박죽해지기 일쑤였다.

멀리 샌디에이고까지 블라우스를 배달을 하고 돌아올 때면 나를 이렇게 멀리 보내 놓고 아내는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출근길의 아내가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손님을 만나러 나간 날은 일이 손에 안 잡혀 전화통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렇게 하고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길을 가며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생면부지의 남자 머리통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한 손으로 나머지 손을 꼭 잡고 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난 어릴 적 살던 산동네를 떠올리곤 했다. 인왕산의 치마바위가 보이는 끝자락에 닥터거리며 붙어 있던 무허가 주택들과 좁은 길을 따라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개 짖는 소리, 담이 없던 집과 집 사이에서 들리는 싸우는 소리, 살림 부서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 엄마가 아이 부르는 소리, 아이가 엄마에게 볼기짝을 맞고 우는 소리…….

가끔 통화를 하는 친구는 ‘한국에 다시 가서 살까.’라는 나의 말에 남들은 못 나가서 난리인데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다.

“지금 직장 있는 사람도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다. 네 자리는 없어. 그리고 너는 시집간 놈이 왜 자꾸 친정 신경을 쓰냐. 시집에 뼈를 묻어야지.”

하기는 지금 내 나이로서는 반듯한 직장을 다시 구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웬만큼 자리를 잡고 사는 친구들의 언저리에서 자존심이 상하기보다는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심정이 앞섰다.

남자는 여자의 겨드랑이 위쪽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점령지에 표시를 해 놓은 깃발처럼 마냥 뿌듯한 표정이 되어 바라보았다.

항공모함을 타고 육 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또렷이 남아 있을 자신의 이름을 상상하며 입가에 얇은 미소까지 띠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새겨진 십자가가 두 사람의 사랑과 거친 파도와 싸울 자신의 사랑이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리라 믿는 것 같았다.

내가 아내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은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집에 들어가며 전화를 급히 끊던 아내의 전화를 받은 날이었다.

지금 어디냐. 왜 혼자 만나느냐.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나는 수화기를 내려 놓고 있었다.

12시 가까이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 온 아내는 새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며 술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었다.

샤워를 적당히 끝낸 아내는 피곤했던지 이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잠자는 아내가 입은 가운의 열려진 부분에 달리기를 금방 끝낸 선수처럼 가슴이 헐떡거리며 숨어 있었다.

아내의 가운 한쪽을 열고 내가 만든 십자가를 찾아 보았다.

일 주일 전에 만들어 놓은 십자가는 거무죽죽한 그림자만 남긴 채 두 선이 합쳐진 부분만 푸른 명을 남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십자가는 아내의 원쪽 가슴에 또렷하게 침대 테이블 조명을 받아 광채를 내며 더 크게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침대에 누워 있는 여자가 아내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일 주일 전에 내가 입술에 너무 세게 힘을 주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배꼽 위쪽으로 만들어 놓은 별은 거의 흔적이 없이 사라져 조그만 그림자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온몸에 시리게 소름이 끼쳐 왔다.

언제 와 있었는지 그녀가 가게 안에 들어와 벽에 붙여진 문신 그림들을 돌아보고 있었다.

“언제 왔어요?”

석고 팩을 하는 여자처럼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을 때는 비참함보다는 그런 대로 뜻렷함 따위가 나를 지탱했었다. 하지만 가게에 들어와서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그녀에게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심정이 되어 알 수 없는 안타까움 같은 것이 뜨거운 스팀처럼 되어 얼굴로 올라오고 있었다.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일 끝나면 같이 붙이려 다닐 시간이 있어요?”

그녀가 내미는 포스터에는 ‘레옹’의 사진과 함께 ‘고양이를 찾아주세요’라는 큰 글씨 밑에 잃어버린 곳과 날짜 그리고 연락처가 나와 있었다.

가게의 문을 닫고 나와서 그녀와 걷고 있는 길이 생전 처음 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들뜬 모습으로 보였다.

타이어 가게 근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는 눈에 띄는 곳에 포스터를 붙여 나갔다.

“이렇게 해서도 못 찾으면 할 수 없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진과 레옹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분명히 누군가 보고 연락을 해 줄 거예요.”

포스터를 붙이는 그녀의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한군데로 모아 주는 노란색 나비핀이 테이프를 붙이는 그녀의 손을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단지 춘천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것 한 가지로 춘천 근방을 몇 주간 헤매고 다닐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엄마에 대해 한 가지만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을 식당이나 공원 등지에서 만나게 되면, 엄마는 저런 모양의 옷을 입고 다닐까. 저런 모습으로 옷을까. 머리는 퍼머를 했을까. 아니면 부적처럼 얼굴에 수심을 하나 가득 달고 다닐까. 그리고는 밤이면 여관에 돌아와서 생각했죠. 어쩌면 엄마는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아이스크림 밑에 감추어진 뜨거운 비엔나 커피처럼 가볍게 웃는 그녀의 얼굴에 눈동자는 잠시 흔들렸다.

“한때는 많이 미워도 했지만 내가 세상에 나온 것만으로도 엄마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엄마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를 내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나보다 더 불행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코올라우 산맥이 물안개로 자신의 몸을 가리우고 물안개가 차
츰 산 아래쪽으로 내려와 여우비가 되어 얼굴을 간지럽혔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LA의 10번 고속도로에서 20중 추돌
사고로 사람이 세 명이나 죽은 현장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단지 눈부신 햇빛 때문에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이방인’에
서 피르소처럼 나는 십자가 때문에 아내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
각을 했었다. 어디론가 떠나야 했다.

그렇게 떠나 온 것처럼, 어쩌면 이제 원한처럼 사람들의 피부를
파헤치던 일에서 다시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우비가 바람을 따라서 다시 코올라우 산맥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여우비가 날아가고 난 자리에 리키리키 하이웨이 쪽에 다리를
하나 걸치고 영롱한 무지개가 만들어졌다.

그녀의 눈에 언뜻 무지개가 비추었다.

5

그녀는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에게 전화를 하였다.
“오늘도 연락이 없었나요?”

그까짓 고양이 한 마리. 정은 들었지만 어떡하겠어. 이제 고양
이도 자기가 놓여진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며 살아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포기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간만 나면 타

이어 가게 근방을 찾아다니는 그녀에게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 했다.

타이어 가게 점원들도 그와 그녀의 얼굴을 익히고는 그들이 근방에 나타나면 아직도 못 찾았느냐고 걱정을 해 주기도 하였다.

잔디 공원에서 야구 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그들을 만나면 공원의 건너편 숲을 향해 “레옹. 레옹.”이라고 같이 함성을 질러 주었다.

야자수 밑에 앉아 있던 마른 미역 머리카락을 가진 노숙자가 말했다.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녀.”

그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지나치려고 했지만 그녀가 물었다.

“무슨 방법인데요?”

“파티를 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사는 고양이들을 전부 초대하는 거지.”

그는 싱겁게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말고 갑시다.”라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저 사람 말에 일리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제 말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부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밖에서 잠을 자니까 고양이가 어디에서 자는지도 알 거예요.”

“세상에…… 이제 그만둡시다. 난 이제 괜찮아요. 레옹은 돌아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찾을 수도 없고.”

그는 눈망울에 한 용큼 눈물이 고인 그녀를 바라보면서 가슴 밑바닥의 실핏줄 같은 것들이 갑자기 요동을 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았다는 듯이 다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와 한인 슈퍼마켓에 가서 갈비 30파운드와 ‘야채 등 반찬 몇 가지를 구입하고 난 후, 신문을 뒤져서 세일을 하고 있는 마켓 을 찾아가서 바베큐용 석탄, 종이 접시와 포크, 냅킨, 쓰레기 봉지, 음료수 등을 사서 차에 실었다. 이사 나간 집 같던 그녀의 차 트렁크가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공원 한쪽에 갈비를 구울 석탄 불을 피우고 그녀가 전기 밥솥에 세 번이나 준비한 밥과 음식을 공원 식탁에 늘어 놓고 있을 때, 마른 미역 노숙자가 부른 근방의 노숙자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큰 가방이나 쇼핑 카트에 때 묻은 살림가지들을 싣고 때가 절은 옷들을 입고 있었다.

어떤 노숙자는 마약 중독자같이 손을 떨기도 하고 충혈된 눈으로 바라볼 때는 기분이 섬뜩해지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녀가 밥과 반찬을 퍼 주고 그는 구운 갈비를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허겁지겁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야릇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레옹의 사진이 나와 있는 포스터를 그들에게 한 장씩 나눠 주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양이를 찾지 못하더

라도 그리 헛된 일은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공원 끝 쪽의 키 작은 숲 사이로 야생 고양이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밀고, 야구를 하던 열댓 명의 아이들도 자기들도 고양이를 찾는 일을 도와 주겠다며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이방인

공자가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동쪽 나라에 놀러 갔을 때였다. 두 어린이가 길가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자는 타고 가던 수레를 세워 두고 그 두 아이에게 “너희 두 어린이는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 중의 한 아이가 나와서 말했다.

“예, 판 것이 아니오라, 저는 하늘의 해가 처음 떠오를 때에는 땅에서 거리가 멀고 해가 하늘 한가운데 떠 있을 때에는 가깝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또 다른 아이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역시 말했다.

“예, 저는 해가 처음 떠 때에는 둑근 수레 뚜껑같이 크지만 해가 하늘 한가운데 오면 둑근 소반같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물건은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인다는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는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처음 풀 때에는 서늘하고 하늘 복판에 오면은 끓는 물같이 뜨겁습니다. 이것이 어찌 열이 있는 물건이 가까우면 뜨겁고 멀면 덜 뜨거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공자는 두 어린이의 말이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그른 것인지 판결을 하질 못했다.

1

보잘것 없는 한 사내의 생은 아무런 치장도 없이 한 줌의 재로 사라져 갔다. 삶이 고단하다거나 정직했다는 한 마디의 혀사도 없이 그저 오던 대로 되돌아갔다. 아버지의 유언 대로 골회를 두만 강에 띄우면서 박영규는 시새도록 파란 하늘을 다시 한번 보았다.

“인생은 참 세상사 티끌이로구나.”

하늘로부터 그런 중얼거림이 들리는 듯했다. 세지 않은 바람이 이마의 머리칼을 날리고 키차게 자란 갈숲이 강가를 따라 뻗어 있었다. 갈대 끝에 돌아난 솜털 같은 갈꽃들이 바람에 쏠리고 있었다.

멀어져 가는 골회암을 바라보며 영규는 숨결을 골랐다. 그리고는 장갑을 벗어 강물에 뿐렸다. 장갑은 인츰 강물에 자취를 감추었다.

……이만큼 살았은께 한이 없는기라, 내가 죽거든 묘(墓)를 쓰

지 말고례(禮)도 지내지 마라. 배운 게 없어 고국과 조국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놈쟁인께 그저 두만강에나 월월 띄워 보내라. 그게 마음이 더 편한기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다. 영규는 두만강 물결이 그대로 아버지 인생이라고 했다.

강 굽이에 한 무더기 개버들이 강바람에 웅크리고 있었다. 개버들 숲 속에는 지난해 마른 풀잎과 바람이 가득 차 있었다. 그 건너편으로 마을이 보였다. 남평. 그러나 늙은이들은 잔무더기[章木得基]라고 불렸다. 두만강가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영규의 아버지 박팔식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충청 북도에서 간도에 이민 와 첫 터전을 잡은 마을이고 영규의 고향이기도 하다.

영규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환청처럼 달라붙는 기억을 털어 버리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짙은 안개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어의 잔비늘 같은 물방울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 바깥의 일처럼 선명하지 않았다. 일곱 살의 그의 눈에 잡힌 그것들은 바늘에 절린 듯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해 여름 내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밖에 나갔던 어머니가 아랫목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귀엣말을 해 주면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오소, 시끄럽네.” 하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규가 두만강에 나가 애들과 함께 멱을 감고 집에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른 청년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립문을 나서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청년들에게 자꾸 통사정을 했고 그들은 허옇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성을 내며

우는 어머니를 꾸짖고 있었다.

아버지가 강선대 언덕바지를 넘어 펜스빛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영규는 집안으로 달려들어가 홀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잠에 들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잡혀 간 뒤 어머니는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밥 보시를 해들고 강선대 언덕을 넘어갔다 넘어오곤 했었다. 아버지한테 갔다 올 적마다 어머니는 울었는지 뺨갛게 된 눈으로 영규를 바라보다가 땅이 껴지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곤 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학교 강당에 고깔모자를 쓴 아버지가 붉은 완장을 두른 흥위병들에게 결박을 당한 채 끌려나왔다. 머리는 산발되어 있었고 어디에 심하게 맞았는지 허리를 잔뜩 웅크린 채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특무 박팔식 투쟁대회’

강단 위에 매단 커다란 플래카드에는 이런 글이 써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특무를 보았다는 흥분감에 웅성거리고 있었다. 영규는 영문 없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고 가끔씩 터지는 야유와 침의 세례를 받아야 했다.

2

차는 고향 마을을 뒤켠으로 한 채 팔십령을 톱고 있다. 서북쪽으로 천천히 기어가는 검은 구름장들 사이로 저녁 무렵의 해가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 우중충한 수리봉 위로 소나기 줄기 같은 뿌

얀 빛살이 쏟아졌다. 영규는 차창에 얼굴을 붙인 채 뒤로 물러가는 고향의 풍경을 체념 상태로 일별하고 있다. 목덜미가 깁스하기 시작하며 어깨 위가 뼈근해졌다. 어제 저녁에도 하얗게 날을 밝혔던가? 담배 한 개비 뽑아 물며 차 안을 둘러보았다. 기억의 저편에 아리송한 얼굴들이 가끔씩 보였다. 고향을 등진 지도 이젠 20년이 훨씬 넘었으므로 그 사이 인기는 많이 바뀌었고 어둡고 질척였던 동년도 이젠 잊혀질만도 하련만 영규는 그것이 잘 되어 주길 않았다. 어둠이 슬몃슬몃 기어드는 황톳길처럼 끊기지 않고 여지껏 기억에 뿌리박은 아픔들을 생각하며 자신도 참 모진놈이라고 생각했다.

“저, 영규 아님둥? 박영규 맞지예?”

시골 완행 버스가 팔십령을 지나 선경대 풍경 유람구에 들어설 무렵 아까부터 그를 주시해 보던 전너편 중년 남자가 짙은 함경도 사투리로 그를 부른다. 영규는 담배를 비벼 껐다. 껴부수수한 머리의 진짜 시골 차림의 사내였다.

“누구십니까?”

“글세, 영규라 했는기라, 나 흥만이.”

사내는 반갑다고 침방울까지 튕기며 반색한다. 버스 안의 승객들의 눈길은 삽시에 영규를 향한다. 영규는 얼굴이 화 불어졌다.

“왜, 기억이 안 나? 장 과부집 ‘호박골’…….”

사내는 부끄럼없이 자신의 애시적 별명을 주어댄다. 영규는 그 제야 생각났다. 소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너무도 못해 2년씩 재학하여 ‘호박골’이라고 불리웠던, 석홍만 아버지가 ‘특무’로 몰리우고 영규도 ‘새끼특무’로 애들한테서 따돌림을 당할 무렵 영규 아

버지는 특무가 아니야 하고 말해 동학들한테서 늘씬하게 두들겨 맞던 홍만이, 그렇게 맞으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던 녀석이 아니었던가?

“어디 왔다 가누?”

“어— 고향에…….”

“고향에 왔으문 자고 가야제 이렇게 가문 쓰나? 이게 얼마만이 누?”

영규는 웃었다. 전례 없던 그 혁명이 끝나고 아버지가 특무의 모자를 벗은 뒤 영규의 아버지 박팔식은 선친의 산소에 제를 지낸 뒤 가족을 이끌고 매하구(梅河口)로 이사 갔었고 거기에서 다시 요녕성 영구(營口)로 이사를 가서는 동네와 크게 거래도 없이 여지껏 쭉 살다 갔었다.

“너의 아버지는 잘 계시니?”

대뇌피질이 아뜩하니 경련을 일으켰다. 아버지가 강금소에서 풀려 나온 뒤 어머니는 생지황 뿌리를 절구통에 넣고 절구공으로 찡은 다음 텁텁한 진흙 같은 것을 사발에 짜 넣거나 변소통에서 낚시에 걸린 고기 같은 유리병을 건져 올려서 그 속에 든 청주 같은 물을 사발에 붓거나 하여서는 아버지에게 드리곤 했었다. 그걸 마시면서 아버지는 이를 바득바득 갈곤 했다.

“이자 금방 골회를 뿌리고 오는 길이다.”

“어메, 그 량반이 그렇게 됐나, 쫓걸이 복도 없는 량반이다.”

영규는 별로 할 말이 없었고 구태여 반갑다는거나 반갑지 않다는 생각도 없었다. 다만 영규를 두둔하다 동학들한테 늘씬하게 두들겨 맞은 대가라고나 할까, 박팔식이 조선전쟁에서 타 온 공훈

메달을 어머니 몰래 석홍만이한테 보여 줄 때 홍만이가 코를 풀쩍이며 부럽게 부럽게 바라보던 기억이 환청처럼 밀려올뿐이다.

“업보여, 업보. 내가 죄를 그만큼 지었은께 특무로 몰리는 거여.”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나 영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가끔씩 차돌빛처럼 섬뜩하니 번뜩이는 박팔식의 눈길은 가슴을 짐짓하게 했다.

“전우들이 다 죽어 갈 때 나도 죽었어야 하는거라. 비겁해서 투항한 건 아니여, 나만이라도 살아서 죽어 간 전우들의 영혼을 길고 살아 있는 가족들에게 무언가 해 줘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술에 취한 날이면 박팔식은 늘 이렇게 구시렁거렸다. 적군에게 투항한 자신의 변명이 아니라고 애쓰는 모습이 확연했다. 적어도 그 때 영규의 눈에는 그렇게 비쳐들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산의 윤곽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 산 위의 하늘은 은회색으로 맑아져 가고 있었다. 틸썩거리던 황톳길이 끊기고 누연한 아스팔트 길에 버스는 들어섰다. 가끔씩 택시들이 치자빛 헤드라이트를 밝힌 채 경충거리며 달리고 있다. 현성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아버지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의 입 귀로 검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규는 그러한 아버지가 전투

에서 일등 공을 두 번이나 세운 영웅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 커풀진 아버지의 몸체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붉은 가위를 써운 수첩이 풀색 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시방 뭘 묵고 사는 기여?”

“뭐 대충 먹고 살지.”

영규는 굳이 자기가 지금 장춘 모 대학에서 교수로 산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옷차림을 본께 일반인 같지는 안 쿠만예.”

석홍만이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린다. 영규는 지금 앉아 있는 음식점을 둘러보았다. 양고기 전문이여서인지 벽에 기름때가 보였고 그 어떤 말 못할 야릇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버스가 현성에 도착하자 홍만이는 오랜만이라며 술 한잔 하자고 영규를 끌었다. 현성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저녁도 먹어야 하고 굳이 딴 일이 없는지라 영규는 홍만이가 이끄는 대로 버스부에서 가까운 이 곳 회족 음식점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넌 지금 무얼하고 사니?”

“나야 뭐, 배운 게 없는 기 할 일 있나, 땅 파먹고 산다.”

땅 파먹고 산다는 홍만이의 말끝에 그 어떤 서글픔이 묻어 있었다. 그 서글픔은 바람처럼 영규의 가슴에 와 닿았다.

“니 아부지 말이여, 참 좋은 량반이셨는데…….”

홍만이는 두 눈을 슬쩍거렸다. 전등 불빛에 번득이는 물기가 내비쳤다. 영규도 머리를 주억거렸다.

“다, 이데올로기의 희생품이다.”

“이데을로기? 그건 뭘하는 긴다? 배운 게 없어 모르겠지만 암튼 시대를 제대로 만났음 크게 될 텐반이셔.”

밖에는 어둠이 온전히 덮였다. 굽난 고량주 한 병이 상 위에서 턱굴었다. 영규는 잠시 어둠이 가득 찬 창 밖을 바라보면서 주머니 속의 메달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 박팔식이 6·25를 거치면서 전우들의 시체를 딛고 받은 훈장이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내뱉었다. 특무로 몰리면서도 박팔식은 이 훈장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주 모시듯 형겁에 싸서 놓짝 깊숙히 넣어 두었다. 그깟 철훈장 뒤선 물해요? 그것 땜에 당신 이 모양 됐잖아. 아 내가 투덜거릴 때마다 박팔식은 꿩—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눈을 감고 속으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리곤 했다.

“울어매 세상뜰 때 니 아부지를 찾아보라고 해서 매하구까지 찾아간 적이 있다.”

홍만이는 고량주 병을 새로 뜯었다.

“매하구에서 일 년 살고 영구로 이사 갔었다.”

“질긴 인연이여. 매하구까지 찾아갔다가 니 아부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어머니의 원을 풀어 드리지 못하는가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너를 만나다니…….”

홍만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술잔을 내밀었다.

“자 들자.”

영규도 술잔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폭음을 한다고 생각했다. 홍만이가 반가운 건 아닌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걸까?

아버지 박팔식이 생산대 대장으로 있을 때 마을에서는 박팔식

이 장 과부와 배가 맞아 돌아다닌다고 했다. 영규의 어머니는 장 과부를 불여우라고 욕했다.

“죄받어, 구렁이로 백 년, 개로 백 년, 꺼시렁이로 백 년 살 년 야.”

영규의 어머니는 장 과부의 머리끄덩이를 끌다가 남편 박팔식의 주먹에 눈통이 펴렇게 된 후부터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곤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규는 온몸에 소름을 쳤다.

영규의 아버지는 장 과부를 아주머니라 부르며 그 집에 들락거렸다. ‘약진’ 시절에는 생산대 양식을 장 과부집에 가만히 빼돌린다는 설도 돌았었다. 영규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자기집도 양식이 모자라 옥수수를 잘게 찧어 끓인 죽물을 마시는데 그 귀한 양식을 왜 장 과부집에 줄까라고 생각했다.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술이란 참 좋은 물건인데, 내가 처음 술을 마셨을 땐 맵고 써서 혼났지라. 어마니한테 참 혼도 나고, 그게 아마 초중 2학년 땐 가 이나깐 이젠 거이 40년이 되어 오는구나.”

홍만이는 멀겋게 웃었다. 양고기 접시를 뒤적거리다 말고 영규는 홍만이의 얼굴을 명하니 쳐다보았다.

“울 아부지 살았으믄 나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까마귀 같은 인생을 사는가 싶다. 새끼들이 키를 넘어 가면서 이 애비를 돈도 못 번다고 팔시할 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죽어 부리고 싶기도 했다. 하기사 니가 내 마음을 알까?”

“그게 말이다.”

영규는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특무로 몰리

을 때 난 어찌했던가? 가슴 속에서 특무 박팔식을 타도하자는 소리가 소란스레 들리는 듯했다. 영규는 어느 새 주머니 속의 훈장을 상 위에 꺼내 놓았다. 일광등 불빛 아래 훈장은 차가운 빛을 뿐어 내고 있었다. 영규와 홍만이는 명하니 상 위에 있는 박영규의 아버지 박팔식의 훈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4

1952년 10월 8일 포로 송환 문제로 정전이 휴효로 된 후 10월 14일 오성산 전투에서 박팔식은 포로로 되었다. 16살에 조선의용군 제5지대에 참군하여 해방전쟁 시기엔 해남도 전역까지 참가한 적이 있는 박팔식의 인생에 그번 전역은 치명타로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제1차 포로 교환시 고향에 돌아온 박팔식은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비겁한 포로’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팔식의 눈길은 뾰족거리는 눈[雪]발처럼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구태여 딴 말은 없고 꿩—하는 알지 못할 소리를 할 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러한 박팔식을 조금은 두려워했다. 서둘러 2배 리 상거한 골에서 부녀가 의지하며 사는 영규의 어머니와 얼굴도 모른 채 할아버지의 의사대로 결혼했고 이듬해 영규를 보았다.

영규가 태어난 이듬해부터 아버지는 말없이 며칠씩 어디론가 떠났다가는 조용히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몇 번 다녀온 후 묘한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프 차를 탄 군인들이 몇 명

다녀갔고 그의 집에 묵으면서 술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 때로부터 장 과부의 집에 자주 다니기 시작했다. 오성산 전투에서 죽었다던 전우들이 북경 어딘가에서 큼직한 일을 한다는 설도 밑도 없이 마을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생산대 대장일을 맡아 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홍만이는 걱정하지 마소 내가 책임질거라.”

술에 취한 뒤 장 과부를 보면 박팔식은 이렇게 구시렁거렸다.

“형님의 핏줄이 아닙니까? 바쁜 일이 있으문 속에 넣지 말고 말하소”

“박 대장, 말만 들어도 고맙슴데.”

장 과부는 그 때마다 눈굽을 찍었다.

“뒤에서 말이 많은께 넘 그러지 마소 난 박 대장 마음 다 압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유복자로 태어난 홍만이만 불쌍할뿐입니다.”

음력 대보름을 사흘 앞둔 어느 날 아침, 장 과부가 편지 한장을 들고 영규의 아버지를 찾아왔다. 편지를 읽은 후 박팔식은

“분명, 내 눈으로 봤는데. 내 손으로 눈꺼풀을 쓸었는데…….” 하면서 연신 머리를 흔들었다. 이튿날 한 되들이 고량주 병과 주먹밥을 바지계에 짚어지고 각반을 발에 감고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두만강을 건넜다. 며칠 후 입에 역한 고량주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온 박팔식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체더미에서 살아난 전우가 힘이 되라고 쓴 편전께 따게 생각하지 마소. 이건 전우가 형님의 유복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홍만이한테 보내는 거라누만.” 하면서 바지랑이 속에 가득 들어찼

던 물건들을 장 과부한테 넘겨 주었다. 솜을 넣어 지은 점퍼 안주 머니에서 엽초를 꺼내 말면서 아버지는 먼 산을 원고개로 바라보았다.

뒷산에서 와—와— 소나무숲이 바람 달리는 소리를 냈다. 수리봉으로부터 내린 어둠은 바람찬 소나무숲을 지나 산골짜기로 번지고 점차 어지러움처럼 마을로 내려왔다.

5

“니 아부지 어쩜 올 엄마 땜에 특무로 몰렸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술 한 방울까지 입에 털어넣고 홍만이는 이렇게 씨벌거렸다. 영규는 대뇌피질이 아뜩한 경련을 일으키듯 현기증이 왔다. 그 어떤 둔중한 목기에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했다.

“전쟁에서 죽어빠진 올 아부지를 찾아 달라고 보채지만 않았어도 니 아부진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을 거고 특무로 몰리지 않았을 게 아니니?”

“지나간 일이다. 더 말하지 말자. 모든 걸 잊고 싶다.”

“기래, 잊고 싶을 거다. 잊고 싶고 말고”

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깨결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선 소슬한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영규의 손에는 아버지 박팔식의 훈장이 달랑이고 있었다. 훈장, 아니 아버지의 화신 같은 훈장, 내가 왜 아직까지 이 훈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영규는 자신에게 끝없이 물어 보았다.

헝겊 오라기에 보물처럼 꽁꽁 모셔져 있던 이 훈장이 언젠가 아버지의 손에 의해 불더미 속에 날아 들어갈 뻔한 적이 있다. 대륙을 휩쓸던 혁명이 끝나고 평반(平反)이 시작되어 아버지의 역사가 다시 긍정받을 때에도 아버진 훈장을 꺼내들고 꺼이꺼이 올었었다. 그런데 89년 중·한 수교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영규로부터 전해듣던 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술을 폭음했고 농짜에서 훈장을 썬 보시기를 그대로 불화로에 던져 버렸다. 다행히 영규가 인츰 발견하고 꺼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폐철로 되어 버릴 뻔했다.

“이 죽 같은 잡놈새끼들아, 그럼 우린 무엇으로 되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부정이었을까? 거의 실성에 가까운 울음을 토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바람이라도 피운 건 아닐 테지?”

영규는 언제부터 묻고 싶었던 말을 종내 묻고야 말았다.
“흐허허 이놈아, 배웠다는 놈이 그게 뭐냐. 바람피웠으면 어떻고 안 피웠으면 또 어때냐? 고독한 울 엄마 적선 좀 한 셉하면 안 되니?”

밤바람은 찼다. 옷깃을 여미며 몸을 옹송그렸다. 아버지의 골회암이 어디쯤까지 흘러갔을까고 생각해 봤다. 그리고 훈장을 왜 함에 넣지 않았던가고 자신에게 다시다시 물어 봤다.

“사실은 말이다. 이건 정말 사실인데…….”
길가의 가로수를 불잡고 웨—웨— 욕지기를 해대던 흥만이는 갑자기 말을 꺼냈다.

“네편네가 엊그저께 죽었다. 한일 고생만 하다가 자궁암에 걸려

주사도 몇 대 못 맞아 보고 죽었다. 그래서 말인데…….”

홍만이는 잠시 말을 끊더니 담배 한 개비 꺼내 물었다. 그리고 면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서는 별찌 하나가 혜성처럼 길다란 꼬리를 그으며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아들집으로 가야겠는데, 디럽게 머느리 눈치가 보이는 건 어찌 니?”

아버지의 모습이 혜성처럼 대뇌피질을 가르며 살아나고 있었다. 세상이 갈라지기 전의 혼돈 같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너울거리 는 홍만이의 모습이 환영이기를 그리고 그가 지금 아버지의 골회를 뿌리려 고향에 왔다는 것도 환영이기를 바랬다. 그렇다, 환영이다. 환영이라고 생각하면 환영인 것이다. 그는 하늘에 대고 오줌 줄기를 뽑았다. 희뿌연 거품을 일구며 쏟아지는 오줌 줄기를 바라보며 그는 깨들끼들 소리없이 웃었다.

6

눈을 뜨니 동창에 황금빛 빛살이 번져 있었다. 자근자근 아파나는 머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옆에서 홍만이가 코로 풀무질을 해대며 아직도 자고 있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통탕거리며 떠들고 있었다. 그는 배배 꼬인 넥타이를 손으로 문다져 펴며 홍만이의 자고 있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기름기라곤 조금도 없이 수척한 그를 보노라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방을 빠져 나오려다가 영규는 주춤 제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호주머니를 뒤적여 아버지의 훈장을 꺼내들었다. 잠시 손 안에 꼭 쥐어 보았다. 선뜻한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 왔다. 그는 훈장을 들며시 홍만이의 머리맡에 놓았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다.

가슴 속에서 차돌 같은 뎅어리 하나가 떨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다리와 팔뚝을 감고 있던 철사 같은 줄이 풀려나가는 듯했다.



최유혜

가작 / 막

황구(黃狗)

지난 주말 신문에 껴 온 주간지를 들친다. 큰 활자들을 훑어본다. ‘재벌 누구와 정치인 누구 극비리에 만났다.’라는 선거철 전야의 흔히 있던 커다란 글귀는 당연히 외면당한다. 다음 장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넘기자 ‘주말이면 흑인 병사들 이태원에 몰리는 이유?’라는 큰 활자가 눈에 들어왔다. 왜에? 하는 호기심에 별 뜻도 없을 주간지를 읽어 가기 시작했다. 중간 크기의 활자다. ‘젊은 여성들에게 흑인 병사들의 강한 섹스 인기, 에이즈 걸려도 좋아!’ 그 다음 작은 활자들을 읽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그 짓 하는 사진이 벼짓이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좀 진한 흑백사진으로, 그래서 더 섹시해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어 굳이 둘 보기 껴가면서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아도 알아차릴 일이었다. 주간지를 막 접으려는데 남편이 한 마디한다.

“화장실에서나 보는 주간질, 뭘 아침부터 그런 걸 방에서 펼치고 그래……”

나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슬그머니 일어나 잠옷을 벗고 편한 차림을 한다.

커틀을 젓하자 창 밖엔 파란 아침이 있었다.

“당신 공원에 가서 멕시칸 한 명만 데리고 와. 잘 골라 오라구……. 몸집 좋다고 다 일 잘하는 건 아니니까…….”

남편은 일부 구하는 건 내게 맡기고 청바지 차림으로 집을 나선다.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 남편은 아침이면 늘 한인 타운에서 제일 가까운 맥도널드에 조간 신문을 들고 다녀온다. 오는 길에 거기서 한국 사람 하나 테려다 쓰지 싶지만……. 아침부터 여자가 잔소리한달까 봐 말을 접는다.

남편이 나가자 나는 엊저녁 남은 밥으로 야채 죽을 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나는 주간지며 부엌 쓰레기들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래층 한의원 대기실 테이블 위에 늘어져 있던 어제 신문들까지 모두 주차장 쓰레기통에 넣었다. 내가 들고 나오는 게 먹을 건 줄 알고 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짖다가 실망한 듯 꼬리를 내린다. 한두 달째 유난히 잘 먹더니 살이 찐 것 같다. 돌이의 진돗개 족보에 기록된 본래의 이름은 복돌이였으나 쉽게 돌이로 부른다. 복돌이, 진돌이, 악돌이, 차돌이 이렇게 네 남매 중에 유일한 암놈이다.

집을 나선 나는 포장된 인도를 따라 두 블럭쯤 걸었다. 내 집과 아드모어 공원은 엎어지면 코 닿을 때였다. 이른 아침의 공기가

상큼한 게 풋사과 같다. 길가 어느 집의 라일락꽃에서 향기가 은 은히 콧속에 스민다. 조금 더 걷다가 주의하지 않았더라면 개똥을 밟을 뻔했다. 시선을 멀리 두자 저 앞 가로수들 자카란다가 연보 라색으로 거리를 아름답게 한다. 언제 봐도 가슴에 적시고 싶은 색깔이다. 고목이 온통 보라 꽃이다.

오랜만에 걷고 있는 나는 혼자서 봄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봄이라 그런가……. 여자……. 아니, 여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계절을 애듯하게 사랑하는 거다. 나이가 들수록 맞이하는 계절에 대한 애정이 더해 간다. 계절이 특색을 잃지 않고 늘 성실하게 찾아온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고맙다.

길을 건너자 서울국제공원이란 풋말 앞에서 멈추었다. 주변엔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다. 한참 물이 올라 초록잎이 무성하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조경을 생각지 않은, 그냥 넓은 터 같은 공원이었다. 십여 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나면 놀이터가 있고, 이 공원의 진짜 몸체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철조망 안으로 널따란 잔디밭에는 이른 아침부터 히스페닉들의 축구 시합이 한창이었다. 나는 공의 위력을 피하여 철조망 바깥쪽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둘레만 맴돌듯 걷기 시작했다. 한인이라고는 나 외엔 한 사람도 눈에 뜨이지 않았다. 축구를 하는 잔디밭 가장자리를 활기차게 걷고 있는 두 여인도 히스페닉으로 보인다.

이방인처럼 혼자서 놀이터 쪽에서만 걷고 있던 나는, 축구 시합을 하면서 이따금씩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언어를 낯설게 익하고 있었다.

문득, 어릴 적 효창 운동장에서의 평안 북도 도민회가 있을 때

아버지를 따라갔다 보았던 그 장면, 그 소리가 생각나 자애스런 눈으로 틈틈이 보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걸음에 속도가 붙어야 콜레스테롤이 빠진다는 충고를 기억하면서.

어느 사이 놀이터 그네 위에는 책 보따리로 보이는 검은색 백팩이 놓여져 있었다. 둘러보지만 주인이 없다.

다시 한 바퀴를 돌아오자 금발의 소녀가 그네 위에 걸터앉아 있다. 등교 시간일 텐데 땅땡이를 치고 있는 것일 게다. 그렇다면 저 소녀의 머리도 노랑 물을 들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바로 그 때였다. 내 집에 묶어 두고 온 돌이처럼 잘 생긴 진돗개 한 마리가 놀이터 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놈 뒤로 또 한 마리의 진돗개가 느린 걸음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다. 뒤엣 놈은 암놈 같았다. 먹지를 잘 못 했는지, 새끼를 가진 건지 비실거린다. 앞의 놈이 내게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애처롭긴 하지만 순간 광견병을 생각하고 저리로 가라고 쫓는 시늉을 했다. 피하기 위해 모랫터를 가로지르려고 몇 발짝 내려 걸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몸집이 비슷한 두 남자 아이들이 소녀가 있는 옆에 자리잡고 있었다.

축구를 하고 있는 그들이 히스패닉인 것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 소년 소녀들은 아리송할 뿐이었다. 머리에 물을 들인 이유만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들의 땅땡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 같지가 않은 듯이 초조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8, 9학년쯤 되어 보인다.

‘애들아, 이제라도 학교로 가라’고 한 마디하고 싶었지만, 말하

는 나만 우스워질 거란 걸 알기에 묵묵히 계속 걷기만 하고 있었다. 아마도 한국 애들이었으면 그 말을 했겠지. 이 때 공원 입구 주차장 쪽에서 한국말이 들려왔다. 목소리가 꽤 컸다. 50대쯤 되어 보인다. 나이 만큼 뱃살이 불어 있는 사내가 데리고 온 개는 목에 끈을 풀고 자유롭게 뛰고 싶은 모양이다.

“이쪽으로…… 사라!”

반갑게도 한국 사람이었으나, 데리고 온 개는 검은 털에 밤색이 섞인 솔터(sheltie) 종류의 애완견이다. 개는 사내를 앞질러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건 또 웬일인지 주인에게 묶인 개마저 목줄의 힘을 다 해 내게로 오는 게 아닌가.

“이 개 물지 않아요? 아저씨! 개 줄 좀 당기세요.”

“아주머니! 개 기르세요? 이 개가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한테 개 냄새가 나나 봐요.”

“개 냄새요? 아! 그래요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가 있어…….”

“어! 어! 사라! 가만 있어!”

주인의 손에 묶여 있던 개가 막무가내로 목을 뻗치며 가려는 쪽은 공원 한귀퉁이에 있는 쓰레기통 쪽이었다. 거기엔 이미 일곱, 여덟 마리의 개들이 쓰레기통 주변을 뛰지고 있었다. 들판에 되어 자유롭게 거리를 쏘다닐 수 있는 대가로 쓰레기통을 뛰져야 한다. 그쪽이 부러워 몸부림하는 개의 끈을 사내는 힘껏 잡아당긴다.

“이 근처에 사세요? 전 아침이면 자주 나오는 편인데 아주머니는 초면인 것 같으네요.”

우리는 자연스레 공원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벤치들 중 가장 가까운 의자를 택해 앉았다. 두어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

“예, 여기서 멀지 않아요 히스패닉 하나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나온 길에 너무 일어서 좀 걷던 중이에요. 그런데 명칭이 서울 국제공원이지, 웬계 거의가 히스패닉이군요.”

“하긴, 놀만디와 올림픽 코너, 여기가 코리아타운 중심이죠. 거기다 엘에이 시에 로비까지 해서 명칭까지 아드모어 공원에서 서울국제공원이라고 바뀌게 된 건데,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건 일년에 한 번 한국의 날 뿐이네요 우리 나라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참 열심히도 살아요. 그런데 저,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공원에서도 아마 담배를 못 피우게 되실 거예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그런 안전이 시에 상정돼 있다는데 통과가 되겠지요?”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길게 빨아 삼키던 사내는 실망한 눈빛이 된다.

“제가 아침마다 여기 나오는 이유가 이 담배 아닙니까. 이 담배를 정말 끊어야 할 날이 오겠군요. 담배 맛이 달아났습니다. 공원에서도 불가능하다. 참…….”

사내는 담배를 발로 비비어 끈다. 이래서 공원 어디에나 버려지는 광초 때문이라도 금연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내 몰래 해본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 대신 진돗개들이 모이더군요. 버린 개들이 어떻게 여기에 모이는 거죠. 서울 공원인 걸 아는가 보죠?” 나는 담배 맛을 잊게 한 게 미안해서 얼른 한 마디를 건넸다.

“아! 그건, 언젠가 여기서 진돗개 품평회가 있었어요. 엘에이에도 진돗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기억 때문이겠죠. 저 개들은 여기서 하던 진돗개 행사에 나왔을 만큼 품종이 좋아 보이네요. 진돗개들이 참말로 얼마나 똑똑한지, 집을 나갔다가도 꼭 찾아 들어오죠. 아마도 저 개들은 주인들이 기르다가 경기가 나빠지니까 하우스에서 아파트로 옮기면서 기를 수가 없어서 버린 게 틀림없을 겁니다.” 사내는 사라의 머리에서 등까지의 털을 빗질하듯 여러 차례 쓸어 주며 말을 자신 있게 한다. 개의 검은 털에 윤기가 난다.

“아니, 어떻게 저런 식으로 버린단 말예요. 시에서 하는 동물보호소에 데려가면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는 마치 사내가 저 모든 개들의 보호자라도 되듯 짜증 섞인 목소리가 되었다.

“저렇게 큰 개들은 원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죽이게 되죠.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린아이 입양하지, 늙은이들 싫다는 거나 같은 현상 아니겠어요?”

“아이 낳아서 남의 나라에 입양시키는 거 우리 나라가 수위 급인데, 거기다 진돗개는 한눈에 봐도 코리안 도그인 줄 아는 외국인들이 많을 텐데요. 저렇게 무책임하게 길에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저 진돗개들이 저렇게 굴러다니다가 뚉개나 퍼뜨리면 어떻게 하죠?” 나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다.

“뚱개라도 많이만 만들면 서울에 수출하지요. 뭐 걱정입니까. 보신탕 값 떨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웨스턴 쪽에서 흑염소탕집을 하는데요. 가끔씩 보신탕 생각나서 오신다는 손님들이 더러 있거든요. 저런 놈들 보면 아깝죠. 서울만 같으면…….” 사내

는 곧 입맛을 다실 것 같은 표정을 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개 앞에 놓고 그런 말씀 마세요. 옛날에 한국이 너나 없이 사람 먹을 것도 귀하던 시절인데 집에 기르던 개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앉아서 말씀들 하시다가 ‘저놈의 개는 죽지도 않아.’ 하고 무심결에 한 마디하셨는데 개가 슬그머니 나가더래요. 돌아다니다가도 그 날로 돌아오던 개가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남자 식구들이 찾으러 다니다 결국 뒷산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저놈을 이뻐하시던 할머니 묘지 앞에서 죽어 있더래요. 동물이라도 개는 돼지하고 달라서 영이 통하는 것 같아요.”

“어이구 아주머니, 개는 개예요. 우리 지난번에 기르던 개는 잘 놀다가는 우리 딸아이 입을 물어뜯어서 수술을 했는데 언청이 꼴이 됐다구요. 개는 개더라구요. 족보고 뭐고 다 소용 없어요. 그 개가요, 한국애견협회에서 만든 진도견 혈통서라는 족보까지 있던 건데요, 우리 딸애를 지독히도 물어 놔서 어찌나 밟던지 죽이든가 말든가 동물 보호국에 갖다 줬습니다. 지금 이 개는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딸아이가 기숙사에서 전화를 해서 딸아이 목소리를 들려주면 전화기를 혀로 핥아요. 지독히도 이쁜짓만 합니다. 우리 딸 대신 딸 노릇 하느라고…….”

사내의 사라라는 개는 의외로 암전하게 앉아서 다른 개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자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듣기라도 하듯 사내의 손을 훑는다.

“진돗개들이야 집을 확실히 잘 지키잖아요. 우리는 진돗개를 기르거든요. 황구요. 저 진돗개들이야 얼마나 지독하게요? 작은 고

추 맵다고들 하잖아요. 딱 우리 민족처럼 지독해요.” 사내는 급한 듯 내 말을 자르고 서들면서 음성까지 높인다.

“작은 고추 맵기는, 하하! 아주머니 멕시칸 고추 생걸로 먹어 봤어요? 미국 이민 와서 처음에 멋모르고 먹었다가 야! 그거 수류탄처럼 폭발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생걸로 먹었다가 죽을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 여자들이 가끔씩 멕시칸 종업원하고 달아나는 걸 보면 확실히 멕시칸 고추가 매운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 분께서는 멕시칸 인부를 여자에게 구해 오게 하는 거죠. 그거 돈 조금 아끼려다 큰일날 일이죠.”

“전 말예요. 이성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주래요. 그게 문제라서 저희 남편이 사주 고치게 푸닥거리라도 해야겠다는데요. 저를 보세요. 요즘 여자를 저만큼 퍼질 대로 퍼진 거 보셨어요. 거울 무시한 건 아예 옛날 얘기라니까요. 아무튼 이 동네가 위험하니까 개를 여러 종류 길러 봤는데요, 진돗개가 제일이에요. 어느 날은 고양이도 잡아서 죽여 놓고요. 쥐, 새 같은 건 얼씬거렸단 모조리 죽여서 짓이겨 논다구요. 그것도 주인이 나가서 못 본 것 같으면 입으로 물어다 앞에 놓는다구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 강도에 좀도둑 어쩌고 해도 우리는 안심하고 사는 거죠. 밤에 좀 짖어대면 그게 문제죠. 주위의 아파트 사는 백인들이 당장 쫓아오니까요. 안면 방해로 고소한다고 난리지만 절대 못 없애죠. 그 개가 집 지키는 데는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거기다 꼭 뮤어 놓고 기르잖아요. 끈이 길기는 하지만. 나갔다가 엉뚱한 거 하고 바람필까 봐서……. 어디까지나 진돗개네……. 그 개 기른 지 4년이 넘었으니까 사람 나이로 치자면 많이 늙은 거죠. 아직 짹도 한 번

못 지어 줬어요 종자 좋은 거 찾다가 늦어 버린 거죠. 서울서 구해 가지고 들여온 건데요, 지 만한 신랑감이 없네요. 애초에 한쌍을 가져오는 건데 그랬다고 남편도 후회를 해요. 저렇게 돌아다니는 진돗개들 보면 제발 섞이지 말아야지 하고 걱정스러워요. 사람이나 개나…….”

“뭐,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다들 저 좋은 대로 사는 거지. 저는 딸자식 하나 있는데도 걱정 안 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 테요……. 더구나 여긴 미국이잖습니까. 아주머님 아직 젊으신데 왜 그리 생각이 고리타분하세요?” 얘기를 듣다가 무심결에 보니 그네에 걸터앉아 있던 계집아이와 사내아이가 키스를 하고 있다. 고개를 돌려 공원 입구 쪽을 보자 그새 하루 품팔이를 구하는 히스페닉들이 꽤 모여들고 있었다.

“이제 가야겠어요 저기 일 구하는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네요. 사라라고 했나요. 개가 참 영리하네요.” 나는 일어서며 개의 머리를 한번 쓸어 주었다.

“아이쿠! 저도 가게에 가 봐야겠네요. 자주 운동삼아 나오세요. 그럼 또 뵙시다.” 인사를 나눈 나는 일어나 발을 빼기 시작했다.

공원 입구 쪽에 커다란 런치카 한 대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한눈에 그것이 음식 장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먹을 것을 그려놓은 그림 때문이었다. 언제 보았는지 축구를 하던 히스페닉들이 아침을 먹으려고 몰려들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일 잘하게 생긴 일꾼을 눈치껏 고른다. 내가 다가가자 그들도 나만큼이나 눈치가 빠르다.

“미! 미!…… 미!……”

서로들 자신을 써 달라고 앞을 다룬다. 아침부터 공원에서 축구를 하느라고 런닝 같은 셔츠에 땀이 흠뻑 벤 사내들은 제쳐놓는다.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묻는다.

“가드닝!” 하고 내 말이 떨어지자 젊은 사내 하나가 내게 다가오며 삽질을 흉내내더니 팔을 접어 근육을 자랑한다. 알맞게 그을린 게 섹시남 같다. 나는 은근히 장난기가 동하여 남편 말을 되새기며 일도 잘하고, 거기다 잘 생기기까지 한 이 젊은 녀석으로 정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원 모어?” 하면서 자기를 써 달라고 소리쳐 본다. 나와 멕시칸 사내는 이미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웠던 길을 서두르듯 되돌아가고 있었다. 길을 안내하듯 나는 몇 발짝 앞질러 걸었다. 길 하나를 건너 막 아드모어 길로 꺾어졌을 때였다. 암컷 뒤에 붙어 버린 듯 엉킨 수컷의 맹렬한 짹짓기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 교미는 저것들이 하는데 왜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순간 나는 뺏뺏이 세운 목으로 하늘을 보고 걷듯 능청을 떨며 그것들 옆을 숨을 졸이며 지났다. 일꾼 앞에서 걸던 여장군인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아침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다. 먼저 온 남편에게 일꾼을 넘겨준다. 낯선 사람을 보자 돌이는, 앞발을 권투선수의 시합 때 모습을 생각나게 할 정도의 공격 태세를 갖추고는 삽을 든 일꾼을 향해 용맹스럽게 짖어 댄다.

돌이의 짖어 대던 소리가 이내 멈춘 것은 남편의 저지 덕분이다. 황구인 돌이는 백인이나 흑인이 주차장에서 내리는 걸 보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짖어 댄다. 우리 한의원 환자의 대부분

이 한인이기 때문에 돌이의 눈에도 익숙한 황인종에게는 짖기를 털한다. 영리한 녀석!

남편은 환자가 오면 불러 달라고 당부하곤 뒷마당에 쌓아 놓은 약 찌꺼기들을 흙에 섞는 일을 일꾼에게 시키고 있었다. 뒷마당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외에 여분의 티에는 대추, 감나무, 흥화, 숙지, 익모초 등을 기른다.

보약 달인 찌꺼기를 모았다가 썩인 것을 흙과 섞어 거름으로 쓴다. 봄, 가을에 한 번씩 이 일을 한다.

나는 어제 오후 환자의 약을 달이기 위해 약 달이는 방으로 들어왔다. 한국에서 막 들여온 당귀 냄새가 기분 좋게 콧속에 스민다. 말린 오징어처럼 넓적한 당귀의 한쪽을 찢어 어금니 쪽으로 밀어 넣고 씹기 시작한다. 이번엔 감초도 손에 걸리는 것으로 하나 입 속에 넣는다. 이렇듯 껌을 씹듯이 수시로 감초, 황기 등 약 제들을 자주 입에 넣는 덕인지 갱년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순탄했다. 약 달이는 일을 내가 해야 했던 건 아닌데 남편 밑에서 일 하던 후배 한의사가 휴가를 얻어 서울로 선을 보러 갔기 때문에 내 일이 늘었다.

식당 개 삼 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한의사 마누라 30년에 약 맛과 냄새로 약 이름은 물론 성분까지 알 정도가 되었으며, 대기실에서 대접하는 한약 차만으로도 굳이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교회에 나가 사교를 하지 않더라도 나로 인한 보약 손님은 만만치 않았다.

거기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남편은 보조의사 없이도 편안

하게 나를 잘 부린다. 처방대로 만들어진 약제가 담겨진 종이 봉투를 그릇에 부어 버린다. 그리곤 물로 한 번 씻어 바구니에 밟인다. 거기다 약을 기계에 넣어 끓일 땐 꼭 식수를 쓴다. 마치 가족을 위해 김치를 담글 때의 정성으로. 그래서 남편도 준비된 약을 내가 달이는 것을 은근히 바란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남편 또한 찬 중국 약보다 값이 월등히 비싸도 한국산만을 고집한다. 특히 인삼은 고려 인삼 6년근, 홍삼은 정관장 6년근을 진열장에 많은 양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다. 마치 일본에 히데요시가 한국 인삼 50곽을 재산 목록에 기록했듯이, 남편의 약장이 그러했다.

약을 다 집어넣고 기계 조절을 끝내고 막 나오려는데 앞쪽에서 벨이 울렸다.

“딩동, 딩동”

“네, 나가요”

아직 9시가 되지 않아서 예약 환자가 일찍 왔나 하고 걸음을 서둘렀다. 앞에 사람이 들어오면 센서가 울리도록 전기 코드를 연결해 두었었다.

대기실엔 아무도 없다. 동쪽으로 난 현관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 때문인가 하고 생각했다. 시계를 보려고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큰 덩치의 시커먼 도둑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둑은 들고 있던 인삼 박스들을 쟁겨 든 채로 나를 밀치곤 그대로 현관문을 빠져 나갔다.

“딩동, 딩동, 딩동…….” 하는 요란한 벨 소리가 귀에 울리면서 머리를 더욱 어지럽게 했다. 얼떨결에도 급히 일어난 나는 현관 밖으로 뛰어 나갔다. 도둑놈을 태운 낡은 차는 길가에서 준비하고

있었는지 유유히 달아나고 있었다. 차 번호판을 보려다가 길에 흘린 인삼 박스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만 차번호 읽는 것을 놓쳐 버리고 말았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떨어진 깡통 상자는 그새 충격이 심한 듯 구겨져 있었다. 거리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쉬지 않고 현관을 지나 남편이 있는 뒤플로 갔다. “도둑, 도둑…….” 하는 내 말보다, 일을 하던 남편을 놀라게 한 것은 내 덩치에 하얗게 질려 벼린 안색이었던 것이다.

“인삼, 이 인삼 박스들 다 들고 갔어. 이거는 길에 떨구고…….”

“당신 지금 인삼 얘기할 때야.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지. 가서 얼른 누워야겠어. 안색이 말이 아닌데…….”

진찰실 침대 위에 누운 나에게 남편은 안쪽 손에부터 침을 꽂기 시작했다. 긴장을 하고 입을 잔뜩 오므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인증에 놓지 않을 걸 보면 심하진 않다고 생각한 걸까…….

얼마 후 조금 진정이 된 나는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경찰 불러. 경찰! 또 오면 어떻게 해……. 자기는 못 봐서 그래.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그런 사람이 쫓아 나가…….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다 쥐. 적선했다고 생각하구. 안 죽인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구…….”

이제부터라도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해야겠다고, 닥터 강은 아예 결혼식을 하고 오려나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던 남편은 이제 일꾼이 혼자 일하는 뒷마당엔 나가 볼 생각도 않는다.

나는 놀란 가슴과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하고 접수실에 앉았다. 일을 제대로 하거나 했는지 하루 온종일 놀라고 분한 마

음뿐이었다. 거기다 저녁 무렵, 일을 시키는 대로 잘 했거니 하고 나가 보았던 남편까지 한숨을 덧붙여 온다.

“멀쩡히 잘 자라는 약초까지 죄다 거름하고 뒤섞어 놨어! 헉 참!” 남편 말대로 일진이 안 좋았다.

저녁 늦게 잠이 들 때까지도 나는 그 도둑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눈앞에 보고도 놓친 분한 마음이. 아무래도 내일은 타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잠깐 스친 그 얼굴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흑인, 20대 초반, 키는 좀 큰 편이고 얼굴은…….

하루가 길고 길었다.

어수선한 꿈만 꾸느라 온 밤을 다 망쳐 버렸다. 아래층에 내려 가야 한다고 생각 하니까 온몸에 다리까지 저려 왔다.

이제 아침 9시가 다 되어 간다. 아침 첫 예약이 10시에 있다. 그 사이에 은행에 들렀다가 타운 경찰서에 가서 어제의 도난 사건을 신고하려고 마음이 분주했다.

지난 일 주일 동안 입금시키지 못한 수입을 카운터에서 정리하며 입금표에 적어 넣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가 끈질기고 크게 들려온다. 정리하던 입금표를 마저 하고 나가 볼 참이다. 그 때 현관 유리문을 밀치며 머리를 박박 깍은 흑인이 들어오고 있었다. 뒤이어 같은 헤어스타일의 흑인이 세 명이 더 들어온다. 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은행에 입금할 수표, 현찰 등을 노트로 덮어 버림과 동시에 바로 뒷방의 원장실에 있는 남편 혼자만 듣기에는 너무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흑인 들어왔어!”

그 소리는 마치 옆집 쯤에서 ‘불이야!’ 할 때 필요한 정도의 에너지였다.

남편은 뛰어 나오고, 나는 남편이 있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와중에도 큰일이 나기 전에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떨고 있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이 때 밖에서 어둔한 한국말이 들려왔다.

“저 여자 왜 저래요?”

뜻밖에 한국말이 들려왔다. 이 말이 귀에 닫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들이 한국말을 알아듣고 할 줄 안다고 짐작이나 했던가. 차라리 ‘불이야’ 했더라면…….

슬그머니 나가 보았다. 남편이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나만 알아듣도록 모기 소리로 한 마디한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 재 여기 오는 미세스 윌슨 아들이라잖아. 다리가 접질려서 침 맞으려 왔다는데…….”

“그럼 왜 예약도 안 하고 이렇게 일찍 와. 혼자나 오든지. 앞에 혼자 있다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네 명씩이나……. 여기 만져 봐요. 놀래서 아직도 이렇게 뛰고 있잖아.” 모기 소리보다도 작게 변명을 하고는 이번엔 내가 죄인이 되어 조심스럽게 자리로 돌아왔다.

차트를 다 쓴 뒤 내게 내밀면서 나를 보는 눈빛이 ‘안 됐다’ 하는 눈치다. 이왕 왔으니 진료를 받기는 하지만 아침부터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다 표정이다. 나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미안해서 무슨 말인가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어제 내가 도둑을 맞아서 그 생각하다가 그만…… 미안해요”

진료실로 들여보내고도 내내 마음이 영 아니었다. 그애 엄마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생각이 미친 곳이 어제 아침에 보았던 주간지 기사였다.

복잡한 생각에 휘말리어 있다가 진료실을 나온 토마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내 실수의 미안함을 대신했다. 그리고는 “오늘 지내 보고 아프면 내일 다시 와요.” 내 억양은 그의 엄마 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우려고 노력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 가요 내 동생하구요” 따라온 친구 중에 하나를 가리켰다. 나이들이 거의 비슷해 보였다.

“아깐, 정말 미안했어요 서울 잘 다녀오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말을 하면서도 즐거운 여행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니 예감이 아니라 서울의 현실이다. 버스나 지하철이라도 탔다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흑인이 어떻고 저놓고 욕이라도 한다면, 상처는 오늘보다 심할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시리다. 차라리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이나 하지.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은 곳으로 하기사 어딘들 한국 사람이 없으랴.

“안녕히 계세요.” 토마스가 인사를 한다. 거구 네 명이 대기실 밖을 나갔다.

토마스가 떠나고 나는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 미안해’를 뇌인다. 그리곤 경찰서에 가서 어제 도둑 맞은 것 신고하려

던 것도 포기한다. 이 때 남편이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며 한 마디한다.

“당신, 아이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라도 하면 어찌려고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구.”

“어제, 그 인삼 박스들 훔쳐 달아나던 흑인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렇게 살거죽에 소름이 돋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제 놀란 게 아직 남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머리 박박 깎은 시커먼 장정 네 명이 넓은 바지에다, 문신이 새겨진 팔뚝 하며 들어오던 그 순간을,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구요…….” 내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총알 튀기듯 한다.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 안 됐잖아. 백인들이 당신 볼 땐 황구 보다 나은 게 있을 것 같애?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남에 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걸 잊은 거야. 좀, 겸손하라구…….” 편안하듯 한 마디 던자곧 남편은 섰던 자리에서 사라진다. 듣고만 있던 나는 남편이 있던 자리를 향해 중풍 맞은 여자처럼 눈과 입을 흘긴다.

그리곤 다시 자리에 앉아 일을 하려는데 어제 아침에 보았던 주간지 내용이 자꾸 떠올라 더 혼란스럽게 한다. 미안하다고 할 사람은 그 애의 엄마였다. 아니야, 그 앤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다. 미안해!’

마음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간지 기사가 머릿속을 집요하게 헤집어 댄다.

과일이 고루 맛있는 건 번식을 위함이라면, 그 짓의 즐거움 뒤의 상처는 누가 끌어안을 것인가! 머릿속이 쉬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이 때 주차장 쪽에서 개가 꽁꽁거리는 소리가 민망하게 들려온다. 나는 혀등지등 뛰어 나가 돌이를 부른다.

“돌이야”

돌이가……. 돌이가 새끼를 낳고 있었다. 쥐만한 새끼들이 움틀거린다. 새끼들을 양 손에 한 마리씩 안아 든다. 한 마리는 까만색에 황색이 섞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황색에 흰 점박이 털이 있다. 또 한 마리는…….

나는 펼리는 소프라노로 남편을 부른다.

“여보! 돌이가 새끼를 색색으로 낳았어! 애가 어떻게…….”



마스크

꼭 마스크를 끼고 싶어 산 것은 아니다. 팬스레, 그런 건 뭘 하려? 장농에서 케케묵은 옛 기억 끄집어 내는 것 같아 나는 웃어버렸다. 윤 사장님은 막무가내이다. 안전이 제일이라며 손수 하나 골라 준다. 방진 마스크, 황사대비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해서 종류도 얼마 되는지 모른다. 값도 엄청나다. 5만 원 더 주고 ‘유한뽀빠’ 브랜드 하나 샀다. 뭉툭한 돼지 주둥이처럼 앞이 불거진 것. 웃기네. 내 입도 돼지 닮아 가겠어요. 하니 윤 사장님은 좋네 그려. 한다. 좋다마다? ‘유한뽀빠’의 사명은 대한민국 사스 예방은 우리가 진행합니다—이다. 사스? 웃기네. 서울 사람들은 호들갑쟁이다. 사스 때문에 갈 곳도 못 가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다. 덩치 큰 윤 사장님만 봐도 그렇다. 중국 운남에서 목재를 들여와 제조업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미 반 금액 치른 자재마저 수입할 엄두

를 못 낸다. 손수 나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두렵다고 한다. 잘난 것, 버렸으면 버렸지 사지(死地)를 왜 가요? 통이 크게 이천 만원 날릴지언정, 그렇단 말이다. 뉴스를 봐도 대외수출입에 매달린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했다. 인구통계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나라, 서울인구 중 몇몇 죽는 데 불과하는 프로에 웬 소란인가?

유행입니다. 윤 사장님이 의아해 묻는다. 유행이라니, 김치? 나는 푹 했다. 북경에서 김치가 크게 유행이란다. 김치 먹는 민족이 걸린 사례가 없다. 윤 사장님은 손수 포장김치 한 통 챙겨 왔다. 법무부에서 한 달 더 연장해 준다는 데두? 하고 그냥 말린다. 하긴 그래, 그 아가씨 때문이지? 허, 아가씨란 단어도 좀 그렇다. 동창이란 데도 아가씨는 웬 뚱딴지 같은? 여자들이 듣기 좋아하기에 생긴 유행어일 것이다. 그럼 사스는? 역시, 나는 굳이 설명은 안 했다.

인천공항에 나갈 때까지 나는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공항 버스는 적막감을 실어 왔다. 코를 고는 것 같은 동음, 새벽은 아직 깨어 있지 않고 있고, 월미도 부근 바다의 입김이 요사하다. 가시도(可視度)를 떨구며 갑갑하게 엉켜 있다. 희미하고 거뭇하다. 설키고 뒤틀리는, 마치 어떤 음흉이 고요히 나부끼는 것 같다. 눈을 감았다. 정리가 되어 갔다. 나란 사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연변에서 이 반도, 고국으로 날아왔다. 서울 구석구석 혜집고 다녔고 한민족 자본주의를 알고 감각했다. 그 속에 윤 사장님도 있다. 우린 '쪼끼쪼끼'로 드나들며 흑맥주를 마셨고 친구가 되었다. 고국의 정은 깊다. 활기와 밝음과 빠른 절주는 나의 뱃살마저 까주었다. 해도 나는 가야 한다. 왜서?

안개가 일렁인다. 느슨한 빛이 그 속을 해집는다. 바다의 입김이 조금씩 끊기 시작한다. 뾰얀 연기 날리는 것 같은, 이제 날이 활짝 개일 징조건만 내 가슴은 갑자기 답답해났다. 주머니에 넣은 ‘돼지 주둥이’가 손에 맞히어 왔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섬세한 촉감, 그것이 안개와 나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웃기네, 이건 말도 안 돼!

나의 여 동창생의 얼굴이 확실하게 떠오른 것은 그 찰나, 밝고 약한 정열이 까만 눈과 면부에서 발산한다. 어깨에 닿는 머리채가 치령거린다. 열일곱, 아니 그 전인지 모른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쭉 한 반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늘 빨개 다녔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머리에 김이 문문 났다. 잘 웃고 잘 쓰다니고 별칭은 ‘벌개’, 곁에 오면 벌써 몸의 열기가 느껴진다. 그에 반해 나는 키만 껑충했지 ‘약다리’, 늘 서리맞은 ‘코스모스’ 같았다. 지나가는 감기는 다 했다. 코 질질 흘리며 콜록거렸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마스크를 입에 걸고 다녀야 했다. ‘마스크’란 별명은 그래 얻었다. 야, 마스크야. 갑갑하지도 않니, 넌 언제 여쭐겠어? 그녀는 내 마스크를 잡아당겨 놓았다. 콜록콜록, 나는 기침이 터졌다. 애구애구, 칠십먹은 영감이 다 됐네. 그녀가 깔깔거리었다.

그 때문인가? “내가 누구인가고? 호호, 너 ‘마스크’ 영감 맞지, 응?” 하고 전화 넣어오자 나는 기억의 아득한 높에서 마침내 싱싱한 베들치 하나 건져 올릴 수 있었다. 영자? 최영자? 아아, 28년만에 처음 갖는 통화이다. 그녀는 송료평원에서, 나는 서울에서 문득 접속을 했던 것이다. 우연히 동창 누구누구를 만나 내 소식 알게 되었다고 중국은 땅이 너무 넓고 아득해서 만나기 힘들지만

서울은 반도이니 소식 알기 쉽더라고 누구누구도 서울 가 있지 않느냐? 개가 내 서울 핸드폰 번호 알려 주었노라 한다. 우리는 반 시간 종이 진한 회포를 풀었다. 얼마 전에 그녀네 집은 광동으로 이사를 갔고, 이 며칠 사이 심양을 거쳐 연길에 가려 한다고 했다. 거래하는 손님이 있어서—그녀가 주저하듯 말했다. 웃 장사 하는 것 같다. 장사꾼? 어쩜 그녀의 기질과 어울려 보인다. 네가 연변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아쉬워했다. 나는 이 며칠 사이 돌아가기로 했다고 알려 주었다. 우리는 심양 정거장에서의 재회를 약속했다. 왜서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썩 밝지 못했다. 전 과는 이미지가 완연 틀렸다. 삼십 년 가까운 세월이 아닌가?

“너 아직도 마스크를 끼니?”

그녀가 비로소 장난스레 물었다.

“그래, 웃기는? 바상시기가 아니냐?”

나도 거刎히 농을 받았다.

“그럼 ‘마스크’야, 그 때 만나자.”

마스크? 손에 닿는 ‘돼지 주둥이’의 촉감이 유난히 포근해난다.

여객기는 텅텅 비어 있다시피 했다. 손님이 반의 반도 안 찼다. 비행기가 날아올랐다. 몸이 약간 젖혀진다. 무의식중에 마스크를 찾아 꼈다. 주위 손님 대부분이 마스크를 챙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달랐다. 어쩜 소담한 옛 기억 한 번 더듬고 싶어서인지 몰랐다. 둘이 각별한 사이였던 것은 아니나, 그런 기억은 소중하다. 그녀네가 이사 가는 바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갈라진 후 연락 한번 갖지 못했지만, 그녀를 위한 기억이 아니고, 느닷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될 계기가 생겼다 할까? 그런 일이 있었다. 승용차를 타

고 내리막길을 막 쏟아져 내리는데, 난데없는 돌멩이 하나 살같이 날아들었다. 초월하던 차의 뒷바퀴에서 퉁기어 온, 유리가 풀싹 내려앉았다. 생활에서도 어느 날, 그런 돌멩이 하나 날아들 것 같은 예감을 평소에 나는 하고 있었다. 최영자가 그런 돌멩이란 말은 아니나, 나는 뭔가 바라고 있었다. 분명히—.

면사 같은 구름과 하늘같이 착각이 드는 넓고 푸른 바다, 드디어 광막한 땅과 점점의 인가가 어렴풋이 알려 왔다. 송료평원 변두리이었다. 대학 졸업을 하고 버스로 그 평원 가운데를 지난 적이 있었다. 평야는 끝간데 없이 펼쳐지고, 몇 시간을 달려도 산 하나 보이지 않았다. 키가 머리 위까지 자란 옥수수 바다가 쏴—아, 쏴—, 물이랑 같다. 뾰얀 먼지가 뜨거운 햇빛에 불붙고 있는데 까맣게 탄 애들이 발가벗고 뛰어다니고 있다. 철령이란 곳 지나서야 나는 최영자의 고향이 이 곳 어디쯤이란 기억을 했다. 그녀네 부친은 딸애를 조선애로 만들겠다고 우리가 사는 할머니네 집에 보내 공부시켰던 것이다. 이런 곳에 조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녀네 집이라니? 경북 예천 단북골에서 건너온 그녀 조부가 처음 뿌리 내린 곳, 옥수수 농사로 평지만 바라보며 삼 대째 부지런히 터전 닦아 왔을 아무도 모르는 삶의 이야기. 너무나 멀고 아뜩한 유리 평면이 펼쳐진 것 같고, 어떤 돌멩이가 날아와야 한 번 풀싹 깨 주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주제할 수 없는 낯섦과 깊이로 펼쳐진 평면에서 우리의 삶은 덧없이 진해 가는지 모른다. 이제 이 땅은 사스의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정말 모를 소리, 서울 매체들은 이제 날마다 누가 보지 않을까 봐 숨 떨어지는 소리내는 것 버릇 되었으니 말이다.

비행기 착륙시에 나는 슬그머니 눈을 감아 버렸다.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헉, 이게 뭔가? 역전에서 나는 최영자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열차에 올랐다. 맹랑한 에피소드 같다. 혹 약속 시간 잘못 기억한 것은 아닐까? 나를 마중한 이는 미리 침대표를 사서 챙긴, 무순에 있는 삼십대의 한족 여자 쇼왕이었다. 연길 태생인데 후에 심양으로 시집갔었다. 그녀는 술에 취한 나를 정거장 문까지 바래 주었다. 사스 차단한다고 더 이상 바래 주지 못하게 했다. 심양은 내가 잘 모르는 고장이다. 어릴 적에 한 번 왔다가 탑 위에 탱크가 있는 것 본 기억만 생생할뿐, 소련 홍군 해방 기념탑이었다. 웬지 지금 그게 눈에 띄지 않았다. 남 정거장 혹은 동 정거장에 있던가? 모르는 것 굳이 알 필요는 없다. 내가 묻지 않은 원인도 거기에 있다. 이를테면 최영자도 그렇다. 28년 전의 그녀는 알고 있으나 28년 후의 여자는 알 수 없다.

그녀는 내 생활의 돌멩이는 못 된다. 괜히 쇼왕이 좀 쟁그랑거려 왔었다.

“오빠가 서울에서 첨첩 포위망을 뚫고 안전하게 귀국했는데 축하, 동북 빠 ‘이갈로’ 한잔 깐베이(건배) 합시다!”

흰 술을 꽤 큰 유리컵에 철철 부어 든다. 속이 찡 하다 못해 타는 것 같다. 첨첩 포위망? 나는 그녀를 안고 들았다. 술상에 노래 기계까지 갖추어 놓는 것이 이 곳의 영업방식이다. 첨잔에 첨잔을 거듭하듯, 서울은 세세 콜콜 세분해 가지만, 이 곳은 벼루려 가기 좋아한다. 그녀의 무지 큰 젖가슴도 내 뱃살에 벼루려 오는 것 같다. 하긴 나는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이 땅과 이 곳의 풍토를 잘

안다. 사스? 쏘스도 두렵지 않다. 윤 사장님의 호의 뿌리친 것도 그래서이다.

공항 검역은 단조로우나 엄격했다. 사십여 명 되는 손님들이 차례로 레이저 측정기 앞에 서서 웬 괴물 같은 기계의 빨간 눈알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상한 꼴을 올려다보며 공손히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유순한 ‘돼지 주둥이’ 입을 한 나는 공항에서 풍기는 어둡고 침침한 냄새에 약간 질려 있었다. 짜 이거(그 아래), 샤 이거, 검역관의 중국어는 딱딱하고 생경했다. 어쨌거나 검사는 순조로웠다. 그런데 꽤 오래 손님들을 풀어 주지 않았다. 그게 중남해에까지 번져 갔다. 북경시장이 해임되었다. 광주, 상해지구도 통제에 들어갔다. 하며 한족 여객들이 수근수근댔다. 문득 흰옷 입은 검역관이 뒤에서, 호우라(됐어요)! 소리쳤다. 몇몇이 박수를 쳤다. 침침하고 갑갑한 대청 안이 셀렁해 보인다. 정상 체온보다 높은 여객 한 분이라도 검출되면 어디론가 몽땅 실려 가서 보름 동안 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사정 아는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쉰다. 며칠 전에도 그런 사례 있었는데 후에 관찰해 보니 환자는 감기라고 한다. 그저 일 아니네, 소문이 옳긴 옳은가 봐. 가만히 혀가 차진다. 첨첩 포위망이란 말이 옳다!

“조금도, 머이—쩔이요(괜찮아요)!”

시내 행 버스를 타자 쇼왕이 안위해 왔다. 중국말에 한국말 반반씩 섞으니 표현이 더 생경해난다. 그런 생경 속에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조선족이었다. 서글펐으나 약간 배포도 생겼었다.

시내로 빠진 길은 탁 트이었다. 길 곁에 제멋대로 자라는 초록의 풀빛과 원시적인 땅의 숨소리에서 어떤 자유와 포근함이 푹 젖

어 왔다.

그런데 입성을 하니 마음에 약간 그늘이 쪘 갔다. 트럭과 승용 차와 자전거와 사람이 무리지어 우마차까지 범벅을 이룬다. 백화점이나 상점, 슈퍼마켓, 식당 같은 곳은 썰렁하고 유리창에다는 흰 종이 검은 글씨로 ‘본 점(店)은 이미 소독했음.’이라고 줄줄이 써 붙이었다. 길에도 행인이 별로 없다. 흡사 어떤 지독한 유령이 이 도시 어디에 숨어 음씨년스런 바람을 풍기는 것 같았다.

“나앤썰찌멀라(당신 낯색이 왜 그래요)?”

쇼왕이 내 손을 잡으며 마음놓으란다. 이렇게 등을 단다. 공항에 나를 마중하러 나온다니 애가 심양에는 절대 가지 말라 신신당부하더라고 무순과 불파 한 시간 거리이나 심양은 공제지구에 속 한다. 만약 부모가 심양에 가게 되면 학교에 보고해야 되고, 자식들도 일 주일간 집에 격리된다고 한다.

“싸찌어텅(그저 못살게 굴어요)! ”

그녀는 낯을 찡그렸다.

“흠, 이러는 게 옳은 줄도 몰라!”

“뭐가 옳아요? 심양에 사스로 몇이 죽은 줄 알아요?”

“몇이?”

“아직 죽은 놈은 없고 의심환자만 한 명이라나? 것도 내몽골에서 온 부녀래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호, 내가 왜 거짓부리 해요? 절로 자길 못살게 구는 게 우리가 아닌감?”

“믿을 수 없어, 도무지!”

이 때 나는 오히려 서울 방송을 믿기 시작했다. 이제야 이 나라
도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질는가? 식당이며, 노래방, 다방은
거의 문을 닫았고 그녀네 친척은 다리를 놓아 가만히 장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차츰 머리가 뻥 해났다. 눈에 충혈이 온 것 같다. 떠나오
느라 바삐 서둔 탓이라라. 미묘하게 부딪쳐 오는 그녀의 젖가슴이
어떤 비상의 날개를 달아 준다. 푸른 옥수수 바다와 물이랑, 주제
할 수 없는 낯섬과 깊이로 펼쳐진 평면이 묘하게 출렁인다. 아아,
돌멩이는 없는가? 혹, 사스가 어떤 돌멩이라면 그것은 싫다! 나는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말문이 열리지 않
았다. 쇼왕, 시간 나면 놀러와요 짧게 인사만 했었다.

나의 침대는 출입문과 가까운 아래층이었다. 맞은켠에는 웬 나
그네가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다. 열차는 벌써 출발한다. ‘돼지 주
둥이’가 답답했지만 벗을 마음이 없다. 곁에 마스크로 얼굴을 덮
고 차갑게 나를 쳐다보는 눈에 문득 반감이 든 것이다. 키가 풍룩
한 중년의 사내는 어지간히 배가 나왔고 치마리를 하고 꽤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있다. 웬지 불쾌한 느낌을 준다. 나는 짐표가 붙
은 세 개의 짐을 아무렇게나 치치해 두었다. 은근히 반발이 생긴
것이다. 그 때까지 나는 이 나그네가 나의 돌멩이가 될 줄은 꿈에
도 몰랐었다. 이야기는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몸이 물먹은 솜같이 나른해났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 짐
세 개를 혼자서 끌고 메고 충계를 오르내리느라 죽을 고생 다 했
으니, 그 놈의 사스 때문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옮겨 차장

을 향해 벌렁 누웠다. 결의 손님과 마주한 꼴이 되었으나 상관 안 하기로 했다. 밭에서 고란내가 났다. 손님이 창문을 조금 열어 놓았다. 한국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환경에 따라 저질이 되다니? 비죽비죽 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중국이 편하고 좋다!—눈앞에서 퍼뜩퍼뜩 풍경이 바뀌어 갔다. 간밤의 빗물에 푹 젖은 넓은 평원과 평원, 끝간데가 없는 요원한 꿈 같은 것.—아아, 밝고 야한 정열의 까만 눈과 발그스레한 면부, 후끈후끈 풍기는 체취……. 그녀와의 약속이 깨진 것 조금 서운하다. 혹 일이 생겨 지체되었거나 먼저 갔거나 했을 것 같다. 주소를 알고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오겠지! 갑자기 나는 웬 기척에 눈을 떴다. 나와 마주 누운 손님이 벽을 향해 뭔가 켰다 죽이었다 하는 소리. 손전지 같은 작은 물체에서 발간 불빛이 짧게 비쳐 나오고 있었다. 나를 의식했든지 손님은 동작을 멈춘다. 애들같이 무슨 장난을? 이 때 손님이 불시에 나의 물건에 대고 또 몇 번 비쳐왔다.

“손님은 어디서 오는 길이죠?”

나그네가 문득 중국말로 물어 왔다.

“보다시피 심양에서 올랐는데요……. 손전지인가요?”

“예…….”

마스크 탓인지 목이 쉰 것 같다. 발음이 똑똑치 않았다. 무의식적인 듯 다시금 내 몸에 불빛을 비춘다. 레이저 불빛 같은, 가는 빛줄기이다. 레이저? 아, 그래, 나는 빨간 눈알이 생각났다. 공항에서 본, 나를 시험대에 올려 놓고 측정하던 요망한 레이저 눈—.

“저 물건에 달린 표를 보니 북경에서 온 것 같은데요?”

그에 나는 참말 그렇구나, 했다. 나를 의심해요? 저것도 레이저

체온 측정기? 웃긴다, 정말! 영어는 까막눈인가 봐, 코리언이란 글도 읽을 줄 모르니! 그와 한 번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든다.

“그래요, 북경에서 부친 집을 찾아 다시 떠나는 길이지요!”

“그 곳은, 아주 심하다던데?”

“그야, 거긴 어디서 오는 길이지요?”

“哼—주……. 팬찮아요?”

뭐가 팬찮은가, 북경의 상황이? 아니면 내가? 이 때 갑자기 기침이 터졌다. 목에 무엇이 막히는 것 같다. 연속 가슴을 쓰다듬는 동작이 나갔다.

“갑기인가요?”

“감긴 아는데, 모르겠어요.”

“어—정말 팬찮겠어요?”

나는 짐짓 대답을 안 하고 눈을 감았다. 재미있어 죽겠다. 걸걸 웃으며 발버둥질하며 막 지랄하고 싶다! 빨간 불빛이 내 몸에 몇 번이고 번쩍거려 왔다. 거기에 측정이 된 체온은 얼마일까? 콜록 콜록, 눈에서 눈물이 슴배이어 나온다. 아아, 또 터진다. 기침도 사스 증상과 연관 있다 했던가? 그건 전혀 내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저 의심 많고 비열한 놈만은 혼내 주고 싶다!

갑자기 찬바람이 흑 불어 들어왔다.

“찌꺼후이셜(웬일이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쿵치뿌호—우(공기가 나빠 그래요)!”

지랄하네.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통풍을 하는 것도 예방에

좋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다. 나는 일어나 유리창문을 되닫았다.

“우리 북경에서는 찬바람 맞는 것 꺼려해요.”

“그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 그래도 통풍이 꼭 필요하대요.”

“나는…… 갑갑해……요!”

“혹시 열 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마도……!”

나는 몸을 휘청거렸다. 피곤한 탓일까? 눈앞이 어질거려 온다. 저도 모르게 이마를 짚으며 비질거렸었다. 한쪽 손에 그의 살이 뭉클 짚어졌다. 허, 사내 녀석이?

“아, 손님, 웬일이세요? 복무원!”

그 사람이 기겁을 해서 차장을 불렀다. 나는 손사래질하고 일어났다. 그도 무언가 느낀 듯 마스크를 낀 입에 손을 가져다 댄다.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어김없이 잡혀 들어갈 것이다. 이만 하면 됐다!

불현듯, 나는 자기가 싫어졌다. 웬 꼭두각시놀음이지? ‘돼지 주둥이’를 바로잡고 자리에 가 누웠다. 그가 또 창문을 열어 놓았지만, 이번에는 관계치 않기로 했다. 정말 잠이 왔다. 공항, 쇼왕의 그림자가 뇌리에 빠르게 스친다. 동창생의 까마득한, 변이 된 얼굴은 알 수가 없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잊어 가는 것 이 너무 많다. 어쩜 그것이 우리의 과거와 현실을 하나의 수직과 도 같은 평면을 만들어 가는지 모른다. 평소에 다들 그 수직을 감지하지 못할 때 때문이다.

한밤중 떠드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돈 더 주겠다는데?”

“자리 없어요 누군 뭐 돈이 싫어서 그런 줄 알아요?”

“저 쪽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거짓말은?”

“다음 정거장에서 오를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아마 손님이 밍보인 듯싶다. 헌데 자리는 왜 바꾸자 하지? 헉, 나는 부러 기침을 콜록콜록 해댔다. 그의 이마가 창백해 보인다. 자지 않고 떨기만 한 것 같다. 여 차장이 홀끔 내 쪽에 의심스런 눈길 던지며 괜찮으세요? 묻는다. 꺼리듯 겁내듯 하는 표정이다.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이제는 열이 바짝 났다. 너네 멋대로 연극 놀라지! —잠이 짹 달아났었다.

레이저 빛이 또 내 몸에 번쩍이어 왔다.

“당신 무슨 짓 하는 거요, 지금?”

나는 성을 버럭 냈다.

“쉿, 남들이 듣겠어요…….”

“나 괜찮으니 이젠 신경 끄고 제발 잠이나 잡시다!”

나는 돌아누웠다. 상대는 꺽 소리 한 마디 못했다. 그런데 그럴 수록 의심만 더 증폭시킨 것 같다. 반 시간에 한 번쯤 내 몸에 레이저 빛을 비쳐 왔다. 요망한 놈, 내가 그래 너의 온역신이냐? 아무렴, 네 놈들 머리 속에서 사스가 빠져 나온 것이지! 연구에 의하면 굴로나 바이러스가 곧 그 원인인자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런 바이러스는 일부 동물들의 몸에 붙어 살고 있는데 특히 사향고양이의 몸에 많이 발생한단다. 그런데 중국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향고양이를 삶거나 볶아 먹는다고 한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서도 그 죄를 모르는 것이다!

새벽이었다. 차창 밖은 마스크의 색상과 같은 안개가 부옇게 끼 있다. 나는 분명 공항 버스에 앉아 하염없이 가고 있었다. 빛은 안 개를 쫓아 낼 수 있으나, 그 빛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오리무중 같은 평면으로 열차는 달리고 있는데, 나는 서울의 어제에서 오늘의 이 곳에 와 있다. 자연이 순리라고, 인간이 의지인 것만은 아니다. 의지가 만들어 가는 것은 흔히 자기 운명의 수직선, 한 점일 뿐인데 인간은 자기를 끝없는 평면으로 착각한다. 그 수직선을 휘 두를 줄밖에 모른다. 그래 다 안개 탓인가?

“워이, 차라이(어이, 일어나시오)!”

갑자기 마스크에 흰 장갑까지 끈 여 차장이 와서 명령했다.

“깐썬더(왜 그러오)?”

“량이싸티원(체온 한 번 재 보기오).”

맞은 쪽의 손님이 불러 온 것 같다. 엉거주춤 서서, 팔짱을 낀 채 몸을 떨고 있다. 짐마저 챙긴 것을 보니 아차, 하면 다음 정거장에 내릴 모양, 저 병신 같은 것! 못 미더우면 피하면 그만이 아닌가? 네놈한테도 전염되었나 어쨌나 알고 싶어? 허허, 이젠 네놈도 못 빠지겠지!

“콰이데이알(빨리, 좀)!”

정말 분통이 터져 죽을 일이다. 나는 ‘돼지 주둥이’를 확 벗어 내치며 일어나 앉았다. 그 손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한국말 욕설이 함께 묻어 나갔다.

“왜 못 살게 굴어, 이놈아? 니 소원이 대체 뭐야 응?”

“아, 니쓰(당신은)…… 마스크 영감……?”

“뭐야……?”

상대가 맥없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불에 가까스로 기대어 앉는다. 아이, 깜짝이야!— 한국말을 한다.

“전멸라, 니 머이썰바(어찌된 일이고, 당신 괜찮아요)?”

여 차장마저 곁에서 꿈적 놀랜다. 그와 나를 번갈아 뜯어 보더니 잠깐—만요, 하고 비실비실 물러갔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가 웃는 것 같다. 손으로 가슴 쓸어 내리며 헐떡인다. 낯을 가린 마스크가 펄럭이었다. 거기에 여과되어 나오는 소리가 괴상했다. 가까스로 마스크를 벗어 내린다.

“날 몰라 보겠어?”

“누군데…… 어?…….”

남자머리 깎았으나 남자는 결코 아니다. 붓기 푸석푸석한 얼굴에 땀을 줄줄 흘리며 자꾸 웃으려고 한다. 웃음이 더 나오지 않으니 낯을 마구 구겨 보이었다.

“호, 마스크 영감,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마스크는 왜 썼어요?”

“어—엉?…… 넌 최—영자?…… 제길, 넌 웬 마스크야?”

“호, 호호호…….”

“하, 하하하…….”

얼마나 웃었던지 눈물이 찔끔찔끔 쏟아진다. 밸이 다 꼬여 갔다.

마침 여 차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뒤에 경찰 둘을 꼬리에 달고, 그 중 장승같이 생긴 한 경찰이 앞을 쳐 막아섰다.

“칭니먼짠치라이, 꺼워조이탕(미안하지만, 일어나 저와 함께 갑시다)!”

“谮며셜(무슨 일이오)?”

“베이씩라, 콰이조우(말 말아, 어서)!”

우리를 죄인 취급해요, 의심 환자인가 해서? 소 웃다 꾸러미 터
지겠네, 제길!—

하지만 버틸 수도 없었다. 나는 막무가내로 일어났다. 그녀를
돌아보았다. 순간 깜짝 놀랐었다. 또 웬일이지? 급성 심근색 질병
이 발작한 환자처럼 그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은 채 몸을 꼬고
있지 않는가? 낯이 까맣게 죽어 갔다. 우지랄! 아아—, 그녀는 결
국 나의 돌멩이가 되는가? 어쩌면 내가 그녀의 돌멩인지도 몰랐
다. 우장—짱! 나의 귀에는 벌써 그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 전부
터 뭔가 은근히 바라고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돌멩이만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나는 다시 ‘돼지 주둥이’를 했다. 빈틈없이 막고 숨을 쉬었다.



김희정

작자 / 캐나다

도망

나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오직 한 가지 생각은 이 답답한 소굴에서 나 자신을 탈출시키는 일 뿐이었다. 그래서 무작정 달아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준 자유였으며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용기였고 지극히 따분했던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한참을 달린 듯싶었다. 정신없이 뛰쳐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실새없이 도망치고 있다. 문득 나는 달리기를 멈추었다. 순간 내가 느낀 것은 이제껏 느껴 보지 못했던, 감히 예감할 수도 없었던 섬뜩한 공포였다. 난 내가 왜 도망치기 시작했었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고 만 것이다! 분명 나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달리고 있었고 숨이 넘어가도록 헐떡이기까지 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달려오며 지나간 시간들은 이미 기억 속에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뛰기 시작하였으며 왜 도망치고 있는가?

혼란스럽게 밀려오는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난 내 옆을 철새없이 지나쳐 가는 사람들을 피해 도로변으로 비켜 섰고,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잠시나마 내 자신에게 약간의 휴식을 주었다. 숨가쁘게 도망치다 갑자기 멈춰 서서 여유를 부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광경이란!

한겨울이었다. 그것도 눈발이 제법 날리는 등골이 오싹하리만큼 추운 겨울이었다. 목도리를 칭칭 감아 매고 두꺼운 외투 속에 자신들을 꿁꽁 숨긴 사람들이 펭귄처럼 뒤통뒤통 지나간다. 그들은 추운 겨울을 빨리 피하고 싶은 듯 하나같이 어설픈 뒤통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모두들 경직된 굳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다. 게다가 그들은 미친 듯이 도망치던 도중에 말도 안 되는 여유를 부리는 나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

갑작스러운 추위가 나를 급습하였다. 텔장갑을 끼고도 손이 시린지 ~~호호~~ 부는 사람들에 반해 난 꿁꽁 언 맨손과 맨발이었으며 낡은 여름 청바지에 흰색 민소매 셔츠가 초라하고 민망할 정도로 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뭐가 급해 나는 이 추운 날씨에 이런 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왔을까? 도대체 시작은 어디인가?

순간 난 내가 어쩌면 쫓기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쫓고 있지 않았나 스스로에게 물는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다. 눈발이 제법 굵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 속에 지나

쳐가고, 나는 한겨울의 길 한복판에서 내가 있는 세계를 의심하며 멀뚱히 서 있다.

너무 추웠다. 발끝까지 꽁꽁 언 내 몸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고 강도 높은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일단 몰아쳐 오는 추위를 피할 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보니 지금 있는 동네마저도 참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난 여전히 내가 왜 뛰기 시작했나 의문을 품고 생각을 되씹어 보며 우선 가까운 편의점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어디선가 은은하게 구세군 종 소리가 귓가를 울려 왔다.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뒤뚱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주는 내 발바닥은 이젠 감각없이 무뎌졌다. 그러나 난 악착같이 서둘러 편의점으로 향했다.

나는 편의점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에 손을 가져갔다. 차가워야 할 손잡이는 진한 열기를 뿐듯 순간적으로 내 손바닥에 뜨겁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내가 잡기 전에 이것을 먼저 잡았기에 따뜻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온기였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점점 움츠러드는 내 몸을 어렵게 가누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앞 쪽에서는 그리웠던 훈훈한 온기가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막 박차고 들어온 문이 닫히며 그 움직임 사이로 들어오는 섬뜩한 찬기가 내 등을 후려쳤다. 덜덜 떨리던 이는 이제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있다. 그 순간에도 내가 도망의 시작에 대한 기억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었던가? 기억이 없다.

편의점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한적한 편의점 안에 둉그러니 놓여진 내 신체는 거리의 지나가는 수많은 무관심한 사

람들 틈에 멀뚱히 서 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편의점 안은 아무리 훈훈한 온기가 있어도 차갑고 싸늘한 공간이었다. 내가 불안한 눈으로 누군가를 찾아 편의점 안을 다시 한 번 둘러보았을 무렵이었다. 때마침 편의점 문이 스르륵 열렸다. 열린 문이 물고 들어오는 찬기가 휘몰아쳐 들어왔건만 난 왜 그 순간 그것이 반가웠는지 모른다.

편의점 이름이 반듯하게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이 곳 직원임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기다란 싸리벗자루 끝에 눈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니 아마도 그녀는 바깥의 눈을 쓸어 내고 들어오는 길인 듯했다. 그런데 나는 어째서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 문 밖에 있었을 그녀를 보지 못했던가?

그녀는 벗자루에 묻은 눈을 문 밖으로 쑥쑥 털어 내며 안으로 들어왔다. 코끝이 빨갛고 양 볼이 핑크빛으로 물든 것으로 보아 그녀도 분명 추위를 느낀 모양이다. 그 모습을 보고 도망나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동지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의 반가움을 외면하기라도 하듯 그녀는 나를 무심히 지나쳐 갔다. 마치 내가 그 곳에 존재하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어찌 나를 모른 척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때만큼은 싸리벗자루를 들고 유유히 지나치는 그녀가 편의점 직원이 아니라 벗자루를 탄 마귀 할멈 같았다. 내가 그런 엉뚱한 시각으로 그녀를 쏘아보는 동안 손님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와 눈사람처럼 겨울 외투 속에 풍풍 파묻혀 눈만 말뚱거리 는 작은 꼬마 녀석이었다. 여자는 꼬마를 잠시 카운터 앞에 내버려 두고 이것저것 먹을거리며 살 물건들을 골라 집기 시작했다.

빨간 병어리 장갑에 하얀 오리털 점퍼, 흰색에 빨간 줄이 두어 줄 들어간 무척이나 따뜻하게 생긴 목도리, 계다가 사자모양 털모 자를 뒤집어 쓴 그 꼬마는 외투의 부풀음 때문에 벼거웠는지 양 팔이 몸에 닿지 않을 만큼 멀리 벌어져 있었다. 눈이 묻은 빨간 부츠가 그나마 녀석을 간신히 지탱해 주는 듯했다. 꼬마는 내가 자신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역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가씨, 여기 계산이요.”

싸리빗자루를 들고 내 옆을 무심히 지나쳤던 편의점 그녀는 꼬마와 함께 온 이 젊은 여자의 부름이 있고 약 30초 만에 카운터로 모습을 드러냈다. 무뚝뚝한 표정과 미소도 없이 싸늘한 얼굴이 예쁘지도 않은 그녀를 더욱 못나고 돌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예의상의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으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인사 역시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 물건들이 바코드를 통해 빽빽 스캔되어지고 봉지 속에 담기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난 후 드디어 그녀가 뜻밖의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4700원입니다.”

여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값을 지불하는 동안 꼬마의 눈동자가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수십 차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꼬마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편의점 그녀의 손에 만 원짜리 지폐를 쥐어 주었고 잠시 후 여자의 손으로 4300원의 거스름돈이 되돌아왔다. 돈. 순간 난 돈을 찾기 위해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뒤적여 보았으나 집히는 것은 달랑

동전 두 개였다. 돈 거래가 끝난 후 봉지를 집어든 여자를 따라 꼬마는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시선을 치우고 뒤통뒤통 걸음을 옮겼다.

아, 저렇게 하는 거로군.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고 새삼스럽게 지켜본 그 광경이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자가 편의점 문을 밀어젖혀 겨울의 찬기가 내게 원치 않게 전해질 때쯤, 여자를 따라나서던 꼬마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풍꽁 뭉친 차가운 눈덩이를 힘껏 내던지듯 내게 한 마디 툭 내뱉었다.

“안 추워?”

추웠다. 그래서 이 편의점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난 그 사이 름이 어느 정도 녹자 추위는 잠시 잊고 쓸데없이 주위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참견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자신이 참으로 간사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꼬마는 내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젊은 여자를 따라 나가 버렸다. 분명 그 젊은 여자는 꼬마의 엄마였을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며 그들의 떨어짐이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 틈으로 사라질 때쯤 난 편의점 그녀를 찾기 위해 시선을 다시 되돌려 왔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그녀의 모습은 또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이 여자는 정말 너무 하는군.

난 이제 당당히 내 권리 찾으려 발버둥치는 사람처럼 편의점 안 그녀의 모습을 살살이 찾아보았다.

도대체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때 문득 좀 전에 꼬마를 데리고 왔던 여자의 행동이 머릿속을 스쳤다. 옳거니, 바로 그거였다.

“아가씨, 여기 계산이요.”

나는 헛기침 소리와 함께 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 상스러운 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바람처럼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내게 눈길조차 없었고, 기계에 인식된 로봇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찾아 카운터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거긴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난 물건의 계산을 위해 그녀를 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순간 무슨 심술이 났던 건지 나는 죄없는 그녀에게 당황스러울 만한 질문을 내던졌다.

“물건은 거기 없소. 여기 있잖소. 나 말이요. 내가 얼마 정도의 가치로 보이오?”

헛 그 말투는 또 왜 그렇게 나왔던가.

그러나 그 질문 안에는 나를 이제껏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무심히 대하고 있는 그녀에 대한 서운함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무튼 표정없이 냉담한 그녀가 드디어 내 눈을 맞추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조금의 당황스러운 기색조차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녀는 나를 짚은 순간 안에 메모리에 저장하듯 힐끔 훑어본 후 스스럼없이 내게 되물었다.

“아저씨, 지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는 나를 같잖게 생각하는 듯하기도 했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듯하기도 했으며 오히려 비웃으며 놀리는 것 같기도 했다. 어쨌거나 난 그녀의 질문에 아까 꼬마를 의식해 손에 쥐어 보았던 바지 속의 동전 두 개를 꺼집어 내었다. 누런 동전 두

개. 이십 원이 내 손바닥 안에서 펼쳐졌다. 무슨 당당함에서였는지 나는 이십 원이 달랑 담긴 내 손바닥을 그녀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표정과 함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목소리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단돈 이십 원.”

냉담한 대꾸와 함께 또다시 그녀의 웃음은 말끔히 사라졌다. 그것이 내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인가? 내 가치가 내 손에 쥐어진 단돈 이십 원이라니, 그 황당함이란! 나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다. 아무도 내가 추위에 떨든 얼어 죽든 상관않는다. 이십 원 잃어버렸다고 울며 불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아마도 이십 원 정도 잃어버렸다고 울며 불며 한다면 그깟 이십 원 너도 나도 주겠다고 할 것이다. 내가 잠시 얼빠진 표정으로 엉뚱한 생각에 잠기는 동안 그녀는 또다시 카운터를 빠져 나갈 참인 듯했다.

“아가씬 도대체 어딜 그렇게 사라지오? 손님 받거나 장사할 생각도 없소?”

그녀는 별 신경을 다 쓴다는 귀찮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눈을 내리깔며 짧게 대꾸한다.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빙고! 정답이었다. 아무도 나 따윈 신경도 안 쓰는 마당에 난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삶에 관심이란 말인가?

아마도 나 혼자 너무 예민했던 모양이다. 그렇다. 아까부터 느꼈지만 사람들은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모두 귀찮아하고 있다. 갑자기 밀려오는 그 허탈함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도망치기 시작했는지 기억에도 없고, 당

장이 편의점을 나가면 추위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걱정해 주긴커녕 내가 죽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내가 너무 가여웠다. 더 이상 편의점에 있을 이유는 없었다. 나는 이십 원을 소중한 보물처럼 손에 꼭 쥐고 편의점을 나왔다. 한번 따뜻함을 느꼈던지라 이제 다시 느껴지는 그 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살을 젖는 듯 아플 정도로 차가웠다. 그러나 다시 곧 둔해지고 말 것이다. 난 이제 추위가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겨우 이십 원의 가치에 죽어도 관심 줄 사람조차 없는 나 같은 존재에 대한 내 스스로의 포기가 아니었나 싶다.

거리에는 다가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짹을 지어 지나간다.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해 보인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된 빛처럼 말이다. 반가운 얼굴들이다.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 틈에서도 환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나 따위엔 관심도 없다. 내가 부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일 년 중 이맘때쯤이면 늘 들리는 구세군 종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아까부터 어렵잖이 들렸다. 그것이 내 발걸음을 편의점으로 옮겨 추위를 잠시 녹이게 해 준 희망이기도 했고 말이다. 나는 이번엔 그 구세군 종 소리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풍풍 얼어붙은 내 몸은 이제 내가 걷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했다. 난 그저 기계에 인식된 것처럼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길거리에 속속 나타나는, 어쩌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 버린 그 낯익은 구세군 자선 냄비 옆에는 항상

있어야 할 존재인 종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겨울 외투로 완정 무장을 하고 서 있었다. 그 역시 표정이 없었으며 마치 반복되는 시계추처럼 일정 간격을 두고 종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돈을 집어 넣고 가는 사람은 역시 보기 힘들었다. 하긴 그들이 남파위에 관심이나 있던가. 난 이제 거의 맷뻣해져 움직이기조차 힘든 몸을 가누며 구세군 종을 흔드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나를 훑어봄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아마도 내가 자신에게 구걸하러 다가오는 거지로 보였을 터다. 그러나 난 그에게 구걸하기 위해 다가선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구세군 자선 냄비 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지폐도 보였고 동전도 제법 들어 있었다. 왜 순간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른다. 나는 나를 의식하며 여전히 같은 동작의 반복으로 종을 흔들고 있는 그 사람은 대체 여기다 얼마나 넣었나 물어보고 싶었으나 묻지 않았다.

그 역시 내가 상관할 바 아닌 남의 일이 아니던가.

일단 나는 내가 가진 전부인 이십 원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 속으로 떨어뜨리기 전에 덜덜 떨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입을 열어 그에게 말했다.

“이, 이것이, 내 전 재산이라오. 하, 하찮게 생각마오. 나, 난 이, 이십 원의 가치밖에 어, 없는 사람이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더 도, 듣고 싶어도 모, 못 한다오.”

누가 물었던가? 그들이 내가 얼마나 넣든 신경이나 쓸 텐가?

그러나 난 웬지 설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잠시나마 나의 전부였던 애틋한 이십 원이 구세군 자선 냄비 안으로 떨어졌다.

다. 종을 흔들고 있던 그는 그제서야 나를 유심히 살피는 듯했다.

혹시 그는 왜 이것만 주냐고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더 이상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내가 단돈 이십 원을 넣으면서 주저리주저리 몇 마디 건넨 것이 귀찮았던지 아니면 구걸을 참으로 이상스럽게도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난 이제 빤틸터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나마 전화 한 통 조차 할 수 없었던 단돈 이십 원마저 구세군 자선 냄비에 집어 넣었다. 그런데도 난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난 오히려 내 자신이 한 일에 마음이 따뜻했으니 이게 웬일인가?

이제 더 이상 걷기조차 힘들어졌다. 또다시 어디론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젠 그나마 생색낼 단돈 이십 원도 없으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남아 있긴 할까 싶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멈추지 않고 차라리 계속 뛰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뛰고 싶어도 그럴 기력도 없으며 온몸이 얼어붙어 초라하기만 하다.

도대체 거기서 왜 갑자기 멈추어 서서 새삼스럽게 도망치기 시작한 이유를 생각하게 된 걸까? 그게 중요했을까?

난 아까 분명 당당하게 편의점에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많은 가게 안이나 카페 안을 기웃거리기가 창피해졌다. 어차피 그들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을 텐인데 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지하도로 향했다. 그 곳은 내가 잠시 앉아 몸을 녹이고 쉬어 간다 해서 나가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들은 서로 밀치고 당기고 부딪힌다. 그

러나 아무도 서로에게 미안한 생각이 없어 보이고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다. 도대체 그들은 뭐가 그리도 바쁜지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지하도 계단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나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 내 자신을 버티고 세워 둘 힘이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어 더 이상 내 몸 같지도 않았다.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쉴 틈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발들이 시야를 가득가득 메워 왔다. 어지러웠다. 속이 메슥거렸고 참을 수 없는 고통마저 밀려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하여 나를 도와 주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졸리웠다. 나도 모르게 스르륵 눈이 감겼다.

나는 늘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회사일이 지겨웠고 잔소리를 늘상 하는 아내가 귀찮았으며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사 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이 미웠다.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는 일은 지긋지긋했고, 회사에서 연락을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못할 노릇이었다.

언젠가부터 단조로운 일상이 참으로 지겹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 시작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귀찮았고 짜증스러웠다. 사실 알고 보면 남들이라고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건만 나만 유독 특별나고 싶었던 욕심이 많았던 것인지 아무튼 난 내가 처한 상황이 싫었고 지겨웠다.

내 머릿속은 언젠가부터 잔꾀로 가득 메워져 갔고, 난 점점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그래서 얼굴엔 웃음도 거의 없이 늘상 찌푸린 얼굴을 한 사람이 되어 갔다. 아내가 외식 한번 하자고 하면 밥 하기 귀찮으니 밖에서 해결하자는 말로 들렸으며,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 달라는 말은 마치 당연히 맡겨 둔 것을 찾아 가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난 컴퓨터 앞에서 진종일 일을 하는 피곤한 직업을 택한 대가로 돈은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었으나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했다. 난 돈 버는 것마저 귀찮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마저 귀찮았다. 생각해 보니 나란 사람은 도무지 왜 사는지 의문이 가는 사람이었다.

아무튼 그 날은 사실 아내와 함께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함께 사러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 아이들도 그 날만큼은 기대에 한창 부풀어 있었고, 아내도 원하는 외식을 한다는 마음에 기분이 제법 좋아 보였다. 나? 난 그저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하루를 보내 나 싶어 약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던 참이었다.

모두들 꽂단장을 하고 집을 나설 채비를 서둘렀다. 아내는 작년에 새로 산 겨울 코트를 꺼내 입었고, 아이들은 텁장갑과 목도리 까지 칭칭 동여매 독감을 대비한 비무장을 시켰다. 나도 오랜만에 아내가 손수 떠 준 다갈색 스웨터를 입었고 그 위에는 롱 코트를 걸쳤다.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것은 바로 우리 식구가 이렇게 단란한 외출을 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고 집에 있어야겠다는 내 말에 아내와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다. 난 아내에게 아이들 선물을 대신 사

주라며 신용 카드를 내 주었고 아이들은 대강 달래 보냈다.

컴퓨터 앞에서 지키고 앉아 있는 하루가 그 날만큼은 보통 때 보다도 더 지겹고 힘들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알콩달콩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인 시내를 활보하며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을 터인데 나는 왜 이 방구석에 처박혀 그들에게 화려한 여유를 주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이러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날은 그토록 내 생활이 참을 수 없이 싫었고 미칠 만큼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입고 있던 다갈색 스웨터를 집어 던졌다. 마음이 답답했던 탓인지 갑자기 너무 더웠던 것이다. 양말도 짜증스럽게 벗어 집어 내 던졌다. 바지도 여름에 집에서나 입는 닳아빠진 얇은 청바지로 갈아 입었다. 한숨도 끙끙 내쉬었고 부엌에 가서 찬 물도 한 컵 들이키고 왔다. 그렇게 나름대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왔는데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컴퓨터 화면에 떠 있던 스크린이 일시 정지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이런 젠장!”

나는 얼어붙은 컴퓨터를 되살리기 위해 자판을 수도 없이 두들기며 프로그램을 되돌려 오려 애썼지만 다 헛수고였다. 아무리 똑똑한 컴퓨터일지라도 그것 역시 단조로운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심란한 내 마음에 그 사건은 치명적인 불을 질러 버렸다.

“미치겠네.”

나는 컴퓨터를 원망했고 회사를 욕했으며 내 신세를 한탄했다.

그 때 내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가 울렸다. 아내였다.

“자기, 저녁은 쟁겨 먹은 거야? 애들이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린 간단하게 먹고 들어갈게, 미안해. 그래도 애들이 자기 일하는 데 귀찮게 하지 않아서 일은 잘 돼 가지? 아무튼 조금 있다 봐.”

아내가 걱정해서 해 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아내가 순간 내 옆에 있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있었더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괜한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내 하루를 고스란히 망쳐 버린 컴퓨터에 화가 치밀어 난 순간적으로 그것을 떠려 부술 생각을 했다. 그 때 회사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난 분명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자네, 어떻게 된 거야? 잘 보고 있으랬잖아. 들어가야 할 시기를 놓친 거 아니야? 이제 어쩔 참이야? 중요한 건수를 날려 버렸으니 어쩔 참이냐고? 자네가 책임질 거야?”

내게 변명할 틈도 없이 쏟아지는 상사의 고함에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상사면 아래도 되는 거야? 내가 어쩔 수도 없던 상황을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내 마음은 누가 이해해 준단 말인가!

“제기랄! 내가 일부러 그랬어?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됐어. 나더러 어쩌라고? 책임? 내가 왜 책임져? 내 하루를 망친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

나는 신경질적으로 상사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죄없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빌어먹을. 그래 다 판두면 될 것 아냐.”

난 순간적으로 박차고 방을 나갔고 신발조차 신지 않은 그 차

림으로 바깥까지 뛰쳐나갔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난 어디로 갈 생각이었을까

“이봐요, 아저씨, 이보세요.”

누군가 나를 심하게 흔들었다. 나는 기력이 없는 눈으로 상대를 올려다보았다. 멀끔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었다. 드디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 청년이 어찌나 반갑던지 나는 그만 그에게 실없는 미소를 흘리고 말았다.

“정신 이상자인가 봐.”

이번에는 젊은 청년 옆의 아담한 체구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멀끔한 청년의 옆구리에 팔짱을 낀 채 코알라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연신 껴리는 눈치로 청년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정신 이상자라니? 내가 정신 이상자라니?

나는 소리치고 싶었으나 그것은 그저 내 머릿속에서 멈춘 생각에 불과했다. 내 몸은 이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냥 가자, 자기야.”

여자가 청년의 팔을 자꾸만 잡아당겼다. 청년은 분명 그냥 지나치기 힘든 얼굴이었으나 옆에서 아이처럼 떼쓰는 여자의 힘에 못 이겨 결국 슬슬 내게서 비켜서는 눈치였다.

저런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여자의 솔깃한 말에 귀가 앓아 그냥 가 버리는 녀석을 보며 나는 속으로 혀를 끌끌 쳤다. 젊은 청년은 여자를 따라가며 두세 번 뒤돌아 나를 보았으나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는 않았다.

잠시 후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을 때 난 혹시나 그 청년이 돌아왔나 하는 마음으로 올려다보았지만, 나를 한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 멀끔한 청년이 아닌 두 명의 경찰관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쏟아 내는 말들이 난 더 이상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야는 흐릿하다 못해 잘 보이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왜 내게 신경을 쓰는 거야?

내가 새삼스러웠던 점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혹은 나의 존재가 해가 된다고 느꼈을 때에만 내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하얀 병원의 입원실에 뎅그러니 나를 데려다 눕혀 놓고 치료까지 해 준 건 고마웠지만 그들의 마음 씁쓸이는 사실 그다지 고마워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아픈 환자이니 치료를 해 주는 것이었을 뿐 내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거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오랜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난 비로소 내가 마침내 짜증스럽던 일상을 탈출했으며 그렇게도 지겨워하던 단조로움에서 제대로 도망쳐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있는 곳은 그 지긋지긋한 방구석에 틀어박힌 컴퓨터 앞이 아니라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하얀 병실이었고,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언제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와 지시가 내려지나가 아니라 언제쯤 이 병실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다. 나는 분명 원하던 새로움을 얻었고 자유로워야 했으며 그것을 기뻐해야 할 처지였

지만 내 몸은 분명 자유롭지 못했고 난 전혀 기쁘지 않았다. 동상에 걸려 다친 몸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고,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있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그 누가 상냥히 대해 와도 지나친 관심 혹은 쓸데없는 친절함이라며 욕을 하는 또 다른 불만투성이가 되어 버렸다.

아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병실에 눕혀진 내 모습을 한탄하며 슬퍼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되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의아스러워하는 눈치도 있었다. 그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분명 외출 전까지도 멀쩡히 잘 있던 남편이 이 추운 겨울 날에 무일푼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동상에 걸려 얼어 죽게 된 것을 신고 받고 달려간 경찰이 병원에 옮겼다니, 그 누가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는단 말인가. 그러나 더욱 이상했던 점은 그렇게도 원하던 도망을 이뤄낸 내 자신도 아내에게 뜻렷하게 변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나는 그저 지긋지긋한 일과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랬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건 아마도 그녀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나조차도 모르게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난 기껏 도망치다가 문득 이제껏 보지 못한 자극적 색 다른 또 하나의 현실을 보고 만 것이다. 그래서 달리던 발길을 멈추었고 그 곳에서부터 기억을 되돌려 더듬었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도대체 난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무작정 도망쳤던 것일까.

그것은 물론 순간적인 선택이었고 그다지 생각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결단이기도 했다. 그 순간 만큼은 나를 막고 있는 모든 틀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했다. 그 순간 만큼은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무작정 저지르고 보아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 만큼은 도망이라는 것이 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나의 이런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내는 영문도 모르는 일이라며 옆에서 울다울다 지쳤다. 내 아이들은 나를 가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경찰들은 그저 내 뒷조사를 하기 바쁠 뿐이고 의사들은 나를 정신병동으로 옮길 궁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자유이며 선택이었던가.

도망치듯 뛰어나와 내가 잠시 동안 바라보았던 세상은 답답한 내 가슴을 뚫어 주긴 했으나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담함을 더없이 빼저리게 느끼게 했고, 내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초라해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비장한 각으로 집을 나왔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오히려 더 가여운 신세와 다를 게 없었다. 그것은 그 순간에는 내 스스로에게 준 자유이며 최선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내 자신을 더욱 세상의 틀에 얹매이게 만드는 구속이었고 나 자신을 더없이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어리석은 방법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끝까지 도망치지 못했던가.

도망치던 그 잠시 동안 사라졌던 기억들은 도대체 왜 영원히 사라지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끝까지 도망치지 못함을 이제 와 후회하고 있는가. 어째서 나는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다가 멈추

어 섰으며 문득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는지 이젠 그 기억이 없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렸을 땐 분명 내가 왜 도망치기 시작했었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했었고, 그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그러나 나는 제대로 된 답도 하나 얻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비록 내가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왔는 데도 이제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관심을 쏟는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누워 있고, 새삼스럽게 그 의미를 깨닫고 있다. 나는 분명 아내가 귀찮았고 아이들이 지겨웠으며 회사 일을 때려치고 싶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일상이었고 불행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와 새삼스럽게 눈물까지 보이며 내 걱정을 하는 아내가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으며, 하마터면 내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살아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밖에서 무일푼으로 벌벌 떨어 보니 그래도 그만큼 편하게 일한 회사도 없지 싶었다. 나를 정신 이상자로 보는 경찰관과 의사들에게도 처음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용기도 생겼다. 그리고 동상의 후유증에서 완치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지도 필요했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삶이었고 이제껏 느껴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이었다.

내가 도망치기 시작했던 순간은 분명 내가 있던 곳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순간의 선택을 따라 무작정 달아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던 것들에서부터 달아나고픈 욕구였고 지극히 파분하고 단조로 웠던 일상에서의 탈출이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달라진 게 없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신기하게도 모든 것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달라져 있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으며 더 이상 도망치고 싶은 자극도 없다. 나는 결국 완벽한 도망에 성공하고 만 것이다.



임윤식

기자 / 캐나다

영주권 장사(Immigration Merchant)

“어이 강형! 또 만났네! 자넨 참 부지런하군! 장사 잘 하는 비결 중 하나는 말야, 홀세일(Wholesale)에 자주 다니는 거야. 알겠어?”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반갑네 그려!”

토니는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강완규를 도매상에서 만나자 반가워한다. 웬지 모르게 그에게 호감이 가고 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NG 도매상은 오후 2시에 문을 닫는다. 늦기 전에 가서 빠진 담배들을 꼭 사와야 한다는 마누라의 성화에 못 이겨 쫓기듯 도매상에 온 토니이다. 담배 15카톤 사려고 20킬로 길 오십 리 사골길을 달려온 것이다.

요즘 이라크 전쟁의 여파와 그놈의 사스(SARS) 때문인지 아니면 농촌지역이라 춘궁기인지 장사가 형편없다. 거기다 엎친 데 덮

친 격으로 담배 도매 가격마저 올랐으니…….

“강형! 요즘 장사 형편 없지? 안 그래?”

“저야 뭐 아나요? 아직도 뭐가 뭔지 정신 못 차리겠어요.”

“하긴 그럴 거야. 가게 인수받은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

“선생님이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캐나다에 온 이래 누구 하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았다고 완규는 생각한다. 그런데 구엘프(Guelph)로 가게 사서 온 뒤 얼마 안 돼 토니 정춘성을 우연히 만났다. 이상하게도 그와는 초면부터 서로 스스럼없이 얘기하게 됐다.

토니 씨는 말이 좀 많은 게 마땅치 않지만 그 대신 말을 무척 빨리 한다. 말이 느릿느릿한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다고 들은 바 있는 완규이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면 토니 영감은 속임수를 쓰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서울에서 16년간 직장에 다녔던 완규이다. 그 자신은 웬만큼 사람 보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조금 괴팍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정춘성 씨에게서 웬지 모르게 큰형님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됐다.

“강형! 강형은 영어 이름이 뭐지?”

도매상 바로 앞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그들이다.

“예, 켄(Ken)이라고 했어요. 켄은 케네스(Kenneth)의 준말이며 애칭이라지요?”

“그렇지! 켄강(Ken Kang) 씨이군! 이름 멋진데! 이름이란 건 부르기 쉽고 듣기에 좋아야 돼. 그리고 또 기억하기 편해야지. 그런

데 강형은 캉캉(Cancan) 춤 잘 추나 보군 그래!”

“캉캉 춤을요? 아니에요 전 전혀 춤과는 거리가…….”

켄은 대답하다가 말을 멈춘다. 토니가 농담한 걸 알아차렸다.

“아니, 선생님도! 저는 켄이란 이름이 마음에 들어 쓰고 있어요.”

“그래! 자네에게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일세! 그리고 코리아를 뜻하는 케이(K)자가 두 개나 되잖아 앞으로 켄으로 불러도 되지?”

“그럼요! 선생님!”

“어이, 켄! 제발 그 ‘선생님’ 소리 좀 빼게나! 듣기 참 거북하네. 초면도 아닌데 말야. 그리고 내가 언제 ‘선생’ 자격증 땠다고 했나? 하하하!”

환갑이 낼 모래라고 하고 다니는 토니 정춘성이다. 그런데 지금 별로 우습지도 않은 유머 해 놓고서 자기가 좋아 혼자 웃어댄다.

“그럼 정 선생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응, 객지 벗 10년이라 했어! 그리고 자네와 나는 같은 돼지띠, 떠동갑이 아닌가? 우리 말 놓고 지내자구!”

“그건 곤란한데요. 저보다 12년이나 위이신데…….”

“그럼 자넨 나를 어떻게 불러야 마음이 편하겠나?”

“저어, 그 ‘선배님!’이 좋겠는데요. 어때요?”

“그것 참! 요즘 세상은 나이 먹은 게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네! 나이 좀 들었으면 그 나이 값을 해야 하는 건데 말야. 주책 짜진 늙은이들이 너무도 많아! 우선 나부터 말야! 안 그래, 켄?”

“아니, 선배님도! 무슨 그런 말씀을…….”

“좋아! 내가 자네보다 나이 더 먹었다는 건 말야, 그만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뜻이야! 남들에게 못할 짓 많이 했다는 거야. 내 말 알겠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좋은 일 많이 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닐세! 난 나를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선배님! 가게 사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토니가 심각해지는 걸 보고 켄은 얼른 화제를 바꾼다.

“내가 보기엔 그 가게 잘 샀어. 어느 가게이고 약점이나 마음에 흡족치 못한 점 없는 가게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야 물론이지요 저희도 무척 망설였어요. 더욱이 처음 구입하는 비즈니스(Business)이기 때문에 말예요.”

“그랬을 거야. 가게나 집이나 젊은 남녀가 시집, 장가가는 것과 비유될 수 있어. 어디 백점짜리가 있겠어? 어지간 하면 결단을 내려야 해. 안 그렇겠어? 미적미적 망설이다가 아까운 세월 허송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

“그런 것 같아요. 저야 뭐 가져온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돈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2, 3년씩 놀고 있다 해요.”

켄이 맞장구친다.

“그것 참 안타깝고도 한심한 일이지. 사내가 뚜렷이 할 일이 없어 가지구 말야. 아이들 등·하교 운전이나 해 주고 낮에는 골프나 치고 있다면 그 녀석은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겠어?”

“맞는 말씀이에요. 하루 놀고 다음 날엔 쉬는 생활 하다 보면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놀기만 하면 건강도 영망이 될 거야. 그리고 또 특히 밤에 마누라 옆에 가기도 흥이 안 날 거구. 안 그렇겠어?”

“그럼요! 삶에 의욕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건 그래!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또 화끈하게 노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해. 섹스도 좀 요란뻑적하게 즐기고 말야!”

“왜, 그런 말이 있지요? 밤일이 시원치 못한 남자는 낮일도 험편이 없다구…….”

“응. ‘고개 숙인 남자!’ 말이군. 무슨 일이든 열성적으로 하는 사내가 마누라를 해피(Happy)하게 해 줄 수 있는 이치야. 그리고 말야. 이건 다른 얘기인데, 가게는 그 위치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들 하지?”

이번에는 토니가 화제를 바꾼다.

“예,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3대 기준을 첫째, 로케이션 (Location), 둘째도 로케이션 그리고 셋째도 로케이션이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들 하지. 그런데 말야. 그건 주택이나 투자용 커머셜 빌딩(Commercial Building)을 주로 얘기라는 거라고 봐. 사업체는 말야. 특히 편의점은 위치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또한 어느 누가 어떻게 장사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런가요?”

켄이 미심쩍어한다.

“그렇다니까! 내 친구 하나는 말야. 시골 동네에 가게가 있다가 망해 나간 빈 가게자리를 얻어 가게를 셋업(Set-Up)했어. 그런데 지난 겨울 주매상이 1만 불 선이라 하더군. 6/49 복권도 없는데 말야.”

“그런 경우도 있군요! 선배님! 그런데 요즘은 가게 셋업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더욱이 가게 셋업은 모든 게 제로(Zero)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 즉 손익분기점, 수익성 있는 매상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선배님! 선배님도 지금 하시는 가게 셋업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응, 오래 전에 비디오 가게 3개 셋업했었고, 또 지난 4년 동안에 가게 4개 내 손으로 문 열었지.”

“가게를 4개나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돈 좀 벌으셨겠네요?”
켄이 놀라워한다.

“돈은 무슨 돈! 그저 겨우겨우 꾸려 가고 있어. 얼마 전 인컴 택스(Income Tax) 보고할 적에 따져 보니 말야,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 빚 총액이 7만2천 불이더라구! 그리고 또 은행융자 3만 불과 또 사채가 3만 불이 있더군.”

“아니, 왜 그렇지요?”

“응, 4년 전에 꾸민 첫 번째 가게는 친척에게 그냥 양도했고 두 번째는 문 닫았지. 지금은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매니지먼트 콘

트랙(Management Contract) 맺고 젊은 부부에게 맡겼어.”

“그럼 그 가게들은 잘 되나요?”

“그저 그래! 요즘 장사 잘 되는 가게가 어디 있겠어? 그저 겨우 꾸려 가고들 있지. 그렇지만 문 닫을 정도는 아니니까 참 다행이지. 안 그렇겠어?”

“참! 대단하십니다. 4년 동안에 가게 4개나 만드셨으니…….”

“뭐, 응, 그저 일 속에 파묻혀 살았지. 그리고 우리 준이 엄마가 참 고생 많이 했어. 지금도 일벌레처럼 일하고 있다네!”

“그래서 내조가 무척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래서 말야. 내, 이런 생각을 해 본 적 있지. 왜, 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이 있잖아? 나는 그보다는 ‘사람 팔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

“그건…….”

챈이 머뭇거리자 토니는 얘기를 계속한다.

토니는 준이 엄마와 5년 전에 만났다 했다. 그녀는 준이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버린 뒤 14살짜리 외아들 준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왔다. 건강하던 46세의 한창 나이에 아린 자식과 아내를 두고 저 세상으로 훌쩍 가 버린 준이 아빠! 40대 남자의 사망률 세계 1위라는 한국!

준이 엄마는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에 잃어버린 43세의 과부 신세가 돼 버린 것. 살길이 막막했다. 그래서 결국 토론토에 이민 와 있는 친구의 권유로 무작정 캐나다로 왔다. 94년부터 시행된 한·카 무비자 협정 덕에 그녀는 여권만 들고 왔다. 그 때만 해도 입국할 때 공항에서 이민관이 무조건 6개월 체류, 비자티 비자

(Visitor Visa) 도장 찍어 주던 때였다.

준이 엄마는 살림살이 다 처분하고 여행가방 하나 들고 어린 아들 손잡고 이 낯설은 타국 땅에 온 것이다. 핸드백에 8천 불 넣어 온 게 그들 모자의 총 재산이란다. 정말 TV 연속 방송극에서 나 볼 수 있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토니는 말한다.

“그런 케이스가 제법 많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켄이 거둔다.

“그럴 거야. 과부가 됐거나 이혼했을 경우 서울에서는 여자가 혼자 살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 특히 이혼 케이스는 말야. 아직도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일 터이니까 말야.”

“그래도 요즘 많이들 달라졌다는 것 같아요. 이혼율이 꽤 높아졌다니까요.”

“응, 내가 이혼 경력이 있다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간에 궁합이 맞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 해!”

“그런데 선배님! 서울서는 대개가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눈물과 한숨, 서러움 속에서 사는 아내들이 상당수라 했어요.”

“그도 그럴 거야. 그런데 여기 캐나다는 혼자 사는 나이 든 여자들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혼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인지 디보스 레이트(Divorce Rate)가 50%쯤 된대.”

“이혼율이 50%라니요? 그건…….”

“응, 2쌍의 커플(Couple)이 혼인신고 하는 그 순간에 1쌍의 부부가 이혼 서류에 사인(Sign)한다고 해.”

“그렇다면 말예요, 거 참 어려운데요. 이혼한 남녀가 또 재혼

할 게 아닌가요? 그거 계산이 복잡하게 되는데요.”

“켄! 그냥 넘어가자구! 우리가 무슨 박사학위 논문 쓸 것도 아니고 그저 캐나다에선 이혼을 많이 한다고만 생각하자구. 오케이?”

“그러지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나요?”

“응! 그 얘기! 준이 엄마는 그 친구가 다니는 직장에서 만들어 보내 준 잡 오퍼(Job Offer) 한 장 들고 캐나다에 왔었대.”

토니의 얘기이다. 그러나 그녀가 철석같이 믿고 온 잡 오퍼는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워크 퍼미트(Work Permit)와는 무관한 종이 쪽지에 불과했다.

결국 일자리 못 찾고 방문비자 6개월 기한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으로 6개월 체류연장 받았으나 살길이 막막할 뿐이었다. 그녀는 토론토 다운타운 근처의 빈민촌 동네에서 베이커리 아파트(Bachelor Apartment)에서 살고 있었다. 그 싸구려 원룸 아파트도 친구가 보증을 서 주어 얻었다. 영주권도, 노동허가도 없는 40대 여인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 갈 것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온 준이는 학교에 갈 수 없어 학교 시간에는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야 했다. 준이는 하교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다른 학생처럼 배낭을 메고 돌아다녔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준이! 나이 열세 살에 아버지를 잃고서 이 낯설은 토론토에 와서 학교도 못 다니는 준이!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스튜던트 비자(Student Visa)가 없어도 받아 준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된다. 당장 아파트 값과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그녀와 준이는 근처에 있는 한인 루터 교회에 다닌다. 목사님과

교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또 목사님의 주선으로 한인사회봉사회라는 데서 쌀과 식료품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처지인 경우 많이들 한국 식당이나 식품점에서 일한다고 그러던데요?”

“준이 엄마도 그런데서 일해 보려고 했대. 한인사회봉사회에서 일하는 분이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해 주었대.”

“그래서 일자리 찾았나요?”

켄이 흥미있어하며 묻는다.

“만약 일자리를 구했더라면 나하고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 여기 토론토에 영주권 없이 그냥 놀러 앉아 사는 동포들이 상당수라는 얘길 들었어.”

“소위 불법 체류자 말이죠?”

“응, 그런데 그게 우리 코리언들만 그런 게 아니야. 아무도 그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지만 말야. 일리걸 이민그랜트(Illlegal Immigrant)가 몇십만 명이란 설이 있어. 좌우지간 준이 엄마는 말야.”

토니가 하던 얘기 계속한다. 준이 엄마는 한국 음식점에서 웨이트리스(Waitress)로 일하려 해도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했다. 하다 못해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여러 군데 찾아갔으나 아무도 써 주지 않았다 했다.

“아줌마 같은 분은 안 써요! 아줌마는 설거지 같은 일 못하게 생겼네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했다. 한번은 “우리는 안경 쓴 사람은 안 써요.”라는 말도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아줌마, 몸이 약하게 보이네요!” 했단다.

“그거 참! 딱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찌됐나요?”

“뭐 별 도리 있었겠어?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선배님!”

“응, 자넨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본 일 있나? ‘여자는 거울! 남자는 지갑!’이라는 표현 말이야.”

“예에? 거울하고 지갑이라고요? 그게…….”

“서울서 한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재미있는 유행가가 유행했다며?”

“예, 그런 노래가 있었지요. 그런데 좀 유치하다 생각됐어요. 그 런데요?”

“난 말야. 내가 글을 좀 쓸 줄 알다면 말야. 멋진 소설을 한 편 쓰겠어. ‘거울을 든 여자, 지갑 꺼내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선배님 한번 써 보시지 그래요! 그런데 줄거리나 대충 생각해 놓으셨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말야. 그저 그냥 그런 생각을 얼핏 해 보았을 뿐이야.”

“무슨 내용이신데요?”

“어디선가서 읽은 얘기인데 말야. 사람이 어떤 에mergency 시츄에이션(Emergency Situation)에 처해졌을 때 말야.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게야. 그런데 그 행동이 남녀 간에 다르다 했어.”

“그럼 어떤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부닥치면 남자와 여자는 각기 상이하게 대처한단 말씀이군요?”

“그래! 바로 그거야!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말야. 산골 호젓한 도

로를 혼자서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
아니 쉽게 플랫 타이어(Flat Tire)가 됐다고 해 보자구.”

“알았어요! 그런 경우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용모를 가다듬는다! 이거죠?”

“맞았어? 정답이야! 그리고 남자는 맨 먼저 지갑을 꺼내 가진
돈을 확인해 볼 거구.”

“그것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선배
님!”

“그야 모르는 일이지. 그런데 왜, 응,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직업이 바로 여성들이 섹스를 판다는 얘기도 있지 않아?”

“아니 선배님도! 그건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켄이 큰일이나 난 듯 떠든다.

“아니, 켄!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구! 그
래 하이 스쿨(High School) 다녀야 할 아들 있는 과부가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뭐 있겠어? 결혼하는 길밖
에 없잖아?”

“그야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영주권 받게 되지
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이! 켄! 다 좋다 이거야. 결혼 케이스는 말야. 빠르면 8개월,
늦어도 1년이면 영주권 받게 된다고 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누구
와 결혼하는 거냐 말일세. 아무리 영주권 때문에 결혼한다 하지만
아무하고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토니가 갑자기 따지는 듯한 어조로 말한다.

“그거 참! 난처하겠는데요! 영주권은 급하고 적당한 혼처는 나

타나지 않고…….”

“그러게 말야 생각해 봐! 마흔이 넘고 자식까지 있는 중년 여인이야. 그녀에게는 결혼 상대자의 선택이 극히 제한돼 있을 게 아니야?”

“참 그렇겠네요! 남자의 나이도 그렇고…….”

“그런 형편의 여성이라면 남자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나이에 혼자 사는 사내가 이 토론토 바닥에 얼마나 있겠어?”

“그건 그렇네요! 그리고 또 무척 중요한 점이 있겠는데요! 만일 어떤 40, 50대 남성이라면 그는 분명 아내가 세상을 떠난 위도워(Widower) 아니면 이혼남 아니겠어요?”

켄이 신이 나는 듯 말한다.

“으응, 자네도 그 점을 생각해 냈군! 맞아! 잘 보았어! 그래!”

“그렇지요. 홀아비 아니면 이혼한 케이스, 둘 중 하나이겠지요. 그 나이에 총각은 없을 터이니까요!”

“그래! 그래서 재혼이 참으로 어려운 거야! 처녀, 총각들이야 그저 폴 인 러브 앤 퍼스트 사잇(Fall in love at first sight) 하게 되면 우선 동거부터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결혼에 골인하기 쉬운데 말야. 재혼은 아무래도…….”

“정말 그렇겠네요! 남자나 여자, 둘 다 자연 이것저것 따지게 되겠지요. 그 나이에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져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닐 거구 말예요.”

“그래서 참 어렵지 않겠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항은 말이야. 상처하고서 홀아비가 된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이혼 케이스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

“하기야 결과적으로는 남녀가 함께 백년해로(百年偕老) 하자구 굳게 약속하고 나서 그 약속을 깨 버린 결과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과 아내 얘기를 듣기로 하면 서로가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구 비난할 거 아니겠어?”

“그야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결국 사랑이 변해서 마음으로 변한 게 아니겠어요?”

“젠! 켄은 잘 모를 거야.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랑이 마음으로 변하는 게 절대로 아냐!”

토니가 정색을 하며 말한다. 켄이 흠칫 놀란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토니가 말을 계속한다.

“내 얘기 좀 들어 봐! 소위 말하는 사랑과 마음 사이에는 말야. 무관심이 있어. 영어로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게 돼! 알겠어.”

“그러면 그 무관심의 단계에서는 서로의 사랑이 식어 간다는 얘기이시네요?”

“그래! 쉬운 말로 정나미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정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었다 해서 곧 바로 디보스 페이퍼(Divorce Paper)에 사인(Sign)하는 건 아닐 거야.”

“그러면…….”

“그 어떤 모멘트(Moment)가 와야만 가정이 깨지게 되지. 그 계기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여기까지 말한 토니는 침울한 표정이 된다. 입을 꾹 닫는다.

토니의 얼굴이 굳어진 것을 보고서 켄은 ‘이 양반도 이혼했었구나!’ 생각한다.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자 켄은 말없이 커피를 마신다.

“아무려나, 그 연유가 어떻든 말야. 한 가정이 깨진다는 건 정말 커다란 비극이야. 너무도 괴로워…….”

토니가 나지막하게 말한다.

“그럴 거예요. 당사자들이 겪는 아픔은 다른 사람들은 짐작도 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켄 역시 낮은 어조로 대꾸한다.

“이보게나, 켄! 나는 말야. 그런 견디기 너무 힘든 과정을 두 번 씩이나 겪었다네.” 토니가 솔직히 털어놓는다.

“예에! 두 번 이혼하셨다고요?”

켄은 뜻밖이라는 듯 놀라한다.

“그렇다네! 내 팔자도 참 기구하지. 어쩌다…….”

켄은 토니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말이 없다.

한참 후, 토니가 말을 계속한다.

“켄! 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던 게 틀림없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선배님이 처복이 별로 없었던가 보죠.”

“몰라! 내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말야.”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토니의 얘기는 계속된다. 준이 엄마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의 권유와 소개로 결국은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재혼을 결심하고 나서 첫 번째로 선 본 남자가 바로 토니! 당시 만 50세의 두 번의 가정파탄을 겪은 이혼남, 가진 게 아

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오히려 여기저기 빛만 잔뜩 지고 있는 사내이다. 물론 준이 엄마의 눈에 들 리 전혀 없는 가난뱅이 흘아비 영감 중늙은이다.

“켄! 흘아비 3년에 이가 서 말이란 말이 있잖아? 그 때 나는 빛만 걸미진 처지였으니 어느 여자가 좋다구 했겠어? 안 그래?”

“그래도요, 사람 하나만 괜찮다면 돈은 좀 없어도…….”

“그럼 자네 생각엔 괜찮은 사람이 두 번씩이나 이혼할 것으로 보이니?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내 아니겠어?”

“그거야 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켄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린다.

“켄! 내 털어놓고 말하는데, 준이 엄마와 만난 게 열 번째 선이었다네. 알겠어?”

“그랬었군요! 그럼 그 동안 적당한 분을 못 만나셨군요.”

“그랬지. 아냐,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첫눈에 반해 가지구 근 6개월간을 쫓아 다녔던 여인도 있었어.”

“그랬는데도…….”

켄은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문다.

“그래! 끝내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땡지 먹었다 네!”

토니는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말한다.

“모르긴 하지만 그 분은 선배님과 연분이 안 닿았던가 보죠?”

“그럴 거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을 텐데 말야. 여자의 마음은 백 번 넘게 찍어대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가 봐.”

“그래서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처음부터 단념해야

된다고 한 게 아닐까요? 선배님!”

“맞아! 옛 어른님들의 가르침이 어느 하나 틀리는 게 없어. 그런데 말야. 내 맘에 쏙 드는 여인이 아예 처음부터 말도 못 볼 이게 했다면 내가 일찍 체념하고 뒤돌아서 가 버렸을 터인데, 그 게 아니었거든!”

“그럼 잡힐 듯 말 듯, 선배님 품에 안길 듯 말 듯 했다는 말씀 인가요?”

“그것 참! 자넨 어찌 그리 안 보고도 잘 아나! 정말 그런 상황 이었어. 자넨 말야. 그 당시 내 뒤를 따라다니며 지켜본 듯이 얘기 하는구만!”

“제가 뭘! 근 반 년간이나 교제했으면서도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다니까 하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 뒤통?”

“아무튼 난 혼자서 짹사랑만 하다가 브로큰 허트(Broken Heart) 신세가 돼 버렸던 거야.”

“그것 참! 여자 분들의 마음은 참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선배님 처럼 좋으신 분을…….”

“어이! 자네 뭘 먹고 싶어? 내가 술 한잔 살까? 거 듣던 중 기분 좋은 말인데! 해! 해! 해!”

토니가 정말 기분이 좋아 어찌할 줄 몰라 한다. 너털웃음 웃는다. 한참을 웃고 나서 한 마디한다.

“켄! 나를 치켜세워 줘 고마워! 쟁스 어 밀리언(Thanks a Million!)이네. 아이 오우 유 원(I owe you one!)” 토니는 자신도 모르게 영어로 얘기한다.

“아이 오유 완이라구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응, 미안해! 어떤 때는 영어가 더 쉽게 나와서 말야. 30년 동안 영어 쓰는 나라에서 살았는데도 아직도 엉터리 영어라네. 그저 콩그리쉬(Konglish)인 걸 어떡하나?! 참! 아이 오우 유 원은 여기에 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 내가 너에게 신세를 졌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 말엔 ‘나도 기회가 되는 대로 꼭 갚겠다!’는 뉘앙스(Nuance)가 강하게 풍기는 표현으로 알고 있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섯 달 동안이나 짹사랑만 하시다가 실연하셨다고요? 참 안 되셨는데요!”

“어떡하겠나? 다 내 팔자이고 운명 아니겠어? 마음은 아프지만 체념할 수밖에 없잖아?”

“하기야 그렇긴 하지요. 세상만사가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준이 엄마와 선 보셨군요?”

“아냐! 알아보니까 토론토에 결혼 상담소가 두 군데 있더군. 그래서 두 군데에 다 등록해 놓고 연락 오기를 기다렸지. 달리 어떻게 해 보기가 곤란하잖아?”

“그래서 선을 여러 번 보시게 됐군요?”

“응, 그랬어. 그런데 말야. 인연이란 게, 연분이란 게 정말로 따로 있나 봐!”

“아니? 왜요?”

“내가 만나 본 여자 분들은 하나같이 내 눈에 안 들어왔어. 선을 보고 나서 또 한번 만나보고 싶은 여성이 별로 없었거든.”

“그것 참!”

“그런데 말야. 참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 그 여자 분들도 내게 관심이 없었던지 연락을 하는 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별 수 있어. 그래도 가끔씩 결혼 상담소에서 연락 오는 때마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약속 장소로 시간 맞추어 나갔었지. 아, 참! 내가 재미있는 공상을 해 본 적이 있네.”

“어떤 건데요?” 켄은 궁금해한다.

“저어기 말야. 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선 볼 여자 분들을 한 10명 정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고르는 거야.”

“선배님! 그것 참 엑설런트(Excellent)한 아이디어이네요! 정말이에요!”

“아이! 켄! 그렇게 하다간 뺨 맞게 될 게 아냐? 그걸 만약 여성 운동 단체에서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거구. 안 그렇겠어?”

“그럼요! 그리고 말예요. 맞선 보는 줄 알고 온 여자 분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야 물론이겠지. 그저 매번 이번에는 어떤 여성일까? 기대하면서 만났다가 실망하기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런 공상을 해 본 거지.”

“그런데 미국에선 실제로 그렇게 신부감을 공모한 적이 있었지요?”

“응,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 친구는 밀리어네어(Millionaire)였다고 했어. 나중에 사기친 걸로 밝혀졌지만 말야. 내겐 그럴 배짱도 없으니…….”

“참! 세상엔 별 꿀도 다 있지요? 그런데 사모님과 선 보신 다음 어떻게 잘 되셨나 보죠?”

“응, 그랬으니까 결혼하게 된 거야. 그래서 ‘헌 짚신도 다 그 짹이 있다!’는 말이 진리인 것이 증명됐지. 최소한 내게는 말야”

토니가 자랑스러운 듯 빙그레 웃는 얼굴로 말한다.

“그럼 첫눈에 반하셨나 보죠?”

“아냐, 그렇지는 않았어. 그저 수수하게 생긴 여자인데 무척 착한 여인일 거라는 인상을 받았어.”

“그리고요?”

“커피 집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쩐지 모르게 그 여인이 무척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 특히 준이 녀석이 학교를 못 가고 숨어 살 듯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말야. 중학 마치고 길바닥에서 구두닦이 하던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토니는 말을 하다가 그만둔다.

“…….”

켄도 침묵을 지킨다.

“아무튼 나는 준이 엄마를 어떡하든지 도와 주고 싶었어. 혹 나하고 연분이 안 되면 내가 나서서 좋은 사람 찾아 주어야 하겠다 마음먹었지.”

“그려셨군요!”

“나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만 말야. 준이 엄마와 준이가 너무도 불쌍하더군. 그래서 말야…….”

토니는 5년 전 일을 회상하듯 눈을 감는다. 잠시 후 그가 계속해서 얘기한다. 토니는 이 가련한 엄마와 아들을 도와 주기로 결심했다. 즉 자기도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었고 갖은 고생 다 하며 살아왔음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함께 안 살아도 좋으니

결혼 신고만 해서 영주권이 나오게끔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니, 정말로 그럴 생각이 있으셨나요?”

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묻는다.

“그래! 그제 내 진심이었어!”

토니가 나지막하게 대답한다.

“켄! 내 미안하오. 괜한 내 신상 얘기 들어놓아…….”

토니가 조금 멋쩍은지 쓰고 있는 도리웃지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쓴다.

“참! 선배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이봐, 켄! 자넨 내가 왜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아나? 멋지게 보이려 쓰는 게 아닐세. 이 도리웃지, 영어로는 페디 햇(Paddy Hat)인데, 나는 삿갓으로 여기고 밤낮으로 쓰고 다니네.”

“삿갓이라고요? 그 김 삿갓 말이에요?”

“맞아! 김 삿갓 선생의 삿갓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의 의미거든. 안 그런가?”

“예, 그거야…….”

“肯! 이 정춘성이네 말예요. 참으로 자운 죄가 많은 놈이요.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크나큰 상처를 입힌 놈이란 말이오. 알겠소?”

“그야 뭐…….”

“肯, 나도 어릴 적에는 무척이나 착한 아이였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교도 진학 못하고 객지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진 거야. 길거리 생활하면서 독종이 돼 버린 거야. 반항아로 커나온 거야. 어느 놈이건 내게 싸움을 걸어 오면 죽기 살기로 달려

드는 깡다구가 돼 버린 거야. 자네 이해가 되나?”

“예? 아니오, 아니, 그게 아니구…….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선배님!”

“어이, 자넨 배고파 보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건 배고픔일 거야. 그래서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장 안 넘을 놈 없다는 게 아니겠어?”

“그렇겠지요.”

켄은 실감이 안 나는 듯 맥이 없다.

“肯! 난 말이야.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 내가 열세 살부터 내발로 서서 살아왔거든! 그래서 말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대학까지 부모 덕으로 마친 녀석들은 말야. 나이 서른이다 돼서야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

“예, 서울서는 대개가 다 그렇지요!”

“그러니 말야. 나는 남들보다 적어도 10년, 15년 더 인생을 살아 온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

“그렇게 보면 또 그렇네요!” 켄이 맞장구 친다.

“그래서 말야. 난 내 또래들보다 10년, 20년 먼저 저 세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네. 내 말 알겠어? 켄?”

“참! 선배님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다고 뭐, 일찌 남보다 죽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래! 맞아! 목숨이 불어 있는 한 하루, 일 분 일 초라도 더 살아야 하겠지. 그러나 나는 말야. 죄 많은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도 난 웃으며 죽어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다네.”

“선배님! 그건 너무…….”

“어이, 걱정 마! 이 정춘성이 그리 쉽게 안 죽네. 아흔 살까지는 건강하게 살 거야.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인명재천(人命在天)이라 하잖아? 그리고 온실 속에서 곱게 키워진 꽃들보다는 도로변의 잡초가 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거란 말일세!”

“선배님! 잡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요즘 서울에선 ‘잡초 정치인’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던데요. 노통이 이메일 편지에 써 가지구 말예요.”

“응, 나도 인터넷에서 보았어. 그런데 난 그 ‘잡초’라는 표현 보다는 차라리 ‘기생충 같은 놈들!’이라 했었더라면 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일하겠다고 앞에 나선 놈들이…….”

“…….”

둘이는 잠시 말이 없다.

“어이! 서울 얘기는 그만두세! 우리가 오래 사는 데 지장이 있게 되니까 말야!” 토니가 웃는다.

“선배님, 얘기가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갔는데요. 그, 사모님 얘기하시다 말았지 않아요?”

“미안해! 바로 이런 게 내 약점이야.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인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딴 얘기로 흘러간단 말야. 그런 것보고 논리에 약하다고 그러지, 켄?”

“선배님도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또 조리 있게 잘하시는는데요!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

“어이, 커피 한 잔 더 할 거야? 내, 오랜만에 뮤직 투 이어스

(Music to Ears) 들었으니 한 잔 사지.”

토니가 흐뭇해 한다.

“정말입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정말로…….”

켄은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둔다.

토니는 그런 켄을 보며 미소짓는다.

“내, 미안하지만 금방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짐작하네.
내가 알아 맞추어 볼까?” 놀라듯 말한다. 켄은 어색해 한다. 토니
가 입을 연다.

“자넨 그게 궁금할 거야. 공부도 제대로 못 한 사람이 어찌 그
리 영어도 잘 하고 또 박식한가? 그거지?”

켄은 잠자코 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원주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네. 수학
은 좀 못 했지만 말야. 국어, 영어, 사회과목은 항상 만점이었지.
그래서 말야. 우리 동네에서는 인물 났다고들 했었지.”

“참! 너무 안 됐는데요 선배님이 공부를 계속하셨어야 하는 건
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면 뭐하나? 내 사주 팔자가 그렇게 돼
있었고 타고 난 복이 그뿐이었는 걸!”

토니가 울적해진다. 조금씩 마시던 커피가 다 식어 버렸는데도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아, 그래서 준인가요? 그 아이 학교 다니게끔 해 주려 하셨군
요.”

“그렇다네!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준이 모자에게 좋은 일
해 주고 싶었어. 나야 뭐, 항상 외톨이로 살아왔으니까 혼자서 그

력저럭 살다가 죽어 버리면 되는 거구. 또 지은 죄 많은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진짜로 결혼하셨지 않았나요?”

“肯!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거든. 내가 그렇게 가짜 결혼이라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마 준이 엄마가 감동했었나 봐! 그 뒤로 나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졌지.”

“그렇게 돼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군요!”

肯은 자기 일처럼 좋아한다.

“그래! 그렇게 됐지. 참! 자네, 그 ‘나무꾼과 선녀’ 얘기 알지?”

“예에, 그 동화 얘기 알지요. 그런데요?”

토니의 엉뚱한 질문에肯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대답한다.

“난 말야. 내 곁을 떠나가 버린 여인들과는 달리 준이 엄마를 내게 묶어 두고 싶었던 거야. 나이 오십의 초로의 영감! 그것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는가?”

“그거야 알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선녀에게 날개옷을 내 준 나무꾼 녀석은 정말 일생 일대 큰 실책을 범했던 거야. 그 날개옷을 감출 게 아니라 훔친 즉시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태워 버렸어야 해! 안 그래?”

“말씀 들으니 정말 그렇네요!”

“맞아! 탐나는 여인! 영원히 내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선녀 같은 여인이 있다면 말야. 절대로 못 날아가도록 날개옷을 없애 버려야 한단 말야.”

“그래서 선배님은…….”

“그래! 그래서 우리 준이 엄마가 체념하고 이 못난 영감쟁이와

5년째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나이 차이가 7년이나 되는 꼬부랑 영감탱이를 버리지 않고…….”

“하기야! 영주권 때문에 결혼한 케이스들에는 이혼이 꽤 많다고 하던데요!”

“그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아니겠어?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에 골인한 게 아니지. 그냥 처음부터 서로가 어떤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결합됐으니까 말야. 그런 경우를 메리지 바이 컨비니언스(Marriage by Convenience)라 표현하지.”

“그런 경우는 다만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이겠네요?”

“그래! 그래서 한국에서 이혼하고 무작정 캐나다로 온 여인들이 말도 잘 안 통하는 백인 영감들과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다는 얘기 들었어.”

“그것 참 비극이네요. 정말로!”

“어떡하나? 맘에도 없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적어도 2년 간은 식모 노릇, 하녀 노릇 그리고 밤에는 그 녀석의 성적 욕구를 채워 주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 위에 돈도 주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돈 받아먹은 놈이 있다면 그 녀석은 영주권 팔아 먹은 거야! 이미그레이션 머천트(Immigration Merchant)야! 영주권 장사한 거야!”

“선배님, 그런데 말예요. 위장결혼 해 가지고 누굴 영주권 받게 해 주었다 해서 자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야 그렇지! 아무튼 내 얘기 좀 들어 봐.”

토니는 평소의 과묵함에서 벗어났는지 자꾸만 얘기를 늘어놓는다. 켄이 자신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니까 신명이 났나 보다.

토니는 마음 착하고 인정 많은 준이 엄마에게 첫 번의 만남부터 은근히 반했다 한다. 그러나 준이 엄마는 이 두 번이나 이흔했다는 홀아비 영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재혼이고 뭐고 그냥 인천으로 돌아가려 했다. 인천에 가서 떡볶이 포장마차라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처음 캐나다에 올 때는 안 오겠다고 폐를 쓰던 준이가 이젠 캐나다에서 살자고 졸라대는 게 아닌가?

그녀에게 반해 버린 토니이다. 교회에 안 다니던 그가 그녀의 환심을 사고자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 줄 담배를 피워대는 골초이면서도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한다. 또 준이의 호감을 사고자 애쓴다.

“어이! 켄!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적장을 사로잡으려면 그가 타고 있는 말을 쏘라고 말야.”

“예, 손자병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 나는 조심스럽게 준이에게 다가섰지. 그 녀석이 내게 호의적이어야만 성사가 되는 게 아니겠나?”

“그야 물론이지요. 아들녀석이 싫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시집 가겠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말야. 준이와 준이 엄마에게 재미있는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고 함께 놀았지.”

“그거 참 잘 하셨네요! 그런데 무슨 게임인가요?”

“응, 러미(Rummy)라는 플레잉 카드(Playing Card) 놀이인데 무

척 재미있거든.”

“저는 잘 모르는 게임인데요. 카드 게임이라면 포커와 올 마이 티 게임은 할 줄 알지요.”

“그럴 거야. 러미는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백인 아줌마들이 즐겨하는 거라고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 게임을 할 줄 아셨어요?”

“응, 옛날에 백인 아줌마가 가르쳐 주었지. 둘이서도 할 수 있거든. 어이, 또 얘기가 다른 데로 가 버렸군!” 하며 토니는 준이 엄마 얘기를 계속한다.

토니의 끈질긴 구애작전과 더불어 한국에 가기 싫다는 준이 때문에 심성이 착한 준이 엄마는 드디어 결심했다.

거기에 토니는 ‘가짜 결혼’을 해서라도 영주권 받도록 해 주겠다고까지 제의했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에 별로 안 드는 토니이지만 아들의 교육과 장래, 더 솔직히 말해서 영주권 받기 위해 그와 결혼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둘은 권사님들의 소개로 맞선 본 지 한달 보름 만에 부랴부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시청에 가서 판사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할 수도 있지만 토니는 교회에서의 결혼 예식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녀 총각이라면 몰라도 재혼 케이스 아닌가? 찬물 한 그릇 떠 놓고서 백년가약 예식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토니는 그녀에게 신부 드레스를 입게 하고 전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담임목사님의 주례로 예식을 치루기를 고집했다.

“자넨 어떻게 생각해?”

“아니, 무얼 말인가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성대하게 거행한 것 말야?”

“잘 하신 것 같아요.”

켄이 별 생각 없이 대답한다.

“이봐! 켄! 내가 아까 선녀의 날개옷 얘기했잖아!”

“아! 그럼 날개옷을 태우신 건가요?”

“아냐, 그저 한쪽만 찢은 셈이지. 아이 셋은 낳아야 돼! 하하
하!”

토니가 소리내어 웃는다.



김영문

가자 / 離

이렇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인생을

나는 비행기에서 내려 다른 승객들 틈에 끼여 떠밀리듯 입국 수속대를 향하여 걷고 있었다.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한국의 모든 것은 이상스럽게 낯설게 느껴졌다. 초라한 이민 보따리 하나를 들고 바로 이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 젖은 눈으로 근심스럽게 지켜보시던 이태규 선배님의 눈망울이 생각났다. 나의 사랑하는 옥희가 나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통곡하듯이 울었더라는 이태규 선배님의 편지를 받은 것은 미국에 도착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다. 어렵사리 연결된 첫 번째 전화에서 옥희는 원망이 가득 찬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왜? 왜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나 버린 거예요? 마치 불운해야만 한다고 운명지어진 그 틀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일하며 도전하며 살아온 지난 4년의 세월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옥희,

알리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난 것은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돌아왔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얻은 직업은 개인 이삿짐을 포장 해서 장거리 운송을 해 주는 회사의 일부 일이었다. 고된 육체노동이었는데 나는 이를 악물며 최선을 다 해서 내 몸을 해 내려고 애썼다.

그 날도 나는 밤늦게 작업이 끝나서 거덜이 나도록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다. 차가 없는 나를 내가 속한 작업조의 조장이며 심성이 착한 제임스 영이 그 날 밤도 아파트 앞 길까지 태워다 주었다. 제임스 영은 삼백 파운드가 넘는 거구의 흑인인데 그 위협적으로 큰 외모와는 달리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다. 아직 이 사회에서 미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에게 제임스 영은 온갖 조언을 해 주며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해 주고 있었다.

딸그락거리며 아파트의 문을 따고 들어가자 하나밖에 없는 베드룸에서는 큰 대 자로 널부러진 알렉스 라쉬드의 코고는 소리가 온 방 안을 진동하고 있었다. 이 알렉스 라쉬드는 인도에서 이민온 친구인데 이 아파트에 방을 얻으려 왔다가 아파트 앞에 있는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 알게 되어 룸메이트가 된 친구였다. 나처럼 싸구려 아파트를 얻으려 왔던 알렉스 라쉬드와는 긴 설명 필요 없이 의기가 투합하여 침실이 하나 있는 아파트를 월세 300불에 얻어서 같이 쓰기로 했다.

“좋다, 같이 쓰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침실은 누가 쓰지?”

알렉스 라쉬드가 텁이 밖으로 빼어져 나온 콧구멍을 손톱이 긴

새끼손가락으로 후비며 고개를 가우뚱했다. 그는 까만 피부에 몸이 길쭉하고 깅말라서 무릎과 팔꿈치의 관절이 유난히도 불거져 나와 보이는 전형적인 인도인 모습을 한 친구였다.

“네가 여자라면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겠지만 말이야. 허허.”

마침내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는데 자기 말로 인도의 왕실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인 알렉스 라쉬드가 침실을 차지하고 그 대신 방세를 175불을 내고 나는 밖의 소파에서 자고 125불을 내기로 했다. 꼭 침대에서 자야만 하는 인도 왕족과 룸메이트를 하게 된 것을 나는 실로 다행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시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도 왕족의 코고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으며 나는 냉장고를 열고 내용물을 훑어보았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주린 배를 채울 음식물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파 쿠션 밑에 숨겨 두었던 라면을 꺼내서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라면을 한 레 몇 개쯤 사서 부엌의 찬장 속에 놓아 두면 내가 세 개 먹는 사이에 이 인도 왕족이 일곱 개를 해치워 버리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 인도 왕족은 그 큰 눈을 꿈뻑거리며 위 아 프렌드 유 노우 어쩌구하면서 우정을 들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감춰 놓고 먹게 된 것인데 이 감추는 장소도 수시로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없었다. 눈치가 쥐보다도 발달한 인도 왕족은 내가 두 번 이상 같은 장소에 숨길 경우 거의 99퍼센트의 순도를 가지고 숨긴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계속 감기는 눈을 치뜨며 설骎은 라면으로 배를 채운 후 나는 소파 위에 늘상 펼쳐져 있는 담요 위로 옷을 입은 채

몸을 던졌다. 가물가물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나는 일 주일 전에 서울로 통화했던 옥희의 애타는 목소리를 또 들었다. 선우 씨, 어떻게 지내요? 건강하지요? 나는 걱정하지 말고…… 하다가 바보 같은 옥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 씨, 나 언제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우 씨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옥희의 숨죽이며 흐느껴 우는 소리는 나의 심장을 몇개 만들 만큼 애절하게 들려왔다. 옥희, 조금만 참고 있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태규 선배님에게 도움을 받기로 약속했잖아. 전화를 드리고 의논을 해 보면서 조금만 있으면 돼. 이태규 선배님, 제 옥희를 도와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안에 미국에서 저와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조금만 참고 있으란 말이야. 알았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틀림없이 나는 옥희를 데리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야. 알았지? 쏟아지는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나는 잠꼬대하듯, 상처 난 레코드 판 헛돌아가듯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나는 옥희를 틀림없이 데리러 갈 거야. 알았지? 알았지?

“째끼야, 얼굴 노란 놈들은 전부 그렇게 계집애처럼 약하냐? 뭐 대단한 작업했다고 그렇게 빌빌대고 있느냔 말이야?”

성깔이 사납고 언제나 나만 보면 볶아 먹으려고 드는 디에고 위니쎄로가 오늘 아침에도 역시 눈깔을 부라리며 침을 뿐겼다.

“놔둬라. 너는 일찍 들어갔지만 선우는 나하고 어젯밤 열 시까지 남아서 뒷작업 다 했다. 피곤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포장용 담요, 이삿짐 상자들, 서류 뭉텅이 등 온갖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너저분한 사무실 한쪽에 거구를 소파에 파묻고
반쯤 자듯 눈을 감고 있던 조장 제임스 영이 눈도 뜨지 않으면서
바리톤 음성으로 말했다. 디에고 위니제로는 짤끔해서 입은 다물
었지만 살기띤 눈으로 나를 째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디에
고 위니제로는 윤기 없이 메마른 백인인데 성깔이 어떻게 나쁜지
이 이삿짐 운송 회사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뼈
쭉 마르고 기미가 많은 얼굴에 언제나 해골이 그려져 있는 검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 꼭 뜰마니 해적처럼 생긴 놈이었다.
기분이 언짢을 때마다 이빨 사이로 침을 쥐 하고 뱉는 습관이 있
는데 그럴 때마다 손바닥으로 입가를 문질러 내는 것이 여간 더러
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괴력의 삼백 파운드 흑인 제임스 영이 있
어서 더 어떻게 해 보지 못하고 물러서야 하는 것이 배알 꼬이는
지 이 뜰마니 해적은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상자를 발로 꽂 차고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힐끔 제임스 영 쪽을 보았는데 제임스는
가늘게 뜬 눈으로 나를 보며 그 까만 얼굴에 유난히도 하얗게 보
이는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제임스, 맹큐야. 너는 내 친구야.”

나는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제임스 영에게 말했다. 만약 제
임스 영이 없었더라면 이 뜰마니 해적이 나를 얼마나 족쳐 먹으려
고 들었겠는가를 생각하면 끔찍스런 노릇이었다. 영어도 서툴고
현지 실정에도 아직 어두운데 일은 고되지만 수입이 그런 대로 괜
찮은 이런 직장을 그 놈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테
니까.

방금 폴마니 해적이 나간 문으로 그와 거의 흡사하게 생긴 테드 존스 사장이 들어왔다.

“굿 모닝.”

“굿 모닝.”

“굿 모닝.”

방 안에 있던 사람 모두가 마치 아첨하듯 일제히 굿 모닝을 합창했다.

테드 존스는 하하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고 사무실 끝에 있는 자기 방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테드 존스 사장은 생긴 걸 모습은 폴마니 해적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데 성품은 정반대여서 아주 인정미 있고 직원들 걱정을 자상하게 해 주는 좋은 보스였다. 이 점 때문에 제임스 영 같은 힘도 세고 경험도 풍부하며 더구나 성격이 유순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었다. 언젠가 내가 테드 존스 사장에게 폴마니 해적과 너무 닮았는데 사촌지간쯤 되는 것이 아니냐고 농담으로 물었더니 테드 존스는 펄쩍 뛰다시피 부인했다.

“그런 놈하고 나를 비교하면 어떡해? 우린 클래스가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선 사람 좋게 하하 웃었다.

테드 존스는 복마전처럼 어지러진 그의 사무실 안에서 무얼 하는지 구식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이따금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지 갓템잇 어찌고 하면서 욕지거리 소리도 들리곤 했다.

오늘은 금요일. 주급 수표가 나오는 날이다. 그 동안 봉급 수표

도 준비하고 작업 청구서도 보내고 서류 관계 일체의 일을 하던 여자 직원 마리아가 일 주일 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만두고 말았다. 그래서 테드 존스 사장은 잘 할 줄도 모르는 서류 일을 해내느라고 절절매고 있었다. 그 동안은 그래도 작업 명령서가 제대로 타자되어 깔끔해 보이는 서류로 작업반장에게 전달되었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만둔 이후로는 테드 존스 사장이 타자기를 가지고 싸름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빼뚤빼뚤하게 손으로 쓴 서류 같이 안 보이는 서류로 대치해서 쓰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가 그만둔 후 첫 번째 봉급날이었다. 한참 후에 테드 존스 사장은 자기 방에서 나와서 제임스 영에게 다가갔다.

“해이, 제임스. 오늘은 작업이 없어. 그 대신 내일 토요일에는 샤피로 씨의 집에서 아침 아홉 시부터 작업을 해야 돼. 목적지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로 되어 있어. 대륙 횡단하는 짐이니까 파손품이 안 생기도록 잘 포장해야 하는 일이야. 오후에 내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겠어. 그 동안 이 작업 명령서를 가지고 일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놓고 있어. 메이 플라워에서 온 작업 명령서를 그냥 사본 떴어. 내가 사실은 고등학교 일 학년 때 학교를 은퇴했거든. 서류 가지고 일하는 것은 딱 질색이야. 오늘 주는 봉급 수표도 내가 대충 계산해서 그냥 손으로 써서 줄 수 밖에 없어. 나는 타자할 줄을 모른단 말이야. 그 빌어먹을 놈의 마리아가 사전 예고도 없이 그만두는 바람에 사무실 일이 엉망이 되어 버렸단 말이야.”

제임스 영이 두 손을 깍지 껴서 뒷머리에 대며 웃었다.

“타자 안 해도 괜찮아. 거기 숫자만 가급적 높이 적어 주면 돼.”

우리는 모두 깔깔 웃었다. 웃음 끝에 나는 테드 존스 사장에게 말했다.

“테드 존스 사장님. 타자라면 내가 해 줄 수도 있는데요.”

“뭐야? 선우가 타자를 친다고?”

“물론이죠.”

그건 사실이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약 삼 년 동안 사무실 생활을 했었는데 타자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내 타자 실력은 회사 안에서도 알아 주는 고수가 되었었다. 테드 존스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곧 나는 타자기 앞에 앉게 되었다. 테드 존스 사장이 깅깽거리며 타자하다가 잘못되어서 버린 수표가 여러 장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킥 웃었다. 나는 테드 존스 사장의 지시대로 아홉 명의 회사 트럭 운전수들을 포함한 함께 열여섯 명 직원의 봉급 수표를 깔끔하게 타자해 냈다. 테드 존스 사장의 입이 함박만하게 찢어졌다.

“이봐, 선우. 땡큐. 땡큐.”

테드 존스 사장은 봉급 수표들을 들고 나가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테드 존스 사장이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과 같은 사무실 직원이 되었다. 제임스 영 같은 거한이 수두룩한 속에서 몸으로 벌어 먹기가 쉽지 않은 노릇이었는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막노동이 아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다행한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선 그 더럽고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진 사무실을 청소했다. 그리고 그 전에 일하던 마리아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들을 모두 정리하여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원하는 서류를 즉각 찾을 수 있도록 정돈해 놓았다.

눈으로 보아도 크게 달라진 사무실을 보면서 테드 존스도 좋아했지만 그보다도 제임스 영은 자기 일처럼 좋아하면서 나의 어깨를 여러 번 두들겨 주었다.

“됐어. 됐어. 넌 냉장고를 들어 내는 데에는 젠병이지만 사무실에서는 왕이구나. 후후후. 그런 실력이 있으면서 왜 진작에 테드에게 이야기하지 않구.”

제임스 영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깅낑거리면서 무거운 화물들을 맨몸으로 들어서 집 밖으로 옮겨 놓으려고 애쓸 때마다 안쓰러워하면서 뒤에서 불안한 눈으로 조심해, 조심해하면서 걱정을 해주곤 했는데 이제 아주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에게는 눈물이 나오도록 좋은 친구였다. 그리고 더욱 신나는 일은 폴마니 해적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못되게 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못되게 굴기는커녕 되레 내 눈치를 살피며 점심 먹으려 나갔다 올 때는 아이스크림을 사 오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꼭 사무실에 들려서 굿모닝 하고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었다. 이 더럽고 빼찍 마른 백인 녀석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친절하게 구는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야, 선우. 우리는 친구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나에게 폴마니 해적이 은근히 다가와서 제깐에는 가장 매력적인 웃음을 담은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물론.”

“사실은 말이야. 내가 가족이 여러 명 있거든. 내가 이번 주에는 오버 타임을 몇 시간이나 했지?”

“아직 계산 안 해 봤는데.”

“그…… 말하자면 오버 타임을 한 다섯 시간만 더 써 넣어 줄 수 있니? 마리아가 할 때에는 더러 인간적으로 했었거든.”

나는 속으로 쿡 하고 웃었다. 그랬구나.

“난 못 하겠는걸.”

풀마니 해적의 안색이 순식간에 험하게 변했다. 이빨 사이로 마룻바닥에 침을 찍 뱉어 내곤 험악한 어조로 말했다.

“협조적으로 하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나는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풀마니 해적을 곁눈질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미국에까지 와서 이런 불의에 타협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교활한 풀마니 해적은 내 표정을 보다가 얼른 작전을 바꾼 모양이다. 험악했던 얼굴에 순식간에 웃음기를 살살 띠었다.

“야, 선우. 내가 그냥 해 달라는 것이 아니야. 일부는 너한테도 혜택이 가게 한단 말이야. 알겠어? 마리아하고도 그렇게 했어.”

“난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풀마니 해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짹 가시고 대신 살기가 흐르면서 나를 째려보다가 흑 몸을 돌려 발 소리를 크게 내며 밖으로 나갔다. 나가면서 이빨 사이로 또 한번 찍 침 뱉는 것을 잊지 않았다.

테드 존스 사장은 내가 사무실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만족이었다. 봉급도 올랐다. 8년 묵은 시보레 헌털뱅이지만 차도 하나 샀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제법 미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되어 가고 있었다. 미국에 와서 첫 번째 하는 세금 보고서도 작성해서

세무국으로 발송했다. 회사의 세금 관계를 맡아서 처리해 주고 있는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매번 봉급 수표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너무 넉넉하게 떼어서 되레 오백 몇십 불 정도 돌려받을 거란다. 세금 보고서는 별도로 한 부 사본을 더 떠서 옥희의 초청이민 재정 보증용으로 남겨 놓았다. 이제 또 얼마를 더 기다려야 나는 옥희와 같이 합치게 되는 것인가. 난감한 생각이 안 들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노릇이었다. 테드 존스 사장은 어디서 누구를 구어 삶았는지 아주 근사하게 잘 써진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보란 듯이 서명했다. 한국에 있는 이민 브로커가 가급적이면 많은 추천서가 있을수록 좋다고 했으므로 나는 테드 존스 사장과 제임스 영에게 추천서 부탁을 해놓았던 것이다.

“선우, 오키라고 했지? 빨리 미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테드 존스는 약수까지 청하면서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선우, 너는 성실하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아주 잘 살 거야. 나는 이놈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말이야. 후후후.”

제임스 영도 기꺼이 테드 존스가 준비해 온 추천서에 서명을 하면서 가슴 속까지 울려 대는 저음으로 말했다. 나는 모든 서류를 정성껏 봉투에 담아서 단단히 봉한 후 내 손으로 직접 한국에 있는 이민 브로커에게 발송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옥희,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잠시만 더 기다려 주면 된다.

미국에 먼저 간 남자가 한국에 있는 여자 버려 두고 현지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산다는 따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내가 그렇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비참하게 살 때에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미국에서 미친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너를 이 곳으로 데리고 와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일 뿐이다. 너와 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혈맹의 친구이기도 하다. 네가 미국에 오게 되면 나는 너를 유리로 만든 온실 속에서 외풍과 비바람을 타지 않도록 보호하고 단 일편의 근심 걱정도 없이 살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 뼈를 갉아 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렇게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옥희야, 나는 너에게 분명히 서약한다.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 수취 증명서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나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았다. 여기는 나 같은 놈이 잘 먹혀들어갈 것 같은 풍토다. 나는 어쩐지 모든 것이 낯설은 이 곳에서 되레 자신이 불고 온몸이 투지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꿀렁꿀렁 소리를 내면서도 잘도 달리는 낡은 시보레 차를 몰고 이 도시에 꼭 하나밖에 없는 한인 교회로 갔다. 상당히 큰 미국 교회에 세 들어서 예배를 보는 곳인데 밖에서도 짜렁짜렁 들리는 정열 넘치는 목사님의 설교 소리와 큰 교회 규모와는 대조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은 십여 명에 불과했다. 나는 뒤풀의 벤치에 소리를 죽이며 가만히 앉았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뒤쪽 높은 곳에 서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고개를 떨구고 있

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마치 지금이라도 그가 고개를 들고 인자스런 눈으로 나를 내려다볼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다.

한국에서 나의 소식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옥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빨리 옥희가 내 곁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항상 자신의 어려움을 뒤에 놓고 저희를 위해 애써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현신적이신 이태규 선배님에게도 많은 행운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재희의 날을 기다리며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축복을 주십시오. 실패에서 실패로 이어지며 좌절과 절망으로 보내던 생활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기회의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켜보시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도 한 일 년여를 더 테드 존스의 회사에서 일을 한 후 나는 독립했다. 개인 이삿짐을 운송해 주는 내 회사를 하나 만들어 버린 것이다. 테드 존스의 회사에서 사무실 일을 하는 동안 거의 하루 종일 고객의 문의에 답하고 가격 견적도 하면서 지내서 영어 실력은 엄청나게 늘어 있었다. 내 사무실을 시작했을 때 테드 존스는 다소 언짢아했는데 내가 사무실만 있고 실제 일을 모두 테드 존스의 회사에 의존해서 일을 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테드 존스는 되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환영하게 되었다. 입심이 제법 괜찮

은 나는 테드 존스의 경쟁 회사로 가던 일까지 척 나꿔채서 갖다 놓을 정도로 세일즈의 실력이 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말하자면 몇 푼 안 되는 자본을 투자하여 꽤 수입이 괜찮은 운송 회사의 사장이 된 셈이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을 얻게 되었고 운송 주문은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폭주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당연히 수입도 봉급 받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많아지게 되었다. 한국에 있는 옥희에게도 한달에 750불씩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까지도 나는 똑같은 아파트에서 그 인도의 왕족 혈통을 이어받은 알렉스 라쉬드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일단 먹고 사는 민생과 문제 가 해결이 되자 이 더럽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인도 왕족이 몹시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에게는 내가 잠그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에는 나만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 더구나 이 인도 왕족은 왕실에서 송금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문제 가 있으므로 인해서 아파트 세를 3개월치나 밀리고 있었다. 당연히 나는 내가 대납해서 낸 그의 뒷의 아파트 세를 달라고 거의 매일 싸움질을 해댔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퇴근하여 무심코 아파트 문을 여니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을 앞세우고 기웃해 보았다. 인도 왕족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수음을 하고 있는데 그 앞 식탁 위에는 나의 옥희가 보내 준 사진첩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 사진첩 속에는 나만 보라고 옥희가 찍어서 보낸 수영복 차림의 사진도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이 인도 왕족은 그 때 마침 절정의 꽤 감 속으로 돌입하던 순간이었던지 나를 보고 놀라는 얼굴을 하면

서도 성기를 붙잡고 맹렬히 흔들던 손을 멈추지 못했다. 그는 손으로 성기를 붙잡은 채 혼비백산해서 뛰어 그의 침실로 들어가 쾅하고 문을 닫고는 안으로 잠구어 버렸다. 나는 잠긴 문을 사납게 두들기며 영어와 한국말을 다 섞어 가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육지거리를 모두 해댔다.

“미안해, 선우. 미안해. 화내지 말아.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 아이엠 쏘이. 쏘이.”

녀석이 문 안에서 애원하듯 짹싹 빌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흥분이 좀 가라앉자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문을 열고 나온 인도 왕족과 나는 마주 보며 앉았다. 옥희의 수영복 사진을 보면서 수음을 할 수 있는 권리란 나에게밖에 없는데 이 짜식이 성역을 침범했다는 것이 몹시 나를 분노하게 했고 불결함을 느끼게 했다.

“미안해. 절대 나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갈게. 어차피 여기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 나는 뉴욕으로 가겠어. 뉴욕에 가면 일자리가 있을지도 몰라. 밀린 아파트 세는 송금이 오는 대로 곧 부치겠어. 미안해. 미안해.”

이야기하면서도 인도 왕족은 내가 혹시 완력을 쓰지 않을까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아파트 세 살 개월치를 떼이긴 했지만 인도 왕족을 내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십 불을 자불하고 아파트 문의 열쇠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혹시 이 녀석이 또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옥희의 수영복 사진을 보면서 흔들어 대면 큰일 아닌가 말이다.

이러는 사이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비즈니스는 계속 더욱

탄탄해지고 있었고 더구나 희망적인 것은 옥희의 비자 받을 날짜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테드 존스가 사전에 전화도 없이 불쑥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몹시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선우, 큰일났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메이 플라워 가맹점 본부가 도산했어. 미수금이 한 십만 불 되는데 하나도 못 받게 됐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테드 존스 회사도 도산해 버리고 말았다. 십만 불씩이나 미수금을 잘려 버리고는 작은 업체가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이다. 매달 할부금을 내고 있던 화물 트럭, 휘크 리프트 등 각종 장비는 응자 회사에서 회수해 가버리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은 채 게이트에 자물통을 채워 놓고 아무도 열看見하지 않게 되었다. 다행히도 우직스럽고 일을 잘하는 제임스 영과 대개의 직원들은 모두 다른 회사로 수월하게 자리를 옮겨 가게 되었다. 유독스레 뜰마니 해적 디에고 위니제로만 안 팔려 나가서 무직자가 되었고 짜식은 체면 불구하고 내 사무실에 나타나서 기웃기웃 둘러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선우, 혹시 너, 일자리 하나 줄 수 없니? 했다. 나는 어처구니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만 했다. 뜰마니 해적은 눈치를 보다가 매 맞은 강아지처럼 비실비실 내 사무실을 나갔다.

그나저나 문제는 내 일을 해 주던 하청업체가 문을 닫아 버렸으니 당장부터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대타로 급하게 다른 회사와 용역 계약을 해서 발등의 불을 꼈다. 그러고는 이번 기회

에 큰맘먹고 창고를 만들고 트럭도 사서 모든 일을 직접 내가 하기로 결심하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영이 와서 도와 준다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기회를 보기로 했다. 그 친구는 봉급이 높아서 내 작은 능력으로는 벅찰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일인데 딴 회사에 막 자리를 옮기고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혹시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끌어들여서 위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 약 6개월 동안을 나는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불철주야로 미친 것처럼 일했다.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나는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옥희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위로했다. 내가 미국에 첫발을 디뎠을 때 고생했던 것은 나 하나로 죽하다. 나는 옥희가 미국에 왔을 때 똑같은 고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옥희가 만족할 만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미친 것처럼 몰두해서 일했다. 작지만 창고도 얻어서 이사했다. 처음으로 구입한 중고 트럭 두 대가 들어오던 날은 새로 생긴 사무실 직원 한 명과 운전기사 두 명과 함께 환호성을 질러 댔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회사라는 정평을 받으며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점심 먹을 시간도 아껴야 할 만큼 바쁘게 돌아갔다. 구입한 두 대의 트럭은 정비할 시간마저 없을 만큼 논스톱으로 운행되었다. 너무 빠른 성장은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나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트럭을 두 대 더 주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이 바쁘게 돌아가고 시간외 근무 수당도 상당히 지급되니까 직원들도 생기 있게 일하고 사기가 충천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에서 막바로 거래선 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하고 열 시쯤 출근을 했는데 내 책상 앞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대한 흑인의 뒷모습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제임스!”

제임스 영도 사람 좋아 보이는 그 얼굴에 큰 미소를 띠우고 돌아보았다.

“선우, 대단하구나. 회사가 많이 커졌어. 나는 네가 잘 해 낼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 제임스. 나는 열심히 뛰고 있어. 다행히도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는 셈이야. 너는 어떻게 지냈니?”

“나는 지금 직장이 필요해. 나를 고용해 줄 수 있겠어?”

“제임스, 물론이야. 제임스가 나하고 일해 줄 수 있다면 고마워 해야 할 사람은 나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일하던 직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

“짜식, 나쁜 놈이야. 일도 바쁘게 잘되는데 지난 두 달 동안 봉급을 받지 못했어. 돈이 없다는 거야.”

마침 더 주문한 두 대의 트럭이 나오면 사람을 그만큼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아주 잘된 일이었다. 더구나 제임스 영 같으면 회사를 통째로 밟겨 놓아도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건 틀림없이 횡재가 아닐 수 없었다.

“선우 씨, 나 비자 나왔어요!”

곧하게 자다 말고 받은 전화통에 대고 옥희가 고함지르다시피 말했다. 나는 잠시 잠을 떨궈 버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다가 그 말의 의미를 찾아 내곤 벌떡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

“그게 진짜야? 근데 왜 인터뷰 날짜가 정해졌을 때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지?”

“혹시 떨어질까 봐 숨기고 있었어요. 창피하니까.”

이 속 좁은 여자라는 동물들은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이 생사를 가르는 일에 창피할까 봐 안 알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부스스한 눈으로 출근하기가 무섭게 나는 제임스 영부터 찾았다.

“제임스, 옥희가 입국 비자가 나왔어. 나는 한국에 간다. 옥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국에 당장 간다. 제임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회사는 네가 책임지고 잘 돌아가게 해 줘. 알았지?”

순박한 제임스 영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연방 병실병실 웃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더니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말이지? 축 하해. 이쪽 일은 염려 말고 잘 다녀와.”

설레는 가슴으로 나는 4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부산한 입국 수속대에서 절차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나는 꿈꾸는 것처럼 명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느 것 하나도 현실인 것 같지가 않았다.

4년 만에 보는 김포 공항은 몹시 낯설은 느낌이었다. 와글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도,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택시의 행렬도, 또 가로수도 모두가 나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거기에, 아, 무리진 사람들 속에 가늘고 큰 키의 옥희는 하얀 얼굴로 뭔가 다소 두려운 듯 멈칫거리며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두말 없이 달려들어 남이 보든 말든 상관 않고 옥희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았다. 그제서야 옥희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낸 듯 흑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4년 만에 안아 보는 옥희의 몸은 내 기억에 남아 있던 것보다는 다소 여원 것 같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정겨운 체취가 있었다. 옥희는 일부러 친구들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다고 했다. 잘 했어. 잘했어. 막바로 택시를 타지 않고 나는 일부러 옥희와 걸어서 공항을 빠져 나오기 시작했다. 만남의 흥분이 가시면서 옥희는 드디어 쫑알대며 그 동안의 생긴 일들을 수다떨기 시작했다. 일단 옥희의 수다가 시작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어떤 수다든 다 들어주 기로 작정하고 귀를 기울였다.

한참 각종 소식을 전하다가 옥희는 말했다.

“참, 선우 씨가 송금해 준 돈 말이에요. 선우 씨 재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서 그 돈은 내가 쓸 수가 없었어요. 꼭 필요할 때만 생활비를 조금씩 빼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정기적금에 넣어 두었거든요. 여기 통장이…….”

그 통장에는 놀랍게도 이천칠백만 원의 돈이 들어 있었다. 나는 월각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황급히 외면해 버렸다. 이렇게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모아 두어야 했다는 것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무능력하게 옥희를 고생시켰었는가에 대한 확고부동한 증거인 것이다.

“옥희, 여기하고 달라서 미국에서는 난 괜찮아. 이 정도의 돈은

다 써 버렸어도 상관이 없었을 거야. 괜히 돈 아끼려고 고생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는 미국에서의 내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과장을 섞어 가며 떠벌였다. 나는 옥희에게 빼저린 고생과 가난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엄연하게 인식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히 해 둘 것이 있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별하는 일이 없겠다고 말이다. 줄에 매달려서 꽁무니에 차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옥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다가 말없이 두 팔로 나의 목을 감고 끌어안으며 흐느껴 울었다. 김포 공항을 걸어서 빠져 나와 우리는 회곡동을 지나고 등촌동 언덕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때까지 내내 연애하는 십대 소년 소녀처럼 빈틈없이 부둥켜안고 있었다.

“선우 씨!”

“응?”

“그럼, 나,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드레스 하나 사 입어도 돼요?”

나는 갑자기 목이 메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며 응, 그럼, 물론이지 하며 내 감정을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선우 씨!”

“응?”

“미국에 가면 진짜로 이 돈이 필요없는 거예요?”

“물론이야. 다 써 버렸어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돈을 아낄 필요가 없었다니까.”

“그럼…….”

“……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 돈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군데?”

“이태규 선배님.”

아, 나는 나지막하게 신음하듯 소리 질렀다. 이태규 선배님, 물론이다.

“일 주일에 한번씩 틀림없이 전화도 해 주시고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항상 걱정을 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우신 선배님이세요. 선우 씨가 틀림없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댔어요. 그리고 그건 신의 계시와 비슷한 그런 예언이라고 했어요.”

“맞아, 이태규 선배님. 내가 한국에서의 힘든 생활을 견디다 못 해 빤텔터리로 미국으로 떠날 때에 공항까지 같이 나왔었지. 아직도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신가?”

“하나도 변하신 게 없어요. 가난하고, 노총각이고, 그러면서도 꿈은 엄청나게 크고 불의에 타협할 줄 모르고 하나도 변하신 게 없다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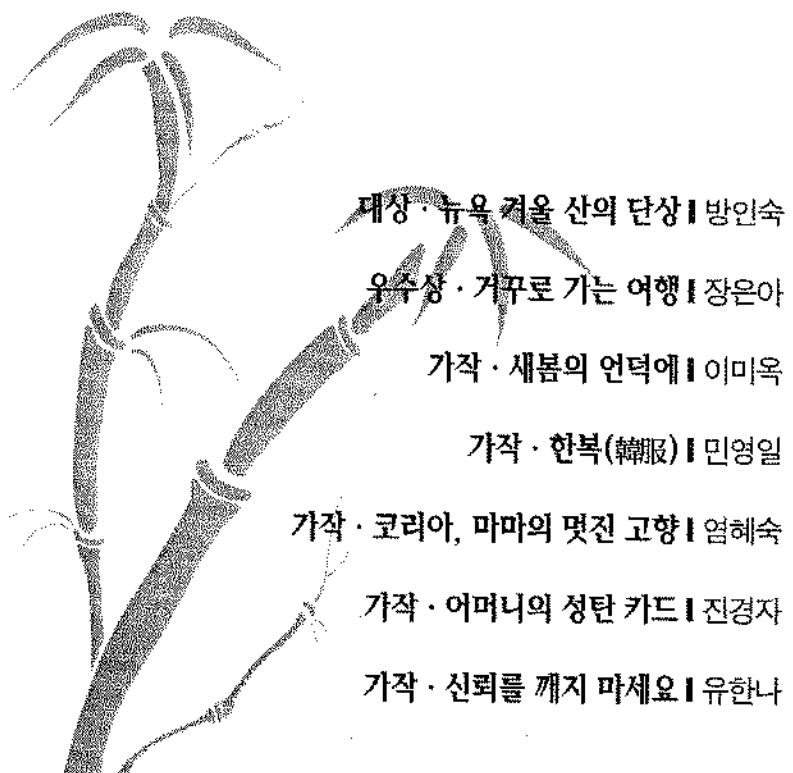
“좋은 생각이야. 옥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는 이태규 선배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나 할까? 무교동의 뚝배기 설렁탕을 좋아하셨었는데.”

옥희는 핸드백에서 동전을 꺼내들고 길가의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다. 눈물이 번진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건 행운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전이에요. 이태규 선배님 뿐만
이 아니고 우리처럼 어렵게 사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나는 사랑
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옥희의 가늘고 긴 두 손가락 사이에서 동전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 빛났다.

수필부문



대상 · 뉴욕 겨울 산의 단상 | 방인숙

우주상 · 거꾸로 가는 여행 | 장은아

가작 · 새봄의 언덕에 | 이미옥

가작 · 한복(韓服) | 민영일

가작 · 코리아, 마마의 멋진 고향 | 염혜숙

가작 · 어머니의 성탄 카드 | 진경자

가작 · 신뢰를 깨지 마세요 | 유한나



뉴욕 겨울 산의 단상

산은 사람에게 기를 주지만, 바다는 기를 뺏어 간다는 말을 들었다. 반추해 보니 바다를 보고 왔던 날은, 자석처럼 딸려온 끈적끈적한 습기와 노곤함으로 절여진 배추였다. 반면에 산행을 했던 날은, 다리는 땅길망정 머리는 명징해서 별이 초롱초롱 떠 있었다. 몸도 갓뽑은 초록빛 무청처럼 쟁쟁했다. 자연히 바다보다 산을 즐겨 찾게 됐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산들은 낮지는 않아도 험준한 산세가 아니다. 경사가 완만한 구릉들이 다정하게 어깨를 견고 있는, 순하고 살가운 자태다. 바위들도 뾰족한 성상이 아니라서 오르는데 부담이 없다. 생초보 등산가인 내겐 안성맞춤이다. 무엇보다 마음이 사로잡힌 건, 자연의 눈과 마음으로 마련된 자연친화적인 등산로였다.

처음엔 등산객이 적어서 무심히 방치해 둔 산인 줄로 알았다.

‘길을 잊기 딱 좋네’ 하면서 주위를 살피니까, 10m 정도의 간격으로 나무나 바위에다, 빨강이나 노랑, 파랑, 흰색으로 네모지게 페인트칠을 해 놓은 게 있다. 꼭 축구경기 때 주심이 꺼내드는 반칙카드 같다. ‘흰색에 빨강 점이 찍힌 건 일장기가 떠올라 기분이 영 별로다.’ 그렇게 활쏘기 과녁 같은 것이, 바로 길 안내 표시였다. 등산객은 그 날 선택한 코스의 색깔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다.

어떤 산에는 옆 산과 앞, 뒷산이 약수하고 있는 형상이라, 등산로를 여러 개씩 품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차로에 있는 나무나 바위는, 옐로 카드에다 레드 카드까지 받고는 올상이다.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서 두리번거릴 때, 어김없이 등댓불마냥 손짓하고 있는 직사각형 딱지가 친구처럼 반갑다. 너무 원색적이라 유치하고 튀어 보이지만, 사람에게 보물찾기를 시키는 숨겨진 재미를 감추고 있다. 같은 색의 카드를 두 개씩 그려 놓은 건 커브 길임을 암시해 준다.

그토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안내 표적을 부착해 놓고도, 정작 산행로는 왜 정비를 안 했을까? 의아심이 들었다. 그런데 계속 그 표적만 추적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수월히 걸어졌다. 그제서야 걷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예비해 둔 등산로라는 걸 눈치챘다. 콘크리트와 시멘트 한 줌, 철근 한 가닥 없다. 태고의 산 그대로 존재하듯이, 자잘한 바위와 돌, 고목의 부러진 가지와 흙이 자연스럽고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다. 발이 디뎌지기 편해서 발걸음의 흔적이 쌓이게끔. 그러하니까 자연이 스스로 빚어 놓은 길인 양 있는 듯 없는 듯, 그야말로 ‘길 없는 길’이라, 산이 한결 손때가 덜 타 보였다.

어떤 산엔 누워 있는 아름드리 고사목 가운데에다, 벤치 대용으로 네모반듯하게 흙을 파 놓기도 했다. 정상 가까이 대피소 하나만 있다. 산 아래 주변과 패킹 장에도 화장실만 있지, 식당이나 기념품점도 없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산들은 자연 생태계를 무시한 채, 인간을 우선시한 인공구조물로 몸살을 앓는다. 조악하게 설치된 철 계단, 쇠 난간과 콘크리트, 벤치, 케이블 카 등이 자연의 숨통을 조르는 듯해 눈에 거슬렸다.

중국의 5대 명산에 낀다는 황산과 4대 불교 성지 중의 하나라는 구화산에 가 봤더니, 그 빼어난 산들이 한국 산보다 훨씬 더 심했다. 산한테 외경심이 없는 오만한 간섭은 절대 금물인데, 차라리 없느니만도 못했다. 과유불급이었다. 정상에 못 가 보고 구석구석 안 봐도, 다리풀이 더 들고 허기가 져도, 자연 그대로 둘 일이었다. 산의 넉넉한 품에 동화되는 철경은, 거만한 이방인 같은 태도를 버리는 거다. 철저하게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지난 일요일 겨울산을 방문했다. 겨울 바다같이 고즈넉한 적막 강산인 줄 알았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산은 따스한 숨결들을 간직하고 있는, 살아 있는 생명체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선 각양각색의 인간들처럼 자태가 제가끔 다른 나목들이 있었다. 짐을 내려 놓으면 홀가분할 줄 알고 다 벗었겠지만, 너무 추워 보여 벌쓰는 것 같다. 내 마음까지 시려온다. 그래도 바람을 만난 까만 가지들이 수련수련 얘기를 쏟아 내자, 못 이기는 척 빙긋이 웃고는 있다.

아스라한 폭대기쯤에는, 무성한 잎들 속에 꼭꼭 숨어만 있던 새집들이, 하늘을 열고 open house 한다며 집 자랑을 하고 있다. 앙

중맞기 그지없다. 세상에서 가장 엉성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이상 아득하고 따뜻한 집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붕도 열어제친 이 겨울엔, 눈비를 어쩔꼬 싶어 연민이 솟는다. 그러하여도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며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줄 테니, 충분히 견딜 만도 하겠다. 나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피어난다. 산책을 나왔는지, 나이팅게일보다도 작은 새가 가지에 앉더니, 도라지꽃씨 같은 눈을 깜빡거리다가 포르르 선유했다.

햇살이 피해 간 잔설 위에다 사슴이 화석처럼 발자국 도장을 찍어 놨고, 솔개는 상형문자를 새겨 놓았다. 지금은 어디선가 숨어서들 나를 주시하고 있을 거였다.

그런데다가 며칠 전에 왔던 폭설과 그 동안 쏟아졌던 겨울 장대비로, 온산은 물, 물, 물이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어린 왕자’는 말했는데, 산이 아름다운 것도 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었다. 가을에 왔을 땐, 겨우손하고 얌전해서 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던 산골짜기였다. 지금은 한겨울인데도, 땅의 수문이라도 열린 듯한 엄청난 수량과 급류로 인해, 곳곳에 작은 폭포와 소가 만들어졌다. 계곡을 따라 걷는데 물의 합창 소리가 어찌나 산을 흔드는지, 아찔해서 오싹할 지경이었다. 고국에서 친숙했던, 다소곳하고 아기자기한 새색시 계곡이 아니라 이질감이 들었다. 마리린 몬로가 주연하고 불렀던 ‘돌아오지 않는 강’의 격류가 떠오르면서 주제가가 흥얼거려졌다.

잔설이 계속 녹고 있는 데다 어제는 온종일 비까지 왔었다. 거기다 빗물에 질린 낙엽들까지 물을 도로 뱉어 내는 바람에, 길 없는 길도 푹 젖었다. 산길을 에우르듯이 생겨난 작은 골, 들마다 물

이 포화 상태라 징검들 신세를 져야 했다. 어떤 징검들은 거북이 처럼 물 속으로 엎드린 바람에 밭이 젓기도 했다.

죽어 있는 줄로만 여겼던 겨울산은, 그렇게 생생하고 풍성하게 살아 있었다.

지난번 가을 산행 때는, 너무나 화려해서 슬퍼 보이기까지 하던 단풍잎들이 낙엽비가 되어 날렸었다. 도토리들도 결실의 축제가 한창이었었다. 그런데 어느 새, 은빛 분칠을 하고 토토톤 떨어지던 연연듯빛의 도토리들이, 짙은 갈색의 무생물로 변신해 있다. 그 친란하던 오색의 단풍잎들도, 모두가 똑같은 흙색으로 퇴색되어 침담하게 죽어 있다. 거의가 다 의사 상태라 측은지심이 더 든다. 그렇게 무표정한 퇴적물로 쌓여 있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인생길이랑 똑같다. 각자가 걸어왔던 삶의 빛깔과 양태는 달랐어도, 종착역에 이르면 저 낙엽들모양 모두 맑은꼴이 되어, 속절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마음이 착잡해져서 무연하게 나무에 눈길이 갔다. 생의 미련 때문에 마음의 정리가 아직도 안 끝났는지, 가랑잎 몇 개가 새가 되어 아동바둥 매달려 있다. 당장이라도 한 줄기 바람결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걸, 아는지 모르는지…….

죽음의 선고를 받은 인간의 비통함이 연상되어, 마음이 저려온다. 생자 필멸하는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혀망한 삶이 겹쳐진다. 생과 사(死)가 저리도 찰나적인데 싶다.

최정자 시인의 시 ‘가랑잎’이 떠올라 가만히 낭송해 본다.

“꽃을 위해 태어났다고 하면 / 안 되지요 / 열매를 위해 살았다

고 하면 / 안 되지요 / 생명을 위해서나 / 죽음을 위해서나 / 치열하게 매달렸다가 / 냉혈하게 놓았을 뿐이지요”

산자락의 양달에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뒤엔 인수봉같이 생긴 큰 바위가 바람막이가 돼 준다고 병풍처럼 옆으로 누워 있다. 오른 편에 준수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딱 영화 ‘모정’의 그 언덕의 그 정감 있는 모양새다. 나이테가 늘수록 의젓해지고 기품이 풍기듯이, 너도 ‘헛나이’만 먹지 말고 나이 값을 하라고 일깨워 준다.

어디선지 낯설고 특이한 냄새가, 솔바람에 실려와 자꾸만 코끝을 감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뒤에, 반지르르 윤기가 나는 초콜릿 빛깔의 사슴 뚫이 소담스럽게 쌓여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비타민인 줄 알겠다. 옆엔 까만 콩자반 같은 새끼 사슴 뚫이 소복하다. 사슴 가족이 해바라기 하고 노니는 놀이터인가 보다. 영물인 사슴들은 기가 충만한 곳만 찾아 머문다고 한다. 제대로 명당에다 자리를 잡았다 싶어, 더럽다는 느낌은커녕 마냥 흐뭇하기만 하다.

사슴 뚫을 코앞에다 모셔 놓은 채 명상을 했다. 떡국을 끓여 먹고 녹차도 마셨다. 기이하게도 하나도 역하지 않다. 오히려 이제 껏 먹어 본 떡국 중에서 제일 맛있고 녹차는 더욱 향긋했다. 만약 인가 옆의 사슴 목장이나 동물원에 있는 사슴 뚫이었다면, 충분히 비위가 상하고도 남을 냄새인데 하는 순간, 문득 깨달아졌다.

아! 그렇구나! 산 속에선 사슴 뚫마저, 청정한 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무, 흙, 바위, 바람과 조화를 이뤄 자연과 완전 동화됐구나. 냄새마저도 달콤한 자연의 향기에 녹아들었고 그럼 이 순간에 내 탁한 냄새도 사슴 뚫처럼 자연 속으로 융화될 수 있

을까? 언감생심이다. 속진들이 쌓여 추하고 추한 내가, 어떻게 사슴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겠는가? 잠시나마 깨끗이 열린 눈과 마음으로, 자연의 오묘한 섭리와 신성함을 엿보고 깨우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일이다.

‘루소’가 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겠는가? 인간이 자연과 일치될 때만, 지고지순하고 맑아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가급적 자연의 품에 자주 안겨서 때묻은 몸과 맘을 자꾸자꾸 닦아내다 보면, 좀 순화될까? 그렇게 해도 욕심 많은 속물인 나는, 안 될 것을 안다.

하산길은 다른 색깔의 카드를 잡았다. 우뚝하게 패여 있는 산마루마다, 나무가 있는 섬까지 갖춘 미니 호수로 변했다. 낮은 산골들마다 응봉이를 품고 있다. 작은 물 용당이들은 떠 있거나 잠수해 있는 낙엽들로 꽉 차 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순하게, 눈에 투영되는 대로 그윽하게 물속을 응시했다. 명상할 때 가로막는 잡념처럼 굳이 부정하려고도 하지 말고, 시선을 어지럽히는 낙엽들까지 물의 한부분으로 느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 밑엔 딴 세상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고적하고 순일한 자태로 서 있는 새까만 나목들, 청아하고 투명한 깊고도 깊은 청자빛 하늘, 순연하고 순백한 백자빛의 구름들까지 존재해 있다. 어찌나 미적이고 정적이고 적요한지, 넋 놓고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래! 눈을 현혹하는 저 낙엽들에 연연하지 않아야, 그 밑에 숨어 있는 맑은 세계가 보인다.’ 그렇듯 가식과 탐욕, 물욕을 제거한 다음에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심연의 자의식까지 정직하게 들여

다볼 수 있을 것이다. 고백하지만 나는 이기와 타산으로만 뒤엉킨 속내를, 교묘하게 위장하고 감춰 왔다. 스스로에게마저도 합리적 이었다며 변명하고, 안도하면서 살아왔다. 인생을 가장무도회하는 것같이…….

아무리 자연 속에 쌓여서 좋은 기를 받고,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가 되어, 티없이 순전한 물 밑 세계를 구경했으면 뭐하나! 어차피 산을 내려가면, 다시금 분수처럼 분출되는 욕심 앞에서, 속수 무책일 것이다. 속물로 돌아가서는 시침 뚫 떼고 살 것이 뻔하다.

이 검고 교만한 마음과 아만, 명리만 쫓으려 하는 자세론, 다 소용없는 일이다. 소 귀에 경 읽기 아니겠는가.

부끄럽다. 무욕의 삶을 살지 못해서.

아! 어렵다. 정말! 참인간으로서 살아가기가…….



장은아

온상 / 미국

거꾸로 가는 여행

하얗게 성에가 앉은 겨울 유리창에 나의 따뜻한 둘째 손가락을
꼬옥 눌러서 딱 그 손가락의 온기만큼 녹아 난 유리창을 통해 들
여다보는 것과 같은, 창호 문에 침을 묻혀 포옥 뚫어 놓고 그 작
은 구멍을 통해 내다본 바깥 풍경과 같은, 둘러서 돌아보면 뒤란
으로 통하는 좁다란 뒷벽도 보일테고 원쪽으로 붙어 있던 넓은 문
을 가진 부엌도 보일 터인데 창호 구멍에서는 뒷마루와 빈 마당만
보이는 것과 같은. 내 어린 기억들은 그런 식이다. 더 높이도 아니
고 더 넓지도 아니고 꼭 내 눈높이 만큼, 꼭 내가 둘러보았던 그
넓이 만큼만 떠오르는 것, 더 아슴아슴 그리운 게 이런 기억이 아
닐까…….

연탄재의 추억

서울서 태어났지만 곧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발령지인 양평으로 이사와 그 곳에서 5살 정도까지 자라났다. 그 덕분에 짧지만 어느 정도 시골다운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행운을 맛볼 수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언덕배기 맨 꼭대기의 가정집에 부식 거리나 주전부리거리를 늘어 놓고 팔았던 구멍가게는 아니었지만 구멍가게의 역할을 하던 용기 오빠네 집이 있었고 그 언덕 양쪽으로 쭉 단층 아파트가 늘어서 있었고 우리집은 맨 아래 석 교장 할아버지 댁 아랫채였다. 석 교장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나는 게 없지만 마당에 있던 우물가에서 틀니를 닦아서는 호물호물한 입매로 싱긋이 웃으며 그 틀니를 내 눈앞에서 통째로 꿀꺽꿀꺽 삼켜 버리는 것으로 나를 놀라게 하던 안채 할머니의 생각은 어렵잖 하다. 내가 깜짝 놀라는 모습에 그 할머니는 더 웃었던 것 같다. 그 때의 내가 너무 어렸던 탓에 생생히 기억나질 않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꿈결같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동네이다. 노상 지나다녔을 성싶은 흙길도 그 양쪽에 펼쳐졌을 한가롭고 정감 있는 마을 풍경은 하나도 떠오르질 않고 길가 풀섶에 돌아나 있던 우산풀, 햇살이 비쳐 노오랗게 눈이 부시던 이름 모를 풀꽃들만 떠오른다. 노오란 풀꽃 줄기에서 잎을 따 내면 하얗게 진물이 나오던 것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하얀 액체를 매니큐어 처럼 손톱 끝에 바르고 놀았는데 요즘 여름이면 유행하는 French Nail을 나는 30년도 더 전에 이미 하고 다녔던 것이다. 녹이 슨 가시 철조망을 따라 걸었던 것이 설핏 떠오르는 걸 보면 그 길을 따라 원쪽으로 밭이 있었던 것도 같고, 어쩌다 고개를 쭉 빼어 들

면 머얼리 산자락 밑에 바라다보이던 꿈같이 짙은 남보랏빛으로
꽉 차 있던 그 꽃밭은 누군가 꽃을 재배하던 것인지? 아니면 내
상상력이 그려 낸 풍경인지…….

두 살 터울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내가 5살 되던 해에 그 곳
에서 막내 남동생도 태어나 어느 새 동생을 둘씩이나 둔 언니가
되고 보니 제법 말이 티가 났던지 나는 가끔 어른들의 심부름을
다녀오기도 했던 것 같다. 내가 늘 ‘진주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할
아버지 친구분 택엘 가끔 다녀오는 것과 같은 제법 먼 거리(?) 심
부름도 간혹 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네 증조 할아버지다’라고 나
를 놀리셨던 모양인데 난 늘 그 분을 ‘진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진주 할아버지는 우리 외할아버지의 친구분이기도 했고 동시에
석 교장 할아버지의 친구분이기도 했다. 어쩌다 다니려 오셨던 외
할아버지의 심부름이었던지 아니면 석 교장 할아버지의 심부름이
었던지 아무튼 나는 가끔 진주 할아버지를 모셔 오라는 심부름을
하곤 했다. 야트막한 산자락 앞으로 밭이 좀 있었던가 싶고 그 길
을 따라 걷다가 원쪽으로 살짝 모퉁이 돌아 내려가면 다리를 심하
게 절던 아줌마네 구멍가게가 오른편에 있었다. 그 곳을 지나고도
얼마쯤 더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 논길 밭길 사이로 들어가면 ‘진
주 할아버지’가 사시는 커다란 기와집이 있는 아랫마을을 만났다.
혹시 그 곳이 윗마을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꿈꾸는 내 기억으로는 거기가 분명 아랫마을이니까. 그 집
대청 앞에 서서 “진주 할아버지—” 하고 목청껏 부르면 진주 할
머니가 달려 나오든지 진주 할아버지가 달려 나오든지 나를 반겨
맞아 주시곤 했다. 그 무렵 나는 예뻐지는 일에 꽤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다. 하얗게 타 버리고 남은 연탄재를 볼 때마다 예사로 보이질 않았다. 그것이 혹시나 우리 엄마 화장대에 놓여 있던 분갑 속의 뾰오얗고 냄새 좋은 분가루의 원자재가 아닐까 싶었던 때문이다.

진주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좁다란 길은 중간에 웜푹 패어진 곳이 있었는데 겨울이면 사람들은 거기마다 연탄재를 내다 버렸다. 웜푹 패어진 길을 풀짝 뛰어넘을 때마다 나는 그 연탄재에 묘한 유혹을 느끼곤 했다. ‘아마 아니겠지. 연탄재로 분가루를 만들 수 있다면 왜 어른들이 연탄재를 곱게 부수어서 분가루로 쓰지 않겠는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하려고 하여도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어쩌면!’ 하는 마음이 또 냉큼 고개를 빼밀었다. ‘어쩌면 저 연탄재가 분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모를지도 몰라.’ ‘혹시 또 화장품 회사 아저씨들만 그 사실을 아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도 저도 아니라면 연탄재가 분가루의 원료가 맞긴 맞아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서 그냥 내다 버리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연탄재에게 정말로 얼굴을 하얗고 예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풀짝 뛰어넘으려다가 먼저 주위를 살펴서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뒤…… 길 아래로 버려져 있는 연탄재 중에 제일 하얗고 잘 타고 난 재를 골라 두 손으로 쑥쑥 문질러 댄 다음 나의 양뺨에 고르게 살살 펴 발랐다. 손바닥을 툭툭 털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길 위로 올라와서 풀짝 걸음으로 진주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 대청 마루 앞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큰 소리로 “진주 할아버지이—, 진주 할머니—”를 외쳐 불렀다. 그러

자 곧 원편으로 있던 방 안에서 할머니가 달려 나오시며 “아이구 우리 은아가 왔구나아— 어서 오너라, 이쁘기도 하지.” 하시는 게 아닌가.

“아! 역시 연탄재였어!” 그 때의 그 벽찬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진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그렇게 연탄재를 발랐던 것 같다. 그 후 도시로 이사를 나오고 새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연탄재는 어느 새 나도 모르는 새에 잊혀져 갔다.

딱 그 때의 내 나이만큼 먹은 내 딸 Angela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는 목장 모임(교회의 구역 모임 같은 모임)이 있는 날이면 물 묻혀서 머리를 새로 빗고 예쁜 드레스로 갖춰 입은 다음 뺨모자를 머리에 살짝 얹고 장난감 통을 뒤져 찾아 낸 핸드백을 어깨에 매고 허리를 반듯하게 편 자세로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들어서면 그런 모습으로 최대한 예쁘게 인사를 한다. 간혹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때도 있고 장식용으로 놓여 있는 조화를 한 송이 떼어다가 머리에 큼지막히 달고 서서 마치 북한의 유치원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한다. 제 나름대로 예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 해 멋을 부리는 것이다. “아유 Angela가 예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이라도 들으면 더욱 우쭐이다. 나는 그런 나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잊혀졌던 연탄재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아이는 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아직 내 딸 Angela는 알지 못한다. 이 다음에 나의 딸 Angela

가 지금의 내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떤 색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을 회상할까. 그저 그런 생각만으로도 내 입엔 배시시 미소가 열린다.

또 다른 세상

막내 남동생이 태어나고 만 다섯 살이 되던 무렵에 나는 새로 운 장난에 재미를 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벽지의 연속으로 늘어져 있는 무늬를 살피는 것이다. 밤새 조금이라도 변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가 잠이 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 되면 벽지의 연속 무늬들이 살아 움직여서 살금살금 조금씩 눈에 뜨이지 않을 만큼씩 자리를 옮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후에 몇 살 더 먹어 배우게 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서 술래가 알지 못하게 살짝살짝 아주 조금 씩 옮기는 걸음처럼. 한 번도 무늬가 변해진 것을 발견한 적은 없었다. 내가 확인할 때마다 모두 정확하게 무늬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변해진 모양이 너무나 교묘히 위장되어 있어서 찾을 수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쩌면 내가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재빨리 너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궁리를 해 낸 것은 거꾸로 내가 그 벽지의 연속 무늬들을 속여 보기로 한 것이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최 시침을 떼고 실눈을 뜨고 한번 살펴 보자는 것이었다.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도 나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음나음나 자는 시늉까지 해 가면서. 그러나 나는 아무도 모

르게 실눈을 뜨고 벽지를 살피고 있었다. 착시 현상이었을까,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또 복잡하게 연속으로 열을 지어 있는 무늬 중 한 녀석이 내가 자신을 살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조금씩 조금씩 쪼르르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때다! 싶어 눈을 크게 떠 보면 방금 전까지도 쪼르르 몸을 움직이던 그 녀석은 어느 새 멈추어 흔들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어 다른 무늬들과 나란히 서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식간에 본래의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가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여전히 벽지 무늬가 달라져 있는 것은 찾아 내지를 못했다.

한낮이 되어 밖에 나가 놀다가도 문득 빈 방 안에서 제 세상이다 싶게 돌아다닐 벽지 무늬가 떠오르면 후다닥 집으로 달려와 벌컥 느닷없이 방문을 열어 그 녀석들을 놀라게 했다. 나의 급습에 놀라서 허둥지둥 몸을 숨겼을 그 녀석, 가쁜 숨을 할딱거리며 친구들 사이에 위장을 한 채 끼어 서 있을 그 녀석, 그 녀석을 생각하며 요 녀석일까, 아니면 조 녀석일까 벽지의 무늬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 보기도 했었다. 그리면서 나 때문에 당황을 했을 그 녀석 생각에 쾌재의 웃음을 웃기도 했었다.

나의 그런 장난은 내가 다 큰 다음에도 가끔씩 계속 되었다. 방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섰다가 느닷없이 문을 할딱 열어 젖히면 미처 제자리로 도망치지 못한 폐잔병들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한 장난감들이나 사물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엔가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는 그들의 허를 찔러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방문이 아닌 창문 틈으로 방 안을 엿보다가 느닷없이 창문을 열어 젓히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방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사물들이 예상 밖의 창문 공격으로 인해 당황을 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길을 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창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다가 살그머니 문 틈으로 방 안의 동정을 살핀 다음 후다닥 창문을 열어 젓히며 동시에 창문으로 뛰어올라 창문을 뛰어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움직이는 사물들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후에 내가 낳은 나의 아이들과 함께 Toy Story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모두 살아 움직이면서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똑같이 생각이 있는 그 장난감들을 보면서 나는 깔깔 웃으며 그 때를 떠올렸다.

거듭되는 실패, 그러나 나는 여전히 도전한다

무엇이든지 될 듯 될 듯하면서 되질 않는 그것이 더 해 내고야 말겠다는 도전의식을 만들어 내는 것 같다. 도시로 이사 나오고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으니까 6살쯤 되었던 것 같다. 그 때 우리 고모네 집은 이문동에 있었다. 나는 고모네 집이 고문동이 아니고 이문동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고모네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대문보다 아래에 있는 마당으로 두어 계단 내려서게 되어 있었다. 어린 나에게는 그 계단이 한달음에 올라서기에는 조금 힘겨운 높이였다. 사촌 언니와 오빠가 모두 학교에 가고 나서 심심해진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도전의 목표를 정했

는데 그것은 바로 그 층계에서 뛰어내리기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첫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나 어느 날부터인가는 첫 번째 계단에서 하낫, 둘, 셋! 하고 풀짝 뛰어내리면 거뜬하게 성공을 하게 되었다. 기쁨도 잠시 나는 금세 다음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은 두 번째 계단에서도 거뜬하게 뛰어내려 보리라 하는 것이었다. 한 칸, 한 칸 비장한 마음으로 계단 꼭대기까지(꼭대기라고 해 봐야 두 칸 밖에 없는 계단이었지만) 올라서서 심호흡을 한 다음 헷! 하고 뛰어내렸는데 콩! 고꾸라져서 턱밑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버리고 말았다. 한동안은 턱밑의 아픔 때문에 멍이 가실 때까지 뛰어내리기 시도는 못했지만 오기가 난 나는 계단을 지나 칠 때마다 꼭 뛰어내려 보이고 말 것이라고 되뇌었다.

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 고모는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가끔 심심풀이 화투를 했었는데 늘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애가 어찌나 얌전하고 조용한지 화투를 몇 판이나 치고 있어도 앉혀 놓은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그냥 있다니까…….” 하는 것이었다. 고모 말대로 나는 앉혀 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어른들은 내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끝없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끝없이 무엇엔가 도전을 해 보려는 마음이 꿈틀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고모가 화투를 몇 판이나 치고 동전을 몇 번이나 잃었다 뺐다 하는 그 동안에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아름다운 공주님과 왕자님의 사랑 얘기를 완성하였고, 내일은 그 계단에서 꼭 성공적으로 뛰어내려

보리라 마음을 다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도 저도 싫증이 날 때 즈음에는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 꼬무라기를 주워서 손가락을 코바늘 삼아 뜨개질을 했었다. 그러니 고모가 화투를 몇 판이나 치고 있는 그 동안에도 나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앉혀 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그립같이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명이 가실 때 즈음에는 나는 다시 계단 뛰어내리기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할 때마다 여지없이 실패를 했고 그 덕분에 내 턱은 시퍼렇게 명이 들고 말았다. 동네 어른들은 내가 대문에서 들어오다가 어린아이의 다리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높이의 계단이라 내가 발을 헛딛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하셨다. 그러나 턱밑이 시퍼렇게 명이 들은 내가 다음에 꼭 성공하고 말리라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을 그 누가 알았으랴. 몇 번 그렇게 턱밑에 명이 들고 나면 엄마가 와서 나를 다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었다. 그러면 나는 다음 번 방문을 기약하며 이문동 고모네 집을 떠나 왔었다. 그 후에 두 번째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성공했었는지 아니면 결국 성공하지 못했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에 도전을 했었다는 것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두 번째 도전은 줄넘기였다. 그것은 내가 삼송리에서 초등학교 일 학년이 되고 나서의 일이다. 그 때에는 아직 총각이었던 우리 막내 외삼촌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삼촌은 손재주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뭐든지 똑딱똑딱 잘 만들어 냈었다. 한번은 내 여름방학 공작 숙제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우리집하고 똑같

이 생긴 집 모양 저금통을 합판으로 만들어 주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적도 있었다. 엄마랑 동생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낮잠에서 일찍 깨어나 혼자 무슨 놀이인가를 하다가 전력이 나서 새로운 놀잇감이 없을까 집안을 살피던 중에 삼촌이 쓰고 남은 전깃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전깃줄은 길이가 딱 내 양 팔을 벌려 놓은 그만큼이었다. 그 길이는 줄넘기 하기에는 좀 부족한 길이였다. 그러나 그렇게 때문에 나는 더 강렬하게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났을지도 모른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하낫, 둘, 셋! 하고 획 줄을 돌리며 뛰어넘었다. 그러나 내 발이 전깃줄에 걸려서 까당하고 마당에 고꾸라져 버렸다. 역시 줄이 너무 짧았던 것이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로 고꾸라질 뿐으로 매번 코만 까쳤던 것이다.

‘오늘은 실패야. 하지만 내일 또 해 볼 거야.’ 나는 그 전깃줄을 누가 버릴까 싶어 아무도 찾지 못할 구석에 잘 숨겨 둔 뒤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다.

‘줄을 돌릴 때 내 몸을 공처럼 동글려야 해. 그리고 동시에 발은 할 수 있는 한 엉덩이에 바짝 붙여대야 하지. 전깃줄이 짧으니 반대로 팔은 최대한 길게 늘이고…….’

그 전략에 따라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성공을 해 냈을 때 나는 그 전깃줄을 과감하게 버렸다. 그리고 그 성공의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다. 짧은 전깃줄로 줄넘기하기를 성공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누가 그 성공에 대해 인터뷰하자고 달려들은 일도 없다. 그저 내가 도전하고

싫어 도전했고 또 그것에 성공을 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작은 행복을 맛보는 것밖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나에게 새로운 도전 상대가 나타났다. 그것은 학교 운동장에 있는 철봉을 정육면체 도형을 여러 개 쌓아 놓은 모양으로 생긴 정글짐이라는 놀이기구였는데 면은 없고 철봉으로 만들어진 모서리만 있어서 우리가 그 위로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사이를 미로를 찾아 나가듯 사이사이 빠져 나갈 수도 있게 만들어진 놀이기구였다. 정글짐은 맨 밑에는 땅 위에 넓게 펼쳐져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 넓이는 좁아져서 제일 꼭대기에는 정육면체 딱 한 개만 있다. 내가 도전하려고 했던 것은 정글짐에서 뛰어내리기였다. 처음에는 그리 높지 않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한 칸, 한 칸 점점 그 높이를 더 해서 맨 나중에는 최고 정상에 우뚝 솟아 있는 꼭대기 칸에서 뛰어내려 보겠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수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나는 교문을 나서기 전에 꼭 한번 정글짐에서 목표한 높이에서 뛰어내렸다. 한 칸씩 그 높이를 더해 가면서 나는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맨 꼭대기의 그 마지막 한 칸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으랏차 뛰어내리면 착지할 때 내가 균형을 잃고 마는지 나의 몸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것은 오른쪽이거나 왼쪽의 발뒤꿈치로 가는 것이었다. 분명히 발 뒤꿈치는 땅에 대지를 않은 것 같은데 항상 발뒤꿈치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한동안 뒤꿈치가 붓고 아파서 운동화를 제대로 신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위험

한 장난을 한다고 꾸중을 들을 것이 분명하므로 나는 나의 그 도전을 비밀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 뒤품치가 아파도 아픈 티도 내지 못하고 다만 발뒤품치의 붓기가 가실 때까지는 운동화를 제대로 신을 수가 없으니 신발 뒤축을 꺾어 신고 다닐 수밖에……. 신발을 똑바로 신지 않는다고 가끔 야단은 맞았지만 그래도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거듭되는 실패만 맛보았을 뿐 성공을 하지 못했었다. 후에 나아가 들어 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난 후 역시 아이 엄마가 되어 있는 내 여동생과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 동생 또한 그 무렵 나와 똑같이 그 무모한 비밀 도전을 거듭했었고 또 나와 똑같이 그렇게 뒤품치가 아파서 고생을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만 깜짝 놀라고 기막혀서 한참을 함께 웃었다. 형제는 그렇게 닮는 것인가 보다.

요즈음 나의 도전 상대는 무엇인가? 안 통하는 영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동료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누려는 것인가? 무엇을 하든 나는 최선을 다 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내가 더 나아가 들어 지금을 돌아올 때 흐뭇한 미소로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듈다.



이미옥

가작 / 雜錄

새봄의 언덕에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혹독히 시리 기만 한 겨울 바람이 아니다. 그 길게만 느껴지던 한겨울도 떠나 가고 자연의 섭리대로 봄이 오는 것인가? 따뜻한 한 가닥 바람이 햇살과 같이 쏟아지면 이제 마음까지도 환하게 밝아진다. 봄과 함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음을 새삼스레 느껴 본다. 하늘이 내려 주는 축복은 따뜻한 햇살만으로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얼마나 호사스런 것이었던가? 그 사실을 톡하면 잊고 지내는 일상이 부끄럽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는 신은 분명 인간더러 잘 살아보라고 말없이 다독이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가진 이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도 다른 이들의 삶은 나의 사소한 일상도 거창한 날들도 모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글을 쓸 수 있는 건강도 젊음도

열정도 데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말없이 중얼거리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 배가 불러 온다.

지난 한해는 어땠는가? 이제 지난 1년은 다 저물어 갔지만 오늘이나마 그 시간들을 되새겨 보지 않는다면, 지금이나마 반성하는 여유를 갖지 않는다면 이번 한 해도 쉽게만 흘러가 버릴 것 같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는지, 또 얼마만큼이나 꿈에 충실했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겼으며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얼마나 외로움을 잘 견뎌 냈고 어려움에 몸을 사리지 않았으며 순간에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아픈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에게 다가섰으며 가족에겐 따뜻하게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아야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시간 앞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 거울을 보듯 반성하는 일, 언제부터 그렇게 비추는 모습에 게을러졌는지 이제 나의 거울은 거의 녹이 슬어서 잘 비춰지지도 않는다.

거울 같은 건 비춰 보지 않아도 어렵지 예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시간이 흘러서 성장하고 조금 변하고 그러면 다라고 생각했을까? 어른이라고 불리고 대접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되어서 그런 행세를 하면 정말로 성숙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을까? 비추지 않은 마음은 그리고 비추지 않은 나의 모든 행동과 언어와 생각들은 잡초처럼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데도 나는 충분한 자양분으로 쑥쑥 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변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침침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때 마음마저 보석처

롭 빛나고 아름답지 않다면 이 한 생 내가 남길 것은 과연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늘 외모나 말솜씨 등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깊은 곳에 우물처럼 고여 있는 마음의 깊이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마음의 우물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눈에 아른거린다. 하는 일없이 마음과 머리마저 텅텅 비워 두었던 더 많은 시간들, 유난히 그런 시간들이 많았음을 가슴 아프게 되새겨 본다.

정말로 허약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조금만 무리해도 톡하면 잔병치례를 하여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시간도, 자아연민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흘려 보낸 시간도 참으로 많았다. 우울한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흘려 보낸 시간과 계으름으로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 시간들. 세상에는 그토록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고 죽어 가는 이도 많다는데 나는 허구한 날 권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가끔씩 삶의 허무에 치를 떨었으니 건방지기 짜이 없는 노릇이다. 19년 겨우 살았으면서 한 생을 다 산 노인네가 된 듯 궁상을 떨고 앉아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들 때도 있었으니 내 짚음에 정말 미안한 일이다. 아프고 외로운 이들은 그렇게 많은데 혼자 다 힘든 척 지지리도 회의하고 방황했으니 진정 아픈 이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일에도 계을러서 따뜻하게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스쳐 지나 버린 많은 사람들,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 과거의 친구에게 조금의 시간적 여유도 내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나의 분망함은 또 어디서 그렇게 뺨뺀스럽게 온 것일까? 손을 잡았던 친구들도 멀어져 가고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조

차 심드렁한 이 썰렁한 심장은 누구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것이었는지. 먼저 다가서지 못하고 촌스럽게 서성대는 나의 수줍음마저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은가?

한 것도 없이 늘 분망하고 아름답지 못한 초조함으로 여유도 없었던 마음의 방을 이젠 새롭게 도배를 해야 될 것이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밝고 따뜻한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좀더 넓고 따뜻해서 다른 이도 들어 올 수 있는 널찍한 마음의 방, 늘 부지런히 닦고 손질해서 투명하고 알른알른한 방,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서 향기가 나는 행복한 방, 좋은 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활짝 열린 커다란 창도 달린 방이어야겠다. 어둠을 막을 수 있는 커튼도 있어야 하고 언제 들어칠지 모르는 폭우와 폭설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튼튼한 자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의 찌꺼기는 바로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근사한 굴뚝도 꼭 있는 방이어야겠다.

이제까지 수많은 시작을 꿈꾸어 왔고 실망과 절망이라는 누추한 감정들도 적지 않게 겪어 갔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봄 앞에서 나는 다시 꿈을 꾸고 희망을 바라보는 갓난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거쳐 간 시간에는 때문지 않은 순수한 어린애의 모습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의 앞에 나서야겠다.

이 봄이 끝나고 다시 겨울도 오겠지만 가을의 아름다운 황금빛을 보기 위해서 그 빛나는 결실들을 위해선 오늘의 짊음과 땀방울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한복(韓服)

얼마 전 잠시 귀국하게 되었을 때, 미국에 있는 친지 여인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전화로 한국에다 한벌을 맞추어 놓았는데 미국 올 때 좀 찾아다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에 가서, 급한 일부터 보고 나서, 예의 그 한복집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하필 내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인 15일이라야 된다고 했다. 이거 야단 났구나 싶어, 통사정 하다시피 간청을 해보았다.

“출발하는 날 여기저기 급한 인사도 해야 하고, 준비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어느 결에 그 곳에 다녀와서 짐은 언제 싸고…… 공항에도 좀 미리 나가야지요. 14일 밤에라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생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거쳐야 할 불가피한 공

정이 있어서요 오후 6시 반 비행기면 아침 일찍 찾아 가시면 되겠네요.”

“아니, 조금만 서두르시면, 하루쯤, 아니 한 10시간쯤 앞당길 수 있잖아요?”

“허, 허,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다면 서로 좋겠지만, 저의 집에서는……”

“알았습니다.”

울화통이 치밀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 나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금방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급한 사람에게는 좀 앞당겨서 해 줄 수도 있는 일이지, 원…… 흥! 공정이라고? 무슨 공산품(工產品)을 만드나? 얼마나 유명한 집인지 몰라도 이렇게도 고자세일 수 있는가? 더군다나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입을 옷이라면 찾지 말아 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남의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고…….

불엔 얼굴을 하고서, 15일 아침 일찍 한복집을 찾아 나섰다. 오래 전에는 일본식 적산 가옥들이 즐비하던 X동 뒷골목, 여기저기 그 옛날의 저택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새 크고 작은 빌딩들이 꽉 들어찬 가운데 딱 한집, 전형적인 서울식 □ 자 형 한옥이 있었다. 대문 위에는 쪽빛 테두리를 한 흰색 바탕의 나무 간판에 역시 쪽빛으로 ‘XX 한복집’이라고 써어 있었다. 그런데 순한 글로 된 이 간판의 필체가 결코 범상치 않아 보였다. ‘누군가 글 솜씨 하나는 뛰어나구만……’

열려 있는 대문을 들어서자, 아담한 정원 풍경에 나도 모르는

사이 매혹되고 말았다. 정면 안채 오른쪽 빈 공간으로 뒷풀이 보였는데, 언뜻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듯했다. 마당 한가운데는 작지만 오밀조밀한 연못이 있고, 연못 중앙엔 손바닥 만한 동산이 있는데 그 곳에는 오래 된 매화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그리고 사방 틀 계단에는 온통 각종 난 화분들로 가득했다. 사군자(四君子)! 지금이 가을이라면 국화도 있겠지! 누군지 모르지만 인품이 꽤 고매한가 보군!

난 향기에 취해 한참을 서 있었는데도, 넓은 대청마루에 가득한 일손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대청 계단을 올라서며, 혀기침을 몇 번 하자, 그제서야 젊은 아낙이,

“옷 맞추시려고요?”

하고 묻는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물어 본 모양이다.

“아니요, 저, 미국서 XX씨 부탁으로 옷 찾으러 왔습니다.”

“아, 네, 어서 올라오시죠.”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으니, 그녀는 이내 끓는 주전자를 들고 와서 차를 따른다. 그윽한 녹차 향기!

“몹시 언짢았던가 보죠?”

마주 앉은 그녀는 도시 내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데, 땀에는 차근차근 말을 이어 갔다.

“미국 XX씨가 주문한 옷감은……라고 하는 모시……. 쪽풀 틀 이기를 최소한 3번……, 풀 먹이고, 재우고, 다듬질하고, 마르고, 다시 뺏고……, 이렇게 3번을 반복해야 제대로 품이 나오지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일일이 손으로 박음질……. 수놓는 것도…… 손으로……. 금박 입히는 것도……. 금박 종이를……. 인

두로……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우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변명을 하려니 하고, 자례 짐작을 하고서 애써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시 종류인지, 모시처럼 이었는지, 또는 모시와 달리였는지 분명치 않았다. 또한 무엇인가 3번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도 알 길 없다. 다만, 우리 조상들이 개발, 발전시켜 온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 때였다. 안방 쪽에서, 보자기에 단정히 쌐 넓적한 상자를 고이 반혀 들고, 나이 지긋한 여인이 나왔다. 훈한 이마에 오똑한 콧날, 촉촉이 젖은 듯한 빛나는 눈망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기품 있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인가에 취한 듯, 그녀를 마냥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는 나보다 조금 위로 보였지만, 웬지 모르게 오래 전에 타계하신 어머님을 뵙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나이답지 않게, 다소곳이 목례를 하고선, 나의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으면서, 아마도 주문한 한복이 들어 있는 듯한 그 상자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수인사가 끝나고, 통상적인 간단한 대화 끝에,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한국 사람은 한복을 입어야 제격이지요. 우리 조상들께서 오랜 기간,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풍토와 문화에 맞게 개발하고 다듬어 온 옷이니까요.”

이렇듯 그녀의 한복 예찬론 시동이 걸리려는 듯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는 비행기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 다음에 제가 한복을 맞추고자 할 때는 꼭 이리로 오고 싶습

니다. 시간이 없어 이만 실례해야겠습니다. 시간 맞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서둘러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문을 나서면서 언뜻 뒤돌아보니 그녀는 마루 끝에 조용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자식을 배웅하며 아쉬워하듯이…….

시간 맞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그 집을 찾아갈 때는 한 바탕 퍼부어 주고라도 싶었던 내 마음이, 그 집을 나설 때는 180 도로 바뀌어 있었다. 더욱이, 그녀는 늦어서 미안하다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피했다든가 한 마디 변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에, 왜, 나의 불평불만이 봄눈 녹듯 사라진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어머님으로부터 느꼈던 기품을 그녀로부터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그 기품이란 것이, 내 핏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인품, 그 인품을 받쳐 주는 우아한 한복의 멋스러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다! 내가 보았던 어머님의 상은, 결코 나 개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땅의 선비들을 길러 주던,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한복에 깃들어 있는 기품, 그것은 이제는 거의 사라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랑스런 선비정신,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가 입고 다니는 두루마기는 일종의 간편복이요, 원래, 우리 선비의 정장은 도포 차림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누군가가 전통적 도포 차림을 하고 거리에 나선다든가, 대학 강단에 선다면, 사람들은 포복 절도할지 모른다. 왜 그럴까? 한국인이 서양

복장, 즉 양복을 입은 모습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한국인이 한국 복장 즉 한복, 특히 선비의 정장인 도포를 입고 있는 모습이 왜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일제 침략으로 단절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백여 년 전으로 무리하게 연결시키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정신적·물질적 면에서, 우리의 끊어진 맥을 다시 잇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단절된 맥을 이어 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한복에 깃들어 있는, 선비정신이 아닌가 싶다.

‘제작자 들어간 직업을 가진 자는 모두가 도둑이다.’라는 말이 없어져야 할 것이며, 감옥에서 바지 저고리를 입는 한복 모독 행위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 석사, 박사에게, 우리 전통의 도포 차림을 하게 함으로써, 선비정신을 각성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한복을 입은, 당당하고 진정한 선비들의 모습이 빼어나게 보고 싶어진다.

미국에 돌아와서 부탁 받았던 여인에게 한복을 전해 준 지 얼마인가 지나서였다. 그녀로부터 어떤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쁜 일정 중에 틈을 내어 참석하게 되었다. 그 때, 그녀가 예의 그 한복을 입고 나온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 마디로 품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는 것 같았다. 물론, 근본적으로 인품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인품을 받쳐 주는 것이 몸에 지닌 부착물, 즉 옷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

수인사가 끝나고 그녀가 입은 한복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자세하는 모르지만, 모시 종류가 아닌가 싶었다. 모시라면 나 자신도 흰 바지적삼을 입은 적이 있는데, 내가 입던 모시옷은 뻣뻣해서, 여기저기 불풀 없이 불룩불룩 튀어 나오고 구겨지는 것이 예사였는데, 이 여인의 옷은 결코 그렇지 않고, 가지런한 것이 한껏 더 품위가 있어 보였다. 옷감 종류가 달라서였을까? 아니면 3번 했다면 그 과정 때문이었을까? 쪽빛 겉감에 흰색 안감을 받쳐 은은히 풍겨 나오는, 멋드러진 치마 색감, 연한 쪽빛을 떨 듯 말 듯한 고상한 흰 저고리, 치마 색상과 어울린 끝동과 셀, 거기에 수놓은, 결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워 보이는 자수……,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다. 이에 비하여, 다른 여자 분들의 옷을 보면, 저고리 뒷끝이 너무 처져 있거나 불룩 튀어 나오기도 하고, 간혹 너무 짧아서 동여맨 흰색 끈이 보이기도 한다. 갑자 저고리에 미싱 자수를 마구 수놓은 것도 있고, 치마에도 어울리지 않게 너무 많은 수를 놓은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옷은 균계일학처럼 단연 돋보였다.

나는 이 여인의 한복 입은 단아하고 고상한 모습을 보고서, 이 다음 우리 큰아이 혼사 때는, 기필코 그 집에서 한복을 맞추리라고 마음먹게 되었다.

수년 후, 드디어 그 기회가 왔다. 나는 부득불 우겨서 그 한복 집을 찾아 나섰다. 고결한 선비님들을 길러 내면, 우리 모두의 어머님상을 보고자 마음 설레이면서.

그러나 오! 하느님!

한복집이 있던 그 자리엔 높다란 낯선 빌딩이 들어서 있고 한

복집은 온데 간데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아는 이가 없다.
가까운 세탁소에 가서 수소문해 보았다

“물루지유,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근데 그래가
지고 장사가 돼요? 시대에 맞게, 손님들 비위를 적당히 맞춰 가며,
돈벌이에 치중해야지! 그놈의 전통인가 뭔가가 밥 먹여 주나, 원!”



염혜숙

가작 / 드일

코리아, 마마의 멋진 고향

여행의 즐거움은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시작한다고 누가 말했던가?

그 동안 바쁘게 전개되었던 여행 준비 작업들…….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하고 즐거운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사서 챙기니까, 어느덧 나의 설레임과 함께 서너 개의 여행 가방이 가득 찼다.

나는 아들 슈테판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장거리 여행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외에는 힘들 것 같아서 올해 날씨가 선선하고 좋은 4월로 정해서 3주일 가량 나의 그리운 고향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다.

내가 오늘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여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

날 생각에 마냥 기쁘기만 하다.

예전에는 도르트문트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지만 비행기 연결편이 생겨 운행되는 게 여러 가지의 짐들이 많은 나에게는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리고 우리집에서 도르트문트 공항까지 15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두 시간 정도의 기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행 때는 집으로 돌아오는 밤중에 슈테판이 잠이 드는 바람에 기차 안에서 앉고 와야 했던 조금은 힘들었던 기억을 생각하면 세상이 나름대로 더 편리해지고 좋아졌다고 생각이 듈다.

우리를 실은 꼭 장난감처럼 자그마한 비행기가 덩치에 맞지 않는 커다란 엔진 소리를 내면서 프랑크푸르트를 향해 날아간다.

“마마,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했지?”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지?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지?”

라는 5살짜리 아들 물음에 얼떨결에 “글쎄?”라고 대답하고 하늘은 어디까지 높은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본다. 그리고 나 자신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희끄무레한 날에 비행기를 타고 한참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에 미소짓는 헛님과 푸른 창공을 만나게 되는데 내심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

내 비행기 옆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서 옆 자리에 발을 뻣고 잘 수 있으려나 하는 어젯밤의 야무진 꿈이 실현되었다.

예전 같으면 멋진 남자라도 우연히 동석하게 되어 긴 비행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라도 나누면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같은 열에 쪼로록 같이 앉지 않아서 각자가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일등석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룻밤만 푹 자고(?) 나면 꿈에 그리던 나의 고향이 눈에 보일 것이다.

비행기 조종사의 아저씨 배려로 슈테판은 나도 가 본 적이 없는 조종실도 가보고 스튜어디스 아가씨와 얘기도 나누고 옆 좌석에 앉은 여자아이와 노는 등 나보다도 더 바쁜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밤 12시쯤 되자 새근새근 깊은 잠이 들었다.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쿨쿨 잠이 들어서 내릴 때쯤 번쩍 하고 잠이 깨는 승객!

때로는 어른에게도 장시간의 비행이 힘들 때가 있는데 어린 승객에게 이것저것 배려를 해 주는 것과 지금 슈테판이 새근새근 잠을 잘 자는 게 나에게는 고맙기까지 하다.

한 가지 작은 바램이 있다면, 물론 비행기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한두 가지의 장난감 선물을 주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갖고 놀기에 알맞지 않아서 유아나 어린 승객들을 위해서 장시간의 비행이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 게임기구, 다양한 퍼즐과 어린이용 그림책과 잡지 그리고 그림 그리기 도구와 간단한 공작 재료 등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비행기가 가득 차지 않은 상태라면 어린이 옆 좌석을 빙 좌석 옆으로 지정해 주어서 새근새근 어린이들이 비행기 안에서 긴 잠을 잘 수 있다면 엄마의 입장으로써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리라.

비행기표가 어른보다 싸다고 해서 작은 승객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비행기 탈 날이 우리네보다도 더 많기에 유아와 어린이야말로 더 정중하게 모셔야 할 VIP 손님이 아닐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본다.

나를 사로잡는 여러 가지 생각과 기대로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하면서 뒤척이다가는 한참이나 지났을까?!

마침내 피곤이 담긴 빽빽자근한 어깨로 기지개를 켜고 눈비비고 일어나니까 비행기 창문 아래로 언뜻 고층 건물의 숲 사이로 서울, 서울이 보인다.

우리 세 친구의 일정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그 동안의 회포를 푸는 게 중요하지만 아울러 렌트카를 빌려서 내 고향 한국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의 친정집이 작은 덕분에 또 내 친구 미숙이가 ‘혜숙아, 한국에 있을 때 독일 돈을 팍팍 쓰고 가라. 우리 나라 외화 좀 벌게.’라는 말을 평계하고서 난생 처음 큰맘 먹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서울 I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사실은 내가 독일에서 주니어 스위트룸을 예약했는데 호텔데스크에서는 조금 객실료를 더 주고 프

레지던트 스위트 룸으로 제공을 하니 조금 옥신각신하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다. 정말이지 이렇게 운동장같이 넓은 방과 무엇보다도 한 호텔 방에 화장실이 침실 옆에 한 개, 거실 옆에 한 개 해서 화장실이 두 개 있는 호텔 방은 내 생전에 처음 봤고 웬 거실이 그렇게 넓은지 이 곳에서는 충분히 열 사람 정도는 이불 깔아 놓고 자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작은 파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간다.

우리 세 식구의 여행 일정은 렌트 카로 대략 서울을 출발해서 속초 설악 파크 호텔에서 두 번째로 여장을 풀고서 설악산 등지와 통일 전망대를 답사하고 동해안을 따라서 경주 현대호텔에서 1주 일간 머물다가 경부선을 따라서 내 고향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울 거리는 한국 사람도 복잡해서 운전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과연 서울에서 운전경험이 없는 신랑이 렌트 카를 사고없이 잘 운전을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조바심과 설레임으로 여행일정에 올랐다.

특히 설악산과 경주는 수학 여행지의 명소이다 보니까 여중·고생들과 남중·고생들을 만나게 된다. 그 동안의 수업시간에 배운 영어회화를 실습이라도 하려는 듯 봉고 발랄한 모습으로
“How are you?”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Germany?”
“Oh, Germany!”

라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학생들과 간단한 영어회화가 계속된다.

어느 여고생 같은 경우는 “언니, 이 독일 아저씨랑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내가 이 대답을 하려면 2박3일 걸리는데, 알고 싶으면 독일로 한번 놀러 오렴.”

말하면서 내 집 전화번호를 적어 주고서 제 갈 길로 걸음을 옮겼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슈테판이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는지 한편으로는 예뻐해 주니까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쁘기도 하다. 아들 머리털이 빠질 것 같아서 후후!

푸른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동해안을 따라가는 해안선 위를 달리는 것은 정말 멋지다. 작열하는 태양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는 금빛 모래밭이며 흰 파도 그리고 끼륵끼륵 갈매기떼들……. 무엇보다도 해변가를 따라 즐비하게 자리잡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횟집과 해물 매운탕집들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나라 특유의 명물 이리라.

예전보다도 해안선을 따라서 여기저기 크고 작은 건물들이 많이 생겨난 듯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던 전경이 아니랴!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물론 회포를 풀었지만 조금 지나서 경주 현대호텔에 도착하면 모처럼 어머니와 남동생과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서 함께 3일 정도를 보내기로 해서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다.

경주는 국제적인 관광 도시답게 깨끗하고 쾌적한 인상을 주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편견 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지난번 내장산 골짜기 입구의 조그만 음식점에 갔을 때는 “아이, 아가씨! 어쩌다가 미군하고 결혼하게 되었수우?” 하면서 음식점 주인 아줌마가 궁금해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편견을 갖고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옛 기억을 되새겨 보면 이 곳 도시 경주는 내 맘을 나름대로 편하게 해 주었다.

여행 중에는 3주일 동안의 여행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것 같았는데 내일 독일로 가는 비행기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바빠졌다.

우리는 올해 칠순이 되시는 어머니에게 멋진 선물이 될까 하고 또 더 늙으시면 비행기를 영영 못 타실까 하는 조바심에서 요번에는 가는 길에 모셔 가기로 했다.

내가 독일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이후로 멀리 있다는 이유로써 효도를 못해서 그로 인해 혼자만의 죄책감과 마음 고생이 조금 치유될 것 같고 아울러 나에게 위안감을 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께서 호텔로 오시고 오징어와 김 그리고 명란젓이랑 멸치 등이랑 슈테판이 익을 동화책과 장난감 등을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챙기니까 우리들의 여행가방은 도착했을 때보다도 한 개가 더 많아졌다.

“이거 트렁크 무게가 오버되지 말아야 되는데…….”라는 조바심으로 호텔 옆에 있는 공항 터미널로 우리의 여행 가방과 짐들을

먼저 보냈다.

텅 빈 호텔 방에는 여전히 나와 나의 가족의 체취와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꼭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고 남기고 간 물건이 어느 구석엔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구석구석의 자리한 물건들을 다시 한번 열고 바라보면서 나만의 작별을 고했다.

미스터 조가 랜트 카 다이너스티를 운전하여 우리는 그야말로 훌가분하게 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강과 우뚝 솟은 건물들과 아파트들을 바라보면서 공항으로 향한다.

우리가 공항 대기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는 게 지루했던지 슈테판이 졸래졸래 경찰관 아저씨에게로 가는 게 아닌가?

멀리서 지켜보니까 경찰관 아저씨가 슈테판이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이것저것 보여 주고 함께 놀아 주는 것이 보인다. 작은 남자 아이에게는 경찰관 아저씨가 강하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 호기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나 보다.

“이 세상에 저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경찰관 아저씨가 있다니, 젊은 총각 같은데…….”

나 자신도 감탄을 하면서 이윽고 비행기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마마, 아까 그 경찰관 아저씨는 권총은 없고 호루라기와 나무 방망이만 가지고 있던데?”라고 말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하는 말이 나를 너무도 기쁘고 흐뭇하게 했다.

“Mama, Du hast eine tolle Heimat!!(마마, 마마는 멋진 고향을 가졌지.)

“응, 그래. 마마는 코리아라는 아주 멋진 고향을 가졌지. 마마에게는 가 봐도 또 가고 싶은 나라!”

집에서 이번 3주간의 여행을 계획했을 땐 매우 긴 것 같았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 시계는 배터리를 넣어야 가는데 시간은 저절로 잘도 간다.

그리고 돈도 계획한 것보다도 많이 썼지만 그래도 여행기간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만의 기쁨을 만끽했으니 대 만족이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행 일정이 즐겁고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서울은 한국 사람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고 하는데 나의 신랑이 용감하게 접촉 사고없이 그 복잡한 서울 거리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잘해 준 점과 우리 나라의 가는 명소마다 한국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보여 준 미소와 많은 관심…….

그리고 우리 나라 특유의 따뜻한 인간미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실은 비행기는 구름 위의 푸른 창공을 향해 쏜살같이 줄달음치고 나는 모처럼만의 고국 여행에서 오는 여전히 설레고 기쁜 마음과 함께 또한 아쉬운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구름 위에서 꿈의 나래를 펼쳐 본다.



어머니의 성탄 카드

무심히 드리워진 커튼 틈 사이로 상현달의 여린 빛이 서가 옆에 걸린 작은 사진들을 훑고 지나가는 것에 내 시선이 멈추었다.

어둠이 겹겹이 쌓인 창가에 성경책이 한 권 펼쳐져 있고 책 위로 침엽수의 초록잎이 진한 송진 냄새를 머금고 놓여 있는 그 주위로 세 개의 빨간 초에서는 노란 불꽃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다. 붉은색 바탕의 카드 맨 위에는 God is always with you(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영통한 영문 글자가 금색으로 빛나는 그림 카드가 나를 반긴다. 고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보내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인 성탄 카드의 얼굴이다.

우리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그 해 12월, 어머니가 보내 주신 성탄 카드였다. 문방구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흔한 카드였지만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던 것은 카드 속

에 꼼꼼히 눌러 쓴 어머니의 필적이었다. 처음으로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필적에 너무 감동하여 한동안 눈을 떴고 말았다.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간호사로 취업 떠나는 날까지 모든 서류는 아버지가 처리하셨고 지금까지 보내 주신 그 많은 편지도 아버지께서 써서 보내 주셨다. 내가 집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가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한번도 본 일이 없었다. 어머니가 글씨를 쓸 줄 아는지, 그것조차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기억이 희미하지만 먼 옛날 함박눈이 내리던 어느 해 겨울 밤, 문중 일로 아버지가 며칠간 집을 떠나 있자 그 긴 겨울밤을 혼자 지내시기가 매우 허전했던지 아버지가 평소 즐겨 보던 신소설 장한몽을 꺼내 들고 낭랑한 목소리로 읽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만큼 어머니가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있다는 것만 생각했지 한글로 의사 표시를 할만큼 편지를 쓸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가끔 국제전화를 걸어 메아리쳐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했다. 어머니는 늘 ‘애야, 전화비 많이 나오니 이만 하자.’ 하시며 내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으셨다. 이렇듯 잠시도 잊은 적이 없는 어머니가 손수 성탄 카드를 골라 이국 땅에 살고 있는 딸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낸 것이다. 나는 이 카드를 애지중지 사진틀에 넣어 내가 늘 바라볼 수 있는 서가 옆 벽에 걸어 놓았다.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가 보내 주신 이 성탄 카드를 꺼내놓고 다시 읽으며 어머니의 정을 각별히 그리워하곤 했다.

—사랑하는 딸에게—

금년도다가고새해가도라오는구나

올해에지나간모든시련다떨쳐버리고얼마안나문새해를마지하여첫째
너의건강과조흔일만잇기를간절이바랄뿐이다세월이빨으기도하지.

……중략……

할말은태산도모자라지만잇지다쓸수가업구나이글을생전에처음써지
윤이와네아버지들이보고한참세시서우셨다너도우서다오

1988102월 엄마가

옛날 한글을 언문이라 일컬었던 그 시대의 문장을 보는 듯 어머니의 성탄 카드는 받침이나 어휘는 물론 띄어 쓰기도 없는 깨알 같은 글씨가 촘촘히 모두 한 자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새해라고 쓰실 때 ㅅ과 ㅎ 밑에다 점을 꼭 찍으셨다. 카드를 쓰시다 보니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좁은 지면 양쪽 위 아래로 1,2,3,4 번호를 붙여가며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이어 쓰셨다. 어머니의 성탄 카드를 어루만지며 읽고 있노라면 가물거리는 촛불 너머로 검버섯 편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린다.

흔히 세월에 속고 산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뜻을 이해 못 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참뜻을 알 것 같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별 다를 바 없이 지나가는 나날이지만 달력의 마지막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웬지 이상하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허탈감에 무력해지고 무엇에 쫓기듯이 공연히 허둥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나 정초에 세웠던 꿈과 계획들이 미진한 모습으로 남은 채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리라. 길가에 오가는 많은 인파들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12월에 들어서면 여느 때보다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저들도 나와 비슷한 심정들일까?

고향집 강경에는 90을 바라보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 부모님을 뵈려 고국에 갈 때마다 나는 한 가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간다. 승용차를 렌트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방방곡곡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 드리고 온천장에도 모시고 가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오리라. 자동차 면허증도 국제면허증으로 바꾸고 만반 준비를 하고 귀국한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막상 한국에 가면 이 사정 저 이유로 여태까지 미루다가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세월만 훌쩍 가 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인천 신공항에 내리고 보면 마음이 바뀐다. 한 치의 공간도 없으라 만큼 빼곡하니 줄을 이은 자동차의 행렬 속에 그만 기가 질리고 만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 관광버스를 이용한 여행 계획을 동생한테 부탁하여 여행사를 알아보라 했더니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그마저 실행을 못했다. 어머니 근력으로는 장시간 버스를 탈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여행을 포기하고 인근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즐겨하시는 음식을 사 드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부모님이 한 나이라도 젊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을 때에는 내 형편이 낙넉지 못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해로 미뤘고 다시 그 소망을 이루어 보려고 했으나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력은 날로 쇠약해져 결국은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언니와 통화하고 난 후 지난 달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만사 젖혀놓고 휴가를 받아 귀국했다. 대문 안에 들어서면 언제나 훈훈하게 맴돌던 집안 공기가 지난 해와 달랐다.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거리는 초록색 철제 대문을 밀고 마당에 들어서자 음습한 냉기가 내려 깔린 듯 우선 답답했다. 귀국하기 앞서 언니한테 들어서 짐작은 했으나 이토록 심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마루에 깎아 놓은 듯 명하니 앉아 초점 잃은 눈으로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병원에서 보아 오던 치매 노인의 아픔이 현실로 다가왔다.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임자, 자윤 애미가 왔구만, 알아보겠어?”

한 해 사이에 등이 더 휘어진 아버지가 푸석푸석한 어머니의 쪽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니, 독일에 사는 둘째 딸 경자가 왔어요.”

서울에서부터 동행한 언니가 쪼글쪼글한 어머니 손을 꼬옥 감싸며 말했다.

“뭐시라구 경자가 죽었다구? 아이구 불쌍도 혀라, 지 새끼들은 어찌라구 먼저 갔다구. 선상님 안 그래유, 쪼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비죽비죽 금방 울 듯한 얼굴로 말했다.

가슴이 막혀 왔다. 어머니의 의식은 지금 어디쯤을 헤매고 계시는 것일까?

“어머니! 저, 경자예요 어머니!”

검버섯이 군데군데 피어오른 어머니 얼굴에 뺨을 비비며 홀려

내린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와 나의 볼을 타고 내려 적셔도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자식을 만나도 희로애락을 짊어버린 어머니를 나는 말없이 끌어안았다.

“밥 줘, 나 배고파! 밥이나 줘.”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나를 불잡고 보챘다.

“상 물린 지가 반 시간도 안 됐는데 또 밥 타령이여?” 아버지의 탄식이 무겁게 이어졌다. 인자하고 따뜻하던 표정은 간 곳이 없고 어머니는 먹을 것밖에 모르는 철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육신은 여위고 얼굴에 검버섯이 무성해도 분명 어머니의 그 모습이며 말 소리 또한 명경같이 맑은 목소리 그대로지만 정신을 놓아 버린 어머니는 황량한 빈 들판에 서 있는 혀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치매)에 걸린 환자들을 가끔 보아왔다. 보호자가 없는 노인 환자나 보호자가 있다 해도 치매에 걸린 노인을 대부분의 이 곳 사람들은 매정하게 양로원으로 보낸다. 내가 일하고 있는 부인과 병동에도 치매에 걸린 부인병 노인 환자가 어쩌다 입원한다. 어느 환자는 한밤중에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화사한 옷차림으로 입원실 문을 나서려는 것을 만류하느라 진땀을 흘린 일이 있었다. 남의 일처럼 보아왔던 것이 내 어머니가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다니, 나는 자식도 몰라보는 어머니를 앞에 놓고 가슴이 미어졌다. 한 번만이라도 본정신으로 돌아와 나를 알아보는 어머니와 다정한 눈길이라도 주고받고 싶었으나 야속하리만큼 한 달간의 휴가를 보내고 서울행 특급열차를 타려 출발하는 그 순간까지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았다. 남의 나라에서 치매에 고통받는 사

람들을 치료하는데 도와 주고 시중을 들어 주면서 어머니가 이토록 처참하니 망가지도록 모르고 지냈다니 불효 막심한 내 자신이 무척 원망스러웠다.

겨우 초등학교에 간입학한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작은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할 돈을 벌어 돌아오겠다고 겁 없이 독일로 횡하니 떠나와 딸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불들 때까지 귀국을 못하고 독일에 주저앉고 말았다. 매달 딸애 학비라고 알량한 돈 얼마씩 보낸 것이 고작이었으나 어머니는 자신의 박복으로 인해 딸이 외국에서 고생한다며 가슴 아파하셨고 푸념 한 마디 없이 손녀를 훌륭히 키워 주셨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녀 도시락을 준비하시고 어미없이 자란다고 행여 손녀딸 기죽을까 원하는 것은 다 들어 주는 등 배 아파 낳은 나보다 더욱 반듯하게 키워 주셨는데 나는 겨우 매달 보내드리는 학비와 용돈이 전부였다. 내가 보내는 돈을 일정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돈의 값어치는 형편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궁색한 터를 보이지 않으셨다. 지금 어머니가 처한 눈앞의 참혹한 현상이 내가 너무 마음 고생을 끼쳐드려 일어난 일 같아 깨지고 부서지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릴 때까지 올면서 왔다.

상현의 달 그림자가 잠깐 훑고 간 창 너머로 잿빛 어둠이 짙게 묻어 왔다. 금방이라도 힘박눈이 평평 내릴 것 같다. 이럴 때는 유난히 조용하다. 눈은 세상 온갖 소리를 다독여 가슴에 포근히 안고 잠재우듯 대지를 뒤덮는다. 창문 틈새로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가 졸음을 몰고 왔다. 어느 집 벽난로에 나무 불을 지피고 도란도란 나누는 사랑 이야기가 묻어 올 것같이 너무 조용한 정적을

웅급 구급차의 요란한 경적이 깨뜨리고 지나갔다.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0082-41-745-XXXX 지금 한국 시간은 새벽녘, 발신음이 길게 이어졌다.

“여보시유.” 한참만에 느릿한 아버지 음성이 힘없이 들려왔다.

“아버지! 저예요, 독일 경자예요 어머니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 했어요.”

“그려, 그리잖어두 연락하려고 했는디……. 네 어미 아마 금년 넘기기 힘들 것 같다아. 요 며칠 불시로 네가 보고 싶다고 열매나 떼를 쓰는지 모른다. 다녀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오기가 힘들지. 애야?”

울컥 울음이 솟구쳐 올랐다. 금년을 넘기기 어렵다니, 눈앞이 침침해 왔다.

어둠 저 너머에 어머니의 숨소리가 나를 부르고 이를 쫓아가는 내 마음을 견잡을 수 없었다. 슬픔을 다독여 잠재우고 날이 밝으면 어머니 곁을 향해 가리라.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성탄 카드 안에 남아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찾아보리라. 유리창에 부딪치는 눈발이 차츰차츰 굳어져 왔다.



유한나

가족 / 독일

신뢰를 깨지 마세요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내어 집 근처에 있는 넓은 들판길을 거닐며 산보를 하고 있었다. 저만치 한 젊은 아가씨가 꽃밭에서 이 꽃 저 꽃을 꺾으며 한 다발 꽃묶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주인도 없는데 마음대로 꽃을 꺾는 것일까? 그 동안 독일에는 도둑이 별로 없다는 인상을 갖고 살았었는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밤도 아닌 환한 대낮에, 그것도 혐상궂게 생긴 남자가 아닌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남의 꽃을 따서 한 묶음 꽃을 만들어 가져간다는 것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꽃가게에서 사는 꽃값이 비싸서 그랬을까?

길게 뻗어 있는 꽃밭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조그만 팻말과 그 앞에 놓인 동전통을 볼 수 있었다. 그 팻말에는 ‘아무나

꽃을 스스로 원하는 대로 꽃 묶음을 만들어 가되, 꽃값을 동전통에 넣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꽃 종류대로 꽃값이 적혀져 있었다. 꽃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것은 물론이었다. 내 가슴에 와 닿았던 귀절이 끝에 덧붙여져 있었다. ‘우리 가족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꽃을 가져가시는 여러분도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 젊은 아가씨는 이 꽃밭 주인 가족의 신뢰대로 꽃을 즐거이 따모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꽃 묶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고, 동전통에 꽃값을 넣고 간 것이었구나. 인적이 드문 들판길이라 누구든지 꽃만 가져가고 꽃값을 내지 않은 채 가기도 쉬워 보였다. 그러나 어느 누가 신뢰로 가득 찬 주인 가족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감히 실망시킬 수 있었을까.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뢰와 행복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고 있는 꽃밭 주인 가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듯하였다. 그 후 나는 독일의 작은 소도시들이나 전원길을 지나갈 때 ‘꽃을 스스로 꺾어 가세요’하고 세워놓은 팻말들을 가끔 볼 수 있었고 그 때마다 동네 근처의 꽃집 주인 가족들에게서 받았던 첫 감동을 되살리곤 하였다.

어느 날, 가지고 다니던 집 열쇠가 없어졌다. 아무리 가방 속과 방 안을 둘러보며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누가 집 근처 길거리에서 열쇠를 주워서 우리 빈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부지런히 집안을 돌아보며 찾아도 그 날은 영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일간 신문을 가

지러 집 대문을 열고 나갔을 때, 대문 밑에 깔아놓은 발판 밑에 뭔가 두툼한 것이 눈에 띄어 발판을 들쳐보니 내 열쇠꾸러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여기에 넣어 놓았을까? 왜 초인종을 누르고 전해 주지 않고 발판 밑에 넣어 놓았을까?

다음 날 아침, 신문 배달하는 한 젊은 아가씨가 마침 신문 가지러 나오는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말을 걸었다. “열쇠 가져가셨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신문을 넣어 드리려고 이 택에 왔을 때, 대문에 열쇠가 꽂혀 있었어요. 누가 혹시 가져갈까 봐 열쇠를 빼어 발판 밑에 넣어 두었어요. 새벽이라 초인종도 못 눌렸지요.”

이렇게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나라는 참 복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을 보고 온 후, 반찬거리나 물건들을 집 안에 들여놓으려고 가끔 문에 열쇠를 꽂아둔 채 먼저 집안에 들어왔다가 물건들을 다 들여놓고 그냥 문을 닫아 버리곤 하는데 그 날도 그랬던 모양이었다. 언젠가는 문을 밖에서 열쇠로 잠근 채 열쇠를 다시 빼지도 않고 오전 내내 꽂아 두고 돌아와도 그냥 열쇠가 꽂혀 있는 때도 있었다.

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박깜박 잘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서 결혼반지만 빼놓고 그나마 하나씩 받았던 결혼시계, 목걸이도 다 잊어버렸다. 결혼반지도 만약 금반지로 받았더라면 벌써 어딘가에서 잊어버렸을 텐데 예물이 적은 대신 특별히 반지만큼은 다이아 반지로 받아서 평소에 손가락에 끼지 않고 옷장 속에 넣어

반지함에 모셔놓은 덕분에 결혼 20년이 되도록 보관하고 있다.

언젠가 한 번은 또 시내 나갈 때마다 가끔씩 들리는 빵집에서 빵을 사고 동전지갑을 그 곳에 놓아 둔 채로 왔다. 나는 한동안 보이지 않는 동전지갑이 집안 어디엔가 숨어 있겠지 생각하고 별로 찾지도 않은 채, 시내에 따로 나갈 일이 없어 근 한 달간을 집 근처에서 빵을 사 먹었다. 한 달 후 그 빵집에 들렸을 때 그 집 아주머니가 “혹시 이 동전지갑 잃어버리시지 않았나요?” 하며 그 지갑을 꺼내 주는 것이 아닌가. 한 달간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게 다시 건네 준 것이었다. 나처럼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이태리나 러시아에 살지 않고 독일에 살게 된 것이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몇 번이나 집안 살림을 다 잃어버릴 뻔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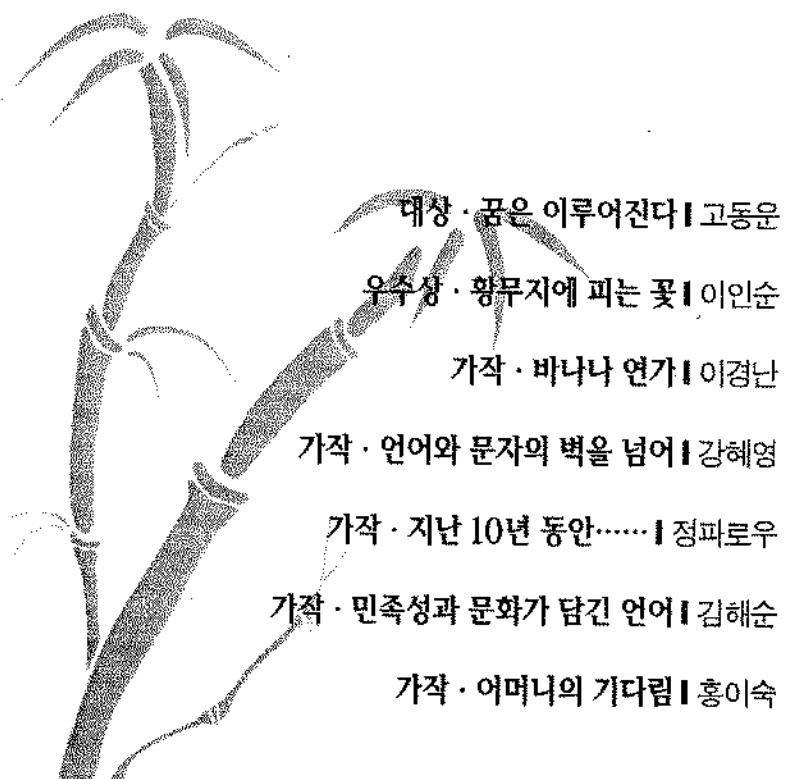
서로간에 신뢰의 관계성을 맺고 또 그 신뢰의 관계성을 깊이 해 나갈 때 우리는 어려울 때에 생각지 않았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중국 제나라 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거의 3천 명에 달하는 많은 식객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도둑을 하던 자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당장 쓸모가 없어 보여 식객으로 받지 말자는 주위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식객으로 모신 맹상군은 후에 개도둑 출신의 사람의 도움으로 적의 왕이 요구하는 궁중 창고에 있는 여우털을 구해 바칠 수 있었고, 닭울음 소리를 내는 사람의 도움으로 새벽닭이 울어야 관문이 열리는 곳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 이

두 사람의 도움으로 적으로부터 구출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독일은 신용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버스표를 매번 따로 사지 않아도 버스를 탈 수 있지만 가끔 차표 조사를 하는 검사관들이 검사하여 걸릴 경우에는 차표값의 몇십 배에 달하는 거금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평소에 아무리 꼬박꼬박 버스표를 사서 타도 어쩌다 한 번 차표 없이 버스를 탈 경우라도 검사에 걸렸을 때 어떠한 하소연이나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그만큼 신용과 신뢰를 깨뜨린 책임은 큰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꽃집 주인 가족들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관청이나 기업, 은행의 어떠한 중요한 서류라도 인감도장 없이 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사인 하나면 된다. 그러나 만약 혀위 사인이 발견될 경우, 그 벌책은 아주 큰 것이다. 신용과 그에 따른 책임이 중시되는 사회이다.

우리도 작게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크게는 사회와 나라 안에서 신뢰와 행복의 씨를 뿌려 갈 때 누구나 즐거이 우리의 꽃밭에 와서 행복의 열매를 따 가지 않을까?

생활수기





꿈은 이루어진다

어린 시절 나는 무척이나 수줍음을 타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선천적인 성격이었다기보다는 외부와의 접촉 없이 많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지내다 보니 생겨난 다분히 후천적 현상이었던 같다. 나는 세 살에 소아마비를 앓아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이 되었다. 그전까지는 남들처럼 마구 뛰어 놀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기억 속에는 두 발로 걸어다녔다는 사실은 흔적조차 없다. 다만 한 장의 낡은 흑백사진 속에 초롱한 눈빛으로 서 있는 아이가 나라는 사실이 한때는 나도 걸어다녔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

내가 처음으로 나의 운명이 남들과는 다르며 아마도 평생 힘겨운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어렵잖이 느낀 것은 여덟 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고 난 후의 일이다. 나의 부친은 결

코 내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나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초등학교 입학을 몹시 기대하고 있었다. 내게는 세 살 위의 누이가 있다. 이모는 가끔 나를 등에 업고는 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곤 했다. 누이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땅꼬마’라는 별명처럼 키가 작고 예쁘장한 여선생님이었는데 이모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이모의 등에 업혀 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내가 입학을 하면 꼭 자기 반에 넣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나는 땅꼬마 선생님의 학생이 되는 꿈을 꾸곤 했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에는 어머니를 졸라 가방과 학용품을 미리 사다 놓고 심심하면 가방을 들고 방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건넌방으로 넘어 다녔다. 아버지의 결정을 바꾸어 보려고 어머니도 무척 애를 쓰셨다.

나는 며칠이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올며 졸라 나중에는 목이 쉬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결국 나는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초등교육을 받았다. 한글을 익히고 구구단을 배웠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요즘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며 배운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셨다. 나는 며칠 전에 국어 책에서 읽었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해 드리고 크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누이가 소풍을 가는 날은 어머니가 내 뜬의 김밥도 따로 싸 주었다. 그 날은 아버지가 서둘러 퇴근을 하여 집 근처 삼청공원에 올라 동생과 함께 김밥을 먹으며 소풍 기분을 내기도 했다. 봄, 가을에는 창경원이나 정릉으로 가족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이런 나

들이는 내가 자라고 몸이 커져 등에 업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거워
질 무렵부터 차츰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어머니에게는 나말고도 돌보아야 할 4남매가 있었다. 해병
대 대령이었던 부친이 제대하신 후에는 함께 사업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나는 자연히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어머니는 나를 친정
으로 보냈고 나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관훈동에 있던 외가에서
보냈다.

외가는 방 세 개, 11평의 작은 한옥이었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는 집이 많던 무렵이라 더운 여름날이면 대문 앞에 의
자를 내다 놓고 앉아 더위를 식히곤 했다. 외가의 근처에는 학교
와 학원들이 많아 오후가 되면 풀먹인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재잘
대며 무리를 지어 지나가곤 했는데 나는 그 아이들이 한없이 부러
웠다. 만약에 내게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는 정말 아무 불평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
이 많이 했다. 그 때는 중학교부터 입학시험을 보아야 진학을 할
수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밤늦도록 과외공부를 하느라 공부에 지
쳐 있었지만 나는 그런 아이들이 무척이나 부러웠다.

난 그 무렵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연속극
에 심취해 있었고 낮에는 만화를 보며 소일했다. 하루는 수녀 두
명이 무슨 책인가를 팔려 왔는데 만화를 보고 있던 나에게 다른 큰
아이가 공부를 해야지 만화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투의
걱정어린 이야기를 하고 갔다. 그 때 내 나이가 12~13살 정도였
다고 기억되는데 무척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 날부터 만화
대신 문학전집을 보기 시작했고 미뤄 두었던 공부도 시작했다.

집에는 책이 무척이나 많았다. 50권으로 된 소년소녀 문학전집을 다 읽고 성인용 한국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도 읽었다.

2살 아래의 남동생과 함께 한 6개월 정도 과외수업도 받았다. 그 후로는 주로 독학을 했다. 방학을 하면 누이와 동생이 다음 학기 새 책을 받아 오는데 내가 먼저 방학 동안 다 읽어 현책을 만들어 버리곤 했다. 전과나 참고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을 했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표시를 해 두었다가 누이나 동생에게 물었다.

영어도 누이에게서 겨울 방학 동안 기초를 배운 후 혼자 공부했다. 쓰는 대로 읽는 한글과 달리 영어는 단어의 발음을 익히기가 어려웠다. 틈만 나면 모르는 단어의 발음을 누이에게 물어 한글로 적어 놓았다. 하루는 누이가 내게 사전을 찾는 방법과 발음 기호를 보고 영어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로는 영어 공부가 많이 쉬워졌다. 그 무렵 서울의 중·고등학교 영어교재는 거의 모두 구해 보았다. 관훈동에 문장사라는 책방이 있었는데 전화로 책이 도착했는지 확인을 하면 외할머니가 달려가서 사 오곤 하셨다. 책을 하도 많이 사니까 나중에는 없는 책도 주문을 해서 구해 주었다. 할머니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는 날도 내 책 심부름을 해 주셨다.

영어 공부는 그 후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는 주로 문형을 외우고 단어를 바꾸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가며 영어를 익혔다. 카세트 테이프나 LP판을 이용해서 듣는 연습을 했고 AFKN TV와 라디오를 청취하기도 했다. 한참 열심히 영어를 공부할 때는 꿈도 영어로 꾸었다.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은 암기보

다는 주로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학교 방송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이를 통해 나는 시청각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세상의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나의 부모님들도 아들의 소아마비를 고치기 위해 많이 애쓰셨다. 어려서부터 침도 많이 맞았고 한약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내 몸에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흉터가 남아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전후하여 나는 을지로에 있던 메디칼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일주일에 2~3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운동을 해야 했다. 가슴까지 올라오는 보조기를 입으면 목발을 짊고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보조기를 맞추었다. 보조기가 제작되는 동안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다리 근육을 키우고 팔 힘을 길러야 했다. 운동은 주로 아버지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무렵에 했다. 세발자전거의 페달에 발을 묶고 누군가 뒤에서 밀어 주면 다리가 오르내리는 운동을 했고 아버지가 나를 철봉에 올려 주면 그 다음에는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는 운동으로 팔 힘을 길렸다.

병원에 약을 타러 갈 때는 외할아버지와 자주 갔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나를 약국 근처의 벤치에 앉혀놓고 약을 타러 가셨는데 모퉁이를 돌아가면 더 이상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떤 날은 약국에 사람이 많은지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나를 내버려 두고 할아버지 혼자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벤치 옆을 지나가던 하얀 옷의 간호사가 걸음을 멈추고

우는 이유를 물었다. 이유를 설명하자 그녀는 나를 안고 약국까지 가서 할아버지를 찾아 주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보조기가 완성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가슴까지 올라오는 철제 보조기를 입고 우뚝 서기는 하였으나 나는 단 한 걸음도 내 힘으로는 발을 내디딜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혹시 상태가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완치 여부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 다시 메디칼 센터에 가지 않았다.

그 후에도 수년이나 더 나는 쓰디쓴 한약을 삼키고 침을 맞아야 했다. 하지만 나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도리어 물리치료와 운동을 그만둔 후에 허리가 심하게 휙게 되었다. 결국 나는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휠체어를 쓰게 되었다.

나는 친구를 사귈 기회가 별로 없었다. 학교도 안 다니고 밖에도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어려서는 형제들이 나의 좋은 친구였다. 나는 공휴일과 방학 오기를 그들보다도 더 손꼽아 기다렸다.

외가에 있으며 이웃의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나이도 동갑이고 소아마비를 앓아 동병상련의 인연을 나누었던 친구다. 그는 나보다 증상이 경미해서 목발을 짊고 학교에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오후에 컴퓨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쫓아다니기에 늘 어림없이 힘이 부쳤다. 자연히 그와 나는 한쪽에서 땡지 놀이 나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다. 그는 오후가 되면 늘 혼자였다.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살았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오후가 되면 일을 나갔다.

얼마 후, 그가 나를 멀리하며 대신 뛰어 노는 아이들 뒤를 힘겹게 목발을 휘두르며 쫓아다니는 날이 많아졌다. 하루는 외할머니가 그 아이를 불러 찹쌀떡을 주며 왜 자주 안 오느냐고 물으셨다. 그의 대답인즉, 엄마가 나와는 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너는 목발이라도 짚고 다닐 수 있는데 멀쩡한 아이들과 놀아야지 무엇 때문에 앉은뱅이와 노느냐며 심한 꾸중을 들었다는 것이다. 세월과 함께 그 시절의 많은 기억들이 사라졌지만 그 말을 하던 그의 얼굴만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독학을 계속했지만 늘 나의 실력을 평가해 보고 인정받고 싶은 조바심이 있었다. 20살 남짓 되었을 무렵의 일이다. 하루는 무작정 서울에 있는 풀부라이트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찾았다. 전화로 연결된 미국 여인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서툰 영어로 전달했다. 처음에는 상당히 난감해하더니 한번 자기를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다음 날로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의 소개로 미국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보게 되었다. 시험 준비는 그녀의 주선으로 용산에 있던 미8군 교육 센터에 드나들며 교재를 빌려 공부했다. 영내에서 근무하던 한인들은 내가 무슨 고관이나 재벌의 자녀로 착각을 했다고 한다. 그 무렵 정부고관이나 재벌의 자녀 중 영내의 미국 대학 분교에 다니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 시험 결과 좋은 점수를 얻어 대학 진학 자격을 얻었으나 비싼 학비를 내며 미국 대학에 다닐 처지는 아니었으므로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 후 교회를 다니며 전병기 형을 사귀게 되었다. 연세대학을

종퇴하고 선교사업을 하고 돌아온 그는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함께 토플 시험을 보기로 했다. 둘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나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던 병기 형은 그 점수 덕에 대한항공에 무시험 취업이 되었는데 나는 그 성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신문에 더러 영어 번역사 모집 광고가 있었지만 이력서를 보내도 오라는 곳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싶다. 내 이력서에는 달랑 미국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과 토플 점수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낙심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교회 번역부에서 시간제 번역 일을 하게 되었다.

81년 아쉬운 기억과 정다운 친구들을 남겨둔 채 미국 이민 길에 올랐다. 미국 이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마치지 못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나 같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학업이나 취업의 기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막상 미국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내가 한가하게 학교에나 다니며 지낼 형편이 아니었다.

먼저 오신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에서 큰 손해를 보시고 한국의 구멍가게에 비교될 만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시게 되었다. 학교를 마쳐야 할 동생들이 셋이나 남아 있었고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자립을 해야 했다. 한인 타운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장애인을 쓰겠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전화번호부를 펼쳐 가며 50여 군데 미국 관공서와 대기업에 취직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답장은 없었지만 자격을 갖추면 고려해 보겠다는 답장과 장애인을 도와 주는 기관을 소개해 주는 답장들

이 날아왔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주정부 장애인 재활국이었다. 그러나 막상 찾아가서 만난 백인 담당자에게서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직업학교에 보내 줄 테니 조립공 훈련을 받고 전자회사에 취직을 하라는 것이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이왕에 타국에 이민 와서 시작한 고생인데 좀더 벼젓한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다. 사무직을 고집하자 그는 나에게 필기 시험을 치러 자격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사무직을 주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다행히도 시험 성적이 좋아 사무직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다. 그 다음 주부터 주2회 재활국에 나가 구직처를 알아보았다. 운 좋게도 2주 만에 새로 문을 여는 부동산 회사의 사무원으로 취직이 되었다. 시간당 5달러를 받으며 주6일 일을 했다. 그 곳에서 2년간 일을 했는데,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와 사무요령 등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낮에는 8시간 일을 하고 밤이면 2년제 대학에 나가 꿈에 그리던 공부를 했다. 그 때까지 아내가 늘 그림자처럼 나를 데리고 다녀야 했다. 아침에 출근을 시켜 주고 퇴근 시간이면 요깃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로 와서 나를 학교로 데리고 갔다. 81년 겨울이 되어서야 재활국의 주선으로 운전교육을 받고 내 차에 수동으로 운전하는 장치를 부착해서 마침내 혼자 나다닐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 초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바닥에 떨어져 부동산 업자들이 앞을 다투어 전업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일하던 직장도 예외는 아니라 봉급날이 되도 급료가 안 나오는 일이 자주 생겨났다. 영어도 서툴고 사무 일에도 미숙하던 나를 채용하여 길러 준 사장

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나도 전업을 결정하고 주정부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늘 시험에는 운이 따라 이번에도 상위권의 성적을 얻었다. 그러나 마침 불어닥친 불경기의 여파로 정부부처의 신규채용이 동결되어 6개월 가량 기다려서 겨우 지금의 산재보험국에 채용이 되었다.

81년에 입학한 2년제 대학에는 일주일에 3일, 3시간씩 야간수업을 나갔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졸기가 일쑤였다. 휴게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오면 도움이 됐다. 남가주에는 별로 비가 오지 않아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겨울에는 한 3개월간 비가 온다. 비가 오는 날 학교에 가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우산을 받고는 휠체어를 밀 수 없으니 비가 오는 날이면 그냥 비를 맞아야 했다. 비를 맞으며 강의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하면 우선 화장실부터 찾아 대충 종이 타월로 비를 닦아 내고 강의실에 들어갔다. 더러는 그 다음 날 감기에 걸리기도 했다.

85년 12월에 마침내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편입하여 공부를 계속했다. 85년에는 주립대학에서 장애인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도 받았다. 그 상을 받는 날 나는 장애인 학생을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 주는 이 자리에 상을 받는 이가 아니고 주는 이의 자격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다짐을 했다. 10년이 지난 95년 나는 다시 모교에 돌아가 내가 근무하는 직장의 대표로 다른 장애인에게상을 주었다. 그 후로 매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직장의 장애인 직원 자문위원회의 회장으로 8년간 봉사했는데, 나의 추천으로 직장에서 매해 주립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생활 중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직장에서는 매해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데, 내 자랑 같지만 항상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83년에 타자수로 채용이 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승진 시험을 보아 한 자리씩 차근차근 올라갔다. 더러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본다는 투로 비아냥대는 동료들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채 시험도 있었지만 단 한번도 장애인임을 내세워 덕을 보려고 한 적은 없다. 당당하게 일반 직원과 똑같은 승진 시험을 보았다. 나보다 근무 성적이 떨어지는 백인 동료가 나를 제치고 승진했을 때, 동료 중에는 인종 차별이니 정식으로 불평을 하라고 조언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참고 넘어갔다. 다음 기회에는 승진이 내게 돌아왔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 승진을 했으나 지난번에 나보다 먼저 승진했던 백인 동료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 후 회사 차가 지급되는 외근직을 놓고 다시금 미역국을 먹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내가 외근직에 부적당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다른 직원에게 그 자리가 돌아갔던 것이다. 그 후 다시 자리가 비었을 때, 이번에는 내 직속상관을 설득하여 함께 매니저를 찾아가 나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 후 회사에서 차를 개조하여 지급해주었고 나는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 일을 하며 직장에서 우수직원 표창도 받았다.

전문적인 산재보험에 대한 공부도 계속했다.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도 합격하였다. 91년부터는 보험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IEA(Insurance Educational Association)에 산재보험

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아직도 동양인의 악센트가 남아 있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나는 인기 있는 강사 중의 한 사람이다. 직장에서는 보험조정관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다.

직급이 올라가며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가끔 생겨났다. 처음 혼자 출장 길에 나설 때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장애인의 여행을 위한 편의 시설이 놀랍도록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비행기에 타고 내리는 것은 항공사 직원들이 간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도와 주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택시나 장애인 전용 밴 차를 탈 수 있었다. 호텔의 숙박시설 또한 장애인 혼자 묵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 방에는 편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처음 혼자 비행기 여행을 하던 날, 창 밖에 깔려 있는 솜덩이 같은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외할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가끔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다녀 오신 날이면 나에게 “동운아, 너 아무 걱정 마라. 네 나이 삼십만 되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남 부러울 것이 없다더라.”고 하셨다. 바로 내 나이 30살에 나는 하늘을 날아 출장을 다니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때 내게 들려 주신 말씀의 진실은 밝히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용한 점쟁이가 있다면 앞으로의 나의 생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물어보고 싶다.

한때는 재일동포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재일동포를 친척으로 둔 사람들이 이웃의 부러움을 샀다. 그 후 재일동포는 밀수와 사기의 대명사로 바뀌어 버리고 재미동포가 부상했다.

그것도 잠깐,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재미동포를 사기꾼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재미동포는 미국에 이민 가서 고생만 죽도록 하며 사는 것으로 그려졌다. 한국 사회는 이민 가서 힘들게 사는 재미동포를 보며 조금씩 우월감을 키워 갔다.

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앞둔 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싶다. 또 여기에는 재미동포들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본다.

재미동포라는 지위를 이용, 고국에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미국 땅에 살면서도 늘 고국을 바라보며 기회를 엿보는 해바라기, 박쥐 같은 동포들도 많이 있다. 이는 모두 그다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진정 조국을 사랑한다면 외국에 나와 사는 동포들은 먼저 사는 곳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동포는 조국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인적 자산인 셈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발빠른 무역, 유연한 외교에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다.

내 개인적으로는 돌아보면 힘들었던 날들이지만 주위에 좋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던 날들이다. 부디 앞으로의 날들은 미약하나마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스스로를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절박할 때마다 기회의 문이 열려 주었다. 세상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나처럼 운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금년으로 공무원 생활 20년이다. 55세가 되면 은퇴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7년 가량 남았다. 그 때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국에 돌아가 사회복지에 도움을 주고 싶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다. 나는 이를 굳게 믿는다. 불가능해 보였던 나의 꿈들 중에 이미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황무지에 피는 꽃

“황무지에서 농사짓느라 보통 고생이 아니겠군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봤다는 어느 분이 우리 농장을
둘러보러 왔다가 무심코 던지고 간 말이었다. 황무지, 황무지.

나는 부지런히 사전을 찾아보았다.

황무지 : 손을 대지 않고 버려져 거칠어진 땅.

그랬다.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하며 일궈 가고 있는 우리 농장은
땅을 볼 줄 아는 이의 눈에는 분명한 황무지였다. 보들보들 윤기
흐르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거칠고 척박한 황무지. 그런 황무지에
서 우리는 자연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 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성공
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처음 뉴질랜드 이 산골로 농사를 지으려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좋은 땅에 대한 구별은커녕 농사짓는

방법조차 거의 백지에 가까운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조그만 비즈 니스에 뛰어들었다가 쓴잔을 톡톡히 마신 뒤 이민 생활에 지쳐 있던 우리는 무작정 땅이 넓은 농장을 찾아 이 곳으로 왔다. 적어도 식물을 기르며 사는 삶이라면 오클랜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보다 훨씬 나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이면 농장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는 물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잠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무지 같은 농장이라도 찾아나설 수밖에 없었다. 코쟁이 주인이 오이를 기르다 실패해서 말라비틀어진 오이 덩쿨을 비닐 하우스에 고스란히 남겨 두고 떠난 그 황량한 농장. 현지인조차 실패해서 혈값에 팔아 버리고 떠난 농장으로 영어도 서툴고 서툰 영어보다 더 서툰 농사 실력으로 뛰어들었다는 건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었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가진 것도 없이 뛰어든 우리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건 당연히 예고된 고난이었다.

뉴질랜드의 많은 땅이 그렇듯이 우리 농장 역시 한 삽만 밑으로 파들어가도 삽날에 떡떵거리 같은 찰흙이 턱턱 묻어 났다. 그런 땅을 갈아서 우리는 무를 심고 배추를 심었다. 하도 땅이 거칠어서 씨를 넣을 때면 과연 이런 곳에서도 짹이 틀까 자신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도 짹은 어김없이 고개를 내밀고 나와 주었고 뿌리를 뻗어 나갔다. 농사 경험이 하도 없으니까 무씨를 넣을 때면 자로 길이를 재서 심을 정도였고 배추를 심을 때도 늘 팔려가는 당나귀 꼴이었다. 둔덕을 만들어 줘야 배추가 잘 자란다 하면 식구들이 들러붙어 삽으로 일일이 둔덕을 만들어 주었고 없어도 된다

하면 다시 허물었다. 그렇게 간신히 기른 배추를 첫해에는 달팽이가 몽땅 뜯어 먹어서 변변한 수입도 올리지 못했다. 여름배추는 뿌리병에 골탕을 먹고, 그러면서도 가을배추가 생각 밖으로 잘 되어 조금씩 농장이 자리를 잡아 갔다. 그러다 겨울배추를 들판 가득 심어 놓고 걱정반 근심반 대책 없이 겨울을 맞았다. 가슴 졸이며 맞았던 그 해 겨울, 마침 아들애가 전국 대학생 기술 경연 대회에서 북섬 대표로 뽑혀 시상식에 가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오후가 되면서 아예 양동이로 붓듯이 퍼부었다. 밤늦게 시상식을 끝내고 시골길을 달려오는 데도 비는 억수로 퍼부었다. 시골길 여기저기 엉망으로 물이 넘쳐나더니만 우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아예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서 지나다니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저만치 집만 땅그러니 보이고 배추밭은 아예 거대한 호수로 변해 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찰흙 구덩이 같은 밭에서 비를 맞고 밭이 푹푹 빠지면서 간신히 심어 놓았던 배추들이 물 속에 몽땅 잠겨 버린 것이다. 그 때의 허탈감과 실망스러움이라니. 나도 모르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입 없이 겨울을 날 걱정에 앞이 아득해졌다.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밭이 조금 높아 물에 잠기지 않았던 부분의 배추들은 봄기운이 돌면서 보기 좋게 꽃대를 밀고 올라왔다. 나중에는 온 배추밭이 노란 꽃밭으로 변해 제주도 유채밭을 연상시켰다. 한 마디로 절망이었다. 그 많은 배추들을 갈아 엎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가슴이 터져나가도 실패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면만 행여나 하고 밭에 두었던 꽃대 난 배추들 속에 벌레들이 수없이 번식

을 하며 겨울을 나고 있을 줄이야. 쓰린 가슴을 달래며 꽃대 난 배추들을 다 갈아 엎고 제철에 맞는 씨앗을 심었다. 다행히 별 텔 없이 잘 자라서 한시름 놓고 2주일 정도 출하를 할 즈음 느닷없이 배추잎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배추가 왜 이럴까 하는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구멍이 많아져 갔다. 경험의 없으니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젤젤 매는 사이에 가게에서 캠플레인이 들어왔다. 혀겁지겁 가게로 달려나가는데 눈앞이 아득해 왔다. 또 다시 갈아 엎게 되면 어찌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가게로 나가 배추속을 들추자 벌레들이 우글우글 떨어져 나왔다. 배추를 사러 왔던 손님들이 기겁을 해서 가 버리거나 사간 배추도 반품되어 온단다. 불과 며칠 사이에 온 밭의 배추들이 폭탄을 맞은 듯 구멍이 뚫려 끝내는 모기망처럼 변해 갔다. 속은 멀쩡한데 겉으로 서너 장이 벌레투성이였다. 나중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안으로 무섭게 번져 나갔다. 범인은 청벌레라는 아주 작은 나방의 새끼들이었다. 꽃대 난 배추들을 들추면 뭔가 작은 것들이 많이 날아다니기에 날벌레인가 했던 것이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힌 청벌레의 나방일 줄이야. 벌레 먹은 배추들은 봄비 몇 번에 기분 나쁘게 속까지 썩어들어 갔다.

어디 그뿐이랴. 뒤늦게 봄배추라고 심어 놓은 다른 배추밭의 배추들이 잘 자라는가 싶더니 이번엔 속이 다 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리도 무성하게 자라던 배추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속처럼 누렇게 타면서 썩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누군가 배추농사가 제일 어렵다더니 정말 배추는 어려운 작물인 모양이었다. 때마침 봄가뭄이 심해 물이 부족해 그런가 보다

하고 밤을 새우면서 배추밭에 물을 댔지만 허사였다. 물 주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호수에 파이프를 달아 한 포기 한 포기 허리가 휙게 물을 주었건만 아무런 소용도 없이 배추는 끝내 다 썩어 버렸다. 나중에야 밝혀졌지만 원인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밝혀졌다. 봄인데 멋모르고 가을씨를 심었던 탓이었다. 전해에 심었던 가을배추가 하도 살하게 잘 자라기에 봄에도 그걸 심으면 되려나 하고 덜커덕 심었더니만 점점 뜨거워지는 기온을 못 이겨 결국은 속이 다 타 버리고 만 것이었다. 경험의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지 농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그 사이에 청구서가 쌓이고 빚이 늘어 갔다. 나중에는 웬만한 곳에서는 물건을 대주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펌프 가게에다 집에 물대는 펌프가 멈춰 고쳐 달랬더니 외상이 밀렸다고 같아야만 고치려 온단다. 키위(뉴질랜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우리 같으면 안면 봐서 조금 참아 줄 일도 칼로 무 자르듯 알잘없이 거절하는 것이다. 기름 대주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몇 년간 농자재를 대주던 회사조차도 조금 돈이 밀렸다 싶으니까 물건을 싣고 왔다가 도로 싣고 가 버렸다. 이들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 원하는 대로 수표를 써 주지 않는 한 거름흙 한 자루도 내려 놓지 않고 가 버린다. 깨끗한 사회인 것은 좋지만 참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한 이 나라 이 사회. 내 돈 없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민 생활인가 보다.

눈물을 머금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농사. 한국에서라면 모든 게 수월하겠지만 외국에서 한국 야채 기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허겁지겁 한국에 씨앗을 주문해서 오는데 한참, 싹을 틔우고 싹이

자라 밭에 내는데 또 얼마. 그 뒤로도 실패없이 두 달을 꼬박 기다려야 하는 배추농사. 배추가 되어 나올 때까지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며 기다리는 초조함이라니. 그 사이 시름을 달래가며 참외도 심고 고추도 심고 농장을 바쁘게 움직였다. 이렇게 몇 번씩 실패를 거듭해 가며 우리는 성장해 갔고 이제는 제법 농사에 이력이 붙었다. 자신감도 생겼다. 다행히도 여름부터는 배추가 잘 나와서 아주 맛좋은 배추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이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행여 물난리를 또 겪을까 마음 졸이며 겨울을 나고 있다.

여전히 겨울밭은 질어서 툭하면 트럭이 밭에 빠지고 때로는 트랙터마저 밭에 빠져 해어나을 길이 없지만 우리는 씩씩하게 헤쳐나가고 있다. 때로는 질척이는 땅에 우리들 밭마저 빠져 장화는 진흙 속에 들어 있고 발만 겨우 빼내곤 한다. 몇 번 뺄 같은 밭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장화 무게가 한짐이라 밭이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겨울이라 해도 얼음이 얼지 않는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는 곳이라 사시사철 풀들은 또 얼마나 거칠게 자라서 밭을 덮어 가는지. 그래도 나는 제초제를 치지 않고 열심히 풀을 뽑고 거름을 낸다. 하도 억센 풀을 많이 뽑아 내서 밤에는 팔이 저리고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질 않는다. 그런데도 일은 즐겁고 남편과 내가 이렇게나마 건강한 먹거리를 가꿔 낸다는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누구보다 싱싱하고 건강한 야채를 길러 내기 위해 부지런히 황무지를 개간해 가는 우리. 제 아무리 거친 칠흙 땅 황무지라도 이렇게 가꾸노라면 언젠가는 아가의 엉덩이처럼 보드랍고 사랑스러운 흙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비단 오면 남편과 나는 땅을 못 갈게 될까 봐 가슴이 철렁한다. 그래도 이젠 두려워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우리는 몇 년간의 농사를 통해 단단히 깨달았다. 비록 남들처럼 좋은 땅 좋은 조건은 아니라 해도 우리는 낯선 나라 황무지에 인간 의지의 꽃을 피워 냈다. 이 세상에는 한 팔로도 못하는 일 없이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한 장애를 안고서도 남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빗대면 물이 조금 잡기는 땅이라고 농사 못 지을 것 없을 테고 찰흙 땅이라고 농사 못 지으란 법 없을 것이다. 하면 된다. 부지런히 퇴비를 만들어 붓고 제초제 대신 풀을 뽑아 주고 영치기영차 밭을 가꾸고 있다. 식물이나 동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데 내 어찌 고놈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지 않으랴. 주인이 아끼고 돌보지 않으면 나그네들도 내 밭의 식물들을 소홀히 다룰 것이기에 하루 온종일 억세풀도 뽑고 엉겅퀴도 뽑는다. 때로는 뽑아 내다 보기 좋게 엉덩방아를 짚으며 공중으로 날 때도 있으나 이 세상 그 어떤 스포츠가 날 이토록 행복하게 해 주랴 싶어 해가 뜨기 무섭게 들판으로 나간다. 첫새벽에 들판에 서면 나는 늘 감사 기도를 드린다. 나에게 비도 주시고 거센 바람도 주시고 그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정말로 뜨거운 감사 를 드린다. 또한 겸손한 농부가 되게 해 주신 것도.

웰링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애가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모녀는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오클랜드로 나가 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딸애가 필요한 화장품도 몇 개 사주

고 추위를 막아 줄 코트도 보러 다녔다. 아마도 이민 온 뒤 처음 가져보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뒤늦게 건축공학을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딸애와 나는 팔짱을 끼고 함께 걸으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어느 땅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인간은 반드시 이 기계 되어 있다고 자신이 의지를 버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성공의 길은 늘 열려 있는 거라고 하겠다는 인간의 의지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거라고 심지어는 자연조차도…….’ 딸애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나나 연가

요즘 나에게 작은 가슴앓이가 하나 생겼다. 십 년 전, 엄마가 서울에 다녀오시면서 이모네 집의 풀에 피어 있던 분꽃과 봉숭아 꽃의 씨를 받아 갖고 오셨다. 고이고이 몇 겹의 종이에 싸서 가져 오신 그 씨앗을 엄마는 우리집 화단에 정성껏 심으셨다. 봉숭아가 잘 자라 꽃을 피우면 그 꽃잎을 따서 미국인 외손주들의 손톱에 곱게 물을 들여 주고 싶으셨던 게다. 꿈에 부푼 엄마는 매일매일 화단에 물을 주시며 싹이 트기를 고대하셨다. 그러나 아쉽게도 봉숭아는 자라지 못하였다. 기후의 탓인지 토지의 탓인지는 몰라도 기다리던 봉숭아 꽃잎은 그 해도 그 다음 해도 영영 그 모습을 내어놓지 않았다.

빠알간 봉숭아 물을 들여 주려고 벼르던 손주들의 고사리 같던

손가락은 이제 우악하고 뻣뻣한 틴에이저들의 것이 되어 버렸고 화단 속에 묻혀진 봉숭아 꽃씨는 세월 따라 차츰 우리 모두의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갑자기 우리집 화단에 분홍색을 띤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봉숭아와 함께 심겨졌던 분꽃이었다. 땅 속에 묻힌 지 몇 년째인지 기억해 내기도 알쏭달쏭할 무렵 분꽃은 저 혼자 유유히 피어나더니 한여름 내내 탐스러운 꽃을 피워 내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잔뼈가 굵은 나는 화초류와는 전혀 궁합이 맞지를 않았다. 화단에 심는 꽃이건 집안에 들여 놓는 화분이건 할 것 없이 우리 집에만 들여왔다 하면 족족이 죽어 나가곤 했다. 애들을 낳아 키우고 게다가 하루 종일 청킹거리는 네 마리의 개까지도 집안에서 키우는 여자가 어째서 소리없이 가만히 한 군데 앉아 있는 화초를 죽이느냐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 화초를 가꾸는 데에도 애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행! 바로 그것이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곤 하는데 정말 나는 화초류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애정이란 더더욱 없는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게 안주인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작은 화단 속에서 분꽃은 저 스스로 제 마음이 내키는 해마다 찾아와 피고 지고를 반복해 왔다. 사막의 더위를 연상케 하는 무지막지한 뾰약볕이 기승을 부리는 해에도 분꽃은 날 보라고 시위라도 하듯 도도하게 피어 제 수명을 채우고 지곤 했다. 무심한 안주인으로부터 비료 따위의 호

사스러운 양식일랑은 바라지도 않는다는 듯이 분꽃의 줄기는 그
렇게 저 혼자서 우리 집 화단에 마실 왔다가 쉬어 가곤 했다.

며칠 전, 최근에 한식구가 된 강아지를 데리고 집 밖에서 용변
보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잡초밭으로 변해 버린 화단이 눈에 거슬
려 아들애에게 잡초 좀 뽑으라고 시켰더니 제 어미만큼이나 화초
류에 문외한인 녀석은 꽃 줄기인지 잡초 줄기인지도分辨하지 않
고 모조리 뽑아 놓고 말았다. 그런데 무성했던 잡초들이 뽑혀 나
가고 유통불통 표면이 파헤쳐진 화단의 검은 속살을 보니 뜬금없
이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분꽃 생각이 문득 난 것이다.

이젠 다시 분꽃이 찾아와 주질 않으려나……. 단 한 번도 기다
려 본 적이 없는 분꽃의 방문임에도 마음 한 구석에 싸아 하니 밀
려오는 허전함이 있었으니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머나먼 한국 땅에서부터 옮겨와져서는 낯선 이국 땅에 심겨져야
했던 작은 씨앗들. 이 곳의 흙과 물과 바람과 햇볕에 익숙해지기
위해 소리 없는 진통을 겪었을 씨앗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세계
와 융화되어 짹을 트고 꽃을 피운 장한 씨앗들. 지난 몇 해를 무심
하게 보아 왔던 분꽃의 송이송이는 어쩌면 나의 작은 화단에 찾아
와 조용히 머무르며 나 같은 1.5세들의 연가를 불러 주고 있었는
지도 모르겠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이란 대륙의 낯선
땅덩어리에 모종된 작은 새싹들. 거친 자갈밭이나 메마른 모래밭
에서 새 삶의 지혜와 요령을 터득했어야 했던 여린 잎새들. 그렇게

너와 내가 비바람을 이겨 냈고 한여름 강한 햇볕 아래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성장시키지 않았느냐며 분꽃은 나에게 그윽한 찬미가를 불러 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재미교포 1.5세,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미성년자일 때 미국으로 건너와 이 곳의 풍속과 문화에 접붙임당해 이 곳에서 잔뼈가 굵고 이 곳의 사고방식으로 나의 골수를 살찌운 일명 ‘바나나 여성’이다. 걸모습은 변함없는 황색 인종일지언정 속에 들은 사고방식은 백인들과 같다 하여 ‘바나나’라는 닉네임이 붙여진 동양계 미국인이다. 그러나 많은 ‘바나나’들이 그렇듯이 나에게도 지난 삼십 년의 미국 생활은 모국과 현재의 내 삶이 속해 있는 미국 문화사이의 줄타기 곡예와도 흡사했다. 타국이란 곳에서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찍부터 자신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방황과 고뇌를 거듭해야 하는 특이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상상하듯 우리의 성장기가 결코 불우하고 어둡지만은 않았다. 대부분의 1.5세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젊은 것보다도 얻은 것이 더 많은 축복받은 세대라고 자부심을 보이는 밝고 건강한 사고를 가진 코리언-아메리칸이다.

미국인 남편과 가정을 이룬 나의 바나나의 양면성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가족들일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와 같이 타인종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흔히 국제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만약 한국인과 결혼을 했더라면 그것이 더 확실한 국제결혼이었을 거라고 정정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자주 있다. 그만큼 나는 더 이상 순수 토종 한국인이 아닌 새 문화가 키워낸 바나나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내가 미국인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오는 질문 중의 하나가, 도대체 무얼 먹고 사느냐이다. 남편이 김치를 먹는 사람인지, 한국 음식은 해 먹고 사는지 등등 미국식의 정서 기준으로 보아 극히 개인적이다 싶으리만한 질문 공세를 자주 받는 편이다.

약 오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해의 일이다.

딸아이에게 새 친구가 생겼다. 오하이오 주에서 이사 온 가족의 같은 학년의 여자 아이였다.

알리사라는 이름의 이 아이도 역시 한국계 엄마에 백인 아빠를 가진 예쁜 아이였다.

둘은 금세 친해져서 방과후에도 우리 집이나 그 아이 집에서 함께 공부하고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곤 하였다.

그 날도 방과후 알리사가 우리 집에서 놀다가 저녁을 먹고 가는 날이었다.

저녁준비를 무얼 할까 망설이다 딸아이를 불러 물었다.

“애, 어제 알리사네 집에서 저녁 뭘 먹었니?”

그 집에서 다른 것을 먹었다고 하면 나는 피자를 전화로 배달 주문할 속셈이었다.

“음…… 어제 알리사네 집에서…… 야! 생각났다. 부부기.”

“부부기?”

“예스, 부부기.”

그렇게 대답한 딸아이는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피자를 주문할 것이라는 답에 흡족해 하며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제 방으로 깡총거리며 되돌아갔다.

‘부부기’가 어떤 음식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우선은 저녁 메뉴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지나치고 서둘러 피자를 주문했다.

피자가 배달되어 모두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시도 쉬지 않고 조잘대는 두 소녀 아이들을 흐뭇한 기분으로 바라보다 문득 ‘부부기’라는 음식이 궁금해졌다.

“애, 아까 네가 알리사네 집에서 먹은 음식 이름이 뭐라고 했지?”

딸아이는 냅킨으로 입 주위를 닦으면서 오물거리며 말했다.

“부—부—기.”

나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그 요리가 어느 나라 음식일까 생각하며 또 한번 물었다.

“맛있다, 그 부부기?”

고개를 끄덕이는 딸아이. 그 때 알리사가 말했다.

“울 엄마는 한국 음식 잘 만들어요.”

“!?”

그럼 ‘부부기’가 한국 음식이란 말인가? 1.5세로서의 약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때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한국 음식이라도 외국 음식이나 다름없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이름의 한국 음식은 없다고 자신 있게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알리사의 엄마는 한국말조차 못하는 2세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한국 음식을 할 줄 안다니 신기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좀더 깊이 캐어 보고 싶어졌다.

“분명히 요리 이름이 부부기라구? 난 그런 이름 들어 본 적 없는데…….”

그러자 딸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문스런 표정을 지었다.

“마미, 지난 주에도 우리 먹었잖아. 얇게 썬 쇠고기 양념해서…….”

나는 그제서야 이 아이들이 틀린 발음으로 ‘불고기’를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웃음이 나왔다.

“아~ 불고기!”

그제서야 아이들의 발음을 고쳐 주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의 제 이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 내가 잘 아는 주위의 일본계 미국인 3,4세들은 일본어도 물론 못하며 일본인들과 아무 런 동일감도 느끼지 못하지만 일본 음식만은 제 나라 말로, 제 발음으로 부를 줄 안다. 알리사의 외할머니께서도 자식들에게 한국 어는 가르치시지 않으셨지만 한국 음식의 요리법과 그 이름은 가르치신 것이다.

나는 어쩌다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해 먹일 때에도 요리의

이름을 가르쳐 준 기억이 없었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려 저희들이 먹는 음식이 어느 나라 것인지도 관심없이 그저 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 가며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요즈음은 나도 좀더 신경을 써서 가르치기 시작 했다.

“이건, 장-조-림.”

“창-죠-딤!”

“舛-국”

“티-쿠!”

한동안 알리사가 우리 집에 놀러오는 날이 뜯해졌던 어느 날 나는 소파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딸 곁에 다가앉아 말을 걸었다.

“알리사보구 놀러 오라 구해. 부부기 해 줄게.”

나는 짓궂게 일부러 틀린 발음을 하며 딸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딸아인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건성 고개를 끄덕인다. 좀더 놀 려 주고 싶은 생각에 딸의 옆에 바싹 다가앉아 물었다.

“부부기, 너 아직도 좋아하지?”

그제서야 딸은 놀림당하고 있음을 눈치채곤 웃으며 날 떠밀며 외쳤다.

“푸-코-키, 푸-코-키, 푸-코-키!”

언어에 유난히 소질이 있는 딸아이에게도 한국어는 발음하기가 역시 어려운 것이었다.

제 누나보다도 훨씬 동양적인 외모를 타고난 아들녀석은 아예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자주 접한다. 유난히 마음이 여리고 심성이 고운 그 녀석을 데리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어느 해 여름, 녀석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미안합니다, 한국말을 못합니다.”라는 문장을 서툰 발음으로 자꾸자꾸 연습하고 있었다.

그 해 7월 말, 한 차례 홍수의 난리가 지나간 서울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나날이었다. 뼈악볕이 살인적인 대낮인데도 녀석은 나의 옛친구의 아들아이와 함께 생전 처음 들어보는 희귀한 소리를 내는 매미를 잡으러 매미채를 손에 들고 온 아파트 단지를 헤매고 다녔다.

자꾸만 저를 형이라고 부르며 쫓아다니는 새 친구에게 ‘내 이름은 히영이 아니라 패트릭이야.’라고 몇 번이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등 미소를 짓게 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며 말이 안 통하는 두 꼬마 친구는 땀을 뺄뺄 흘리며 불어 다녔다.

소음과 공해 속에도 살아남는 악착 같은 매미가 눈이 멀지 않은 이상 그 어수룩한 두 아이의 손에 잡혀줄 리 만무였고 번번이 허탕을 치고 들어오는 아들녀석이 안쓰러우면서도 미국에서는 해볼 수 없는 매미잡이가 남길 추억의 고운 빛깔을 생각하며 흐뭇한 마음이 되곤 했다.

하루는 기차를 타고 지방에 갔다가 그 곳에서 엄청 큰 메뚜기 한 마리를 잡아올 수 있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제 누이가 메

뜻기 한 마리를 덥석 맨손으로 잡자 녀석도 용기가 났는지 잠자리에 메뚜기 할 것 없이 보는 대로 정신없이 쫓아다니더니 얻은 수확이었다. 결국 우리는 다른 곤충들은 다 날려보내 주고 가장 큰 메뚜기 한 마리만 노오란 플라스틱 벌레통에 넣어 우리가 머물고 있던 언니네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다.

그 날부터 녀석의 메뚜기 봉양은 시작되었다. 녀석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 앞의 작은 산에 가서 연한 풀을 뜯어다 먹이고 벌레통 속에 넣어 준 작은 접시에 담은 물도 매일 같아 주었다. 어찌나 먹성이 좋은 메뚜기였는지 통 안에 넣어 주는 풀은 족족이다 먹어치우고는 열심히 풍도 싸서 매일 벌레통 밑에 깔아 준 신문지 마저 같아주어야 했다. 그래도 녀석은 불평 한 마디 않고, 신기한 듯 정성을 다해 메뚜기를 돌봐 주었다.

우리가 서울을 뜨는 날이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우리는 메뚜기를 아파트 앞에 있는 산에 놓아 주기로 했다. 녀석은 서운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가 혼자 가서 놓아 주고 오겠다면서 조심스레 통을 들고 산으로 갔다. 한참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길래 쫓아가 보았더니 녀석은 산 근처의 자그마한 바위 위에 덩그마니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빈 벌레통을 들고, 팽개 밑에 앉아 있는 녀석의 웃옷은 금방 새것으로 같아 입었음에도 땀에 뚝 젖어 있었다. 이마에도 볼 옆에도 땀이 흐른 자국이 줄줄이 그어져 있었다. 내가 가까이 접근하자 녀석은 손등으로 얼른 눈시울을 닦았다. 워낙 마음이 여린 녀석이라 메뚜

기와의 이별이 슬펐던 게다. 가슴이 풍클해 왔다.

나는 녀석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일부러 시선을 주지 않고 씩씩하게 물었다.

“메뚜기하고 굿바이 잘 했어?”

“.....”

녀석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녀석을 포옹해 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녀석이 더 엉엉 울기라도 할까 겁이나 그냥 일어서며 풀밭을 향해 소리쳤다.

“메뚜기야 잘있어. 우리 패트릭하고 친구 해 주어서 고맙다. 오래오래 잘 살아라!”

녀석도 따라 일어났다.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돌아오면서 녀석은 나의 손을 잡았다.

“있지, 마미. 메뚜기가..... 벌레통 문을 열어 주었더니 뛰어나와서는 얼른 산으로 가지 않고 내 손등에 올라왔다가 땅으로 내려갔어. 아마, 나에게 인사를 하고 가려던 거 같애.”

“그래? 어쩌면! 무슨 인사였을까?”

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약간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놓아 줘서 고맙다고”

“그래..... 그런지도 모르겠다. 메뚜기는 맛있는 풀을 매일 먹여 준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녀석의 이별의 아픔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묵묵히 있던 녀석의 눈망울이 또다시 흥건히 젖어들었다.

“마미, 왜 하품을 하면 눈물이 날까? 아까부터 자꾸 하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자꾸 눈물이 나…….”

제 어미를 닮아 눈물이 흔한 녀석은, 제 맘대로 주체되지 않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창피해 뜯금없는 하품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녀석의 능청을 받아 주기로 했다. 나 역시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 주는 일보다 녀석의 능청에 맞장구를 쳐 주는 쪽이 훨씬 더 수월하리라는 꾀가 나서였는지도 모르겠다.

“글쎄, 하품을 하면 왜 눈물이 날까……. 마미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가짜 하품을 해대며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녀석의 팬티 마임에 속아 주며 우리는 김포 공항으로 향하는 언니의 차에 올라탔다. 몇 시간 후, 점점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비행기의 창 너머로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서울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녀석은 비행기의 창가에 머리를 박고 두 눈을 깜빡거리며 말이 없었다. 삼십 년 전, 차갑던 비행기 창에 코를 박고 점점 작아져 가는 내 고향 땅을 가슴에이게 내려다보고 있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눈 가도 촉촉히 젖어들었다. 나 역시 가짜 하품을 해야 할 판이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소녀 시절 시작된 낯선 땅에서의 새 삶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색다른 생활의 하루하루에 적응하기 바빠 곤두박질을 하는 나날이었다. 한국에서 영어를 그렇게도 싫

어했던 이유가 그 과목을 가르치는 지도방법이 나와 궁합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나는 날로날로 나보다도 더 일찍 미국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을 앞질러 가며 영어를 내것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수동적인 배움에 능숙한 학생들이 우등생으로 인정을 받고 학생 본인의 실력보다도 학생의 가정형편이나 배경이 더욱 유세를 하던 사회에서 벗어났다는 자유스러움이 나로 하여금 날개 돋친 새와 같은 기분이 들게 하곤 했다.

한국인의 친구가 거의 없다시피 보낸 대학 시절에는 백인 친구들의 무리에 끼여 거리를 걷다가는 무심코 유리창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흄칫 놀라곤 했던 적도 있었다. ‘저기 있는 저 까망머리의 아이는 누구지?’ 하는 일순간의 의문이 들 정도로 나는 철저히 미국화 된 ‘바나나’였다.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미국인하고의 결혼을 하게 되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대꾸해 줄 답이 참으로 궁색하다. 같은 문화 속에서 자란 미국인 두 사람이 유난히 죽이 잘 맞아 함께 있으면 즐겁고 정서와 영혼의 궁합도 잘 맞아 편안하기에 결혼했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무리없는 이치인데도 그 와 내가 다른 살 색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아니 유독 한국인들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 오곤 한다. 그들에게 남편은 항상 궁금증의 대상이기도 하다.

신혼 시절, 다양한 한국의 생활용품들이 갖수입되어 오기 시작

하던 때가 있었다. 없는 것이 없는 미국이라지만 옛날 한국에서 보았던 눈에 익은 상표가 찍힌 물건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번쯤은 그 물건을 집어 보게 되는 법이다. 어느 날 가까운 한국 마켓을 찾았다가 백양표라는 간판을 내건 속옷 가게를 발견했는데 신혼초의 빼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발견한듯 남편의 속셔츠와 팬티를 바리바리 사들고 오고 말았다. 그 날의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한국산 속옷의 가를 수 없는 인연은 맺어졌다.

아내 잘 만난 덕에 품질 좋은 한국산 면 속옷의 진가를 알게 된 남편은 다른 것에는 굳이 까탈을 부리지 않아도 속옷만큼은 미제보다는 한국 상품인 ‘팩앵’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속셔츠를 입으려던 남편이 동작을 멈추고 망설이더니 혹시 한인 타운에 나갈 일이 있거들랑 속셔츠와 팬티를 좀 새로 사와야겠다면서 벗은 옷을 나에게 내밀었다. 짬돌이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남편이 드디어 새옷을 사오라고 백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이의 속옷은 눈만 흘겨도 찢어질 듯 낡은 상태였는데도 차마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날 따라 비도 부슬부슬 오는 꾸물꾸물한 날에 굳이 차 사고 많은 한인타운까지 가려니까 피가 나려고 했다. 마침 코스코에 갈 일이 있길래 거기서 파는 속셔츠를 사오면 어떨까고 슬쩍 물어보았더니 남편은 완강히 고개를 저어대며 꼭 오늘이 아니라도 좋으니 절대로 ‘팩앵’을 사다 달라는 것이었다.

십여 년 전, 저 멀리 이국 땅의 사람들이 입는다는 속셔츠를 입으라는 마누라의 성화에 못이겨 마지못해 백양표를 입기 시작한 남편은 어느 새 ‘팩앵’만 고집하는 골수 팬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그 날 저녁, 새로 사온 속셔츠와 팬티를 빨아 개켜놓은 세탁장을 열어 새옷을 꺼내 입으며 ‘음……, 아이 러브 팩앵!’이라며 감탄사를 던졌다. 나도 잘 안 사 입는 한국산 속옷을 고집하는 남자. 무늬만이라도 한국인인 아내 덕에 남달리 촉감 좋고 품질 좋은 속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남자. ‘팩앵’만 입는 남자. 바나나를 아내로 둔 남자이다.

80년 초반에 대학 동기로 만나 어찌어찌해서 85년 여름에 결혼을 했으니 그와 나는 비교적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을 공부하려 동부의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UN에서 인턴쉽을 하는 등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는 바쁜 몸짓에 분주하던 때였고, 나는 나대로 다니고 있던 대학을 옮기며 전공을 바꾸어 보려는 변화를 시도하려 여러 모로 역부족인 나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던 ‘격동의 시절’이니만큼 우리는 어쩌다 가끔씩 보내는 편지에도 긴 장문들을 엮어 내려가곤 했었다.

그이도 나도 글쓰는 일이 수고스럽고 번거로웠다면 아마도 우리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얼마 전 이곳 한인사회의 한 신문사는 남편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동화를 쓰는 변호사였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선입견이 두 권의 그림 동화책을 낸 아동작가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기에 흥미있는 기사감이 되었으리라.

그 기사에 나는 ‘한국인 부인 아무개 씨’라는 꼬리표를 달은 걸 다리로 남편과 함께 사진에 찍혔었다. 이제는 듣기에도 생소하기 만한 내 이름 석 자에 ‘한국인 부인’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어 있는 활자를 보자 웬지 그 감회가 참으로 새로웠다.

‘저 집은 대체 무슨 음식을 먹고 살까?’

‘저 여자는 어떻게 미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그 집 애들은 한국말을 할까?’

기사를 읽는 교포들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그러그러한 의문들이 잠시 뇌리를 스쳐갔으리라.

하루 종일 영어로 지껄이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을 꾸면서도 이렇게 한글로 꼬직꼬직 글을 쓰기도 하는 1.5세 바나나 아줌마는 이렇게 나의 내면에 공존하는 양면의 문화를 가족들과 나누며 예쁘고 자랑스러운 가정을 꾸며 가며 살고 있다고 속으로 대꾸하면서 가만히 미소를 지어 본다.



강혜영

가작 / 일본

언어(言語)와 문자(文字)의 벽(壁)을 넘어

나는 귀가 있었어도 들을 수가 없었고, 입이 있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으며, 좌우 1.2 정도의 훌륭한 시력을 갖고 있었지만 볼 수가 없었다.

결혼이란 두 글자는 이렇듯 나를 순식간에 장애자 아닌 장애자(障礙者)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내 나이 50, 오랜 이국 생활 만큼이나 많이 생겨난 주름살. 지금은 내가 쓴 책 「隣の國から 안녕하세요!」가 이국(異國) 땅 일본의 전국 어느 서점(書店)에서도 구입해 볼 수 있게 된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부터 28년 전인 1975년, 나는 재일동포 2세인 지금의 남편과 중매 결혼하면서 일본 오사카에 살게 되었다.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일본말, 처음 겪어 보는 낯설은 이국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젊음탓이었는지 촌뜨기, 철부지였던 난 배짱 하나만큼은 좋았던 모양이다.

자금이야 훌러 넘치는 것이 정보(情報)들이지만 당시만 해도 딱 정해진 정보에만 의지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또 이국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가끔 어렵게 봤던 영화의 화면 세계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동경의 세계를 그려보는 재미는 차라리 흥미진진한 달콤한 세계였다.

이렇듯 일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꿈 많은 신부의 눈을 호기심으로 가득 채웠다.

일본 사람들의 생활은 역시 윤택했다. 세계 1,2위를 자랑하는 부자나라 일본. 어디를 가나 눈부시기만 해서 마음속에는 ‘하루빨리 우리 나라도……’ 하는 부러운 마음뿐이었다. 상점에는 외국 제품들이 넘쳐나고, 스위치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먹음직스러운 쌀밥이 곧바로 지어졌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빨래판을 통에 걸쳐 힘들게 빨지 않아도 깨끗이 세탁되는 자동 세탁기가 너무 맘에 들어서 마냥 어루만져 보기도 했다. 남편이 차를 몰아 유원지며 바닷가며 가고 싶을 때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났던지, 차만 타면 멀미를 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호강에 초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비록 나는 일본말을 몰랐지만 입으로 흥내만 내면 대충 통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주위에서 대충 들어서 알게 된 일본말. 그래서 적합하지도 않은 단어들을 더듬더듬 흥내내면서 그럭저럭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또 나의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또 어떤 때는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느끼기까지 했다. 같은 아시아 국가, 뚜렷한 사계절, 사람들의 생김새, 식재료 등등…….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일본은 보일 듯 보일 듯 보이지 않으면서, 어색하고 낯설은 땅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아내 노릇 한답시고 신문함에 와 있는 신문을 남편에게 열심히 날렸다. 그러면 어느 날, 내용이 알고 싶어서 한번 펼쳐본 신문에는 내가 아는 몇몇 한자(漢子)만 보일뿐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신문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슈퍼마켓의 상품 그림들과 가격을 매겨 놓은 숫자뿐이었다. 풍물해진 가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틀에 박힌 생활의 연속들……. 갈등이 생겼다.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한, 이 사회의 말과 글을 모른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제자리걸음과 위축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단 일본어를 배우기로 맘먹었다.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공부’라는 말이 왜 그리도 무겁게 와닿는지, 일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마음뿐이었다. 간혹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시작해 보았지만 3 일도 못 가서 내팽개치곤 했다.

글을 몰라 힘들 때면 ‘차라리 까막눈이 되면 내가 생각한 것만으로 지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말이 통하지 않아 입장이 곤란할 때에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 의식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자위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다. 주위 사람들이 이방인인 나를 이해하고 감싸 주기는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초조해지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다. 사람들 누구에게나 걱정근심 하나쯤 없을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언어’라는 또 하나의 장벽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사회에서건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사회에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색함이 없이 살아가려면 언어와 문자의 장벽부터 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집 근처의 야간 중학교에라도 다녀 볼 요량으로 전화로 문의를 해 보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 집 환경과는 맞지 않았다.

그 당시 나와 남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학교 다니겠다고 생업을 팽개칠 수는 없었다.

결국 혼자서 일본글을 배워 보기로 했다. 나는 그 동안 결혼 후 일본어 학교에 보내 주지 않은 남편, 시부모에 대해 불평을 늘어 놓기도 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누가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평계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 살려면 말과 글을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나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내 힘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이 수월해지면 웬지 자유로워질 것 같고, 마음이 든든해질 것 같고, 여유로운 생활이 될 것 같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남편이 마음내킬 때만 알려 주는 TV, 라디오의 뉴스 내용도 혼자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혼자 헤쳐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마음이 뿌듯해졌다.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일본어를 배워 나가기 시작했다.

일본어를 조금씩 알게 되자 남편이 보는 00신문을 보고 내용이 궁금해졌다. 신문에 ‘韓國’이라는 단어가 눈에 띠면 그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읽고 또 읽었다. 이러한 일은 일본말을 배워 가는 나에게는 또 하나의 재미로 다가왔다. 예전에는 몸이 피곤해서 아침이면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문 읽어 보는 재미로 빨리 일어나곤 했다. 이 신문을 통해 일본 사회가, 한국이,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문자를 통해 얻은 정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 등은 마냥 이방인이고 외톨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자신을 점점 이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깨달아 가게 만들고 있었다.

가게일을 하면서 틈틈이 신문에 나와 있는 글자를 무조건 그대로 옮겨 써 보는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문장을 읽고 나서 그대로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졌다. 그래서 모 험을 한 것이 신문에 독자 투고를 써서 보내기로 했다.

1984년 10월 29일로 기억된다.

그 날자 요마우리 신문 조간 「窓」란에 내가 익명으로 보낸 투고가 그대로 실렸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눈을 의심하면서 읽고 또 읽어 보았지만 틀림없이 내가 썼던 글이었다. 내가 쓴 글이 일본 신문에 실리다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 일본은 고도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마이 홈’ 붐이 일어났다. 우리 집도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짐 을 정리하면서 한 권의 낡은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노트를 보면서 10여 년 전의 내 모습이 추억으로 되살아났다.

나는 결혼 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비서실에 근무했었다. 학장님은 이국만리 시집가게 된 나에게 “우리 강아지, 너 일본

가면 뭐든지 좋으니 여기다 적어 두어라” 하시면서 노트 한 권을 주셨다. 그 때 철없던 나는 속으로 ‘에계계, 고작 공책 한 권!’ 하고 투덜대면서 받아 두었는데, 어떻게 일본에까지 들고 왔던 것 같다. 펼쳐 보니 보나마나 무엇하나 적어 놓은 것이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곧 서울대로 국제전화를 돌렸다. 퇴직하신 학장님의 안부를 물어보니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다. 인자하셨던 학장님의 얼굴이 떠올라 그 동안 배은망덕한 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용서해 주세요. 학장님!’ 하고 하늘을 보면서 빌고 또 빌었다.

공책을 찾아 낸 후로 학장님의 그 말씀이 귀에 생생해 그 때부터 나는 ‘마이 북’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고향 한국과 또 하나의 고향 일본, 내가 두 나라에 깊은 인연을 갖고 태어나게 된 운명의 발자취를 적어 보고 싶었다. ‘내일(來日)의 자기사(自己史)’를 갖고 싶었다. 백발에 지팡이 짚고 늘어난 주름살이 만들어 낸 내 인생살이를 고백하고 싶었다. 두 아들에게는 딴 애들의 엄마와는 다르게 서투른 일본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활자체로 만들어 장롱에 넣어 두고 죽었으면 하는 욕심도 생겼다. 책이 만들어지면 학장님의 묘 앞에 가져가 바치기로 다짐도 했다.

노트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일은 몇 년이나 계속되었다.

노트를 적어 가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면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버릇 하나가 생겼다. 집에서 제일 높은 베란다에 올라가

두 팔을 높이 들어 손깍지를 끼고, 발뒤꿈치를 세우면서 부르는 노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돛대도 아니 달고

돛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웬지 속이 후련해졌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서쪽 나라 내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 동안 쓴 노트장을 모아 보니 한 손으로는 들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손으로 썼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다. 원고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흐뭇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2000년 12월 19일 동경에 있는 文藝社라는 출판사에 이 원고를 보냈다. 이듬해 1월 6일 출판사로부터 한 통의 답장이 날라왔다. 펼리는 손으로 펼쳐 보니 내 작품이 당선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현관까지 달려나왔다. 그 때 남편은 울고 있는 나를 보고 고향

에서 누가 죽어서 전보를 받았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원고는 출판사측의 도움을 받아 마이 북 「隣の國から 안녕하세요!」로 탄생했고, 그 해 7월 15일부터 전국의 서점에서 발매되었다. 재무대신인 시오카와 마사주로(塩川 正十郎) 씨는 이방인인 내가 쓴 책에 추천문을 써 주었다.

부족한 내가 글과 말을 배우고 책까지 내게 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언어의 핸디캡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한 이방인의 도전과 용기가 있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책이 발간되고 나니 많은 것이 달라졌다. 가게 단골손님인 N 의사는 부인과 함께 이 책을 열 권이나 사 와서 표지에 사인을 해달라고 졸라댔다. 사인한 책표지에 눈물이 흘러 번져 내렸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낯선 생활환경에서 동정을 받으며 힘없이 살아온 줄만 알았는데 이 책은 나에게 커다란 삶의 힘이 되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이렇게 해서 나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지도 모른다.

이국 땅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처럼…….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그립고 포근했던 옛이야기에 흠뻑 젖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정파로우

작자 / 영광

지난 10년 동안.....

태어나 막 3개월이 된 아들아이 혼아를 등에 업고 한 손에 우윳병과 기저귀가 든 책가방을 그리고 또 한 손에 4살 난 딸아이 영아의 손을 끌며 힘들게 버스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계획에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 대학입시 공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36살의 중년의 나이에 그것도 머나먼 타국에서.....

작은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 내 그 희귀한 모습은 당장 나를 유명한 구경거리로 만들어 주위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사람들은 내가 지나갈 시간을 기다려 일제히 커튼을 열어젖히며 신기해하곤 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인간적인 아기를 등에 업은 엄마의 모습이 영국 사람들에게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으로 보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아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 때 삶

과 죽음의 세계를 함께 헤매고 있던 내게, 동물원의 원숭이로 보였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으랴.

심한 출혈과 진통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간 기억은 나지만 내가 출산을 하고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기까지는 일 주일이란 시간이 지나 있었다. 의식불명으로 해맨 며칠 사이에 생과 사를 오락가락, 첨단 기계 속에 묶여 수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렴풋이 내 눈에 비친 갓난아들 현아의 잠든, 그 천사 같던 모습……. 지독한 진통과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생명의 경이함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의식을 되찾은 내게 산후 처음으로 배달된 병실의 식사는 마른 토스트 두 조각과 한 잔의 티였다.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마르지 않은 내 눈물과 우울증은 그 때 그 마른 토스트를 꾸역꾸역 삼키면서 시작된 것 같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미역국을 고파하며 나는 울고 또 울었다.

한 달 후 퇴원을 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내 절망은 더 깊어만 갈 뿐, 철없는 네 살짜리 딸아이와 밤새워 울어대는 갓난아들 그리고 이미 10kg 이상을 끓어버려 양상해진 뼈만 남은 몸으로 기진맥진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내게, 내 손으로 밥을 지어 쟁겨 먹고 쟁겨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밀려오는 서러움으로 목이 메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간호사의 방문을 받았고, 넋나간 여자처럼 지쳐서 명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그녀는 내가 정신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을 한 것 같았다. 학교에 full time 으로 등록을 하면 아이들을 무료로 돌보아 줄 뿐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내 아픈 현실을 잊게 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 된 그 때의 학교 생활이 지금 내 인생의 시작일 줄이야. 벌써 10 년 전의 일이다.

보통 사람들은 20대에 이룰 수 있는 꿈들이지만 나는 40대를 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런던 시티의 일인으로 직장인, 엄마, 주부로서의 3인 역할로 바쁜 하루를 이어가고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30년 전 겨우 중학교를 졸업해 기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만 했던 내게 영국의 대학입시 과정을 밟기 위한 내 영어 실력은 턱 없이 부족했고 수업을 조금씩 알아듣기는 했지만 책을 읽고 에세 이를 쓰기에는 완전한 초보자로서 시작이었다. 또한 중학교를 끝 으로 일반 공부를 끝내야 했던 내게 수학의 인수분해나 근사치 같 은 것을 기억해 낸다는 것도 너무나 무리였다.

그러나 밤을 지새며 올어대는 갓난 현아를 얼터 가면서 함께 풀어가는 인수분해, 최상치 등의 생소한 수식들은 먼 땅에서의 외로움을 잊게 해 주는 내게 가장 좋은 우울증의 치료제였다. 나는 내 모든 슬픔과 고뇌, 외로움을 책 속에 그리고 영국 교육에서 가

장 중요한 에세이 쓰는 법을 끝없이 배우고 또 반복 연습하면서 그렇게 정신 없이 몇 개월을 보냈는데…….

그 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내게 대학입시 원서를 내밀었다. 유일하게 우리 반에서 박사학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나는 단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던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 남의 땅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꿈에서만 그려 왔던 대학생이라니, 그것도 중년의 나이에, 남의 나라에서, 두 젖먹이를 테리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불가능도, 한계도 없다는 것을 나는 1년 동안의 입시 준비 과정에서 그리고 다음 4년 동안 이어지는 나 자신의 대학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 때 입시 준비 과정에서 만난 담임 선생님 Peter는 역사를 가르쳤었는데 그는 깊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때까지 지나고 있던 모든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내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를 알려 주었다.

항상 너덜너덜한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새였지만 진실 그 자체로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그는 대영제국이 어떻게 무력을 사용해 힘있는 국가가 되었는지를 가르쳤다. 무기와 군사력이 아니었다면 그들 역시 지배당하고 살았으리라는 말까지. 그리고 해적의 자손

임을 떳떳이 인정하는 그, 그래서 신사의 나라 영국이 진짜 신사가 되고 싶어 무력을 자제하게 되었을 때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도 어쩔 수 없이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를 통해 배웠다.

비판력을 갖는 것 자체가 죄가 되었고 언론의 자유가 한정되었던 70년대에 교육을 받은 나에게 그의 너무나 비판적인 태도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그가 던진 한마디;

‘역사란 진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실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잘잘못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현재를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학교 때 배워서 기억해 낼 수 있었던 한국의 역사를 게 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박힌 지겨운 날짜 그리고 왕 이름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때 마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통해, 또 대학에 와서는 일본학에 이어 한국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택해서 나는 한국사를 파고들었다. 그렇게 해서 배운 것들은 그 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용감한 한국 역사와 많이 상반된 것들이었으며 그 때 나는 오늘날 까지 역사 교과서 문제로 자주 분쟁에 휩싸이는 한국과 일본을 관계를 떠올리며 씁쓸했던 것을 기억한다.

영국에 살면서 몇 년 동안 잃어버린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게 되자 나는 공부에 더욱더 매달렸고 1년 후 그 입시 코스를 무사히 마쳤을 때 나는 우리 도에서 ‘최우수 성인교육 성취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37살의 주부로 유럽에서는 동양학으로 제일 유명한 S 대학의 학생이 되어 있었다.

인간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진실을 배워 가는 과정에서 영국과 한국의 문화, 교육의 차이에서 내가 받은 충격들은 그 뒤 대학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된다.

처음 일 주일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학생관 복도에 붙은 동성 연애자 환영 모임 포스터……. ‘신성한 학당’이라는 문구만 믿고 살아온 내게 그 bisexual meeting이란 단어가 안겨 준 횡당했던 기억은 6·25 전쟁의 폐허에 일구어 온 내 세대의 삶과, 유교사상으로 점철된 내 정서에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건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했다.

대학 입사 과정 반에서는 낮에 공부하며 주중 3일 동안 펌에서 일하는 급우가 있었는데, Single mother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 지레짐작을 한 나는 동정과 연민의 감정으로 저녁에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란다. 나중에 그 남편이 지리학 박사로 유명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안이 병벙해져 왜 밤에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재차 물었다. 대답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술집여자(?)를 아내로 둔 대학교수로서의 사회적 체면 같은 것은 접어 두더라도,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도 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실에 상관치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 역시 ‘노’였다. ‘자식을 돌보는 것은 남편도 함께 해야 할 임무’라는 말 까지 덧붙이면서.

대학 2년 차, 일본학 박사였던 주임교수는 그 때 당시 29살 노처녀 동갑내기였던 반 친구 S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재학중인 제자와 스승의 결합의 불결 감 내지 경이함 같은 것은 고사하고라도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결혼이라고 믿고 있는 나는 정말 우리 애들 말대로 구세대 출신이라선가?

S는 일본에서 나이트클럽 댄스로 5년간 일하고 그 술집이 불황으로 문을 닫는 바람에 영국으로 돌아와 운 좋게도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술집여자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며, 일본의 밤 세계, 도쿄 뒷골목의 호스티스 산물 같은 끈적끈적한 삶을 자주 들려주곤 했었다.

이런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안겨 주는 사랑 이야기들을 가슴에 안고 나는 당시 5살이 된 딸아이와 함께 학부 과정의 일부로 3개월간의 일본 어학 연수를 떠났다.

연수기간 도쿄와 오사카 두 가정에서 만난 가장 두 분은 각각 북한, 만주 출신의 60대였는데 그들의 과거사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옥의 세계로 몰아넣었던 ‘일본 놈’의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이 전쟁이라는 잔혹한 실체 속에서 피해받은 평범한 인간사, 그것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였다.

도쿄의 나까무라 상은 네 살 때 당시 북한 청진에서 군인으로 있던 아버지가 종전과 동시에 소련의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어머니, 누이와 함께 일본 귀향자 틈에 끼여 청진에서 부산까지 걸어야 했단다. 일본 귀향선을 타기 위한 그 질병과 추위, 짙주름의 노정에서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그만 목숨을 잃고, 나까무라 상만이 다른 일본인의 도움으로 부산까지 올 수 있었다고 4개월에 걸쳐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는 신고 있던 게다가 다 닳았었다고 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 가지 잊지 못할 일이 있다고 — 부산에서 한국인 소유의 어떤 고깃배를 겨우 빌려 탔을 때, 한국인 주인이 그에게 첫날,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김치를 챙겨 주었는데 그 때 그 밥맛을, 꿀보다 달콤했던 그 밥맛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그렇게 맛있는 밥을 지금까지 먹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번에 한국 학생을 받게 되어 정말 반갑다고…….

그리고 또 자신은 그 무서웠고 추웠고 배고팠던 어린 시절의 쓰라린 기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장이 된

그 때까지도 외국 여행을 한번도 못 해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서 세계를 두려움 없이 돌아다니는 나를 부러워했다. 그에게 전쟁의 상처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지니고 있던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은 그 때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할까?

나이 어린 영국 급우들을 제치고 받아 내는 학교 성적도 그랬지만, 동양학(한국, 중국, 일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배우는, 그리고 일본의 소설, 잡지 등을 직접 읽으며 쌓여가는 지식과 그것으로 얻어지는 삶의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은, 두 젖먹이를 데리고 왕복 2시간을 왔다 갔다 한 고난의 통근길도, 시험 기간이면 며칠씩 신경성 설사를 겪어야 했던 정기적인 고통도, 자주 앓는 고열과 설사로 긴 밤을 아이들과 함께 꼬박 새워야 했던 그 수많은 밤들도, 배움의 희열과 성취감에 묻혀 내 4년간의 대학 생활은 꿈같이 흘러, 어느 새 40대의 주름진 얼굴로 변해 버린 5년 전, 남편과 아이들의 손에 끌려 꿈에서만 그리던 대학 졸업장을, 나는 일 등급(first class degree)의 영광으로 받아 냈다.

비록 남들보다 20년 이상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힘들게 받은 대학 졸업장이 안겨 준 고용기회 덕분에 나는 지금 런던의 어느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 한국인 고객들과 더불어 보람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중학 시절 만원 버스에 구겨 타는 게 싫기도 했지만 버스비 10

원을 아끼기 위해, 겨울이면 풍꽁 언 손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을 벗삼아, 여름이면 끝없이 이어지는 경부선 철로의 아지랑이를 벗 삼아, 산과 들을 넘어 작은 발걸음을 쉼 없이 옮겨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배움터, 그렇게 고달픈 행로를 오가면서 막연히 먼 나라 영국을 꿈꾸었는데…….

가끔은 영국인들의 만사 태평 자세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에 물들어 있는 내 사고방식과 충돌이 일면 ‘이러니 요놈의 대영제국에 다시는 해가 안 뜨지’ 하며 중얼거리곤 했는데 나는 왜 영국이 다시 부흥의 길로 돌아서고 있는지 그리고 영원히 해가 지지 않으리라는 대영제국이 결코 그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대학 생활을 거쳐, 다시 서비스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영국의 사회생활을 통해 조금씩 배워 가고 있다.

한국은 지금 세계 11대 무역국으로 성장해 있고, The most wired nation in the world로 알려져 세계 최첨단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주부와 여성들에 주어지는 기회는 그 성공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가. 미혼모의 소외감, 가정폭력, single mother에 대한 편견……,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모두모두 사라져…….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의 여성, 주부들에게도 나와 같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남들이 몇백 년에 걸쳐 이뤄온 경제부흥을 우리는 지난 50년 만에 해 냈고 그 짧은 기간

중, 세계 11대 무역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우리들이었기에……. 한국 사회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너그러운 사회가 멀지 않은 날 꼭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고 싶다.

가능성의 잠재력은 우리 인간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김해순

작자 / 독일

민족성과 문화가 담긴 언어

고향을 떠난 지 어언 30년이 되었다. 나는 반평생 이상을 유럽인 독일에서 산 셈이다. 뒤돌아보면 세월이 말해 주듯 독일 문화에 잔뼈가 굳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행동과 언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독일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끈끈하고 진한 영양분이 보이지 않는 정체성의 근간이 되어 나를 오늘날까지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그렇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우리 한민족 문화와 유럽 문화의 융합의 산물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때가 있다.

살아오면서 느끼지만, 양쪽 문화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보완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양 문화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어떤 면은 상반된 뜻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점은 떼로

는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 차이점으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을 나는 자식을 키우면서 더 심각하게 겪는다. 나의 체험담을 여기서 잠깐 펼쳐 보고 싶다.

하루는 아들이 내 서재에 들어와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수화기를 불쑥 내밀었다. 수화기를 바꾸어 든 순간 저편에서 낯선 사람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이 교육을 잘못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어요!”

“김 박사, 학생을 가르치면서 자식은 왜 저렇게 가르쳤어요? 나도 자식 농사 잘못 지었지만 그래도 애비 이름은 안 부릅니다. 저 녀석, 엄마를 ‘해순’이라고 하는데 말버릇 좀 고쳐야겠어요.”

‘자식 농사’를 언급하는 말투 속에서 나는 그 분이 누구인지 짐작이 같다. 몇 해 전에 그 분과 자식 교육 문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우리 동포였다.

그 분은 3대 독자이고 가문이 유지되기 위해 아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나 아들은 독일 여자를 사귀면서 독일식으로 아이 없이 살고 싶어 했고 자유롭게 자신의 주관대로 살기를 원했다. 그 분의 자식에 대한 불평은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듣고 경험하는 문제이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 것이며 자신이 하는 일에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성년이니 너무나 한국식의 교육을 종용하지 말라는 위로와 당부로 이야기를 맺고 헤어졌던 분이었다. 그래서 그 분은 나의 자식 교육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계셨던지 “김 박사님은 학자이시니 저와는 달리 아이를 잘 키울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성(한국)이 뚜렷한 교육을 시켜 달라고 주문도 하셨다. 부모에게 공손하고

타인에게 예의바른 말씨를 쓰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셨던 것이다. 그 분은 나의 민족성이 투철하지 못한 교육에 실망하고 내 아이의 말투에 불쾌감을 가지셨던 모양이다. 아들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질책감이 몰려와 순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상기해 보건대, 이런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사실상 그 동안 여러 한국 분들이 나에게 자식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당부를 한 적이 있었다. 한국 분한테서 전화가 오면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마마(엄마)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그랬더니 아들의 대답이 결작이었다.

“나는 외국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보지 않으면分辨 못해!”

아들은 ‘마마’(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독일식으로 ‘너’라고 낚춤말(해라)을 했다. 내 이름을 부르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사실상 변명 같기도 하지만 독일의 관습이고 아들에게 이미 길들여진 습관이다. 그러나 날 마마라고 부르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들은 적을 안 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나처럼 부탁을 했다면 분명히 ‘네’ 했을 것이고 또 부모가 시키는 대로 두말 없이 실천했을 것이다. 이런 교육에 젖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들도 나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이런 나의 아들에 대한 기대는 종종 벗나갔다.

한국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많은 한국 분들의 지적이 맞다. 그래서 자식 농사 잘 못 짓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이렇다 할 뾰족한 방안을 얻

지 못해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다. 독일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반화 되어 있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독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한국식의 언어 생활을 관철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독일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질책을 받을 때마다 나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양심의 가책을 받곤 했다. 우리의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언어 뒤에 숨겨진 한민족의 얼을 아들에게 심어 주지 못해 안타까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가족끼리, 친구 사이에 잘 아는 사람으면 서로 낚춤말(해라)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다. 이 점은 유교의 사회적인 윤리관과는 차이가 있다. 유교 원칙에 의해 우리는 부모에게, 나이가 많은 모든 사람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라는 명언이 있듯이 나는 독일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일의 관습대로 낚춤말(해라)을 사용한다. 특히 나의 시집은 다른 가족들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남편의 형제는 1968년의 독일 학생 운동권의 세대로서 자식에게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다. 직접 본인들의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 내가 내 아들에게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시키면 그들은 당장 나의 말을 바로잡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도록 요구한다.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그 이면에는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생각하며 한 독립된 개인으로 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지성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다.

나의 시집 식구들에게 엿볼 수 있듯이 언어에는 사회적인 윤리

와 인간관계의 질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가치관이 반영된다. 그래서 언어는 사회문화를 대변한다고 풀어 말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동안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규율을 지켜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을 교육시킨다. 우리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을 어른이 되면 자식에게 가르치며 전승시키고자 노력한다. 가르치고 전승하는 작업은 언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을 문화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위는 역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는 언어에 총 집합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시대와 사회는 날로 변화한다. 인간의 사고와 정신 그리고 가치관과 행위도 달라진다. 아울러 인간관계의 질서도 바꿔진다. 이 흐름을 언어도 안 탈 수가 없다. 이런 변화는 전통을 고수하는 부모와 새로운 물결을 타고 자라는 아이들 사이에 역력히 나타난다. 세대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와 화합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한 문화권 내에서도 전통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물며 부모와는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전통을 고집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내 아들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이중으로 문화 적응 문제가 따른다. 부모의 문화와 자라고 있는 현지의 문화를 동시에 익히기란 아들에게는 무리가 따른다. 아들은 서로 상반된 문화에 맞게 행동을 하기란 때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다. 이 현상을 아들이 유치원에 갈 때부터 나는 뚜렷하게 경험했었다.

아들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말을 곧잘 했었다. 물건을 두 손으로 어른에게 건네주는 연습과 함께 공손한 태도를 가르쳐 주었다. 모든 것을 잘 따라했었다. 그러나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들은 한국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유치원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면 이해를 못해 망설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 혼란을 빚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태도도 보였다. 그 때부터 내가 한국말로 하면 독일어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아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독일말만 했다. 내가 한국말로 하면, ‘나 이해 못해’ 하면서 들은 척을 안 했다. 이런 일이 빈번해졌다. 공손하게 물건을 갖다 주는 태도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때로는 내가 시키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내 앞에 던져 버리고 방을 나가기도 했다.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에는 우리 말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로 우리말을 통째로 잊어버리거나 않을까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아들을 한 번 시험해 보기로 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다가 놔두고 그 과자를 꺼내오라고 했다. 물론 한국말로. 아들은 함박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 과자를 꺼내오는 게 아닌가. 나는 그 때 알았다. 아들이 한국말을 안 하는 것은 싫다는 의미이고 그 언어에 동질성을 못 느낀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런 현실에 부딪히면서 나는 나의 방법으로 아들에게 양쪽 문화를 심어 주기는커녕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마음을 가질수록 한국말을 배워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커져만 갔다. 사실상 이것은 나의 커다란 염원이었으니까. 교육이나 극히 적은 자료나 책으로 언어를 배워 주고 수동적

인 방법으로 다른 문화권을 이해시킨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다른 방안을 고안해 냈다. 한국을 보내는 게 바로 그것이었다.

다른 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문화와 상이한 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인 문제를 풀어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그 길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언어를 배우면서 다른 문화권을 알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권을 경험하면서 언어를 서서히 배우게 하든지, 순서가 어떻든 상관없었다. 배우면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나의 모국어(한국어)를 배우도록 한국에 자주 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한국 말을 배우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정감을 대화를 통해서 느끼도록 하고, 얼과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여 언어에 맞는 행동양식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이 한국 민족성을 고양하는 교육으로도 아주 바람직하다고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 혼자 보냈다. 혼자 보낸 이유는 한국 말을 더 배울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같이 간다면 나는 틀림 없이 아들의 통역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들은 편하겠지만 한국 말을 한 마디도 안 할 것 같은 예감에서였다.

아들은 내 동생들(이모)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가기 전에 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 조카들 이름 뒤에는 ‘형’자를 붙여 주고 여자 조카는 ‘누나’를 붙여서 이름 부르는 연습을 시켰다. 아들은 ‘형’ 그리고 ‘누나’라는 개념이 이름인지 알았던 모양이었다. 한국에서 누나의 친구를 만나면 ‘00’누나라고 부르도록 했던 모양이다. 하루는 한국에서 전화를 하면서 왜 누나라는 똑같은 이름이

많으냐고 물었다. 누나는 나이 많은 여자 아이들에게 쓰는 존대어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은 자기에게 잘해 준 ‘00’누나와 ‘00’형은 그대로 누나와 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누나는 아주 못되게 굴어서 이름만 부르겠다고 했다. 누나라고 호칭되어질 가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나는 어떤 형이고 누나든지 상관없이 그 단어를 이름 뒤에 붙이고 그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자 아들은 어떤 여자 아이는 자기에게 ‘오빠’라고 하는데 오빠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아이에게 붙이는 존대어라고 했다. 그러자 어떤 여자 아이가 이모 집에 와서 ‘한요 오빠’라고 하면서 자기가 노는데 자꾸 방해를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가 그 아이 오빠면 그 아이는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아?”라고 물었다. 존대어를 사용하면 그 말에 맞게 상대방에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며칠이 지나 아들과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해순, ‘엄마’가 무슨 말이야, 그 말이 마마라는 소리야?”

라고 물었다.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었다. 이미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녀석이다.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해 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의도를 모른 척하며 이렇게 응수했다.

“그렇지. 듣기도 좋잖아. 너, 한국 갔다 오면 날 ‘엄마’라고 불러. 알았지!”

아들은 한국에서 약 3주를 보내고 돌아왔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일부러 ‘엄마’라는 단어를 써가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 놓았다고 알렸다. 그리고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이모는 맛있는 떡볶이를 내가 원할 때마다 해 줬어. 되게 맛있었어. 이모가 최고야, 최고.”

감탄의 연발이었다. 듣기도 좋았다. 정감이 담뿍 담긴 말씨였다. 그는 입맛을 챙겨 다시면서 계속 이모의 음식 솜씨를 칭찬한다. 칭찬하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이모 식구 모두가 최고로 잘해 주어서 또 가겠다고 했다. 언제 또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모는 누나와 형을 그들의 잘못이 없어도 야단을 친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누나와 형은 ‘엄마 잘못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라고 한다고 경험을 들추어 내고 있다. 왜 그렇게 야단만 맞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들의 눈에는 누나나 형이 잘못이 없어 보였지만 이모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상황을 다르게 본다고 설명을 해 주었다.

“해순, 그러면 한국식으로 엄마라고 하면 마마가 야단칠 때 나도 가판히 있어야 하잖아.”

내 이름을 부르며 엄마라고 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들이 전하고 싶은 의도는 엄마의 개념 뒤에 감춰진 권위가 싫다는 것이다. 그 점을 알리고 싶다는 그의 속셈을 내가 모를 리 있겠는가. 아들에게는 자식이 잘못한 일이 없어도 야단을 치는 부모의 태도와 일방적으로 규정된 부모의 규율이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에게 엄마라는 개념이 부모의 정당하지 못한 권리와 권리를 합리화한다는 뜻으로 비춰진 것이다.

“한요아, 네가 날 엄마라고 하면 난 널 야단치지 않을게.”

“해순, 그러나 마마가 잘못하면 나는 마마를 야단칠 수 있지?”

부모와 자식의 상호관계에서 일방적인 규율을 세우겠다는 의도이다. 나는 자식이 엄마를 어떻게 야단치냐고 꾸짖었다.

“마마가 잘못하면 그럼 누가 야단치는 거야?”

부모의 권위가 일방적이라는 지적이다. 잘잘못을 가려서 야단을 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언약된 가치판단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 기준에 토대를 두고 부모만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은 편협적이다. 그러니 아들에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하기야 교육이란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인간관계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개념에는 어른들의 차원만 반영되어 있다. 그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가치관을 세우는데 동양에서는 유교의 윤리가 출현되었고 서양에서는 기독교 윤리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 윤리와 도덕은 영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점도 많다. 그러나 이 토대 위에서 항상 바람직한 교육 효과를 거두는 것만은 아니다. 윤리와 도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것들은 때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점도 우리는 발견한다. 효과적인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 적용되든지 상관없이 어느 사회에서나 자식 교육에는 항상 갈등이 따른다고 본다. 요컨대 이 갈등은 현대의 현상만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문화권이 경험해야 할 문제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교육 문제는 인간 생활의 일부분이자 인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나는 간주한다. 소크라테스(기원전 470~399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생)도 피력했다. 청소년들은 퇴폐했다고

그러면 자식 문제가 정말 자식에 의해서만 파생되는가? 나는

교육자로서 나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부모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나의 전도된 명제를 듣고 학생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온다. 나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나의 명제를 펼쳐 나간다. 학생들은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 그러면 나는 나의 자식으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엄마로서 높은 성적을 얻고 있는가? 내 자식은 너무나 까다로운 채점자이다. 이 명제를 현실로 옮겨 놓는 데는 대단히 어렵다. 나는 자주 나의 모순 된 자신을 발견한다. 아들과 달 때 나의 강의를 아들이 어디서 듣고 오지나 않았나 하는 조바심도 있다. 그런데 노심초사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면. 나는 자식에게는 엄마이자 가르치는 사람이지, 이론가로서 주요한 명제를 펼치는 교수는 아니다. 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나의 가르치는 역할은 다른가? 교육의 구조적인 면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는 듯싶다.

독일의 학교교육은 일반적으로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으로 분리되어 발전되고 있다. 원래 교육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사회는 복잡해져 가고 모든 사회적 가능이 세분화 되어 가고 있어 이 영향이 교육에도 미친다. 인간 됨됨이를 가르치고 건전한 정신과 육체 발육을 도모하고 지성과 감정이 함께하도록 하고 사회의 가치관을 배워 주며 거기에 맞은 적절한 행동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오늘날 이 교육은 독일에서 주로 부모들이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인성교육이 오늘날 거의 배제된 상태이다. 가정교육은 자식의 행위에 직

접적인 책임을 안고 있고 학교교육은 사실상 부분적으로 맡고 있다. 이와 반면 대학은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미 성년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는 대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지식전달을 하고 있다. 나의 명제를 학생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옮기고 있는가를 통제할 이유도 없고 그들도 나의 명제를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지 아닌지 그들이 논할 영역도 아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고 안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나는 지식 전달의 기능자이다. 그러나 자식과의 관계는 아주 다르다. 자식은 나의 명제가 현실에 옮겨지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나의 행동을 평가한다. 나는 부모들이 독재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면 혹독한 비판을 하고 민주적인 태도로 교육을 시키는 부모이면 칭찬을 한다.

그러면 내 교육의 방법과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점 피아제²⁾와 버른슈타인³⁾의 이론에 반영해서 설명해 보자.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피아제는 1930년도에, 버른슈타인은 1970년도에 이미 발표했다. 그 이론들을 대별해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족 성원의 위치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상호관계가 이뤄지고, 다른 하나는 가족 성원의 인격을 위주로 부모와 자식간의 상호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버른슈타인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가족 성원의

2) Piag'et, J., *The Moral Jugemen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1932. 독일어: *Die Entwicklung des raeumlichen Denkens beim Kinde*, Stuttgart: Klett, 1973.

3) Bernstein, B., *A Sociolinguistic Approach to Socialization: with some Reference to Educability*. In: Williams, F., *Language and Poverty: Perspectives on a Theme*. Chicago: Markham 1970, 26~62쪽

위치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상호관계는 일반적으로 전통을 염수하려고 하며 그들의 역할은 상하의 위계질서를 위주로 뚜렷하게 분할되어 있고, 부모의 권위와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가 결정되어진다고 했다. 가족성원의 인격을 위주로 한 모델에는 각 개인의 요구가 반영되며 어떤 점을 결정짓기 전에 가족 성원들 사이에 대화나 토론이 우선 시행된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호간의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 낸 관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와 아들의 관계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 아마 그 증간쯤 될 것이다. 나는 자식에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도록 종용하지 않고 서로 의논을 하고 절잘못을 가려서 그리고 올바르게 실천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주 독재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점은 아들의 반항을 통해서도 제시된다. 아들의 차원에서 보면 나의 교육은 강요적인 면이 더 강할 것이다. 나 스스로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

우리 모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 현안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가족 모두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형의 가족관계를 일구어 내는 데는 쉽지 않다. 그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과 정성은 엄청나다. 특히 인내가 요구된다. 아울러 내 자신도 우리가 규정해 놓은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내가 그 규율을 어기는 것이다. 시간이 없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이 점이 바로 자식에게 비판의 근거가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이나 주위 환경을 보고 거기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 방향을 설정한다. 그 점을 아들의 생각에서도 읽어 낼 수 있었다. 아들은 이모 식구들이 잘해 주어서 언제 한국에 또 갈 거냐고 묻는다. 그러면서도 한 마디를 덧붙인다. 누나와 형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이모가 야단치면 형과 누나는 한 마디의 대꾸도 못 하고 빌고만 있었다고 이 점이 아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이다. 아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해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래. 네가 날 그렇게 야단치면…….”

아들의 말에서 부모들의 일방적인 규율에 대한 일종의 반항을 볼 수 있다. 하기야 반항 없이 어떻게 부모의 일방적인 압력과 권력을 제지하고 한계를 그을 수 있겠는가.

아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와 동등하다는 표현이자 엄마의 권위를 해체시키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푸코⁴⁾는 언어에서 권력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엄마의 개념은 단순하게 아기자기한 감정의 표현만을 함유하는 게 아니다. 그 속에는 엄마의 권력과 권위도 숨어 있다. 그래서 아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습관에도 있지만 한 독립된 개체로서 보아야 한다는 함의도 있다. 아울러 반항도 포함되어 있다. 반항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근본적인 행위이기도 한다. 민주적이지 못한 권위나 힘에 기인한 권력에 대결하지 않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유리한 점을 포기하려고 하겠는가. 이 인식을 바탕으로 나는 민주적인 이론을 현실로 옮겨야 한다. 제대로 실천하는가는 아들과의 관계가 시금석

4) Foucault, Michel (1983): Sexualitaet und Wahrheit. Bd. 1: Der Wille zum Wissen. Frankfurt am Main; (1986a): Bd. 2: Der Gebrauch der Lust. Frankfurt am Main; (1986b): Bd.3: Die Sorge um sich. Frankfurt am Main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아들이 나의 긍정적인 면을 되도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독일의 속담에 이런 뜻이 있다. 모든 공부는 위(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수염이 덧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 아니겠어. 저 녀석 깊은 곳에 엄마의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 어떻게 따지고 이치만 밝히고 자성만 중요하게 여기고 머리만 굴리면서 살겠어. 엄마의 애정과 가슴의 문화를 배척한들 좋을 리 있겠어. 그러나 나는 안다. 정적이고 지적인 면이 융합되어 총체적(holistic)인 문화가 되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수많은 아름다움을 이루어 낼 것이다. 언어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부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머니의 기다림

올해의 청명은 일찍 찾아온 것 같다. 대지에 봄빛이 무르녹고 조심스레 눈을 뜨는 꽃봉오리가 유난히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봄날에 어김없이 더해지는 춘곤증은 왜일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춘곤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는 것이 이젠 생활이 지장을 받을 정도였고 그래서 약국을 집 드나들듯 한다.

춘곤증에 시달리다 지쳐서 깜박 졸았는데 꿈결에 어머니를 만났다. 머나먼 시골의 오붓한 고향집 채마밭 앞에 간신히 서시어 주름살 가득한 이마 위에 손을 대고 깊숙히 껴져 들어간 두 눈을 찡그리고 기차역 쪽을 바라보시며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꿈 속에서 본 어머니의 주름살은 기다림의 역사로 안겨 왔다.

세월은 기다림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얼굴에 인생의 고달픈 연륜을 그어 갔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대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어머니가 너무 그립다. 올해 초봄에 어머니는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저 멀 하늘 나라로 가셨다.

청명날 밤, 나는 이 곳 중국의 한족 사람들 습관대로 십자거리에 앉아 누런 종이 돈을 태웠다. 어머니의 가슴에 근심만을 더해온 이 딸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서……. “엄마!”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내어 어머니를 불렀다.

‘만약에 나에게 돈이 많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선생 노릇을 안 했더라도…….’

평계도 안 될 ‘만약……’으로 어머니 생전에 해 드리지 못한 걸 미봉하려했던 내가 너무 초라하다.

이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무더운 여름에도 가마니를 짜시고 추운 겨울엔 짠지 장사를 하시면서 개학 때마다 이불짐을 손수 머리에 이시고 역전까지 바래다 주시던 어머니, 여섯 남매 중에서 유독 나에게만 용돈을 많이 주셨기에 나는 늘 형제들의 질투를 받았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길림시에서 수천 리 떨어진 하얼빈으로 전근되어 학교에서 무용 교원 노릇을 한 지도 어언간 20여 년이다. 예술제와 축하공연은 왜 꼭 여름 방학 기간에만 하는지? 애들과 쿵짜짜 하다 보면 한 달 휴가도 홀쩍 지나고, 나는 바쁘다는 평계로 어머님께 전화도 몇 번 못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신지 채마밭을 다루시다가도 허리를 펴시고 한참

씩이나 사라져 가는 기차를 지켜보신다고 한다(친정집 마당에서 기차역이 보인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닌 십여 년을 그렇게 해 오셨다. 어쩌다가 고향 집에 들르면 어머니는 “바쁜데 왜 왔나? 곧 개학할 텐데…….”라고 하시지만 나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무척 기다리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겨우 하루 이틀을 어머니와 함께 지낸 내가 떠날 채비를 하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행장을 챙겨 주셨다. 나는 오는 방학에는 꼭 일찍 와서 여러 날 머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마냥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흔들리는 차창을 물끄러미 내다보며 나는 애써 눈물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서운한 눈빛으로 홀로 플랫폼에 서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 순박한 사랑과 말없는 그 행동에 실로 목이 메인다. 어머니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질고 자애로우시며 모든 고귀한 품성을 한몸에 지니신 분이라고 외치고 싶다.

17세의 꽃나이에 고국을 떠나 60여 년을 부득이 타향에서 살아 오시면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해 하신 어머니이시다. 그 곱고 하얗던 어머니의 이마에 장마철의 물줄기가 흘러간 골짜기처럼 깊숙히 패인 그 주름 속에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뜨거운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릿발 같은 위엄도 있었다.

작년 8월에 있은 일이다. 여름 방학 기간에 전국 소년아동예술제가 하얼빈에서 있었다. 나는 이번 여름 휴가도 어차피 고향에 다녀오지 못할 바엔 어머니께서 오시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바쁜 나에게 짐이 된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니 그래도 딸이 보고파서였던지 오빠의 부축임을 받으며 하얼빈에 오셨다. 하지만 나는 공연

준비로 바쁘다 보니 남들이 다 가는 태양도 공원에도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깨우시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창 밖에서 구질구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심한 척주병에 견주염까지 있는 나는 날씨가 흐린 탓인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다. 그 날도 나는 늦어서야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헌데 웬일인지 집안의 물건들이 방 여기저기에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남편은 벽에 벽지를 붙이려고 그랬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만 화가 치밀어 손에 든 가방을 내던지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필이면 엄마가 와 계실 때 할 건 뭐예요?”

일요일과 방학도 따로 없이 돌아치는 나 때문에 집안팎 일을 혼자 도맡다시피 해야 하는 남편도 이젠 지쳐 있었다. “당신 돋지 못할 거면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다 쉬는 방학에 무슨 춤이요 매일 아프다, 힘들다는 소리 이젠 지겨우니 짹싹 걷어 치워.” 나와 남편은 오래도록 음성을 높이며 다투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 날 밤, 나는 웬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언젠가 아들녀석이 “엄마, 방학간에 춤 배워 주면 교장 선생님이 돈을 더 많이 줘요?” 하고 철없이 묻던 일, 가끔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면 후다닥 일어나 거울 앞에서 손발을 놀려 보다가 예모지에 적어 두던 일, 그런 나를 보고 제 정신이 아니라며 그놈의 춤 이젠 좀 그만 추라고 화를 내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돌도리가 잘 안 되는 애들에게 수없는 시범을 보여 주다가 발목을 다쳐 통통 부은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침을 맞던 일들이 자꾸만 눈앞을

스쳐 지났다.

삼라만상이 깊이 잠든 밤, 나는 베란다로 나와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든 교원 직업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었는가 하고 생각을 굴려 보았다. ‘훈장 뚝은 개도 안 먹는다.’는데 교원직 가운데서도 제일 힘들고 애탄 무용 선생 노릇을 달갑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문득 눈앞에 귀여운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 나타났다. 저 하늘의 깜박이는 별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눈동자가 되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 별은 금영이 그리고 저 별은 미란이……. 저 애들도 지금은 나처럼 ‘춤 귀신이 되어 곳곳에서 오색영롱한 빛을 뿌리고 있지 않은가! 중국, 십삼 역 인구가 사는 이 넓은 세상에서 오직 우리 민족의 흔과 정을 담은 춤 하나만으로도 말없이 민족을 자랑하는 홍보대사들을 키우는 내가 아닌가?’ 나는 웬지 가슴이 뿌듯해 났다. 내 삶이 만족스러웠고 아무런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이튿날, 나는 저녁 늦게야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께서는 책상서랍을 정리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서랍에 가득한 짧간 영예 증서들을 보시며 물으셨다.

“애, 이게 다 뭐냐?”

나는 영예증서들을 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하루의 피곤이 짹 가셔지는 듯했다. 나는 내가 춤을 잘 배워 줘서 받은 상장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하나둘 세어 보시더니 이렇게 좋은 걸 왜 벽에 붙여 놓지 않고 서랍에 넣어 두느냐고 물으셨다.

“엄마, 그런 걸 뭐 벽에 붙여 놓겠어요” 나는 전국 및 성, 시 예술 축제에서 받은 수두룩한 증서들을 어머니께 자랑스레 보여

드렸다.

“네가 이렇게 바쁘게 보내느라고 방학이 따로 없었구나.”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아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인자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에 전에 없던 엄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학교일 잘 하려면 몸과 마음이 다 편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도 알아야지. 너 힘들다고 짜증내면 식구들도 힘들어지고 학교일 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게 아니냐?”

“엄마!” 나는 눈물이 월칵 쏟아져 내렸다. 지금까지 쌓이고 쌓였던 피곤과 스트레스를 다 쏟고 싶었다.

예술제가 열리던 날, 어머니는 애들이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마치도 어릴 때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며 눈굽을 적시었다. 무대 위에서 내가 무용 창작 특등의 영예증서를 받아 안을 때 어머니는 또 한번 눈물을 흘리시었다.

저녁에 나는 난생 처음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갔다. 나는 어리광을 부리며 꽃다발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 드렸다. “엄마, 엄마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그 꽃다발을 다시 내 품에 안겨 주셨다. 순간 나는 가슴이 뚱 를해났다. 나는 꽃다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애써 눈물을 감추며 그윽한 꽃향기를, 아니 어머니의 향기를 한껏 맡았다.

어젯밤 꿈결에 또 어머니를 만났다. 고향집 앞마당에 서서 기차역 쪽을 바라보시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인간은 다 뭘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의 기다림처럼 초조하고 신성하고 커다란 그런 기다림은 세

상에 없을 것이다.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어머니는 뭘 기다리시며 살아오셨을까? 일제시대 때,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종군위안부로 끌려갈까 봐 아버지와 벼락 잔치를 시켜 중국 땅으로 보내셨다고 한다. 1년 후엔 꼭 다시 고향을 다녀오리라는 꿈과 희망의 기다림으로 장장 60여 년을 살아오신 어머니…….

그렇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 옛날의 어여쁘던 어머니의 얼굴에 세월의 연륜이 아로새겨지고 애태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쇠잔한 모습에는 한 가닥의 그리움만 남으셨다. 다만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아픔도, 슬픔도, 마음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쾌락도, 행복도, 애정도…… 드넓은 흥금에 오직 식을 줄 모르는 사랑만이 흐르셨던 어머니의 마음은 정녕 바다이고 하늘이었다. 우리 민족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다 이러한기에 고향도 마을도 더 정답고 더 그리운 것이 아닐까?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한없이 그리워한 사람도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도 모두 그대로 남겨 두고 저 어둡고 낯선 곳으로 쓸쓸히 사라져 가셨다. 춘하추동 모든 것을 기다림 속에서 맞이하고 기다림 속에서 지새우시더니 이젠 너무 지쳐서 그만 가셨나?

나도 이젠 대학생을 가진 어머니다. 방학 때면 딸애가 오기를 초조히 기다리는 어머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께서 그 힘든 기다림을 왜 계속하셨는지? 뭔가 기다릴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란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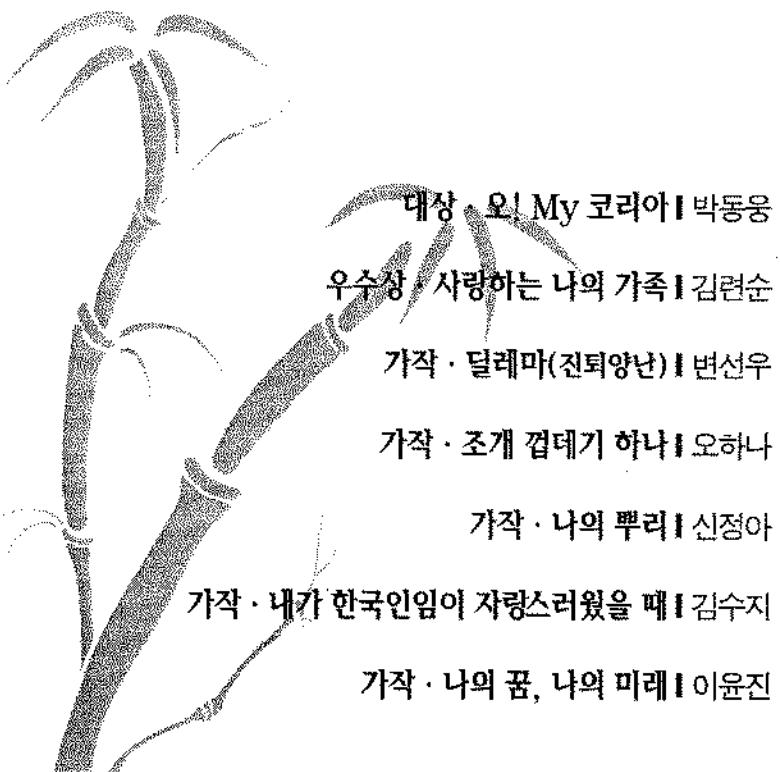
어디선가 향기가 느껴진다. 어머니의 향기가 먼 고향에서 바람을 타고 내 코로, 내 가슴으로 전해져 온다.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시며 밝은 미소와 진실한 마음으로 내 인생에 불꽃을 지펴 주신

어머니, 먼 하늘 나라에서도 늘 지켜 주고 계시기에 나는 외로워
도 서럽지 않고 넘어져도 아프지 않다.

나는 오늘도 무용실에 들어선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예쁜 자태를 뽐내는 무용수들을 바라보노라니 다시 한번 벅찬 보
람을 느낀다. 그렇다. 나는 다음 세상에도 엄마딸로 태어나 무용
선생님이 될 것이다. 왜냐구요? 한번 해 본 일이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짬짬이 여가를 타서 어머님 뵈러 고향에도 자주 다녀
오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머니도 기다림에 지치시지 않을 것
이고 나는 20여 년이나 지지 누르던 이 춘곤증 같은 ‘병’도 뚝 떨
어질 것이 아닌가?

울 여름 방학에도 공연 준비로 눈 코 뜰 사이 없다. 하지만 마
음은 항상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듯싶은 고향에 가 있다. 하지
만…….

청소년글짓기





오! My 코리아

1991년 3월 2일,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기쁨에 나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김포 공항을 향했다. 고생길이 훤히하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마냥 좋다고 공항 안을 동생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생생하다. 외할머니께서는 나와 엄마를 불잡고 많이 우셨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하지만 그 당시 나로서는 외할머니와 엄마, 두 분 모녀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6살 꼬마의 환상, 참 순수했던 어린 시절, 나는 외국이라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높은 빌딩이 많고 밤 거리는 불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줄만 알았다. 이런 상상도 잠시,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외국에 대한 나의 환상은 한낱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노이 아끼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전기 시설의 허술함 때문에

캄캄한 밤은 더 캄캄했으며,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고, 그 더위와 어두움 속에서 눈 크고 시커먼 필리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 하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원망하지 못했고, 나는 필리핀으로 데리고 온 애꿎은 비행기만 탔했다.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내가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과 그와 동시에 나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 이 외에는…….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나는 하복의 구두를 신고 등교를 해야 했다. 학교 교칙이 그랬다. 눈 큰 왕눈이들과 함께 시작되는 나의 하루는 지옥 같았다. 문화 충격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언어의 차이, 어린 나이에 이것 을 감당하기란 나에게 있어서 죽기보다 어려웠다. 나는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으며 한국인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냥 신기한 눈 으로 나를 쳐다보기만 했지 어려워 도움을 청해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인 나를 골탕을 먹였으며, 상처를 주었고, 나와 놀 면 안 된다는 법칙까지 만들어 놓고 나를 따돌렸다.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짓눌렀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점과 학교에서의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위치, 모든 것이 날 힘 들게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난 말보다는 짹짹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의태어로 부모님 께 폐를 쓰고 두 분께 깊은 상처도 많이 안겨 드렸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조개가 자기 안으로 들어온 흙을 아픔과 고통을 참아 내며 아름다운 진주

로 승화시키듯이 나도 모든 아픔들을 하나하나씩 해쳐 갔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영어와 필리핀 언어인 파갈로그 어가 자리를 잡아 갔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나는 더 큰 장애물을 만났다. 바로 한국말이었다.

한국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가 자리를 잡아 가자 내 한국어 능력은 점점 떨어져 갔고 부모님과 대화마저도 힘겨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부모님과의 대화수도 점점 줄었다.

나는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다. 내 과거에 영어를 하지 못해 고통스러워야 했던 것에 비하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잊는다는 말처럼 난 점점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는 생각보다는 내 부모님의 나라, 한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인 부모를 둔 필리핀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 외쳤다. 이런 나를 부모님은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1994년 무렵에 한국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생겼다. 이 곳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기독인, 국제인, 한국인으로 키우겠다는 교육 이념 아래 세워진 학교다.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난 이 새로 세워진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별 생각 없이 부모님의 뜻을 따랐다. 난 얼마 안 가 부모님 뜻의 따랐다는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자괴심 그리고 빠져 린 아픔을 느껴야 했다. 난 또다시 내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왔으며, 기초부터 닦지 못한 내 한국어 실력이 들통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내 자신이 짜증났고 점점 지쳐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때의 비참함이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때로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수치스러웠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한국인이라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방황은 계속되었다. 시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나의 태도는 점점 비뚤어져 갔다. 이런 나를 기도와 눈물로 바라보셨던 엄마 아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죄송하다.

부모님의 끝없는 눈물과 현신으로 인해 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고 성격도 바르게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갔다. 나의 정체성, 내 성격,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말이다. 내 성격이 변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확실한 가치관이 자리잡았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거리에서나 백화점을 지나면서 볼 수 있는 우리 나라 상품들은 나의 긍지와 자존심이다. 특히 필리핀 사람들이 국산품이 좋다고 두 엄지를 올릴 때면 이 곳에서의 고생이 값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한국인으로서 더 기쁜 것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한국 방송을 이 나라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필리핀 영어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로 하는 대화는 텔레비전에서의 한국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그들 눈에 비춰지는 우리 나라의 모습은 환상 그 자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나라 연예인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우아하다고 극찬을 한다. 비록 우리가 하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국 유행과 문화를 사모하는 그들을 보면서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나와 같은 기분일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이야말로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 주었다. 택시를 타도, 필리핀 친구를 만나도 항상 외쳤던 한 마디 오! 필승 코리아, 오! My 코리아. 그들에게 나의 조국, 한국을 알린다는 것은 기쁨이고, 이 곳 사람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알아 주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우여곡절 많았던 필리핀에서의 생활 13년, 내 기억 저편 하나의 추억이 되어 버린 지난 일들을 회상해 본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은 소중한 추억이고 경험에 있기 때문이다. 6살 어린 나이로 필리핀에 왔던 꼬마가 지금은 고3이 되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내 미래도 한국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내 작은 소망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내 모습도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뒷속에 흐르고 있는 한국인의 자존심과 긍지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나는 한국인이다.



김련순

원상 / 異象

사랑하는 나의 가족

“똑똑똑똑…….”

“빼걱~, 빼걱~, 빼걱~.”

엄마의 고르로운 채 써는 소리와 아빠께서 물을 잣는 소리에
우리 집은 새 아침의 커튼을 열어제친다.

내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언제나 엄마께서 집안을 향해 소리를
지르신다.

“련순아, 빨리 일어나 옷 입고 나와서 세수하라!”

나는 옷을 입을 염도 하지 않고 문 사이로 귀를 댄다. 엄마, 아
빠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저께 오후에 얼마나 우스웠는지 아오? 내가 애들한테 문제
를 냈는데 버스에 바퀴가 몇 개 있는가고 물어봤소. 그랬더니 별
별 대답들이 다 있소. 네 개요, 여덟 개요, 또 한 얘는 다섯 개가

있다지 않겠소? 허허허…….”

“호호호…….”

엄마께서 들으시고 즐겁게 웃으시었다.

이 때 동생 송매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나를 보았다. 나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지만 송매가 정주간에 대고 소리쳤다.

“엄마, 언니 봐.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다 들어!”

엄마는 이 말을 듣고 문을 훼 열더니 대뜸 나의 얼굴을 아프지 않게 비틀어 놓았다.

“아가갸, 아파라! 엄마, 아니 어머니, 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게요. 네?”

나는 일부러 엄살을 부리며 소리쳤다. 그러자 엄마도 우스운지 소리내어 웃으신다.

이렇게 우리 집은 웃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오늘은 휴식일이다. 숙제는 어제 다 하였기에 할 일이 없었다.

나는 도랑에 빨래를 하러 가시는 엄마의 뒤를 몰래 밟았다.

엄마는 도랑에서 쓱싹쓱싹 빨래를 하고 계셨다. 나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엄마의 어깨를 톡톡 쳤다. 엄마는 깜짝 놀랐는지 어깨를 들썩였다. 엄마는 뒤로 돌아보시더니 나를 훑어보며 “요 가시나 새끼!” 하며 나의 엉덩이를 살짝 쳤다. 나는 학교에서 있은 일이랑 우스운 얘기랑 엄마한테 말하며 웃음꽃을 피우며 엄마와 함께 빨래를 하였다.

점심밥을 먹은 후 온 집식구가 낮잠을 잤다. 그러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 집에는 이상하게도 아빠가 코 고는 게 아니라 동생 송매가 코를 고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남

의 몸뚱이 위에 다리도 아주 잘 엎어 놓는다. 동생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친구네 집에 갔다.

내가 밥 먹을 시간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빠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헤매다가 끝내 나를 찾아 자전거에 앉혀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 온 집식구는 텔레비전을 보았다.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었지만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보았기에 더욱 재미있었다.

이처럼 우리 집은 매일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하루의 생활을 웃음으로 지낸다.

비록 아빠의 400㎖ 원밖에 안 되는 달달의 노임으로 살아가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집이다. 그래서 나도 항상 기분이 좋다. 우리는 다른 집 애들처럼 마음대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우리 집을 미숙이네 집과 비교하면 정말 거리가 너무 멀다. 그의 부모는 모두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왔기에 아주 부자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자주 싸움을 하기에 미숙이는 행복하지 못하다. 때론 그의 엄마가 밥을 하지 않아 그는 빵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

우리 엄마는 몇 번이나 돈 벌려 가려 했지만 나와 송매가 고생할 것이 안타까워 계속 우리를 지켜 주고 계신다. 우리 엄마는 나와 송매를 지극히 관심하고 사랑한다. 어느 한 번, 한 학생이 아빠에게 사랑 두 알을 줬다. 집에 들고 오신 아빠께서 사탕알을 입에

넣으려 하는데 엄마께서 인차 빼앗아 나와 송매에게 각각 하나씩 주셨다. 아빠는 너무도 한심하여 입만 헤벌레 벌리고 계셨다.

우리 아빠는 교원으로서 사업이 매우 바쁘지만 늘 엄마와 웃음 꽃을 피우며 엄마 일손을 도와 주시기에 엄마는 매우 즐거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알 때까지 설명해 주신다. 그리고 아빠는 익살쟁이여서 아주 웃긴다. 휴식일에 가정 오락회를 열 때마다 아빠께서 사회를 맡아 하신다. 아빠께서는 사회를 하실 때 엉덩이를 흔들고 머리와 팔까지 흔들며 말씀하셔서 우리는 배를 그리안고 웃는다.

이처럼 엄마, 아빠께서 모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하기만 하다.

그리고 나의 동생 송매는 개구쟁이면서도 심술쟁이이다. 그러나 인정이 많아 아주 귀엽다. 내가 아플 땐 이불을 꺼내 누운 나의 몸 위에 덮어 준다, 베개를 꺼내 준다 하여 설치지만 심술을 부릴 때도 있다. 엄마가 어쩌다 나의 옷을 사 오면 입이 뿐로통해져서 책 돌아앉다가 내가 없을 때면 나의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고는 흙장난을 하고 물장난을 하여 나의 옷을 다 버린 후 또 벗어서 한쪽 구석에 밀어 넣는다. 정말 못 말릴 동생이다. 그러나 나는 동생을 아주 관심한다. 동생이 대변보고 엉덩이를 닦아 달라면 서슴없이 닦아 준다. 그 후로 동생이 계속 엉덩이를 닦을 줄 몰라 방에서 종이를 가지고 엉덩이 닦는 방법을 배워 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거의 다 차지하는 애다. 공부도 잘하고 글짓기도 특별히 잘한다. 그리고 또 암전한 성격 때문에 선생님의 사랑을 여느 애들보다 더 받는다. 그리고 또 발언도 대

답하게 하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설복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차근차근하면서도 덤빈다.

나와 송매는 때론 작은 일 때문에 말다툼할 때도 있지만 인자 옷고 떠들며 같이 논다.

우리 집은 화목하지만 때 사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아빠 와 나는 모두 내성적이면서도 활발하고 아주 섬세하지만 반대로 엄마와 동생은 활발하고 데면데면하며 성미가 급하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나와 아빠가 한편, 엄마와 송매가 한편이 되어 의견을 발표한다.

우리 집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지만 우리 집 식구들이 더욱 사랑스럽다. 아빠는 푸른 산이 되어 우리 집은 푸르고 든든 하다. 엄마는 시냇물이 되어 우리 집은 즐거움이 넘쳐 흐르고 항상 깨끗하다. 나와 동생은 새가 되어 우리 집은 더욱 재미있고 노랫소리가 끝없이 흘러 넘친다…….



딜레마(진퇴양난)

나는 분명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이 뜨거운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라는 곳에서 자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미얀마라고 하면 불가사의한 고대 나라를 떠올리곤 한다. 물론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나라의 특이한 점도 많다. 금빛 찬란한 파고다들이 여기저기 우뚝 서 있지 않나, 남자들이 ‘롱지’라는 치마를 입고 다니지 않나, 아니면 붉은 천을 두른 중들이 긴 줄을 서서 밥을 구걸하러 다니질 않나…… 그리고 날씨는 또 왜 이리 더운지……. 요즘엔 비만 요란하게 올 뿐이지만 더운 건 마찬가지이다. 확실히 한국이랑 많이 다르다. 한국에 계신 우리 할머니께 선 한국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자고 자주 그러신다. 하지만 난 미국식의 영어를 쓰는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의 엄격한 학교 생활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럼 난 대체 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가. 한국의 역사도, 문화, 예절, 하물며 한국의 말까지 잘 모르는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에게 무슨 의미를 지닌 것 일까?

우리 학교에는 미국 사람에게 갓난아기일 때 입양된 한국 아이가 있다. 생긴 건 꼭 한국애처럼 생겼지만 그 애는 한국 말도 모르고 미국풍이 풍긴다. 또 한 오빠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께선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시고 그 오빠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정말로 미국 사람인 줄 알았다.

나랑은 조금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비슷한 혼란을 겪게 된다. 만약에 시민권이라는 종이 하나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뿌리, 고국 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런 질문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나는 내 뿌리와 나의 고국에 대해 생각할수록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내가 어느 곳에 속하는지……, 어디가 나의 진짜 집인지……, 그런 딜레마에 헤매일 때 한 나라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언젠간 그 나라를 책임질 거란 걸 기억하면 그 사실이 얼마나 힘과 위로 그리고 가족 같은 따스함을 주는지 모른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기보다 조직이 더 어울리는 말이지만 좋게 말해서 ‘가족’처럼 모두들 다 쟁겨 주고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절대 혼자라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언제나 가족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이 딜레마에서 깨어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이런 질문들에 헤매일 필요없다. 왜냐하면 날 인정해 주고 내가 분명히 속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난 예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깨닫지 못할 뿐이었지.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칭찬을 들어도 마치 내 칭찬을 한 듯 기분이 좋아졌다. 다른 아이들이 한복을 입은 날 부러운 눈길을 줄 때도, 아이들이 비록 호기심에서 그랬지만 한국 말을 배우고 싶다고 할 때도 나는 저절로 우쭐해졌다. 반대로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건 심판들이 개최 나라여서 너무 봐 준 덕이라는 등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 안에서 불끈하는 느낌에 혼자 흥분하곤 했다. 많은 혼란 속에서도 내 안에는 이제껏 또렷한 한국인이 숨 쉬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고국’이란 건 나에게 많은 영향과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나의 고국은 마치 부모님과 같다든 것,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부모님의 별린 팔이 되어 주고, 뒤돌아보면 서 있는 든든한 등뼈가 되어 주고, 나를 울고 웃게 하는 나의 고국 대한민국.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혼자서 방황해도 부모님은 언제나 부모님인 것처럼 영원한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이다.

조개 껍데기 하나

오하나 | 가작 · 뉴질랜드

수줍어 붉은 해 곱게곱게 부서져
검푸른 바다 위 사뿐히 내려앉고,

끼룩끼룩 갈매기 바람을 등에 이고
고단한 고깃배 뒤를 쫓으면,

저 멀리 수평선 끝자락에,
보고픈 얼굴들, 떠오르는 옛 추억…….

짭쪼름한 바닷내음
내 눈물 스치울 때,

보드라운 모래 위에
외로운 조개 껍데기 하나.



신정아

개학 / 열광

나의 뿌리

이제 영국에서 산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길고도 짧은 세월인 듯하다.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호칭 ‘재영교포’도 어느 새 친근하게 느껴지고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주위에선 10년째 영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굉장히 놀라는 눈치다.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지는데 ‘그래도 아직 한국 사람 같네.’ 아니면 ‘어떻게 버텼을까.’이다. 그럴 때면 난 살짝 미소를 짓는다. 솔직히 나에겐 10년이라는 세월이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아마 매일매일 새로운 걸 느끼고 배우기 때문일 것이다.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영국 땅을 처음 밟았던 나는 어느덧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며 살아가는 숙녀가 되었다. 사춘기를 해외에서 보내면서 느껴 왔던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편을 듈다.

어린아이의 두 눈으로 보이는 영국은 신비로우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아무래도 한국과 달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원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푸른 세상…… 날씨가 좋을 때면 모자를 쓰고 나가서 아빠, 엄마와 연을 날리던 추억도 있다.

어린 나이에 해외로 나와서인지 큰 어려움 없이 적응했던 거 같다. 그 맨 몰랐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게 편하고 즐겁게 영국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이해심과 인내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만나서였던 거 같다.

예의바르고 어디서나 질서 있게 줄 서는 걸로 유명한 영국 사람들. 역시 나도 이런 면을 처음 보았을 때 참으로 감동받았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움도 없진 않았다. 그래서 보통 영국에서 3, 4년 살다 간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의 좋은 면만 접하고 가는 게 대부분. 하지만 오래 지내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 매너는 좋지만 정을 줄 줄 모르고 자존심도 강한 편이라 변화를 싫

어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많다. 정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나라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서로 감싸 주려 노력하는 한국인들.

또, 하루빨리 성장하고 있는 도시와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시골의 향기가 이루는 조화는 한국이 내세울 만한 특징 중 하나인 거 같다. 어쩌면 한국을 떠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영국에서 살게 된 걸 행운으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유럽도 좀더 쉽게 가 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나의 문화가 아닌 것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된 거 같다. 살면서 가끔 느끼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새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같다. 영국 사람들도 아직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더 추구한다. 미국 커피숍이나 식당 체인점이 부쩍 느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영국도 많이 변한 거 같다. 영국 한 동네에 가면 LA 코리아타운의 미니버전을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한국인의 세력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본받을 만한 건 본받고 옮기지 않은 건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음 한다.

주위가 변한 만큼 내 자신도 영국 생활을 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심을 잊지 않도록 힘이 되어 준, 쉽게 말하면 나한테 소중한 몇 가지를 나누며 이 글을 마감하려 한다.

누구나 한국을 떠나와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겪어 봤을 만한 외로움……. 아마 친구들 없이 견디긴 힘들었을 것이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쌓아온 우정들……. 어떻게 보면 무척 이기적인 나, 그런 내가 힘들어 해맬 때마다 이끌어 주었던 친구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못했던 거 같다.

그 다음으로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족. 더 열심히 살고 싶게끔 항상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엄마, 아빠.

마지막으로 나에게 중요한 건 바로 하느님이시다. 영국에 와서 얼마 안 되어 알게 된 하느님. 솔직히 원망도 많이 했었고 믿음이 부족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에는 다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나의 믿음이 어느덧 성장한 거 같다. 떠나온 지 오래 된데도 불구하고 조국이 그리울 때도 하느님은 마치 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듯 힘을 주신다. 어쩌면 나는 그 힘에 용기를 얻고 영국에서 용감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듯이 앞으로 겪을 일들도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 거쳐야 되는 길인 거 같다. 비록 한국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영국에서 열심히 살아나가려 한다.



김수지

기자 / 소설가

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을 때

난 여기, 라스팔마스에서 태어나 스페인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난 내가 한국인임이 너무 괴롭기도 했다.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중국 애라며 놀림받는 이 섬에 사는 청소년들의 심정을 한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스페인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사귀었지만, 역시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그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 때가 많다. 그러나 여긴 한국에서처럼 반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놀림받는 것도 나에겐 참기 힘든데 따돌림까지 받았더라면 지금 내 심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분명 내가 한국인임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을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고작 놀림받고

파돌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저주했을 거라는 게 너무한 생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의 심정일 뿐이다. 지금 내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에는 왕따시키는 일이 여기보단 흔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곳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으로 대학 간 언니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거의 다 외국에서 그냥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과 애들로부터 많은 파돌림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왕따시키면 되겠는가?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갔더라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게 아닌가? 중학교부터 성적이 너무 좋아 그냥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성적만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도 알미울까? 그들은 힘들게 공부하고 애써 들어갔는데 다른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들어갔다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겠지만 그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역시 너무 분하고 억울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은 부끄러움이 아닌 나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작년 여름 월드컵 때에 나는 처음으로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다. 한국 축구 선수들이 4강까지 갔다는 이유로 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다는 게 아니라,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축구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그 곳엔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놀라웠었다. 이 일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이리저리 날뛰었지만 의외로 이 곳의 아이들은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다. 다만 스페인이 한국과 시합했을 때 졌다는 게 그저 불만스럽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던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기만 한 것을……. 역시 한국 사람인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었다. 설사 내가 또 한국인임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을 합쳐 응원한 후 그 자리에 깨끗이 차우는 한국인의 그 모습은 언제까지나 내가 한번 쯤은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한국에 놀러가기 전 스페인 몇몇 사람들의 성격을 기억해 둔 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스페인 사람들의 성격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동안 난, 친절한 사람들은 한 두 명밖에 못 봤다. 불친절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보다 2살 아래인 어떤 애의 그 사나운 성격이 기억에 남는다. 친구들과 함께 차고로 들어가는데, 어떤 꼬맹이가 ‘비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것도 자전거에서 내리면서 소리지르는 것이었다. 우리와 부딪힐까 봐 소릴지를 것도 아닌데 왜 비키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다. 옆으로 공간은 많은데 왜 그렇게 우리 사이로 지나가고 싶었던 건지……. 우리들은 못들은 체하며 지나가는데 그 애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왜 자기 말을 안 들느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잘 지나갔으면 됐지 그렇게 화낼 이유가 뭐 있느냔 말이다. 그리고 나선 자기 언니를 부르겠다며 덤비는 것이었다. 참 어이가 없었다. 그 후로 한국 애들은 거의 다

성격이 저렇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사는 애들과는 가까이 하질 않았다. 스페인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양전하게 지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행동하는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친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다.

몇 달 전 채널 선이라는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그 방송에는 한국 프로가 여러 가지가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친절 시민’이라는 방송을 보고 “한국에도 친절한 사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성격의 다 그렇게 거칠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것인데,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그 나라의 몇몇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컴퓨터 기술, 자동차 기술 등을 배워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그제서야 난 이 뉴스를 듣고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이 아주 발전되고 있어서 한국을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후에, 난 너무나도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고 나도 언젠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게 되었다. 혼히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결심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이를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각자의 운명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깐 말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필사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를 수 없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내 자신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나라 대한민국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윤진

가지 / 칠레

나의 꿈, 나의 미래

옛날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미술 학원에 다녔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쉬웠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혼자서 해야 했는데 색깔 부분에서 참 어려웠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져 미술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 때부터 동물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물고기를 길렀는데 어항에서 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나는 물고기들이 노는 걸 보는 게 즐거웠다. 그 조그만 어항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참 신기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일 큰 게 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 먹었다. 마지막에는 한 마리만 남았는데 왜 그런지 얼마 뒤에 그냥 죽고 말았다. 나는 너무 슬퍼서 물고기는 안 기르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엔 햄스터를 기르게 되었다. 한 마리가 자기 집에서

잘 놀았다. 혼자는 외로울 것 같아서 한 마리를 더 넣었는데 얼마 후 먼저 있던 햄스터가 다른 햄스터한테 맞아 죽고 말았다. 다른 햄스터도 얼마 안 가 죽고 말았다. 그런데 원래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왜냐하면 엄마가 수의사한테 데리고 갔다고 해서 나는 그 말이 정말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햄스터는 결코 다시 안 왔다. 그래서 죽었다는 걸 알았다.

그 다음엔 기니피그를 길렸다. 그런데 내 친구 설이랑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동산에 기니피그와 설이의 토끼를 데리고 갔는데 기니피그가 도망갔다. 나는 너무 슬펐다. 나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온 후 동산에 기니피그를 찾으러 갔다. 찾기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잔디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기니피그를 발견했다. 아주 말랐었고 더러웠었다. 그래서 먹이하고 물을 주었고 샤워도 시켰다. 1주일 뒤 또다시 기니피그와 산책하러 동산에 갔는데 다시 도망갔다. 나는 기니피그가 조그만 우리보다는 넓은 동산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에다가 내버려 두었다. 그런지 2주 일 후 일요일 아침에 어느 칠레 아이가 내 기니피그를 데리고 왔었다. 나는 아주 기뻤다. 그 다음부터는 별로 산책을 가지 않았다 (가더라도 줄을 매고 갔었다).

기니피그를 두 번째 잃어버렸을 때 나는 아빠한테 부탁해서 암 토끼를 샀다. 내 친구 설이의 토끼는 수놈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토끼들이 새끼들을 낳는 걸 보고 싶었다. 나와 설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뒤 토끼들과 함께 동산에 가 놀았다. 조그만 토끼들이 깅총깡총 뛰어노는 모습이 아주 귀여웠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너무 많이 자라서 지금 살고 있는 토끼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마당 있는 집에 사는 원의한테 주어야 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토끼와 헤어지게 되었다. 한참 뒤 똑같은 이유로 기니피그도 살던 곳에 돌려 주고 대신 거기에서 우리 집에서 기르기에 알맞은 (냄새도 나지 않고 크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북이를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주 슬펐다. 지금은 거북이하고 승현이가 준 재만 기르고 있다.

나는 이 다음에 아주 커다란 동물원을 만들고 싶다. 거기에서 동물들은 아주 자유스럽게 뛰어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을 보면서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내 동물원에는 다른 동물원에는 없는 동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동물원들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거기에서 동물들은 슬퍼하지도 답답해 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상 소감



지난 한 해는 내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큰 벽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
감과 충격의 나날이었다.

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일념으로 병간호에 매달렸었다.
어머니께서는 병석에서 가끔씩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고향의 옛
이야기를 들려 주시곤 했는데 우린 마치 기차를 타고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같았다.

처음 고향을 떠나던 날 책가방을 들고 기차에 오를 때 “꼭 잡아
야 돼, 떨어질라.” 걱정하시며 어린 가슴에 새겨 주신 그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나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게 한다. 내 삶에 정장을
차려 입히고 단추 하나 풀어 젖힐 여유도 없이 앞만 바라보고 살
아온 나날들……. 간이역이 있다면 내리고 싶었다. 내려서 지친
몸과 마음을 기대고 싶었다. 사람들이 그리웠다. 사람과 사람 사
이에 정이 흐르고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옛날의 만월 버
스 그 속의 사람들이 그리웠던 것이다.

고향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워지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고향은 언제나 나를 오라 손짓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곳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시였다.

고향에 가고 싶다는 단순한 꿈으로 작품을 낸 것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어진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잔이 넘치도록 기쁨으로 채워 주시는 그 분께 먼저 이 영광을 드리고 싶다. 부족한 작품을 선해 주신 심사위원들과 재외동포 재단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서로 격려해 주고 이끌어 주며 열심히 창작에 정진해 온 하와이 한인 문학동인회원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15년 동안 살던, 한라산 만큼 높은 산을 넘어야 호놀룰루 시가 보이던 집에서 와이키키 근방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에 여기저기 쳐박아 놓았던 물건들을 버리느라고 쓰레기 하치장을 작은 밴으로 여덟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서려 있는 추억과 쓰레기 하치장의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 버리고 말 것을 왜 그렇게 미련을 두었던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오년 전부터 기르던 진돗개 한 쌍이 있었습니다.

버릴 수도, 데려갈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력(?)에 좋다고 즐겨 먹던 보신탕도 그 녀석들을 키우면서 끊었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개답게 얼마나 영리한지 집 밖의 50미터 전방에서 내 차 소리만 들어도 난리 법석을 떨던 녀석들이었습니다.

둘레의 사람들에게 이들을 데려가 사랑으로 키워 줄 사람을 찾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도 늙어 버린 녀석들을 거두어 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사하기 하루 전, 농장을 경영하는 성당의 교우 한 분이 그 녀석들을 키워 주겠다고 나섰답니다.

밴에 그 녀석들과 그 녀석들이 즐겨 먹던 통조림 그리고 먹이

를 슈퍼에 가서 몇 박스 사서 농장으로 가는 길은 왜 그렇게 슬펐던지요.

눈치가 빤한 그 녀석들이 농장으로 가까이 다다르자 갑자기 날뛰며 한 녀석은 운전을 하는 내게 다가와 손등을 훑으며 짖어 대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녀석들을 억지로 끌어 내리고 농장 주인이 주는 끈으로 그들의 목에 걸었습니다.

파파야나무가 끝이 안 보이게 서 있는 낯선 광경이 그들에게는 더욱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지요.

짧은 끈을 갖고 간 끈에 연결시켜 최대한 길게 만들고 물통도 그들 가까운 곳에 옮겨 주었습니다.

그 녀석들은 두려움에 여기저기를 살피며 이리저리 뛰었지만 목에 걸린 끈이 기둥에서 그들을 붙잡아 매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파파야 한 박스를 내게 주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오려는 순간 그 녀석들의 울부짖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뎅그러니 파파야 한 박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과 파파야 한 박스와 바꾼 것만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파파야 하나를 꺼내 반을 잘라 내니 추억처럼 많은 사연들이 검은 파파야 씨와 함께 쓸어져 내렸습니다.

그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녀석들은 파파야 한 박스와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주고 갑습니다.

매일 그 녀석들을 찾아가고 싶지만, 그럴수록 그 녀석들이 더 적응을 못할 것 같은 생각과 농장 주인에게 폐가 될 것 같아 자주 가 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리움과 아쉬움입니다. 이렇게 상을 주신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그리움과 아쉬움을 승화시켜 좋은 작품을 쓰라는 말씀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당선 통보 전화를 받자마자, 내 가슴 안으로 커다란 호수가 만 들어졌습니다. 그 호수가 크나큰 파문이 일면서 출렁댔습니다. 갑격의 기쁨은 그렇게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나야말로 갑자기 어깨에 ‘날개’가 달렸는지 팔이 자꾸만 번쩍번쩍 올려졌습니다.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골을 넣었거나 이겼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또 산에 오르면,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면서도 왜 소리를 지르게 되는지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5수’만에 당선소감을 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동안 무려 4번의 가을을 낙담과 상처에 절여진 채, 길바닥에 뭉구는 낙엽처럼 헤매곤 했었지요. 뒤늦게 대학 입시생들의 재수, 삼수 하는 빼아픈 고통에 동참하는 거라고 오기서린 다짐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자신감은 점점 오그라들어서 마치 검불처럼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힘에 베거워서, 차라리 글쓰는 목적의 끈을 놓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응모하는 것 자체마저도 잊고 깨끗이 포기한 채, 자유롭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계 속에, 빛에 치어 버린 저는 날개가 접힌 작은 새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차디찬 얼음벽과 마주한 공간에서 오도가 도 못하는…….

벽을 피해 가려고도, 지쳐서 아예 날기를 체념하고 그냥 안주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끝없이 동경하는 푸른 창공을 향해서 다시 날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새는 언젠가는 하늘을 날을 것이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 때문에 희망의 실도 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맥없이 날개를 파닥이면서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나 봅니다.

드디어, 그토록이나 암담하고 길기만 하던 겨울이 가자, 그 견고하던 얼음벽도 녹았습니다. 작은 새는 그렇게나 고대하던 하늘을 향해 날개짓을 했습니다. 물론 그 넓은 하늘에서 제 자리를 마련한다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란 것도 잘압니다. 서막이 시작되는 지금부터야말로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단 것도 잘압니다. 그러나 내리고 주저앉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하늘 속에 안긴 기쁨은 분명 환희와 행복입니다.

독자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게 13년 전입니다. 갈수록 힘들어만 집니다. 그럴 때마다, 가까스로 추스르고 다시 쓸 수 있게끔, 많은 격려의 시선들이 저를 불들어 주곤 합니다.

“수고했어!”라는 말로 기쁨을 표시한 남편.

“엄마 대단해!” “기막혀!” 하면서 환호하는 딸과 아들.

“드디어 대상이야!” 하는 내 전화에 숨죽인 울음으로 침묵하던

동생들.

언젠가는 꼭 될 거라는 말씀으로 껴져 가려는 불을 지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따뜻하게 지켜봐 주던 친구들. 그리고 보니 이런 엄청난 기쁨의 순간도 주위의 응원군들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행복합니다.

부족해서 네 번이나 낙제했던 만년 후보생을 급제시켜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가 엎어질 때마다, 꿈 속에 오셔서 일으켜 주시곤 하던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이 영광을 돌리면서…….

남가주의 여름 날씨답지 않게 후텁지근하고 약간은 끈적한 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다. 마치 떠나온 고국의 여름을 연상시키는 그런 더위였다. 그런 더위가 한풀 꺾인 날,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내가 보낸 이야기가 대상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공부하고 싶어했을 때 나를 학교에 보내 주지 못한 고국이었다. 독학으로 공부를 한 후에도 자립의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했던 고향이다. 타국 생활이 10여 년쯤 지난 후부터 나는 고국을 무지하게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건 마치 산란기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본능이었다.

모처럼 고국 땅을 밟게 되어 기쁘다.

부족한 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이야기를 뽑아 주신 심사위원들과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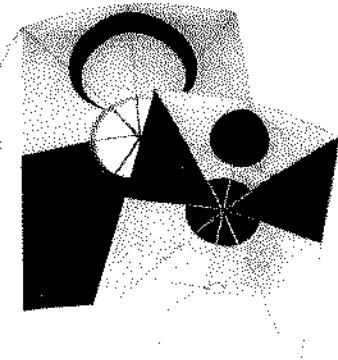
제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2003년 8월 20일 인쇄
2003년 8월 28일 발행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발행인 / 권병현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외교센터 6층)
전화 / (02) 3463-6500
팩스 / (02) 3463-2555
<http://www.korean.net>

제작 / (주) 도서출판 삶과꿈(02-756-0109)
비매품

본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재외동포재단에 있으며
본 재단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전재를 금합니다.



시

모든 예술 장르 중에서도 문학은 언어를 매체로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정신지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장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는 감성과 직관의 소산으로 글쓴이의 정서적 상황을 표출하는 데 용이한 부문이다.

본 문학상의 성격상 응모작 대부분은 이질적 문화현장에서 한민족으로서 갖는 갈등, 충돌, 화해의 정신적 경로에서 빚어지는 결과물로 모국의 문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소설

소설부문은 작년에 비해 월등하게 수준이 높아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모국의 소설문단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 태반이었다. 단편소설에 필요한 주제의 집중, 구성의 균형, 문체의 감수성 등이 잘 드러났고, 모국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읽음으로써 우리 소설의 지평을 그대로 받아 안은 작품이 많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민사회에 적응하는 삶의 고단함이 짙게 드러나 심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애틋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토양에 뿌리내리려는 모국산 수목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수필

초복날 심사위원 네 사람이 여의도 팬클럽 사무실에 모였다. 예상보다 응모작이 많은데다, 원고지 분량이 15매 내외여야 하는데 응모작 중에는 A4용지로 15매로 차각한 분도 많았다. 또 어떤 분은 작품 다섯 편씩 응모하는 바람에 심사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작품에 공통되는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였으며 해외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동포들의 마음이 심사하는 동안 내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생활수기

수필과 수기는 다 같이 진실의 기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필이 효과적인 구성이 필요한 문학적 장르라면 수기는 땀과 눈물의 기록으로, 읽는 이에게 공감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낯선 땅에서 고국과 다른 정소로 겪은 낭패감, 소외감,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크고 작은 사례들이 눈물겹고 장하게 생각된다. 단지 자신들이 겪은 한가지 한가지가 다 소중해서 대담하게 추려내지 못한 것들이 많다.

– 심사평 중에서